

2013 고구려발해학회 국제학술대회

고대 동북아시아 농경세계와 유목세계의 만남

Agricultural and Nomadic World :
Cross-Cultural Encounters in Ancient Northeast Asia

2013. 5. 24(금) 9:20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주최 - 고구려발해학회



한성백제박물관
SEOUL BAEKJE MUSEUM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세부일정

09:20~09:30 등록 및 개회식

개회사 한규철(고구려발해학회회장)

축사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 관장)

제1부 사회 정병준(동국대학교)

09:30~10:10 1. 唐의 高句麗 원정과 突厥 蕃兵

발표 이효재(동국대학교)

토론 강성봉(성균관대학교)

10:10~11:00 2. 농경 및 유목세계의 중심 장안성 · 국내성 · 상경성의 정치적 기능

발표 세오 다쓰히코(妹尾達彦)

토론 윤재운(대구대학교)

11:00~11:40 3. 고대 한국인의 다원성 : 유목민족의 유입

발표 서영교(중원대학교)

토론 이정빈(경희대)

11:40~13:00 점심시간

제2부 사회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13:00~13:50 4. 몽골 및 실위의 종족 계통과 예맥계와의 관계

발표 張久和(내몽골대학교)

토론 조영광(국사편찬위원회)

13:50~14:30 5.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계통 및 축속

발표 오강원(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이성주(경북대학교)

14:30~15:20 6. 12~13세기 연해주 여진의 농경과 목축 -고고학 자료를 통해-

발표 N.G.아르제미예바(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중세분과)

토론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15:20~16:00 7. 유목국가 · 이민족왕조의 통치체제 정비 · 운영과 定住 · 農耕民의 역할

발표 최진열(경상대학교)

토론 권은주(경북대)

16:00~16:20 휴식시간

16:20~18:30 제3부 종합토론 사회 한규철(경성대학교)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

| 목 차

唐의 高句麗 원정과 突厥 蕃兵 李孝宰	7
농경 및 유목세계의 중심 장안성 · 국내성 · 상경성의 정치적 기능 妹尾達彦	별도 첨부
고구려의 다문화성 -유목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徐榮教	27
蒙古与室韦族系与秽貊系的关系 张久和	49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계통 및 족속 吳江原	59
Земледелие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у [○] чжурчжэней Приморья в XII-XIII вв.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материалам) Н.Г. Артемьева	143
유목국가 · 이민족왕조의 통치체제 정비 · 운영과 定住 · 農耕民의 역할 최진열	179

唐의 高句麗 원정과 突厥 蕃兵

李孝宰(東國大 불교학술원 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東突厥 蕃兵의 최후, 吐蕃 원정 |
| II. 太宗의 親征에 동원된 투르크계 蕃兵 | V. 맺음말 |
| III. 蘇定方의 高句麗 원정과 鐵勒의 반란 | |

I. 머리말

唐代 蕃將과 蕃兵의 활동은 다른 왕조보다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 史書에는 번병, 胡兵, 降胡, 降戶라든가 종족 명칭에 따라 突厥(兵), 契苾(兵), 迴紇(兵), 또는 번병으로 추정되는 輕騎 등 막연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서에는 번장의 이름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의 활동에 대한 서술은 소략한 편이다. 대표적인 『新唐書』 『諸夷蕃將傳』에도 親唐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阿史那忠처럼 아주 소략하게 서술된 부분이 많아 그 본모습을 살피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번장에 대한 연구 역시 개괄적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번장과 번병의 군사적 활동이나, 번장·번병·羈縻州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는 唐 前期 대표적 전쟁인 高句麗 원정에서 활동한 東突厥系 번장과 번병에 대해 조

명해 보려는 것이다.¹⁾ 그간 당과 고구려의 전쟁에 관한 연구는 풍성한 데 비해 고구려 전쟁 참여한 변장과 변병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²⁾ 또한 唐太宗의 고구려 원정에서 뛰어난 무훈을 세웠던 동돌궐계 변장과 변병이 高宗 시기(649~683)에 들어오면 사서에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되는데, 특히 乾封 연간(666) 고구려 전쟁의 최종 국면과 羅唐戰爭 시기에는 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소박한 의문을 가지고 동돌궐계 변병의 자취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II. 太宗의 親征에 동원된 투르크계 蕃兵

貞觀 16년(642) 淵蓋蘇文이 정변을 일으켜 營留王을 시해하고 寶藏王을 옹립하자 營州都督 張儉이 이를 보고한다.³⁾ 정관 17년 新羅는 百濟가 공격하여 40여 성을 빼앗고 高句麗와 연합하여 당의 入朝를 막는다고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였다.⁴⁾ 이를 계기로 정관 19년 唐太宗이 고구려를 親征하게 된다.

고구려 원정에서 동원된 蕃兵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영주도독 장검이 이

1) 陳寅恪『論唐代之蕃將與府兵』, 『陳寅恪史學論文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2, 371~383쪽의 연구는 태종과 玄宗(712~757) 시기 변장을 部落酋長과 寒族胡人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이후 章群『唐代蕃將研究』,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의 연구는 변장에 대한 總論과 靺靨府州의 邊族 안치, 시기별 변장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특히 宿衛와 質子, 客將과 蕃將世家, 변장의 戰功 등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료 정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馬馳『唐代蕃將』, 三秦出版社, 1990는 入朝蕃將과 在蕃蕃將, 前期蕃將과 後期蕃將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谷口哲也『唐代前半期の蕃將』, 史朋 9, 1978의 연구가 있다.

2) 고구려 전쟁에 참여한 변장에 대한 연구는 姜維東『唐麗戰爭中的蕃將』, 『長春師範學院學報』, 2002(1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姜維東, 『唐東征將士事迹考』, 吉林文史出版社, 2003이 나와 있지만, 당의 고구려 원정에 인물을 연대순, 인물순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3) 『資治通鑑』 권196 貞觀 16년 11월 조, 6181쪽.

4) 『資治通鑑』 권196 정관 17년 9월 조, 6204쪽. 『三國史記』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 8월 조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공모하여 党項城을 빼앗아 신라의 당에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한다고 하였다.

끈 契丹과奚이다.⁵⁾ 장검은 東突厥과 관련이 깊은 朔州와 代州, 동돌궐 降戶가 안치된 오르도스 지역 勝州의 刺史를 역임하였다. 그는 屯田 경영에 뛰어났으며, 朔州刺史로 있을 때 투르크계 유목민인 思結部를 위무하기도 하였다.⁶⁾ 또한 정관 15년 薛延陀 침입하였을 때 거란·해·홥을 이끌고 설연타의 동쪽을 공격하였다.⁷⁾ 『親征高麗詔』에는 “契丹藩의 長 於 句折, 奚藩의 長 蘇支”⁸⁾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거란과 해의 무리를 실질적으로 통솔한 것은 장검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영주도독부와 관련된 親唐의 족장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破高麗詔』에 “해·습·거란의 무리는 모두 甲卒로 가득하였다.”⁹⁾ 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무리가 적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遼東道行軍大總管 李勣이 이끈 번병이다. 『新唐書』에는 이적이 거느린 장수의 명단이 보이는데, 江夏王 李道宗, 張士貴, 張儉, 執失思力, 契苾何力, 阿史那彌射, 姜德本, 麴智盛, 吳黑闥 등이었다.¹⁰⁾ 이 군단은 이적과 강하왕 이도종이 이끌었는데, 그들은 頡利可汗을 사로잡는 데 큰 공훈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도종의 경우 隋末唐初의 군웅 梁師都와 돌궐 郁射設 阿史那摸末의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吐谷渾 원정(634~635)에서도 활약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유목 번병을 통솔하는데 적임자였던 것이다.¹¹⁾

당시 이적이 이끈 군대에 대해 『資治通鑑』에 步騎 6만과 蘭州와 河州의 降胡를 거느렸다고 되어 있다.¹²⁾ 여기서 ‘난주와 하주의 항호’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난주와 하주는 모두 지금의 甘肅省 일대로 당시 隴右道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위의 무장들 중 번장은 집실사력, 글필하력, 아사나미사인데, 이중 난주와 하주와 관련된 인물은 글필하력이다. 그는 투르

5) 『新唐書』 권2 太宗本紀 43쪽. 당시 장검은 幽州와 營州의 군대와 거란과 해를 이끌었다.

6) 『舊唐書』 권83, 張儉傳 2775~2776쪽.

7) 『新唐書』 권217하 薛延陀傳, 6135쪽.

8) 『唐大詔令集』, 『親征高麗詔』, 中華書局, 2008, 704쪽.

9) 『唐大詔令集』, 『破高麗詔』, 707쪽.

10) 『新唐書』 권220 高麗傳, 6189쪽.

11) 『舊唐書』 권67 李勣傳, 2485쪽과 권60 江夏王 李道宗傳, 2354~2355쪽. 아사나모말은 조부가 啓民可汗, 啜羅可汗(處羅可汗)의 적자이다. 정관 3년 경 1만여 家를 데리고 이를 河南(오르도스)에 두고 靈州와 경계로 하였다(『阿史那摸末墓誌銘』, 『阿史那自政墓誌銘』, 周紹良 編, 『唐代墓誌彙編續集』, 2001, 47, 493쪽).

12) 『資治通鑑』 권197 정관 18년 11월 조 6214쪽.

크게 유목민족인 契苾部の 수장으로, 그 祖父인 契苾哥楞은 한때 勿真莫何可汗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608년 薛延陀와 함께 伊吾, 高昌, 焉耆 등 西域 諸國을 차지하기도 하였다.¹³⁾ 이후 崑崙의 咄谷渾의 압박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정관 6년(632) 당에 귀부하여 匱州와 甘州 사이에 안치되었다.¹⁴⁾

그렇다면 난주와 하주의 항호의 주체는 崑崙부일까? 당시 崑崙부의 기미주는 賀蘭州로 그 都督은 崑崙하력의 同母弟 沙門이었으나 崑崙부의 실제 권력은 그 모친이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정관 16년(642) 崑崙부가 당을 이반하고 설연타에 歸附하고자 하였는데, 그 무리가 崑崙하력을 설연타의 牙帳으로 붙잡아갔다. 태종은 新興公主를 설연타에게 출가한다는 조건으로 그를 구해 올 수 있었다.¹⁶⁾ 이 문제에 대해 중국학자 馬馳는 642년 하난주가 폐기되었다가 설연타 멸망 후 다시 양주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서, ①642년 모든 崑崙부가 이반한 것이 아닌 경우, ②설연타 멸망이후 다시 崑崙부를 옹기진 경우, ③추후 외부에 있던 崑崙, 鐵勒 부족이 유입된 경우 등 3가지 설을 제시하였다.¹⁷⁾ ①의 경우를 상정할 경우라도 고구려 원정 당시 崑崙부가 중심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난주와 하주의 항호'를 거느렸을 가능성은 높다. 646년 설연타의 원정에서 그는 涼州兵과 胡兵을 거느렸는데, 이는 그가 양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의 호병도 고구려 원정 때의 降胡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親征高麗詔」에는 “행군총관 집실사력과 행군총관 崑崙하력 등은 그 종족 부락을 통솔하여 機微에 따라 나아가 토벌하라.”¹⁸⁾라고 한 점에서 崑崙부의 무리가 잔존했다면 그 수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白巖城 전투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전공을 세우고자 했던 것 역시 崑崙

13) 『隋書』 권84, 北狄 西突厥傳, 1876쪽. 同書 鐵勒傳, 1880쪽.

14) 『舊唐書』 권109, 契苾何力傳, 3291쪽.

15) 崑崙하력이 설연타의 아장으로 연행되었을 때 “나의 동생 사문은 효성스러워 모친을 잘 봉양하지만 나는 몸을 나라에 맡겼으니 끝내 떠날 수 없다.”고 한 데서 母親인 姑臧夫人의 영향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崑崙부 내에서 그를 설득하고자 했던 것은 崑崙부 내의 그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의 전공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지지층이 존재했을 것이다(『舊唐書』 권109, 契苾何力傳, 3291~3292쪽)

16) 『資治通鑑』 권196 정관 16년 10월 조, 6180쪽.

17) 馬馳, 「鐵勒契苾部的盛衰與遷徙」, 『中國歷史地理論叢』, 1999(3), 104~109쪽.

18) 『唐大詔令集』, 「親征高麗詔」, 704쪽.

부의 반란에서 약화된 자신의 입지를 무훈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가 이 전투에서 지휘하였던 기병 800기 역시 胡兵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前軍總管으로 선봉에 섰던 것도 이와 연관된다.¹⁹⁾

난주와 하주는 양주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당시 북방에 설연타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던 만큼 서북방의 주요 거점인 양주의 방위를 약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난주와 하주는 오히려 토욕혼과 관련이 많은 지역이다. 토욕혼 원정(634~635) 이후 이 지역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호병을 징발한 것으로 보인다. 降胡의 降자에 주목한다면 아사나미사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아사나미사는 西突厥 莫賀咄葉護로 족형인 阿史那步眞과 틈이 벌어져 정관 13년(639)에 處月和 處密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右監門衛 大將軍을 제수 받았다. 그는 고구려 원정에서 공을 세워 平壤縣伯에 봉해졌으며, 이후 서돌궐 阿史那賀魯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興昔亡可汗에 봉해지고 崑陵都護가 되었다.²⁰⁾ 그렇다면 난주와 하주에 안치된 유목부락은 아사나미사의 部일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집실사력이다. 위 『新唐書』와 「親征高麗詔」에는 집실사력이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資治通鑑』의 기록과 다르다. 『資治通鑑』에는 태종이 설연타의 침공을 대비하여 그에게 河南(오르도스) 지역에서 돌궐을 거느리고 夏州에 머물게 하였으며, 그는 田仁會와 함께 침공해 온 설연타를 물리쳤다. 이는 정관 13년(639) 結社率의 난을 계기로 오르도스에 위치한 동돌궐을 내몽골 지역으로 안치한 사건과 관련 있다. 내몽골 定襄城을 아장으로 삼아 이동시키고 동돌궐 降戶 내에 인망이 없던 親唐 인물인 李思摩를 乙彌泥孰 俟利苾可汗으로 삼고, 힐리가한을 포로로 바친 阿史那忠을 左賢王으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²¹⁾ 그러나 정관 15년 설연타의 남침과 내부 분열로 흩어지면서 동돌궐은 다시 오르도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이사마를 대신해서 돌궐을 재정비하고 통할했던 것이 바로 집실사력이었다.

집실사력은 나중 定襄都督府에 소속된 執失部를 거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집실사력은

19) 『舊唐書』 권109, 契苾何力傳, 3293쪽;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 6월 조 6223쪽.

20) 『舊唐書』 권194하, 突厥傳하, 5188쪽.

21) 『資治通鑑』 권195 정관 13년 6월 조, 6148~6149쪽.

힐리가한의 측근이었으나 동돌궐이 멸망한 이후 내항하여 대외원정에서 공훈을 쌓게 된다. 執失善光의 묘지명에는 집실사력이 來降할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집실사력의 父인 執失武는 頽利發(iteber, 부족장)로, 힐리가한이 장안을 공격하였을 때 그는 집실사력을 입조시켜 계책을 올리게 한다. 그리고 태종이 그를 이정에게 보내어 서로 내용할 것을 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資治通鑑』에 힐리가한이 집실사력을 보내 알현하게 하자 태종이 그를 만나본 뒤에 구금하였다는 기사와 연관된다.²²⁾ 이후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뒤에 그는 태종과 敵血하고 “대대로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하였다. 태종은 그에게 金券를 주고 九江公主와 혼인하게 하였다.²³⁾ 이러한 당의 충성을 바탕으로 그는 고구려 원정 기간에 북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親征을 반대한 논의 핵심은 장안과 낙양이 텅 비어 설연타의 침공이나 지방의 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京師와 가까운 오르도스에 돌궐을 안치하였으므로 태종이 낙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태종은 오히려 오르도스의 돌궐병에게 당의 북방을 맡기고 친정을 단행하였다. 정관 18년 12월 洛陽에서 작성된 「親征高麗詔」에는 집실사력의 이름이 보이지만, 그 이후 이 사마가 이끈 동돌궐이 무너지자, 고구려 원정에 동원하려고 편성된 집실사력의 돌궐병을 하주로 보내어 무너진 동돌궐을 재편성하면서 설연타를 대비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돌궐병은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들은 태종이 직접 통솔한 六軍에 소속된 北衙禁軍에 포함되었을 것이다.²⁵⁾ 이와 관련된 대표적 인물로는 아사나사이, 이 사마, 아사나충 등을 들 수 있다. 아사나사이는 高昌 원정(640) 이후 ‘北門左屯營’을 담당하

22) 「執失善光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 2001, 489쪽; 『資治通鑑』 권191 武德 9년 8월 조, 6019쪽. 또한 힐리가한이 패하여 鐵山에 숨어서 세력을 기르며 집실사력을 보내 입조하기도 하였다(同書 권193 정관 4년 2월 조, 6072쪽).

23) 「執失善光墓誌銘」, 위의 책, 489쪽

24) 『資治通鑑』 정관 18년 12월과 19년 1월 조, 6216~6217쪽.

25) 북아군에 포함된 돌궐병에 대해서는 拙稿, 『唐太宗期 西北遊牧君長の 宿衛와 對外遠征 從軍』, 『역사학보』206, 2010 참조.

었다.²⁶⁾ 고구려 원정 당시 駐驛山 전투에서 屯衛飛騎와 長上宿衛를 거느리고 싸웠다.²⁷⁾ 특히 飛騎는 황제의 親衛騎兵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된 정예 중 정예였다. 여기에 다수의 돌궐병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사마의 묘지명에는 “자신의 종족 부락이 흩어져서 河南 勝州의 경계로 저질로 모이자 公이 洛陽宮에 돌아가서 죄를 빌었다. 御駕를 따라 동쪽으로 가는데, 도중에 右衛將軍을 제수 받고 그대로 蕃兵을 거느리고 遼東을 건넜다. 白崖城(白巖城)을 공격하다가 流矢를 맞았는데, 주상께서 직접 보고 약을 전하시니, 은혜가 매우 컸다. 凱旋하여 并州에 이르러 또 瀚海道行軍總管을 제수 받았다. 20년 右武衛大將軍을 제수 받고 [北門屯營의 일을 檢校하였다.”²⁸⁾라고 하였다. 그는 고구려 원정에 종군하면서 태종의 진영에 소속되어 있던 번병을 거느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 원정 도중 설연타에서는 眞珠毗伽加汗(夷男)이 사망하여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자, 원정 종료 후 태종은 그를 한해도행군총관에 임명하여 설연타에 대비해 돌궐병을 지휘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병환이 악화되면서 북문 숙위를 담당하던 아사나사이와 교체하였던 것이다. 아사나사이는 오르도스의 여러 州에서 군대를 징발하여 勝州에 주둔하였으며, 집실사력 역시 靈州와 勝州의 돌궐병을 징발하여 대비하였다.²⁹⁾ 다만 그의 형제인 執失莫訶友가 고구려 원정에 참여한 것 같은데, 이는 그가 인질이자 숙위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³⁰⁾

당시 북아금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사나충 역시 고구려 원정에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 『新唐書』 「阿史那忠傳」에 “宿衛 40년 동안 작은 잘못도 없자 사람들이 金日磾에 견주었다.”³¹⁾는 대목으로 인해 그가 계속 숙위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묘지명을

26) 태종 시기 대표적인 동돌궐 변장은 아사나사이일 것이다. 그는 處羅可汗의 아들로 智勇으로 알려졌으며, 젊은 나이에 拓設이 되어 鐵勒諸部를 통솔하였다. 철륵의 반란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서돌궐의 내란을 틈타 그 반을 차지하고 都布可汗이 되었다. 이후 설연타를 원정하였지만 실패하고 高昌으로 도망하였다가 당에 내항하였다. 그리고 당의 대외 원정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舊唐書』 권109, 阿史那社爾傳, 3288~3290쪽).

27) 『冊府元龜』 권396, 將帥部, 勇敢3 조, 4698쪽.

28) 『李思摩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 38쪽.

29) 『資治通鑑』 정관 19년 11월 조, 6232~6233쪽.

30) 『執失善光墓誌銘』, 위의 책, 489쪽.

31) 『新唐書』 권110, 阿史那忠傳, 4116쪽.

살펴보면, 그가 處月과 焉耆를 굴복시키고 적을 와해시킨 뒤 寶馬를 陽關에 몰고 들어와서 禁苑에 채웠다고 되어 있다.³²⁾ 이는 고창 원정에 참여한 뒤에 숙위하였음을 암시한다. 또한 “요동에서 [주상을] 받들어 모실 때에 조서로 크게 칭찬을 받고서 그대로 上柱國을 제수 받았다. 幽州와 燕州에서 어가를 모시며 太原으로 지나갈 것을 말하였다. 이때에 설연타가 변방을 침범하여 매우 어지러워지자 공이 달려가 구원하여 일이 안정된 뒤에 돌아왔다.”³³⁾라고 하였는데, 그가 고구려 원정 때 태종을 시종하였으며, 설연타 원정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蘇定方의 고구려 원정과 鐵勒의 반란

고종 재위 기간(649~683)은 고구려 원정의 성공으로 그 국력이 절정기에 이르렀지만 顯慶 연간부터 흥기하기 시작한 吐蕃으로 인해 지금의 新疆省, 甘肅省, 四川省 일대가 혼란에 빠지는 위기가 교차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태종 시기에 활약하였던 동돌궐 번장과 변병의 모습이 이때에 들어와서는 史書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를 이를 이후 고구려 전쟁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650년을 전후로 아사나충을 제외한 친당 성향의 동돌궐계 대족장들이 사라진다. 우선 이사마와 아사나모말이 각기 정관 21년(647)과 23년(649)에 사망한다.³⁴⁾ 또한 이사마 이후 돌궐 降戶를 이끌었던 집실사력이 永徽 4년(653) 房遺愛의 난에 연좌되어 ■州로 유배된다. 그는 龍朔 연간(661~663)에 歸州刺史가 되었지만 麟德 원년(664)에 사망한다.³⁵⁾ 동돌

32) 『阿史那忠墓誌銘』, 周紹良 編, 『唐代墓誌彙編上』, 1992, 602쪽.

33) 『阿史那忠墓誌銘』, 위의 책, 602쪽.

34) 『李思摩墓誌銘』, 위의 책, 38쪽; 『阿史那摸末墓誌銘』, 위의 책, 47쪽.

35) 『新唐書』 권110, 執失思力傳, 4116쪽. 동돌궐 내에 집실주의 정치적 권위가 증대된 것은 집실막하우의 官銜에 執失等 四州諸軍事 執失州刺史'라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執失善光墓誌銘』, 위의 책, 489쪽). 李靖의 힐리가한 정벌 이후 阿史德氏가 定襄에서 세력을 넓혀 갔다고 되어 있지만, 『資治通鑑』에는 이 주체를 阿史德時健侯斤의 부락으로 보았으며, 이를 祈連州에 두고 營州都督에 예속시켰다

궐 대족장 중 빛나는 전공과 뛰어난 자질로 진정 가한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던 아사나사가 영희 6년(655)에 사망한다.³⁶⁾ 이로 인해 고종 시기 고구려 전쟁에서 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영희 5년(654)에서 顯慶 4년(659)까지 고구려와의 전투는 국지전으로 營州都督兼東夷都護 程名振이 중심이 되었는데, 정관 19년 원정에서 沙卑城을 함락시킨 인물이었다.³⁷⁾ 동이도호는 원래 東夷校尉로 曹魏 시기에 遼東郡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³⁸⁾ 唐初에는 영주도독이 겸임하였으며, 장검이 고구려 원정에서 공훈을 세워 동이도호가 된 것이었다.³⁹⁾ 따라서 영주도독이 요동 방면을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정명진을 중심으로 한 국지전은 영희 6년 左衛中郎將 蘇定方이, 현경 3년 右領軍中郎將 薛仁貴가 각기 활약하였다.⁴⁰⁾

현경 4년 설인귀가 속한 정명진의 군대가 글필하력과 梁建方과 연합하여 黃山에서 고구려의 溫沙門을 격파한다. 이때 글필하력이 등장하는데, 당시 글필부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破契苾幸靈州詔』에 “契苾車苾俟斤과 鐵勒 諸姓, 迴紇 胡祿俟利發 등 백여 만호를 거느리고 北漠에 흠여져 거주하였는데”⁴¹⁾라고 하였는데, 정관 20년 이들이 항복을 해 온 것이다. 馬馳는 이에 대해 車苾은 ‘契苾’ 혹은 ‘車鼻’의 다른 표현으로, 그가 俟斤(씨족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전체 글필부에서 일부만을 거느렸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관 21년 막북의 글필부에 榆溪州를 두었다고 보았다. 또한 『舊唐書』 『地理志3 梁州中都督府』를 근거로 막북에 있던 글필부의 일부를 양주로 옮겨 하남부를 재설치했으며, 契苾明과 契苾嵩의 묘지명

고 보았다(『新唐書』 권215상, 突厥傳상, 604쪽; 『資治通鑑』 권198 정관 20년 623쪽과 정관 22년 정월 조, 625쪽). 따라서 집실사력이 유배되기 이전까지는 정양도독부를 집실부가 장악하였다가 이후 집실사력이 유배된 뒤에 정양을 근거지로 하던 아사덕씨가 강성해지면서 이 지역의 기미주가 재편되는 과정 중에 정양도독의 지위까지도 획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36) 『新唐書』 권109, 阿史那社爾傳, 4116쪽.

37) 『舊唐書』 권199상, 高麗傳, 5322쪽.

38) 『晉書』 권14, 地理志상, 427쪽

39) 『新唐書』 권111, 張儉傳, 4133쪽.

40) 『資治通鑑』 권199 永徽 6년 6287쪽; 『新唐書』 권111, 薛仁貴傳, 4140쪽.

41) 『唐大詔令集』, 『破契苾幸靈州詔』, 450쪽.

을 근거로 양주의 하난주도독의 지위를 글필하력의 후손들이 상속했다고 보았다.⁴²⁾ 따라서 당시 글필하력은 글필병을 거느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국지전 양상은 현경 5년(660)에 들어와서 변화한다. 그 해 5월에서 8월까지 소정방과 劉伯英의 군대가 百濟를 정벌하였다. 그리고 12월 左驍衛大將軍 글필하력을 涇江道行軍大總管, 左武衛大將軍 소정방을 遼東道行軍大總管, 左驍衛將軍 유백영을 平壤道行軍大總管, 蒲州刺史 정명진을 鏤方道總管에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게 된다.⁴³⁾

우선 글필하력이 군대는 현경 4년에 동원되었던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 부대에는 涼州兵과 글필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소정방이 지금의 신강성 지역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 그는 현경 2년 沙鉢羅可汗 阿史那賀魯, 현경 4년 思結俟斤 都曼을 사로잡아 京師에 받쳤다. 따라서 당의 서쪽 방면은 안정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정관 18년 고구려 원정에 참전한 경력이 있던 글필하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의 부대에 동돌궐병이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소정방이 지휘한 군대로, 특히 鴻臚卿 蕭嗣業이 인솔한 迴紇兵이다. 소정방이 사발라가한을 정벌할 때 회흘 1만 기가 종군하였다. 특히 燕然副都護 소사업과 회흘 족장 藥羅葛婆閏은 사발라가한을 추격하여 사로잡는 데 결정적 공헌을 세웠으며, 또한 涇江道行軍總管 任雅相 역시 燕然都護로서 이 원정에 참여하였다.⁴⁴⁾ 소사업은 유목민을 다루는데 뛰어났던 인물로, 정관 20년(646) 이적의 通事舍人으로서 철록 9성을 위협하던 설연타의 잔당 咄摩支를 잡는 데 공을 세웠으며, 調露 원년(679)에는 동돌궐 항호를 다스렸던 기구인 單于大都護府 長史를 역임하였다.⁴⁵⁾ 파운은 吐迷度的 아들로 당의 지지를 받아 족장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었으며, 이후 사발라가한을 정벌한 공으로 瀚海都督이 되었다.⁴⁶⁾ 따라서 당시 고구려 원정에는 사발라가한을 정벌한 소정방 군대가 주축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군대는 평양성을 포위한다. 이러한 회흘병의 등장은 동돌궐병의 가

42) 馬馳, 『鐵勒契苾部的盛衰與遷徙』, 위의 책, 105~108쪽.

43) 『資治通鑑』 권200 顯慶 5년 12월 조, 6322쪽.

44) 사발라가한에 대한 원정은 『資治通鑑』 권200 高宗 調露 원년 정월 조, 6301~6302, 6305~6307쪽 참조.

45) 『資治通鑑』 권198 정관 20년 6238쪽 ; 『新唐書』 권3 高宗本紀3, 75쪽.

46) 『舊唐書』 권145 □紇傳, 5197쪽.

치를 점차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동돌궐병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현경 5년 5월 定襄都督 阿史德樞賓, 左武侯將軍 延陀梯眞, 居延州都督 李合珠를 모두 冷峽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고 尙書右丞 崔餘慶에게 이 3부를 통할하게 하였으며, 해가 항복하자 다시 거란을 공격하여 松漠都督 耶律阿卜固를 사로잡는다.⁴⁷⁾ 『新唐書』를 살펴보면 이 반란은 그 해 12월에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⁴⁸⁾ 이 토벌전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설인귀가 참여하였다.⁴⁹⁾ 이는 영주도독부도 같이 움직였음을 암시한다. 또한 송막도독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법 큰 사건이었다. 또한 동돌궐의 아사덕부와 설연타, 白靄 別部가 동원되었는데⁵⁰⁾, 특히 아사덕추빈이 정양도독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관 19년 오르도스의 동돌궐 항호는 아사나사이와 집실사력에 의해 재편되었고, 정관 20년 이들은 설연타 원정에 대거 동원되었다. 정관 23년 돌궐 부락을 씨족별로 재편재하여 기미주를 설치하고서 이를 나누어 雲中都督府와 定襄都督府에 예속하게 하였다.⁵¹⁾

운중도독부와 정양도독부는 북방의 십자로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1돌궐제국 말기에 薛延陀를 중심으로 한 鐵勒諸部の 반란으로 외몽골을 잃고, 동쪽으로는 지배부족이었던 거란과 해가 이탈하고, 서쪽으로는 토욕혼이 다시 흥기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당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동돌궐은 四面楚歌의 상태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 고종 조로 원년(679) 이 지역에

47) 『資治通鑑』 권200 현경 5년 5월 조, 6320쪽.

48) 『新唐書』 권3, 高宗本紀, 61쪽.

49) 『舊唐書』 권83, 薛仁貴傳 2781쪽.

50) 영희 3년(652) 황하 이남에 祁連州를 설치하고 설연타를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資治通鑑』 권199 영희 3년 6월 조, 6278쪽) 거연주는 백습 별부에 두었던 기미주이다(『新唐書』 33하, 地理志7하, 1122쪽).

51) 운중·정양도독부의 설치 문제는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唐會要』에 그 설치 시기 및 내용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다. 이는 당나라가 동돌궐 항호를 재편한 것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운중·정양도독부에 씨족별 분치가 이루어진 것을 『唐會要』 권73, 安北都護府, 1315쪽을 근거로 정관 23년으로 보겠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岩佐精一郎(『突厥の復興に就いて』, 『岩佐精一郎遺稿』, 三秀舎, 1936, 77~91쪽), 石見青裕(『唐の突厥遺民に對する措置』,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東京, 汲古書院, 1998, 110~120쪽), 金浩東(『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993), 丁載勳(『唐初의 民族政策과 西北民族의 中國認識-羈縻支配體制의 成立過程과 관련하여-』, 『서울大 東洋史學科論輯』 19, 1995, 13~14쪽)의 연구를 참조.

서 일어난 阿史那泥熟匍과 阿史德溫傳의 반란이 실패한 것도 이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보여 준다. 제2돌궐제국 부흥의 주역인 曷欲谷 역시 반란 초기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는 우선 외몽골을 공격하여 철릭 부족을 제압하여 후방을 안정시킨 후 중국 山東을 공격할 수 있었으며, 이후 서쪽으로 눈을 돌려 歌羅祿(Qarluq) 등 정벌하여 제2돌궐제국을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²⁾ 또한 이 지역을 장악하면 거란과 해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다. 則天武后 萬歲通天 원년(696) 李盡忠과 孫萬榮의 난에서 乾坤一擲의 대치 상황 중 거란의 뒤를 친 것이 바로 이 지역을 장악한 돌궐의 默啜可汗이었다. 결국 당이 북방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부족들을 복속시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전략적 측면에서 동돌궐의 한축인 정양도독부는 현경 5년 거란과의 싸움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럼 운중도독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선 현경 5년(660)에서 龍朔 2년(662)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자. 현경 5년 12월 靺鞨하력, 소정방, 유백영 등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한다. 용삭 원년 정월 黃河 남북과 淮水 이남에서 兵募한 군대 4만4천을 行營으로 보낸다. 같은 해 4월 임아상을 淇江道行軍總管, 靺鞨하력을 遼東道行軍總管, 蘇定方を 平壤道行軍總管으로 삼고 蕭嗣業과 여러 胡兵을 35군으로 하여 수륙으로 공격하게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침공은 용삭 원년 4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였으며, 9월 靺鞨하력이 鴨綠水에서 淵男生의 군대를 격파하고 회군한다.⁵³⁾

靺鞨하력은 왜 갑자기 회군을 한 것일까? 같은 해(661) 10월 당에 우호적이었던 회흘의 족장 파윤이 죽고 그 조카 比粟毒이 그 뒤를 계승하여 僕骨·同羅 등과 함께 당을 공격하였다.⁵⁴⁾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左武衛大將軍 鄭仁泰가 반란을 일으킨 思結, 拔也固, 복골, 동라를 정벌하였다.⁵⁵⁾ 하지만 이 반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이 고구려를 공격한지 10개월이 지난 이후 다시 반발한 것인데, 당시 漠北의 중심 세력인 회흘이 반란을 주도했으며,

52) 『曷欲谷 비문』, Talat Tekin/이용성 譯, 『돌궐비문연구』, 제이앤씨, 2008, 175~194쪽.

53) 『資治通鑑』 권200 현경 5년 12월 조, 6322쪽과 용삭 원년 4월·7월·9월 조 6324~6316쪽.

54) 『資治通鑑』 권200 용삭 원년 10월 조, 6326쪽.

55) 『新唐書』 권3, 高宗本紀, 60쪽; 『資治通鑑』 권200 현경 5년, 6322쪽.

그들이 고구려 원정군의 배후를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었다.

같은 해(661) 10월 정인태를 鐵勒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연연도호 劉審禮와 左武衛將軍 설인귀를 副將으로 삼았다. 또 소사업을 仙萼道行軍總管으로 삼고 右屯衛將軍 孫仁師을 부장으로 삼았다.⁵⁶⁾ 여기서 소사업이 거느린 회흘병이 고구려 전선에서 막북 방면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新唐書』에는 右驍衛大將軍 아사나충을 長岑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철록을 정벌하였다고 하였다.⁵⁷⁾ 그렇다면 운중도독부의 동돌궐병은 여기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현경 5년(660) 8월 정인태의 정벌 때부터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여튼 반란의 확대는 숙위를 담당하던 아사나충까지 참전하게 하였다.

『阿史那忠墓誌銘』에 “公을 使로 삼고 장금도행군총관을 담당하게 하였다. 대군이 길게 나아가고 천자의 위엄이 멀리 미치자 三山이 그로 인해 요동치고 九種이 그 때문에 놀랐다. 거란이 白猿의 동쪽과 黃龍에 있어서 가까이 卉服을 침범하고 멀리 鳥夷와 결탁하였다. 공이 군대를 거느리고 주벌하고 시기에 따라 殄滅시켜서 오랑캐를 사로잡은 것이 만을 헤아렸으며 三軍이 공정하게 비단을 받게 하였다. 그대로 羽林軍을 검교하였다.”⁵⁸⁾고 하였다. 여기서 이 반란이 철록 부족만이 아니라 거란과도 연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미 철록 9성의 군대는 고비 사막을 넘어 요동 지역까지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資治通鑑』 용삭 2년(662) 3월 조에서는 “철록 9성은 당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 10여 만을 합쳐서 막았다. …… 설인귀가 세 발의 화살을 쏘아서 세 명을 죽이자 나머지가 모두 말에서 내려서 항복을 청하였다. …… 磧北을 건너서 그 나머지 무리를 공격하여 葉護 형제 3인을 사로잡아 돌아왔다.”⁵⁹⁾고 하였다. 거란이 연관되었고 설인귀가 참전하였다면 운중도독부만 아니라 정양도독부의 군대도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반란으로 인해 당군은 많은 손실을 입었다. 楊志가 思結과 多濫葛를 뒤쫓다 패하였으며, 정인태도 경기 1만4천을 거느리고 仙萼河에 이르렀지만 큰 소득 없이 회군하다 큰 눈을

56) 『資治通鑑』 권200 용삭 원년 10월 조, 6326쪽.

57) 『新唐書』 권3, 高宗本紀, 61쪽.

58) 『阿史那忠墓誌銘』, 위의 책, 602쪽.

59) 『資治通鑑』 권200 용삭 2년 3월 조, 6327~6328쪽.

만나 800기만이 돌아올 수 있었다. 또한 반란의 주동자인 比粟毒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벌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외교적 수단에 의해 종결되었다. 같은 해(662) 3월 글필하력을 鐵勒道安撫使로 삼아 철륵 제부와 화친을 맺고 반란을 일으킨 葉護, 設, 特勒 등 200여 인을 처단하는 수준에서 종결되었던 것이다.⁶⁰⁾ 이러한 사정 속에서 고구려 원정 중이던 글필하력을 조칙을 내려 불러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평양에 고립되었던 소정방도 新羅의 보급을 받은 뒤 곧바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난은 고구려 원정을 무위로 그치게 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동돌궐병은 고구려 원정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거란과 철륵의 반란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지 못하였다. 또한 당은 이 지역의 안정을 원했으며, 회홀과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랐다.⁶¹⁾ 그렇다면 참전했던 동돌궐병들은 약탈물과 하사품을 많이 획득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나충도 부락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하사품으로 보이는 비단을 공정히 나누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이 지역은 서역처럼 물자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다. 또한 고구려의 원정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 즉 노예를 많이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구려 원정을 통해 노예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은 태종 시기 고구려 원정에서 엿볼 수 있다. 태종이 백암성을 함락시키면 모든 사람과 물건을 상으로 내린다고 하였다가 함락 후 이를 철회하자 이적이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또한 이때 설인귀도 生口 18인을 얻었다. 당시 고구려인 6만 戶, 18만 口를 얻었다고 하였는데,⁶²⁾ 여기서도 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글필병은 고구려 원정이라는 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동돌궐병은 제외되었던 것이다.

60) 『資治通鑑』 권200 용삭 2년 3월 조, 6328~6329쪽.

61) 용삭 3년에 燕然都護府를 회홀로 옮기고 瀚海都護府로 개명한다(『唐會要』 권73, 安北都護府, 1315쪽). 또한 비속독의 자손이 계속 족장이 되어 도독의 칭호를 이어받는다(『舊唐書』 권195, 迴紇傳, 5198쪽).

62)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 6월 조, 6222~6223쪽 ; 『舊唐書』 권83, 薛仁貴傳, 2780쪽 ; 『唐大詔令集』, 「高麗班師詔」, 704쪽.

IV. 東突厥 蕃兵의 최후, 吐蕃 원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동돌궐병은 서역 원정과 고구려 원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기 시작한다. 정관 23년(649) 동돌궐 부락을 씨족 별로 분치하여 기미주를 설치하고 이를 운중·정양도독부에 예속시킨다.⁶³⁾ 용삭 3년(663) 동돌궐과 철릭 9성을 통제하던 연연도호부를 회홀로 옮기고서 瀚海都護府로 삼고, 漠南은 雲中都護府를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⁶⁴⁾ 麟德 원년(664) 운중도호부를 單于大都護府로 개칭한다.⁶⁵⁾

정관 23년 2도독부 11주였던 羈縻府州가 인덕 원년에는 3도독부 14주로 증가되었으며, 조로 원년(679)에는 24주로 증가되었다.⁶⁶⁾ 이러한 기미부주의 증대는 이 지역의 자체 인구가 증가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아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미부주가 군사적 동원을 의무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목적으로 당이 기미부주를 증치했으며, 또한 아사나씨의 정치적 권위를 약화시키고자 非阿史那氏인 阿史德氏와 舍利氏 등이 정양도독과 운중도독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⁶⁷⁾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사덕씨는 선우대

63) 당시 운중도독부에 舍利·吐利部에 舍利州, 阿史那部에 阿史那州, 綽部에 綽州, 賀魯部에 賀魯州, 葛邏祿·怛恒部에 葛邏州를 두었고, 정양도독부에 蘇農部에 蘇農州, 阿史德部에 阿史德州, 執失部에 執失州, 卑失部에 卑失州, 郁射部에 郁射州, 多地·藝失部에 藝失州를 두었다(『唐會要』 권73, 安北都護府, 1315쪽).

64) 『唐會要』 권73, 安北都護府, 1315쪽.

65) 『唐會要』에는 영휘 원년 高侃이 車鼻可汗을 사로잡은 뒤에 선우도호와 한해도호를 나누고, 선우도호에 狼山, 雲中, 桑乾 3도독부와 蘇農 등 14주를 두었고, 인덕 원년에 선우대도호부로 개칭하였다고 보았다(『唐會要』 권73, 單于都護府, 1307쪽). 이는 다른 사료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樊文禮, 『唐代單于都護府考論』, 『民族研究』, 1993(3); 王世麗, 『安北與單于都護府唐代北部邊疆民族問題研究』, 雲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2; 宋秀英, 『唐代單于都護府的幾個問題』, 『中國邊疆史地研究』, 2002(2); 李宗俊, 『唐代安北單于二都護府再考』, 『中國史研究』, 2009(2) 등 참조.

66) 『唐會要』 권94, 北突厥, 1690~1691쪽.

67) 阿史那骨篤祿의 반란 당시 정양도독은 舍利元英이었다(『舊唐書』 권194상, 突厥傳上, 5167쪽). 丁載勳(『突厥 第二帝國時期(682-745) 퉡유쿠크의 役割과 그 位相』, 『東洋史學研究』 47, 1994, 51~56쪽)은 당의 동돌궐 항호를 정양도독부와 운중도독부로 나누고 씨족 단위로 분치한 것은 기존 아사나씨의 주장을

도호부 설치를 주청한다. 그리고 당은 相王 李輪을 도호로 임명하였지만 이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제 長史가 관할하였다. 앞의 여러 원정에서 활약한 소사업이 선우도호부 장사로 있었는데⁶⁸⁾, 이는 유목민의 사정에 밝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인물을 배치한 것이다. 또한 阿史那骨篤祿의 반란 시 降戶 부락을 검교하던 阿史德元珍이 선우도호부 장사인 王立本에 의해 통제를 받았는데,⁶⁹⁾ 이는 그들의 독립적이고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반대로 그들의 통제와 예속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咸亨 원년(670) 칙서를 내려 돌궐 추장의 자제들이 東宮을 모시는 일을 폐하였는데, 고종 때에는 태자가 監國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궁정 내 숙위의 임무에서도 그들의 지위가 약화되었음을 암시한다.⁷⁰⁾ 또한 고종 즉전 시기 숙위 변장은 靺鞨의 李多祚나 고구려의 淵獻誠 등이 활약하게 된다.

선우도호부가 설치될 당시 아사덕씨는 胡法에 따라 親王을 세워 可汗으로 삼아서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다른 유목민족과 다르게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이며,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하사품이나 특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선우도호부의 돌궐병은 어느 방면에서 활동했던 것일까? 乾封 원년(666)에서 시작한 고구려와의 최후의 결전과 羅唐戰爭, 그리고 당시 활발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던 吐蕃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舊唐書』 등에 “함영 원년(670) …… 右威衛大將軍 설인귀를 邏娑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右衛員外大將軍 阿史那道眞과 左衛將軍 郭待封을 부장으로 삼아 5만을 거느리고 토번을 공격하게 했다. …… 설인귀와 曷拔暉가 大非川에 이르러 토번 대장 論欽陵에게 습격을 당하여 대패하였다. 설인귀 등을 모두 제명하였다.”⁷¹⁾라는 기록이 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사나도진이다. 그에 대한 기록은 郭孝恪의 傳에 曷拔暉는 曷拔各의 아들이며 대비천에서 패하여 면직되

막고 당의 지배기관인 도호부를 두어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68) 『舊唐書』 권5, 高宗本紀하, 105쪽.

69) 『舊唐書』 권144상, 突厥傳상, 5167쪽.

70) 『資治通鑑』 권201 咸亨 원년 3월 조, 6363쪽.

71) 『舊唐書』 권5 高宗本紀하, 95쪽.

었다는 기록처럼 매우 간략히 남아 있다.⁷²⁾ 그러나 광대봉은 다른 史書나 다른 列傳에 그에 대한 흔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지만 아사나도진은 그렇지 못하다. 다만 그의 기록 속에 아사나사이의 아들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사나사이는 태종 때의 명장이자 아사나씨 가운데서도 높은 서열의 인물이었으며, 그는 이사마 이후 집실사력과 함께 동돌궐을 이끈 인물이었다. 그리고 정관 21년(647) 동돌궐과 회흘의 군대를 거느리고 龜茲를 정복하였다. 따라서 그의 아들인 아사나도진의 군대는 동돌궐병의 주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토번과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인 이 전투에서 패장으로 남은 것이다. 이에 전투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동돌궐병의 주력이 괴멸되었을 것이다.

『阿史那忠墓誌銘』에는 토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總章 원년(668) 토번이 쳐들어오자 青海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되었다. 장구한 책략이 멀리까지 떨치니 群凶들이 口하였다. …… 西海의 여러 蕃이 <京師까지> 만 리 길인데, 弓月이 선동하고 토번이 쳐들어오니 날이 갈수록 막을 수 없어서 마침 크게 군색함을 고하였다. 公을 西域道按撫大使 兼行軍大總管으로 삼았다. 公의 명성이 원근에 미치고 信義가 夷狄에 행하여 丹丘 위에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瑤池 가에서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⁷³⁾

이와 관련하여 『舊唐書』에 “<건봉> 3년(668) 봄 정월 庚寅日에 繕工大監兼瀚海都護 유심례를 서역도안무대사로 삼았다. 壬子日에 右相 유인궤를 遼東道副大總管으로 삼았다.”⁷⁴⁾ 라고 하였는데, 당시 토번이 서역의 국가들을 선동하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당은 서역에 군사를 파견하는 동시에 지금의 青海省 지역으로 출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례가 서역으로 진군하였던 것이며, 아사나충은 이때 청해성으로 진격한 것으로 보인다.⁷⁵⁾ 이는 고구려 원정 당시 돌궐병이 청해성 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72) 『新唐書』 권111, 郭孝恪傳, 4132쪽; 『新唐書』 권110, 阿史那史爾傳, 4116쪽.

73) 『阿史那忠墓誌銘』, 위의 책, 602쪽. 口는 빠진 글자.

74) 『舊唐書』 권5 高宗本紀하, 91쪽.

75) 劉安志, 「從吐魯番出土文書看唐高宗咸亨年間的西域政局」,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2001(0), 113~114쪽.

를 통해 토번의 침공은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 2년 7월 토번이 토욕혼을 공격하자 글필하력이 烏海道行軍大總管이 되어 토욕혼을 구원하게 하였는데⁷⁶⁾, 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함형 원년 4월 토번이 于闐과 함께 龜茲 撥換城을 함락시키면서 安西 4鎮이 무너지게 된다. 이때 설인귀의 군단은 다시 청해도로 진공하였으며, 아사나층은 안서 4진 방향으로 진격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후 대비천에서 아사나도진의 동돌궐병은 거의 궤멸되었으며, 아사나층의 군대 역시 안서 4진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사나층은 上元 2년(675) 65세의 나이로 낙양의 사저에서 사망하였다.⁷⁷⁾

儀鳳 2년(678) 關內道와 河東道の 猛士를 모집한다. 그리고 다음 해 李敬玄과 유심례의 당군은 토번에 크게 패하게 된다.⁷⁸⁾ 이러한 계속된 패전은 돌궐병에게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주었을 것이다. 결정적 패전이었다는 점에서 약탈물을 거의 얻지 못했을 것이며, 하사품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종군과 무훈에 대한 포상은 이미 당군 전체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⁷⁹⁾ 또한 고종의 東都 순행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매년 이루어졌으며 이는 關內와 河東 민중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많은 궁전을 건설하였으며, 이때에 이르면 가뭄과 기근 같은 천재지변도 겹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 재정의 파탄 속에서 토번과의 전쟁은 계속 진행되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선우도호부의 징발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미 반란의 조건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현경의 패전 다음 해 阿史德溫傳과 阿史德奉職이 阿史那泥熟匐을 가한으로 세웠다.

76) 『新唐書』 권3 高宗本紀, 65쪽.

77) 『阿史那忠墓誌銘』, 위의 책, 602쪽.

78) 『新唐書』 권3 高宗本紀, 73~74쪽.

79) 劉仁軌는 당시 사람들이 종군을 회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종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舊唐書』 권84, 劉仁軌傳, 2793쪽).

V. 맺음말

태종이 동돌궐을 멸망시킨 뒤 동돌궐 항호를 오르도스 일대에 안치시킨다. 그 후에도 글필하력이나 아사나사이 등의 대족장이 무리를 이끌고 당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태종은 대외 원정에서 이들을 동원한다. 당시 고구려 원정에서 동원된 변병은 대체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주도독부에서 이끄는 거란과 해, 글필부 등 양주 일대에 안치된 변병, 금군에서 숙위를 담당한 동돌궐병이 중심이 되었다. 앞의 두 종류의 변병은 고구려 전쟁 전 기간에 걸쳐 동원되지만 동돌궐 변병은 그 이후 고구려 원정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정관 18년의 원정에서도 그들의 주력은 오르도스에서 설연타의 공격을 막는 데 동원되었다.

고종 재위 초반 동돌궐 대족장 출신의 변장은 아사나총을 제외하고는 사망하던지, 아니면 궁정 정변에 연좌되어 사서에서 그들 이름을 찾지 못하게 된다. 현경 5년에서 용삭 원년까지 고구려 전쟁에는 소정방의 군단이 출전하면서 그와 함께 회홀병이 동원된다. 동돌궐 변병은 고구려 전쟁과 거의 동시기에 일어난 거란과 해의 반란, 철록 9성의 반란에 동원되었다. 즉 당시 주요 전장인 서역과 고구려 전쟁에 소외되고 반란을 일으킨 부족에 대한 토벌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들이 대거 동원된 철록 9성의 반란은 전면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고, 당군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약탈물자나 공훈에 따른 하사품을 받을 기회가 더 적어지게 된다.

당은 정관 23년부터 동돌궐 항호를 운중과 정양도독부에 예속시키고 씨족별로 기미주를 설치하여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여기에 운중도호부를 설치하였다가 나중 선호대도호부로 바꾸고 대외적으로 그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표명하였으나 도독부와 기미주를 증치하고 아사나씨에 대한 권위를 약화 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그들은 고구려 전쟁이 아닌 토변과의 전쟁에 동원된다. 특히 동돌궐의 주력을 이끈 아사나사이의 아들 아사나도진이 대비천 전투에서 패하면서 큰 타격을 입는다. 서역 방면으로 출정한 아사나총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원 2년 낙양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후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되는 토변과 전쟁에 동돌궐병은 징발된 것으로 보이며, 조로 원년 선우도호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고구려의 다문화성

- 유목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徐榮教(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이주해 온 거란인들 |
| II. 휘하의 선비족 | VI. 고구려와 돌궐 그리고 말갈 |
| III. 남겨진 낙랑인들 | VII. 맺음말 |
| IV. 요하를 넘은 복연 사람들 | - 생존방법으로서 다문화정책 |

I. 머리말

고구려의 국가시스템은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힘이 쇠진하기보다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전쟁만큼 소모가 강한 것은 없다. 그런데 고구려는 지속적인 전쟁을 하고도 700년간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규모도 제국에 버금갈 만큼 커졌다. 수당에 의해 중국이 통일된 시기에 주변 나라 가운데 고구려만큼의 규모를 가진 나라도 많지는 않았다.

고구려가 과도한 영역 확장은 피했던 것 같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타문화를 가진 나라나 종족들을 흡수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았던 느낌이 강하다. 물론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자국의 힘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으며, 여기에 고구려의 저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고구려가 처음부터 타민족을 노련하게 관리했던 것은 아니며 그들과 경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더욱 아니다. 고구려는 주변 민족들과의 연합과 처절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기술을 배워갔다고 생각된다.

2013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50만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적지 않은 사회복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약자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고구려의 타민족 관리 정책은 현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의 1차적인 목적은 고구려의 발전이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데 있었다. 그러다보니 사례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초기 고구려사에서 후기로 내려가는 나열식 글이 되었다. 논문으로서 문제제기의 부분도 미진하다. 이점 양해 바란다.

II. 휘하의 선비족

주몽의 아들 유리왕이 고구려를 다스릴 때였다. 기원전 8년 초원에서 선비(鮮卑)족이 고구려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해왔다.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구려는 이 유목민과 싸움을 벌이게 된다.

유리왕 11년(기원전 8) 여름 4월에 고구려 조정에서 군신 회의가 열렸다. 왕이 말했다. “과연 선비족을 어떻게 소탕해 꺾을 수 있겠는가?”

대신 부분노(扶芬奴)가 대답했다. “우선 사람을 보내서 고구려가 약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군대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짓 소문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계속 들리면 선비는 우리 고구려를 쉽게 볼 것이고 경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적당한 시기에 셋길을 통해서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선비족의 근거지에 접근해 산림에 숨어 망을 볼 것입니다. 이때 왕께서는 약한 병사를 성의 남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성루에서 선비족이 우리 고구려의 약한 병사들을 보고, 성문을 열고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비우고 멀리까지 우리 병사를 추적할 때 신이 정병을 거느리고 선비족의 성안으로 들

어갈 것입니다. 이때 왕께서는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저와 함께 그들을 협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¹⁾

왕이 그 말을 따랐다. 고구려의 약졸들을 본 선비족은 과연 성문을 열고 모두 출병했다. 이때 부분노가 군사를 이끌고 선비족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선비족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허겁지겁 방향을 돌려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기 바빴다. 성을 장악한 부분노의 고구려 군대가 성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분노가 성문에서 적을 막았다.

이 싸움에서 많은 선비족이 전사했다. 유리왕도 정예기병을 이끌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성문 앞으로 전진해왔다. 선비족은 앞뒤에서 고구려군에게 포위됐다. 사기가 저하 되고 아무런 대책이 없던 선비족은 고구려에 항복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구려의 속국이 됐다(『삼국사기』). 고구려는 선비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그들을 복속시켰다. 그 후 선비족은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적 조력자로 대외전쟁에 동원되었다.²⁾

가난한 숲속에 살았던 고구려인들은 수렵을 많이 했다. 그 기술은 전쟁에도 활용되었다. 그들은 교활한 사냥꾼이었다. 물자가 부족한 그들이 싸워서 이기려면 더 머리를 써야 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고구려인들에 비해 초원지대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고기와 우유를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운택한 사람들이었다. 유목민들은 가축을 길러 먹고 살았지만 고구려인들은 움직이는 짐승들을 사냥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고구려인들이 살아간 지역은 숲이 우거진 험한 산악지역으로 농사를 지어 배를 채울 수 없었다. 흉년이 들거나 사냥이 잘되지 않으면 그들은 약탈을 위한 사냥대를 조직해야 했다.³⁾

고구려 국초부터 유목민들을 휘하에 두고 병력으로 활용했다. 기원후 49년 봄 고구려는 선비족(분파인 만리(滿離)족)을 이용하여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 북중국을 약탈했다.⁴⁾

최근의 지적대로 “초기 고구려의 성장과정에서는 유목 이동성의 사회성격을 갖는 호족

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11년 조.

2) 李在成, 「高句麗와 邑落聯盟時期的 鮮卑」 『東國史學』, 37, 2002.

3) 金光鎮, 「高句麗社會の生産様式」 『普專學會論集』 3, 1937, 745~751쪽

서영교, 「高句麗의 狩獵習俗과 遊牧民 : 1~2세기 鮮卑族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고구려 연구』 21, 2005.

4) 『삼국사기』 권13, 모본왕 원년 · 2년 조.

(胡族)과 비슷한 역동성(力動性)이 하나의 특징으로 간파될 정도였다.”⁵⁾ 그 역동성은 이동과 정주의 문제를 떠나 고구려와 유목 양사회의 공통습속인 수렵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⁶⁾ 당나라 장군 이정(李靖)의 지적대로 “(蕃人은) 땅이 멀고 황막(荒漠)하여 반드시 수렵(狩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투에 익숙하게 된 것이다”⁷⁾

선비족들은 하북과 북경 주변의 현지사정에 밝았다. 고구려의 군사행동의 목적은 중국과 정기적인 불평등 교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해 요동의 태수가 고구려에 사람을 보내 초대를 했다. 고구려에서 사신과 상단이 파견되었다. 고구려 사신은 형식적으로나마 중국에 복속한다는 의례적 절차를 치렀다. 고구려인들은 현실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었다.

고구려는 담비가죽으로 만든 외투와 말을 현도군에 증여했다. 그러자 중국은 그 두 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었다.⁸⁾ 교역은 후한의 재정이 허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후한으로서는 엄청난 손해였다. 변경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킨다면 약탈을 방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군대를 상주시켜야 하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군대의 주둔 비용보다 출혈교역이 적게 먹혔다.⁹⁾

5) 이기동, 「고구려의 세력권 遼東에 대한 지정학적 고찰」 『廣開土太王과 동아시아 세계』, 219쪽,

6) 유목민들에게도 수렵이나 채집, 어로가 보조적인 경제행위였다(하자노프 著, 김호동 譯, 『遊牧社會의 構造』 지식산업사, 1990, 114쪽). 한편 “만주에서는 산림지대에 살던 종족은 물론이고, 평원에서 농경에 들어간 종족도 수렵을 하였다. 왜냐하면 농경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상 만주의 여러 종족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경과 수렵·어로를 아울러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지적이 있다(김구진, 「고구려·발해사의 연구방법론」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백산자료원, 2004, 256쪽). 이점 참고 된다.

7) 『당태종이위공문대』, 상무인서관, 1975, 140~141쪽

8) 『후한서』 권20, 제준(祭遵)부 제용전 “건무 25년(AD49) 제용(祭彤)은 사인(使人)을 시켜 선비(鮮卑)를 불러와서 재리(財利)를 과시하였다. 선비의 대도호(大都護) 편하(偏何)가 견사봉헌(遣使奉獻)하고 귀화하기를 원하여 제용이 위로하고 상을 주니 얼마 안 있어 다시 친히 항부(降附)하였다. (선비와) 이종(異種)인 만리(滿離)와 고구려도 마침내 낙역(駱驛)하여 관새(款塞)하고 초구(貂裘)와 호마(好馬)를 올리니 황제는 곧바로 그 상사(賞賜)를 두 배로 하였다.” 이를 보면 고구려와 만리(滿離·鮮卑의 異種)는 후한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49년의 북중국 약탈은 단순약탈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중국과의 정기적인 교역을 목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

9) 『책부원귀』 권999, 호시 조 “호시(互市)를 설치하는 것은 (이적(夷狄)들을) 회유·기미(羈縻)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한초(漢初)부터 (互市)를 설치하지는) 의논이 있었다. 이에 (互市의) 주집지지(走集之

후한과 교역은 많은 이익을 고구려에게 가져다 주었다. 후한이 출혈교역의 횡수를 줄이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약탈은 만성적인 것으로 변했다. 121년의 경우를 보자. 그해 여름 고구려가 요동에 거주하는 선비족 8000명을 데리고 요동군을 약탈했다.¹⁰⁾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로 잡혀 갔다. 이듬해 고구려는 후한에 인질을 돌려주는 대가로 엄청난 비단을 받아냈다. 1명당 어른은 40필 아이는 그 반이었다.¹¹⁾ 신대왕(165~178)대에도 유망하던 유목민胡族 5백여 호를 받아들이기도 했다.¹²⁾

지금까지 유목 · 농경의 2분 개념에서 고구려를 파악한 듯하다. ‘수렵’이 초기 고구려를 파악하는 유용한 개념이라 여겨진다. 가난한 수렵민은 유목민을 약탈하기도 한다. 칭기스칸은 수렵민 출신이었다. 그는 수렵민들을 모아 초원의 유목민을 정복했고, 나아가 세계를 정복했다.

고구려인들도 유목민을 자신의 약탈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395년 고구려 광개토왕은 거란의 일파인 패려에 대한 대규모 군 작전을 통해 많은 가축을 확보했다(『광개토왕비문』).

地)를 정하고 관시지법(關市之法)을 만들어서 그들의 물품을 통관시켰는데 (이것이) 그들과의 신의를 돈독히 하였다. 역대의 왕조는 (이 互市를) 준수하였는데 이것은 역시 용(戎)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의 방책(方策)이다.”

10) 『후한서』 권85,동이 고구려전 “夏, 復與遼東鮮卑八千餘人攻遼隊, 殺略吏人. 蔡諷等追擊於新昌, 戰歿, 功曹耿耗, 兵曹掾龍端, 兵馬掾公孫酺以身扞諷, 俱沒於陳, 死者百餘人.” 『후한서』 권51, 교현(橋玄) 열전을 보면 후한 환제(146~167) 말에 선비와 남흉노 및 고구려왕 백고(신대왕)의 약탈이 있었다고 한다(桓帝(146~167)末, 鮮卑, 南匈奴及高句驪嗣子伯固並畔, 爲寇鈔). 그 시기는 후한의 환제와 고구려 신대왕(165~178)의 즉위년이 겹치는 165년에서 167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

11) 『후한서』 권85,동이 고구려전 “明年, 遂成還漢生口, 詣玄菟降. 詔曰: 遂成等桀逆無狀, 當斬斷菹醢, 以示百姓, 幸會赦令, 乞罪請降. 鮮卑, 濊貊連年寇鈔, 驅略小民, 動以千數, 而裁送數十百人, 非向化之心也. 自今已後, 不與縣官戰鬥而自以親附送生口者, 皆與贖直, 縑人四十匹, 小口半之.”

12) 『삼국지』 권30,동이 고구려전 “백고(伯固-8대 신대왕165-178)때부터 (고구려는) 자주 요동을 노략질 하였고, 또 유망한 胡族 5백 여호를 받아들였다(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Ⅲ. 남겨진 낙랑인들

기원전 111년 한나라의 무제는 고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수도에 낙랑군을 세웠다. 중국의 식민지인 낙랑군은 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주민을 받아들였고,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 기원전 45년 낙랑군의 관리들은 인구조사를 했다. 군내 호구 현황을 파악해 통계 수치를 나무판(목간)에 적어 넣는 작업이었다. 인구는 28만 명, 호수는 4만5000여 세대였다. 47년이 흐른 뒤(기원후 2년) 낙랑군 인구는 40여만으로 늘었다.¹³⁾

세계 최고의 인구 밀집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의 평양에 위치한 낙랑군은 한반도에 중국의 제품을 공급하는 PX 역할을 했다. 낙랑군의 상류층 중국인들은 중국본토의 가구와 장신구 등을 사용하였다. 칠기장 가운데는 멀리 사천성의 국영공장에서 제작한 것도 있었다. 0.5톤이 넘는 거대한 목관도 본토에서 실어와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국의 화려한 비단과 쌀, 밀가루, 식용돼지가 들어왔다. 그들의 생활은 원주민인 고구려인이나 삼한三韓(진한 변한 마한)인들에게 무한한 경이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낙랑을 통해서 처음으로 금은을 보고 유리구슬을 만져보았다.¹⁴⁾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보면 삼한인들이 제멋대로 사절을 자칭하며 낙랑군으로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낙랑은 한반도에 많은 선물을 주기도 했다. 보다 발달된 벼 제배 기술, 금은 광산의 개발기술과 제련기술, 탄탄하고 깔끔한 회도토기제조기술이 들어와 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다.¹⁵⁾

낙랑의 문화는 고구려의 묘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낙랑이 병합된 이후 고구려에 거대한 봉토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덤의 거대한 방을 벽화로 장식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구려 고분벽화가 여기서 탄생했다. 낙랑인들은 단검이 아니라 장검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와 삼한인들은 처음에 청동단검을 알고 있었지만 철제장검은 몰랐다. 단검은 가

13) 『한서』지리지

14) 金元龍, 『樂浪文化的 歷史的 位置』『韓國史의 再照明』1973 독서신문사.

15) 金元龍 앞의 논문.

끼이 다가가서 찢러야 하지만 장검은 그보다 떨어져서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다. 여기서 전투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실로 낙랑군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막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고대한국에 주었다. 금과 철 그리고 쌀의 본격적인 생산은 한국고대가 실질적인 왕국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다.¹⁶⁾

낙랑군이 멸망한(313년) 후 8000호 이상의 사람들이 남았다. 그들은 고구려의 해외 상업과 외교 나아가 정교한 가공을 필요로 하는 수공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에 존재하는 벽화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안악 3호분 벽화의 주인공 '동수'는 전연의 관리 출신이었으며, 358년에 그것을 그린 사람들도 낙랑계 장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08년에 지어진 덕흥리 고분벽화 묵서명을 보면 묘주인 '진'은 신도현(하북성 지현) 사람이었다. 77세로 세상을 떠난 그는 요동태수와 유주자사를 역임한 북중국인으로서 고구려에서 국소대형의 관등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왕들은 낙랑에 자치를 허용한 듯하다. 고구려 국왕과는 별개로 남중국의 동진이나 북중국의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으며, 그들은 외교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IV. 요하를 넘은 북연 사람들

북연이 북위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확실해진 시점이었다. 엄청난 환경의 변화에 고구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遼河를 넘어가서 북연의 고급 인력과 물품(사마 호구 병기 군자마 등)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장수왕은 북연에 군대를 파견했다. 왕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했다.

436년 5월, 북연의 수도인 화룡성(和龍城(조양))을 사이에 두고 북위군과 고구려군이 대치

16) 金元龍 앞의 논문 참조.

했다. 당시 북위는 북연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다가 마지막으로 수도를 접수하러 온 상황이었다. 북위군과 고구려군이 동시에 몰려오자 북연의 수도 화룡성 안에서는 친고구려파와 친북위파 간의 내분이 일어났다. 친고구려파와 친북위파가 성 밖에 주둔하고 있는 자기편의 군대를 서로 먼저 끌어들이려 했다.

친북위파가 먼저 선수를 쳐 성문을 열어 북위군을 영입하려 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북위군은 주저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 틈을 타 고구려군이 돌입해 들어가 성을 장악했다. 먼저 고구려군은 북연의 무기고로 향했다. 무기고를 열고 고구려에서 입고 온 옷을 다 벗고, 북연의 A급 갑옷으로 바꾸어 입었으며, 무기도 정교한 새것으로 교체했다.¹⁷⁾ 성 밖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 쥐가 된 북위군과 전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성으로 들어온 고구려군대는 맹수로 변하여 북연의 왕궁을 향해 나아갔다. 약탈이 허락되었다.¹⁸⁾ 화룡성이 병사들의 사냥감으로 변했다. 군대만큼 재미없는 집단은 없다. 승전 후의 약탈이란 군의 사기를 높이는 특효약이다.

본격적인 약탈이 끝나고 약탈의 대상이든 화룡성의 북연인들을 집합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북연인들 가운데는 중원의 고급문화와 기술을 지닌 인력들이 많았다. 남녀 모두 군복을 입고 거대한 대열을 만들었다. 모두 데리고 고구려로 향하려는 참이었다. 성 밖에 북위군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북연인들을 고구려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번 작전의 의미가 없다.

너무나 대담한 시도였다. 고구려 기병은 대열의 외부에 있고, 북연인들은 행렬의 가운데서게 했다. 갈로맹광이 이끄는 고구려 기병이 대열의 후면을 맡았고, 수레로 움직이는 벽을 만들었다. 고구려로 향하는 80리에 달하는 장대한 행렬이었다.¹⁹⁾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북위군은 고구려 기병의 행렬을 끝내 공격하지 못했다.

17)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24년(436) 4월 조 “夏四月, 魏攻燕白狼城, 克之. 王遣將葛盧孟光, 將衆數萬, 隨陽伊至和龍, 迎燕王. 葛盧孟光入城, 命軍脫弊褐, 取燕武庫精仗, 以給之, 大掠城中. 五月, 燕王率龍城見戶東徙, 焚宮殿, 火一旬不滅. 令婦人被甲居中, 陽伊等勒精兵居外, 葛盧孟光帥騎殿後, 方軌而進, 前後八十餘里. 魏主聞之, 遣散騎常侍封撥來, 令送燕王. 王遣使入魏奉表, 稱當與馮弘, 俱奉王化. 魏主以王違詔, 議擊之, 將發隴右騎卒, 劉絜·樂平·王丕等諫之, 乃止.”

18)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24년(436) 4월 조.

19)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24년(436) 4월 조.

436년 최강의 기병대를 보유한 북위군도 고구려군 행렬을 추격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것은 고구려군이 물러나면서 북위군의 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 화룡성을 철저히 불로 파괴했고,²⁰⁾ 화룡성 지척거리에 숙군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의 결과로 북연의 수도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고위 계층과 군인 호구들이 고구려에 이입됐다. 북위는 북연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가치 있는 인력과 물품은 고구려가 가로챘다.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고구려사에서 최대였다.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계로왕 18년(472) 조를 보자.

“사신을 위에 보내 글월을 전해 말하기를 (…)
풍씨北燕의 운수가 다해 그 여류餘類(북연의 민호)가 도망해온 이래로 추류醜類(고구려)가 점차 성해져서 드디어 (백제는) 업신여김과 핍박을 당하게 되므로 원한을 맺고 화를 연속하니 30여 년을 지나 재물과 힘이 다해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
더구나 풍족(북연)의 사마士馬(군사와 필마)는 조축의 변을 가지고 있으며…….”

위의 기록을 보면 436년 북연의 군사와 필마의 유입으로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했다.²¹⁾

479년 장수왕은 북방초원의 패자인 유연의 가한 자성子成에게 비밀스런 제의를 했다. 고구려가 먼저 남쪽에서 지두우족을 칠 것이니 유연은 그 북쪽에서 공격하라고 했다. 남북 양면에서 그들을 차지해 들어가 분할하자는 것이다. 유연은 자성가한(464~485)대에 와서 다시 강해진 상태였다.

유연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고구려는 군대를 북방초원으로 출동시켜 지두우족을 공격했다. 무자비한 약탈과 납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지두우는 엄청난 가축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량이 뛰어난 명마가 생산되고 있었다.

고구려는 거란족도 약탈했다. 공포에 질린 거란족 1만 명이 3천대의 수레를 끌고 북위에

20)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24년(436) 4월 조

21) 서영교, 「북위(北魏) 풍태후(馮太后)의 집권과 對고구려 정책」 『中國古代史研究』11, 2004.

투항했다.²²⁾ 유목세계와 접한 고구려는 유목민을 약탈하던 그들을 자신의 전력으로 전환시키든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려 했다.

V. 이주해 온 거란인들

고구려 문자왕(492~518)의 치세였다. 유목민 거란족 기병이 북위의 동북방 국경지역을 급습했다. 어느 마을에 대한 약탈이 자행되었고 사람 60여명을 잡아서 동쪽으로 돌아갔다.²³⁾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북위의 군대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92년에서 499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다.²⁴⁾ 그 지역의 북위정부 관리로 부임한 봉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황을 보고받고 진상을 조사했다. 변민을 잡아간 거란족들은 고구려 휘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거란족들은 고구려에 소속된 기병이었다.

그들이 고구려군에 들어와 병영막사에서 생활하는 상비군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세력권 내의 어느 초원에서 그들의 부락 조직을 온전히 유지한 상태로 살았다. 만일 고구려가 그들을 묶어 놓는다면 유목민 고유의 기마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이다. 본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가운데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신 그들의 추장은 고구려의 명령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북위의 관리 봉궐는 거란족에게 납치된 사람들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란족을 상대하지 않고 바로 고구려국왕에게 서신을 보냈다. 납치된 사람들의 송환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란인들이 북위의 변경으로 침입하여 사람들을 납치했고, 고구려가 그 배후 조정자였다.

22)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참조.

23) 『위서』권32, 封懿傳 附 封軌傳 “先是, 契丹虜掠邊民六十餘口, 又爲高麗擁掠東歸. 軌具聞其狀, 移書徵之, 雲悉資給遣還”.

24) 李在成, 『庫莫奚部·契丹部の 교역과 契丹八部聯盟』『古代 東蒙古史研究』法仁文化社, 1996, 178~179쪽.

고구려 문자왕은 북위의 관리의 요구에 따라 납치해온 북위인들과 재물을 모두 반환했다. 북위정부에 어떠한 반환의 대가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초기 고구려의 모습은 볼 수 없다. 하지만 고구려가 북위의 무력에 눌려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문자명왕대 고구려는 고도로 정비된 국가로 탈바꿈한 상태였다.

당시 고구려는 북위와 상당히 활발한 조공무역을 하고 있었다. 공무역에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는데 변방에서 고작 60명의 인신약탈로 북위와 외교문제가 일어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의 음성적 약탈을 통해 영위해 왔던 생활을 청산하고 양성적인 국제외교와 공무역의 장에 들어가 있었다. 물량도 적지 않았고, 그 이익은 엄청났다. 문자왕대에 한정해 보더라도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는 총 35회의 사신왕래가 있었다.²⁵⁾

온달이 살았던 고구려 평원왕대(559~589)에 거란인 1만가가 고구려에 들어와 있었다. 『수서』 권84 거란전을 보자. “그 후 돌궐의 핍박을 받자 (거란) 1만가가 고구려에 기탁했다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돌궐이 팽창하면서 거란족이 그 압력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근 4~5만명 이상의 거란인들이 고구려에 유입됐다. 유목민인 그들은 빈손으로 고구려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최소한 10만 여두 이상의 가축을 이끌고 왔다. 이후 거란인 자치구가 고구려의 유용한 말 공급처가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거란족에게 말을 길들이고 양성할 수 있는 의무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 말을 양육하고 조련하는 데 있어 유목민들은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사막과 초원에 사는 유목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외에도 말과 낙타와 개를 기르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양이나 소처럼 식량이나 의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목축 일을 돕는

25) 고구려는 이미 국제외교와 공무역의 장에 들어가 있었다. 『위서』 권100, 고구려전을 보면 “그 뒤에 공물과 사신이 자주 왕래하여 해마다 황금 200근 白銀 400근을 바쳤다(後貢使相尋, 歲致黃金二百斤, 白銀四百斤.)”라고 하고 있다. 436년 당시 북위와 고구려 사이의 교역량은 상당했으며, “고조(孝文帝 471~499) 때에 이르러 璉(고구려 장수왕)이 바치는 공물은 전보다 배로 늘었고, 그 보답으로 내리는 물건도 역시 더하여 주었다(至高祖時, 璉貢獻倍前, 其報賜亦稍加焉.)”라고 하여 전보다 교역량이 배로 증가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것이다. 말개낙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유목민의 놀라운 재주는 발휘되지 않는다. 양이나 소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길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말개낙타는 길들이기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한다. 비인간적인 협력자를 길들이기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기술의 개발은 유목민의 최대 업적이다.²⁶⁾

고구려가 평소에 그 영내에 사는 거란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것은 즉각 작동되고 있었다. 곧이 생각을 해보자면 고구려는 그 세력권 내부에 들어온 거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질서를 부여했고, 겨울이 되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곡물을 정기적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입김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수 백년 이상 유목민과 함께 살아온 고구려인들의 관리방식이었다.

유목생활로만은 풍부한 잉여생산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계의 한발과 들에 불이 발생하여 목초지가 소멸될 수도 있으며, 동계의 한파와 눈의 피해로 집단을 통째로 소멸시키는 패닉panic도 있다. 또한 일용적인 생활필수품으로부터 농업생산물, 게다가 각종 전쟁도구까지 완전하게 자급자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목민은 도시와 농경생산력을 가진 국가와 공생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구려에 휘하의 거란인들의 역할은 다양했다. 주요 외국인 납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한상(韓詳)이라는 영주지역의 호족이었다. 고구려 정부는 거란족에게 그와 그 일족을 잡아 오라는 지령을 내렸다(525~528년). 거란 기병들이 요하를 넘었고, 영주의 용성현(현 朝陽)으로 들어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란인들은 그와 가솔들 500 가구를 고구려로 무사히 데리고 왔다(『한기묘지명』). 한상은 고구려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이라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상의 집안은 용성에 근거지를 둔 봉건세가였다. 대대로 부근의 유목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들 한기는 수나라대에 가서 변경정책 전문가로서 종사했다.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확실한 목표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6) 토인비著, 길현모 외 옮김, 『歷史研究』3, 동서문화원, 1974, 46~47쪽.

고구려는 한상을 이용해서 북위의 영향 아래에 있던 유목민들을 자신의 아래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영주지역의 중국인들을 고구려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Ⅵ. 고구려와 돌궐 그리고 말갈

555년 돌궐군대가 고구려 신성으로 쳐들어왔다. 다행히 유목민 기병들은 견고한 성을 공격하는 데는 서툴렀던 것 같다. 고구려군이 완강하게 버티자 돌궐은 군대의 기수를 백암성으로 돌렸다. 고구려 양원왕(545~559)이 그곳에 장군 고희이 이끄는 1만 기병을 보냈고, 공격을 받은 돌궐은 1천의 전사자와 포로들을 남기고 물러났다.

돌궐의 고구려침공에는 이유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해답은 동로마의 역사학자 테오필락토스 시모카테스(Theophylactos de Simocatta)의 저술에 기록돼 있다. “유연 잔당들이 북제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북제의 공격을 받아 쫓겨 동쪽의 무크리(Moukri)로 도망쳤다”, “무크리는 북제에 인접해 있다. 무크리인들은 위협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매일매일의 신체단련으로 그들의 투지는 매우 높았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북제서』(권4, 문선제 천보 5년 5~6월 조)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으로 유연을 토벌했다.” “유연이 무리를 이끌고 동으로 옮겨가 장차 남침하려 하자, 황제(고양)가 경기병을 지휘해 이를 요격하려 했다. 유연이 이를 듣고 멀리 달아났다.”

일본의 어느 학자(岩佐精一郎)는 무크리(Moukri)를 맥구려(貊句麗)로 풀이했다. 그는 무크리가 오르콘비문에 보이는 BÖki와 동일하며 바로 고구려라고 보고 북제군에 쫓긴 이들이 최후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 영주자사 왕준에게 격파당한 조양(朝陽)과 우문일두귀 등이 동쪽으로 도망한 것을 예를 들었다. 당대의 돌궐인들은 고구려를 맥구려라고 불렀다. 고구려로 망명한 유연의 잔당에 대한 사실에 동로마제국의 기록에 남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²⁷⁾

27)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406쪽 재인용 및 참조.

582년 돌궐과 수나라가 격돌했다. 이때 고구려는 돌궐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실시했다. 그들은 휘하에 말갈 기병단을 소집했다. 그리고 동몽고로 향했다. 거대한 언덕의 초원인 대흥안령산맥을 넘었다. 고구려는 이번 기회에 돌궐군을 급습해 거란과 말갈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했다. 돌궐은 초원에서 고구려의 구역을 끊임없이 잠식해왔다. 거란과 말갈이 모두 돌궐 휘하에 들어간다면 고구려는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고구려 자신의 기병 전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궐에 이끌려 고구려를 공격해오는 위협해 올 수도 있다. 거란과 말갈은 양날의 칼이었다. 자신이 소유하면 유용한 무기가 되지만 그것이 남에게 넘어갈 때 가슴을 겨누는 비수가 됐다. 고구려는 말갈 기병을 이끌고 동돌궐 이계찰移稽察의 기병을 격파했다.²⁸⁾

고구려가 돌궐과 정쟁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605년 경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북방 돌궐제국과 대규모 교역을 한 증거가 포착된다. 그 규모는 수만에 이르는 것이었다. 수가 돌궐 계민가한 휘하의 2만 기병을 동원하여 거란을 유린한 바 있다. 이 때 돌궐군대는 고구려와 교역하기 위해 유성으로 이동하는 상단商團으로 위장했다. 대규모의 돌궐인들이 움직임을 거란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성은 이전부터 중원의 제품, 고구려의 생필품, 유목민의 말이 상호교환 되는 장소였다. 유목민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고구려는 그들이 원하는 곡물과 철, 생필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말을 포함한 가축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적인 관계 때문에 돌궐의 계민가한은 고구려를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 607년 수양제가 자신의 천막궁정에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마침 찾아온 고구려사신을 결코 홀대하지 않았다.

598년 고구려 영양왕은 요서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다. 고구려 휘하의 말갈 기병 1만이 요하를 넘었다. 그리고 수의 영역인 요서에 습격을 가했다.²⁹⁾ 수가 거란족 말갈족을 포섭하는 작업에 쐈기를 박기 위한 고구려의 군사행동이었다.

수나라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수의 영주총관 위충韋沖은 휘하의 거란과 말갈 기병을 동

28) 『수서』고려전.

29) 『수서』고려전.

원했다.³⁰⁾ 그는 그들 기병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고구려의 말갈 기병 1만과 영주도독 휘하의 거란 말갈 기병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고구려의 급습에 위충 휘하의 병력은 사력을 다해 싸웠고, 고구려의 말갈 기병은 신속히 철수하고 물러났다.

요서에 대한 고구려의 공격은 이전에도 있었다. 수가 통일을 이룩하자 고구려의 평원왕은 요동에 병력을 증강했고, 때때로 기병을 동원해 요서를 약탈하고 변경민을 죽이기까지 했다.³¹⁾

Ⅶ. 맺음말-생존방법으로서 다문화정책

고구려는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국가였다. 초기에는 동업수준이었다.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군현의 설치에 가난한 고구려의 숲속에 문명의 단맛을 주었다. 고구려는 선비족과 동업하여 군현을 약탈했다. 선비족과 함께 북중국까지 약탈의 범위를 넓힌 경험도 있다. 여기서 고구려는 문화가 다른 족속과의 동업이 호해나 관대함만이 아니라 군현과의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천왕대 낙랑군과 대방군이 멸망한(313년) 후 많은 중국인들이 남았다. 중국문명을 체화한 그들은 고구려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고구려는 그들을 차별한 흔적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우대한 느낌이 강하다. 낙랑인들은 고구려의 해외 상업과 외교 나아가 정교한 가공을 필요로 하는 수공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391년 광개토왕은 거란족을 정복하여 그 휘하에 있던 1만가(『삼국사기』)를 데려왔다. 아마도 고구려의 전마를 키우고 기병을 배출하는 소중한 집단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고구려의 대외 전쟁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유목민을 땅에 북박한 농민처럼 지배할 수는 없다. 자신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면 약탈을 하든지 두 가지였다. 고구려는

30) 『수서』고려전.

31) 『수서』고려전.

전자를 선택했다. 정기적인 교시를 통해 곡물과 전마의 교역이 있어야 하고, 초원에 기근이 들 때면 무상으로라도 곡물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³²⁾.

장수왕대 북연의 수도에 들어가 군인 관리 학자 일반민들을 모조리 데리고 들어왔다. 436년 북연의 수도 화룡성 앞에서 북위군과 대치하던 고구려군대가 먼저 들어갔다. 성 전체를 약탈하고 북연 사람들을 고구려로 데리고 왔다. 북위와의 결전을 불사하는 모험이었다.

고구려에 온 북연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에 따라 고구려 사회에 재배치된 듯 하다. 군인은 기병으로 학자들은 관청에 장인들은 수공업관서에 자리를 주었고, 아마도 그들은 독립된 마을을 형성하면서 자치를 누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472년 북위에 보낸 백제의 국서에는 436년에 고구려가 북연의 사람들을 대거 유치하면서 강국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고구려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면, 고구려는 문화가 다른 가족구성원을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강제입양을 적극 추진했다. 만성적인 전쟁이 국가의 국력을 소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국력을 신장시키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 소모전을 억제하고, 이익이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우리는 여기서 고구려가 어떻게 이민족을 다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했느냐 생각해 봐야 한다. 언제나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상황은 시련이자 기회였다. 시련은 고구려인들에게 살아남는 법과 더불어 어떻게 휘하의 이민족들과 공생하는지에 관한 가르침도 주었다.

휘하에 유목민이 없다면 기병의 동원력도 전마의 원활한 공급도 어려워진다. 유목민을 적으로 돌리면 그들은 고구려를 떠났고, 항상 적의 편에 가담해 고구려를 괴롭혔다. 고구려의 군주들은 유목민들을 약탈하거나 제압할 때 다른 유목민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초원의 유목민들과 오랫동안 접하고 살아왔던 고구려인들의 삶의 방식이자 믿음이었다.

고구려의 다문화정책은 강적에 대항하여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중국을 통일한 수당왕 조는 고구려가 거란과 말갈을 휘하에 두고 부리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했다. 수당의 지속적

32) 토마스 바필드 저, 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조.

인 유인정책으로 고구려로부터 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당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추장들에게 작위와 벼슬을 주고, 이와 함께 대규모 물량공세를 취했다.

수당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초원을 주었고, 그들의 사신이 조정에 오면 적지 않은 시혜를 베풀었다. 시장을 개설해 중국 상인과 자유로운 교역도 허락했다. 수당의 목표는 그들과 고구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자는 것이었고, 가능하다면 고구려에 대한 대리 공격을 감행할 용병으로 그들을 이용하고자 했다. 수당과 고구려 사이의 생존을 건 끝없는 전쟁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인 665년 고구려 집정자 연개소문이 죽고 그의 무능한 아들들 사이에 내분이 터지자 고구려 휘하에 남아있던 거란과 말갈인들이 대부분 당으로 붙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고구려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고구려의 뿌리를 뽑은 당이 멸망하고 중국에는 오대五代라는 분열의 시대가 찾아왔다. 고구려 사라졌지만, 고구려의 휘하에 있었던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나라(907~1125)를 세워 북방의 초원과 북중국의 상당부분을 지배했고, 역시 고구려의 휘하였던 말갈족의 후손인 여진족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1115~1234)를 세워 북방초원과 북중국 전체를 지배했다. 주인이 없어지자 사나워진 가축들이 번갈아가며 아시아 최대 군사강국을 세웠다.

당시 중국인이 세운 가련한 송나라는 북방의 두 나라에게 거액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치고 연명해야 했다. 거란과 말갈은 과거의 주인이었던 고구려보다는 훨씬 단명했지만, 더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것은 확실하다. 이는 고구려가 그들을 휘하에 두고 수 백년 동안 얼마나 지능적으로 단속했는지를 여실히 말해준다.

고구려는 전쟁으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강제입양’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강제입양이란 말은 동물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어느 도시 부근의 음식물 쓰레기장에는 망토 개코원숭이 무리와 들개무리들이 산다. 두 무리는 전쟁을 할 때도 있지만 공존한다. 원숭이들은 때때로 들개들의 동지에 들어가 강아지들을 납치해 온다.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납치된 강아지들은 원숭이 무리와 함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원숭이들은 심지어 개의 털을 골라주기도 한다. 영장류들은 종족끼리만 털에서 이를 잡는 몸단장을 하기 때문에 이는 원숭이 무리가 개를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증거

다. 강아지들은 원숭이 무리의 가족으로 ‘강제입양’된 것이다.

차별은 전혀 없다. 입양된 개들은 대접을 받으며, 원숭이무리 사회에서 새끼를 놓고 아무런 불편 없이 대를 이어 살아간다. 물론 원숭이 사회에서 입양된 개들의 중요한 역할도 있다. 밤에 들개무리들이 침입해 올 때 짖어서 조기 경보를 내려주기도 하며, 직접 나아가서 싸우기도 한다. 입양된 개들은 자신의 가족인 원숭이 무리를 위해서 충성을 할 뿐이다(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GC <동물아카데미-입양>).

고구려의 진정한 힘은 전쟁에 승리하여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흡수해 자신의 힘으로 이용했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만성적인 전쟁과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고구려인들에게 ‘선입관’이란 사치였다.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보인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 어디 출신이야?”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강국에 둘러싸인 고구려가 700년간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다문화성」 토론문

이정빈(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본 발표문은 고구려의 이종족정책 특히 유목민정책의 통시적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체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발표자는 이미 『고구려 전쟁의 나라 -7백년의 동업과 경쟁-』(2007, 글항아리)을 비롯한 다수의 논저를 통해 고구려와 유목민 관계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본 발표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고구려의 이종족정책이 단일문화로의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향했다고 보고 그 장점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발표자의 견해를 한층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발표자는 고구려의 이종족정책을 ‘강제입양’에 비견하였다. 이는 고구려와 이질적 문화의 공존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강제입양’은 고구려의 관점만 강조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목-수렵사회의 제종족은 국제정세 혹은 그의 필요에 따라 고구려와의 신속관계 수립에 능동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강제입양’은 발표자가 제시한 ‘동업’의 의미를 사장시킬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모색이 요구된다.
2. 고구려 이종족정책의 시기별 변화양상이 궁금하다. 발표자는 고구려 초기의 이종족

정책은 수렵문화를 매개로 설명하고 그 특징을 비자립적 경제환경에서 연유한 약탈에서 찾았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고구려는 적어도 3세기 중반 비정기적 약탈에서 정기적 수탈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동옥저의 사례가 대표이다. 그리고 양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세기 후반 이후 정기적 수탈은 다시 집단적 간접지배에서 영역적 직접지배로 전환되어 나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280년 양맥·숙신의 난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집단적 간접지배 단계의 수탈문제로 발생하였다고 짐작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이를 계기로 한 고구려 이중적정책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낙랑과 복연: 본 발표문의 주제가 유목민을 중심으로 한 만큼 이를 별개의 장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 고구려의 낙랑인 내지 중국계 이주민정책과 유목민정책을 비교하면 본 발표문의 논지가 더욱 선명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4. 사료해석의 문제

본 발표문에서는 고구려의 이중적정책이 매우 폭넓게 제시되었는데, 그런 만큼 각 사례를 서술하는 데서 보다 정밀한 설명이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

1) 문자명왕대의 북위민 약탈: 고구려의 약탈대상은 북위가 아니라 거란이었다. 거란이 약탈한 북위의 변민을 고구려가 다시 약탈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거란을 조정하여 북위민을 납치하였다는 설명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魏書』卷32, 列傳20 封軌. “太和中(477~499) 拜著作佐郎 稍遷尚書儀曹郎中兼員外散騎常侍 銜命高麗(中略) 先是 契丹虜掠邊民六十餘口 又爲高麗擁掠東歸 軌具聞其狀 移書徵之 雲悉資給遣還”

2) 지두우 분할: 5세기 후반 고구려의 거란 공격은 인정된다. 그런데 지두우 분할은 실행

된 것인지 모의에 그친 것인지에 논란이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3) 거란의 萬家の 이주: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에 기탁한 거란의 萬家は 고구려의 영역 내로 이주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거주지에 살면서 신속관계를 수립한 것인지? 이는 비단 거란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속관계를 수립한 다른 이종족집단의 존재형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A. 『魏書』卷100, 列傳88 契丹. “太和三年(479)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自此歲常朝貢 後告饑 高祖矜之 聽其入關市糴”
- B. 『隋書』卷84, 列傳49 北狄 契丹. “當後魏時 爲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于白狼河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 C. 『北史』卷94, 列傳82 北狄 契丹. “太和三年(479)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舊怨其侵軼 其莫賀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內附 止於白狼水東”
- D. 『舊唐書』卷199下, 列傳149下 北狄 靺鞨. “其國凡爲數十部 各有酋帥 或附於高麗 或臣於突厥”

4) 한상의 처지와 활동: 「한기묘지명」에 따르면 한상은 고구려에서 이례적인 예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술에는 묘지명의 과장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한상은 고구려가 제의한 관직을 끝내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구려에서 한상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韓暨墓誌銘」“屬群飛海水 天下亂離 戎狄窺疆 孝昌失御 高麗爲寇 被雍遼東 雖卉服爲夷 大相引接 欽名仰德 禮異恒品恒品 未履平壤之郊 遞拜大奢之職 非其好也 出自本心 辭之以疾 竟無屈矣 執節無變 斯之謂乎 華夏人安 宗祧更立 率領同類五百余戶 歸朝奉國”

5) 고구려·말갈과 돌궐 靺鞨의 충돌: 이 사건은 583년 4월 돌궐에 대한 공격을 명한 수 文帝(재위: 581~604) 조서에 보인다. 여기서 往年이라고 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은

583년 이전의 사실로 파악된다. 그리고 조서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타발가한 재위(572~581) 후반 내지 사발랴가한 재위(581~587) 초반의 사실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아도 수와 돌궐의 대립과정 속에서 일어났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사료상으로 보아 고구려가 말갈 기병을 이끌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각각의 사실로 볼 수 있으며 고구려의 세력범위에 속한 말갈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6) 고구려와 동돌궐 계민가한: 어떠한 점에서 동돌궐의 계민가한이 고구려의 사신을 홀대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보아 계민가한은 고구려의 사신을 수양제에게 보였기 때문이다.

蒙古与室韦族系与秽貊系的关系

张久和·王丽娟

目 次

- 一 生产类型
- 二 服饰
- 三 发式
- 四 饮食

- 五 居住
- 六 婚姻习俗
- 七 丧葬习俗

摘要：本文通过比较研究，认为文献记载的室韦与秽貊两大族系在生产类型、服饰、发式、饮食、居住、婚姻和丧葬习俗等方面均存在明显区别。虽然文献有将秽貊系部落豆莫娄归入室韦族系，并有室韦语与豆莫娄语相同的记载，但总的来讲，可以确定，两个族系的地理环境、经济生活、文化习俗等各有不同，二者之间没有历史渊源关系，是各有起源、各具物质和精神文化内涵及其特征的两个不同的古代民族系统。

关键词：室韦族系 秽貊系 关系

室韦亦作失韦，《魏书·失韦传》首载，北朝至辽金时期历代文献多有记录，是活动在嫩江流域、大兴安岭山脉、呼伦湖周围、额尔古纳河及黑龙江流域，以东胡系部族鲜卑后裔为主的古代民族的泛称。南北朝时期，见诸文献记载的室韦主要分布在嫩江中下游西岸地区。隋代室韦已有5个部落群，分布于嫩江中下游、大兴安岭地区、额尔古纳河及黑龙江上游一带。唐代文献记载的室韦部落已有20部左右，分布地域进一步扩大。其中，蒙兀室韦是室韦之一部，居住在望建河(今额尔古纳河)下游右岸。蒙

兀就是monghol(今译蒙古)一词最早的汉字译写形式。伴随着室韦部落的迁徙, 10世纪以后, 蒙兀室韦已经迁徙到斡难河流域, 通过战争扩充地盘, 降服其它室韦系和非室韦系部落, 逐步强盛起来, 形成蒙古民族共同体, 最终建立大蒙古国。蒙兀室韦, 即蒙古人的前身, 或者叫作原蒙古人, 蒙古属于室韦族系。

秽貊是对中国东北地区以及朝鲜半岛的古秽族和古貊族系统民族的总称。秽貊在先秦时代见著于史¹⁾。汉代以降, 秽貊一词表示由秽族和貊族混合而成的有着相同语言和风俗的民族综合体²⁾。一般认为, 秽貊族系的古民族主要包括秽、貊、箕、古朝鲜、高夷、橐离、良夷、发、白夷、夫余、高句丽、沃沮、豆莫娄等。较有代表性的为夫余和高句丽。夫余国是两汉至魏晋(公元前206年~公元420年)时期的地方部族政权, 其活动范围为今嫩江中下游、松花江以及拉林河、阿什河流域。因屡遭西邻鲜卑、南邻高句丽的攻击而衰落, 北魏太和十八年(494年), 被勿吉所灭, 居民分散迁徙, 多融入其他民族之中。高句丽是公元前一世纪至公元七世纪在中国东北地区和朝鲜半岛存在的一个民族政权, 其人民主要是秽貊的分支和夫余人。晋安帝义熙六年(410年), 高句丽强大, 曾攻破夫余国。其后, 又征服了一些靺鞨、契丹和奚人部落。唐总章元年(668年), 唐攻灭高句丽, 部分人口被迁入中原各地, 另有部分留在辽东, 成为渤海国的臣民, 其余小部分融入突厥及新罗³⁾。

室韦族系与秽貊系的关系, 是学界疏于研究, 较为薄弱的领域。本文主要从生产类型、服饰、发式、饮食、居住、婚姻习俗、丧葬习俗等几个方面将室韦与秽貊(以夫余、高句丽为主)两大系统古代民族进行比较研究, 进一步明确二者之间的关系。

1) “秽”, 据《逸周书·王会》载:“秽人前儿”;“貊”, 在中国的传世古籍“四书”中《论语》、《孟子》和《中庸》, 都有提到。

2) 《史记·匈奴列传》、《史记·货殖列传》、《汉书·王莽传》、《汉书·食货志》、《汉书·地理志》、《汉书·夏侯胜传》中均出现“秽貊”连举的现象。

3) 《资治通鉴》卷195《唐纪十一》。

一 生产类型

北朝至唐代初期，室韦人主要从事原始的渔猎业、牲畜饲养业、农业和手工业生产。唐代中后期，一些室韦部落已活动在今呼伦贝尔草原，阴山山脉北部地带，个别部落甚至深入蒙古高原腹地，并同突厥、回纥、契丹和奚等游牧民族频繁接触。生产力水平的提高，蒙古高原的生态环境和相邻游牧民族的影响，使自身经济已有一定基础的室韦部落的经济发生了变化。唐末五代以来，一些室韦部落相继由渔猎、牲畜饲养和粗放农业的经济类型转化为典型的游牧业经济，并以游牧的畜牧业生产为主。

与室韦系不同的是，秽貊系的夫余以农业为主。据《后汉书·东夷传》载，夫余“于东夷之域，最为平敞，土宜五谷。……以员栅为城，有宫室、仓库、牢狱。”高句丽也是以农业为主，渔猎业为辅助的生产类型。尤其是到了公元4~5世纪，高句丽向辽东、玄菟、乐浪扩张后，随着生产力的提高，土地数量增多，农产品有了剩余。高句丽人已建有储藏粮食的仓廩。铁制农具如铁犁铧、铁铲、铁镰已用于农业生产。

二 服饰

总的来说，室韦人各个时期均以皮衣为主，但用料间有不同。北朝时，室韦男女穿鹿皮“襦裤”^④。《隋书》、《北史》记载的南室韦“衣服与契丹同”。契丹“衣皆左衽”^⑤。南室韦人也是将皮袍长襟左掩，着无裆皮裤。与南室韦略有差异，北室韦、钵室韦居地多獐、鹿、狐、貉，捕鱼业也较发达，应以这些动物皮为衣饰原料。史载大室韦地多貂及青鼠，又因与北室韦经济生活相同发展水平相近，地理环境相似，服

^④ 襦是上衣，古有长襦、短襦之分。这里当指长衣，即袍子。裤是无裆套裤。

^⑤ 《辽史》卷56《仪卫志》；《契丹国志》卷23《衣服制度》。

饰应大致相仿。隋代北部地区的室韦人着獐皮、鹿皮、鱼皮缝制的衣裤，戴狐、貉、貂皮制作的帽子⁶⁾。到唐前期，室韦人除用兽皮做衣冠外，文献记载表明他们还以猪狗皮为原料，制作衣服⁷⁾。

在装饰物方面，唐朝以前，室韦“俗爱赤珠，为妇人饰，穿挂于颈，以多为贵，女不得此，乃至不嫁。”⁸⁾偏爱红色，表现出室韦人的审美观念。“女不得此，乃至不嫁”，说明装饰品在妇女的婚姻生活中起着重要作用，形成独特的习俗。到唐代，室韦“家富者项著五色杂珠”，⁹⁾审美观念有了变化，并且成为区分贫富的标志。可见，饰物不是唯美的，它还具有划分等级、区别贵贱贫富的作用。五代时，室韦诸部地多铜、铁、金、银，室韦人善作铜铁金银器皿，据此推测，唐末五代的室韦人可能有了金属装饰物。

高句丽的服饰，据《北史·高句丽传》记载：“衣布帛及皮。”“人皆头蓄折风，形如弁，士人加插二鸟羽，贵者，其冠曰苏骨，多用紫罗为之，饰以金银，服大袖衫，大口袴，素皮带，黄革履，妇人裙襦加襟。”《旧唐书·东夷传》则说：“高丽人官贵者则青罗为冠，交以绯罗，插二鸟羽及金银为饰，衫筒袖裤大口，白韦带，黄韦履。国人衣褐，载弁(帽)，妇人首加巾幘。”由此可以看出，高句丽人的服饰以布帛和皮为主，男子头戴帽，帽的形制可以区分贵贱官品。士人头幘上插二鸟羽，贵人的头冠用紫罗，并加饰金银。妇人也戴头巾。男子的服饰为短上衣、直领、大襟为交襟式，袖口、领子、下摆边缘有袂襖，长短不一。袖筒、裤口都较肥大。妇女所穿鞋的鞋尖突出。同为秽貊系的百济，其服饰，“多与高丽同”¹⁰⁾。这与室韦的不同之处是显而易见的。

6) 《隋书》卷84《室韦传》。

7) 《旧唐书》卷199下《室韦传》。

8) 《魏书》卷100《失韦传》。

9) 《旧唐书》卷199下《室韦传》。

10) 《旧唐书》卷199上《百济传》。

三 发式

据《魏书·失韦传》、《隋书·室韦传》和《旧唐书·室韦传》记载，室韦人男子索发，亦称披发；女子束发，或谓盘发。从北朝到唐代，室韦的发式没什么变化。史载北朝时，室韦人“丈夫索发，女妇束发，作叉手髻”。隋代，“丈夫皆被发，妇女盘发”。唐代，“被发左衽”。不同记载含义是一致的，索发即披发。这种发式大致是：留全发，将散发下披，任其自然，不编辫，不作髻，末端或以绳扎系。妇女的“束发”和“盘发”也大致相同，都是将头发束于脑后，盘成髻。这可能是成年女子或已婚女子的发式。

高句丽男子的发式为发髻式，即束发为髻，或用头巾包住。比较有特点的是高髻和双髻，高髻是用丝带将头发束起扎实，再把头发盘成高耸的发髻。双髻的梳扎方法与单髻基本相同，只是最后盘成两个发髻。高句丽的贵族还喜欢戴冠，冠的形制大同小异，基本以罗制成，王戴白罗冠，白皮小带，由冠及带都有金扣装饰。大臣所戴之冠依次为青罗冠、绯罗冠、紫罗冠，上面用金银杂扣，然后再插上两根羽毛，用来区别贵贱。平常百姓则戴一种用皮革制成的帽子，称为弁。女子的发式有高贵和普通之分。高贵的妇女梳高髻，平民妇女流行垂髻¹¹⁾。

四 饮食

北朝时期的室韦人以猪、鱼作为主要食物。牛、马除用作交通工具外，也当作食用。农作物粟、麦、糜子作补充食物和用来酿酒。¹²⁾隋代，南室韦的饮食结构与北朝

11)《旧唐书》卷199上《高丽传》、《新唐书》卷220《高丽传》。

12)《魏书》卷100《失韦传》。

时略同，以猪肉和粟、麦作食物，并用谷物酿酒。北室韦、钵室韦等多以獐、鹿等兽肉及鱼鳖等水产品作食物¹³⁾。唐代初期，室韦人除增食犬肉外，¹⁴⁾仍以猪肉、鱼肉、兽肉为主，辅以牛、马肉及少量粮食。从室韦人的饮食文化亦可看出，唐初期以前，南部室韦部落经营着渔猎业、家畜饲养业和种植业，北部室韦则以渔猎业为主。唐末五代，迁徙到蒙古高原及缘边地带的室韦部落已转变为游牧经济，其标志是羊和马的大量牧养。这样，羊肉及其乳制品就成为室韦牧民平时的主要食物。从北朝、隋代室韦的“俗又无羊”，“唯食猪鱼”，“饶獐鹿，……食肉衣皮”，到五代以后的“所食惟肉酪而已”¹⁵⁾。这种饮食结构的变化并不是一件简单的事情，它反映了唐末五代以来室韦部落社会和经济所发生的重大变革和历史进步。

由于秽貊系民族主要以农业为主，农作物即是其饮食的主要部分。高句丽境内所产的粟、黍、麦、稻、菽、粮等，可做成米饭、稀饭、油饼、打糕、馒头等。在高句丽墓的壁画上有炉灶支锅煮食物，用踏碓捣谷物的画面，副食主要以蔬菜、果品、肉类为主。高句丽人亦喜饮酒。据《三国志·高句丽传》记载：“其人洁清自喜，善藏酿。”集安高句丽壁画墓中有多处反映高句丽人饮酒的场面，并出土了大量酒器、酒具，如铜壶、陶壶、陶杯、耳杯等。

五 居住

室韦人的居住方式，最初有巢居和穴居两种。文献记载表明，北魏至隋，室韦人随季节变换而采取不同的居住形式：夏日“巢居”，冬季“穴居”。这主要是经济生活和地域、气候等自然条件限制使然。室韦人“巢居”的形式，史书有简略记载，大致

13) 《隋书》卷84《室韦传》。

14) 《旧唐书》卷199下《室韦传》。

15) 《契丹国志》卷22《四至邻国地理远近》。

是“屈(木)为屋，以簠簋覆上，移则载行。以猪皮为席，编木为藉。”¹⁶⁾结合民俗学资料，其结构大体是以木杆若干根，上端交叉于一点，下端按相同距离散开，搭成圆锥型框架，然后用苇席覆盖四周。一般朝日出方向设门，顶部不覆什物，以备通风、采光。另用木条编成衬垫，置于室内，上铺猪皮为席，以隔潮气。室韦的“穴居”与勿吉人的“筑城穴居，屋形似冢，开口于上，以梯出入”¹⁷⁾的居住方式相似，大概是利用小土丘一类地形，从背风一侧开挖洞穴，穴口向上，洞顶用木棍之类支架，架梯子出入，人居地下，以避寒气。“穴居”习俗是与室韦人所居地气候寒冷、抗御自然能力低下有关。及至唐末、五代，有些室韦部落已经采用了游牧民族的传统居住方式——毡帐¹⁸⁾。之后，随着游牧经济的发展，则逐步过渡到毡帐居，居住毡帐成为室韦系各部落的主要居住方式。

据《旧唐书·高丽传》所载：高句丽“所居必依山谷，皆以茅草葺舍。唯佛寺神庙及王宫官府乃用瓦。其俗贫穷者，多冬月皆作长炕，下火日皿火，以取暖。”高句丽都城的规制与建筑的特点，是仿汉制的庑殿结构和回廊形式。这与室韦人的居巢、居穴和住毡帐是有很大区别的。

服饰、饮食、居住等生活习俗与经济生产类型息息相关。室韦系各部落由综合的生产类型到以游牧业为主，主要是衣畜皮，食畜肉，住毡帐。秽貊系民族则是以农业为主，衣布帛，食农作物，定居生活。两个族系拥有不同的服饰、饮食和居住文化，各有内涵和特征。

16) 《隋书》卷84《室韦传》。

17) 《魏书》卷100《勿吉传》、《隋书》卷81《靺鞨传》、《旧唐书》卷199下《靺鞨传》均有记载。

18) 关于室韦住毡帐，在《册府元龟》、《新五代史》、《契丹国志》、《辽史》等史书中均有记载。

六 婚姻习俗

室韦社会存在一些古老的婚俗，如抢婚、收继婚等习俗，其中服劳役婚(不落夫家婚)是主要婚姻形态。男女形成婚约后，男方要先回女方家居住一段时间，一般在女方家服力役三年，而后再回男方家，这是母权制社会的遗俗。北朝至隋，室韦逐渐向一夫一妻制过度，但部分原始婚俗还存在。另外，婚俗中以牛马作聘礼，反映了私有财产的存在。

夫余社会也有收继婚的习俗。据《后汉书·夫余传》记载，夫余人“兄死妻嫂”。高句丽则流行不落夫家婚俗。《后汉书·高句丽传》记载：“其婚姻皆就妇家，生子长大，然后将还。”这种男到女家，育有子女再回男方家的婚俗，是母系氏族社会婚姻习俗——走婚制的残留。另据《隋书·高句丽传》记载：“有婚嫁者，取男女相悦，然即为之，男家送猪酒而已。无财聘之礼，或有受财者，人共耻之。”

室韦系各部落与秽貊系民族都存在一些原始的婚姻习俗，其后逐渐向一夫一妻制演变。在婚俗中作为聘礼的物品，室韦系部落以牛马，而秽貊系民族以猪酒，反映了经济生活的不同。

七 丧葬习俗

北朝至唐代早期的室韦人实行树葬，或称天葬，是一种古老的葬式，同室韦人初期居于森林之中有关系。北朝时，室韦“父母死，……尸则置于林树之上”。隋唐时，“部落共为大棚，人死则置尸其上”。前者或更为原始，后者当是有血缘关系的氏族或部落的公共墓葬场所。室韦的树葬习俗同南邻契丹、奚的早期葬俗相同，¹⁹⁾与近代

19) 参见《隋书》、《北史》、《旧唐书》的《契丹传》；《隋书·奚传》、《通典·边防十六·奚》。

鄂伦春人的葬俗亦大致相近。随着部分室韦人进入草原，其葬俗当有所变化，土葬可能成为主要葬式。今内蒙古呼伦贝尔陈巴尔虎旗西乌珠尔、海拉尔谢尔塔拉古墓群就是室韦人的墓葬²⁰⁾。

与室韦人不同的是，夫余和高句丽有实行厚葬和死后停尸的习俗。据《三国志·高句丽传》载，高句丽人死后“厚葬，金银财币，尽於送死，积石为封，列种松柏。”高句丽的墓中，随葬品有金银器、玉器、陶器、铁器、生活用品等。又据《北史·高句丽传》记载：“死者殡在屋内，经三年，择吉日而葬。居父母及夫，丧服皆三年，兄弟三月。”在集安的高句丽古墓，大多为积石墓。还有部分土墓。最有代表性的是大型方坛积石墓——将军坟，用大块石头垒积而成。²¹⁾高句丽与室韦的葬俗还是有许多不同的。

以上从几个方面极为简要地叙述比较了室韦系与秽貊系民族的不同。需要指出和强调的是，南北朝时期见于文献记载的室韦是东胡系鲜卑后裔。隋唐以后，室韦这一名称演变成为一个泛称。在这个名称下面，除以东胡系鲜卑后裔各部落为主体以外，古人还把一些非鲜卑后裔部落归入了室韦族系，比较明显的就是将秽貊系的豆莫娄归入了室韦族系。

据唐开元二十七年(739年)修成的《唐六典》记载，开元年间，“凡四蕃之国，经朝贡已后，自相诛绝及有罪见灭者，盖三百余国。今所在者，有七十余蕃。”接下注有各部名称，其中包括“和解、乌罗护、乌素固、达末娄、达垢”²²⁾等室韦部落。始撰于大历元年(766年)的《通典》在新增的唐代室韦内容中说，“大唐所闻有九部焉，屡有朝贡。所谓岭西室韦、山北室韦、黄头室韦、大如者室韦、小如者室韦、讷北室韦、婆

20) 赵越：《论呼伦贝尔发现的室韦遗迹》，载《内蒙古文物考古文集》第1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4年。据对出土的独木棺的C14测定，年代为公元680年左右。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呼伦贝尔民族博物院、海拉尔区文物管理所《海拉尔谢尔塔拉墓地》，科学出版社，2006年。谢尔塔拉文化代表了7-10世纪活动在呼伦贝尔草原上的室韦人的遗存。

21) 据1983年调查统计，集安境内有高句丽时期古墓群75处，原有古墓12358座，经清理发掘，尚存9022座。高句丽古墓大多数为石墓，少部分为土墓。见吉林省文物志编委会编，《集安县文物志》，第313-321页，1984年。

22) 《唐六典·尚书礼部》卷四主客郎条。

菑室韦、达末室韦、骆驼室韦。”²³⁾其中都记有“达末娄”或“达末室韦”。

白鸟库吉在其《室韦考》中认为，达末室韦即达末娄。达末与达末娄名称基本相同，达末娄，即豆莫娄。²⁴⁾据《魏书·豆莫娄传》记载：“豆莫娄国，在勿吉国北千里，去洛六千里，旧北扶余也。”又见《新唐书·流鬼传》所言：“开元十一年，又有达末娄、达姁二部首领朝贡。达末娄自言北扶余之裔，高丽灭其国，遗人度那河，因居之，或曰他漏河，东北流入黑水。”²⁵⁾两书均说豆莫娄系北夫余后裔。这与《唐六典》与《通典》记载豆莫娄属于室韦部落相左。显然，《唐六典》与《通典》把属于秽貊系的北夫余后裔豆莫娄纳入室韦名下是误记，充其量只能表明唐代室韦部落中增加了非东胡系鲜卑后裔成分，而不能说明秽貊系部落与室韦族系有实质性的关系。

《魏书·失韦传》在谈及室韦语言时，有一条弥足珍贵的记载，称室韦“语与库莫奚、契丹、豆莫娄国同。”契丹、奚均属东胡系鲜卑后裔，与室韦语言相通有相关的文献记载可资佐证，而室韦“语与……豆莫娄国同”却还是一个需要继续研究的问题。

综上所述，不难看出文献记载的各个历史时期的室韦与秽貊两大族系在生产类型、服饰、发式、饮食、居住、婚姻和丧葬习俗等方面均存在明显区别。虽然文献也有将秽貊系部落豆莫娄归入室韦族系，并称室韦语与豆莫娄语相同的记载，但总的来讲，可以确定，两个族系的地理环境、经济生活、文化习俗等各有不同，二者之间没有历史渊源关系，是各有起源、各具物质和精神文化内涵及其特征的两个不同的古代民族系统。

张久和，男，内蒙古大学历史与旅游文化学院教授

王丽娟，女，内蒙古大学蒙古学学院博士研究生

23)《通典》卷200《室韦》。

24)《白鸟库吉全集》第4卷，第357页，岩波书店，1970年。

25)那河，今嫩江；他漏河，今洮儿河。黑水，今黑龙江。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계통 및 족속

吳江原(韓國學中央研究院 副教授)

목 차

I. 머리말	III.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계통과 족속
II.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물질문화와 전개	V. 맺음말

I. 머리말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에는 지역 별로 다양한 물질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 물질문화는 지역에 따라서는 주변 지역의 다른 물질문화와 유물복합 전반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강한 지역성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개는 주변 물질문화의 유물 요소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하게 복합되어 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물질 양상은 선사시대이든 현대이든 간에 세계의 물질문화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주변 지역과 완전히 고립된 채 절대적으로 고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변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고 변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문화의 유물 복합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물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 문화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물 요소 가운데 주변 지역 문화와 상통하는 유물 요소들이 특정 지역 문화의 주변 지역과의 상호 작용과 교류 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요한 물질 자료가 된다고 하면, 주변 지역 문화의 중심적인 유물 요소와 구분되는

이러한 유물 요소들의 복합체는 해당 지역 문화의 성격과 계통을 밝히는데에 핵심이 되는 요소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제국주의고고학에서 말하는 계통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정 지역 문화의 후대 문화와의 계통을 밝히는데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세계 어느 지역의 문화이든 간에 소지역 단위의 분석을 벗어나 거시적인 시각에 조망하여 볼 때 다수의 소지역 단위 지역 문화 간의 의미있는 상호 작용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호 작용 관계망 또는 상호작용권은 동일 상호작용권 밖의 주변 상호작용권과 구별되는 물질문화권을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동북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분석 기준에 따라 이들 지역의 물질문화를 유목문화권·축목문화권·농경문화권·어렵문화권 또는 북방문화권과 중국문화권(중원문화권) 또는 대륙문화권과 해양문화권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역 또는 상호작용권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고대 종족 또는 정치체(국가 단계 이하) 또는 국가 등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세기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동안 유행한 바 있는데, 그 뒤의 인류학적인 조사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다른 종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 물질문화를 공유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과도한 역사학적 해석에 의문이 제기되어 현재는 제국주의시대의 고고학이나 초기 인류학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종족을 밝히는 작업 보다는 물질문화 자체에 대한 집중적 연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특히 중국 동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청동기~철기시대의 여러 주민 집단이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이 일대의 종족과 주민 집단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질문화에 대한 천착과 이들과 접촉하였던 고대 중국의 역사 기록을 대비하여 분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학자들이 이 일대 물질문화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토대로 종족과 집단을 논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의 물질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분석이 바탕을 저변에 깔고 가능한 부분만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그간 여러 지면을 통해 하북성 북부로부터 내몽고 동남부와 요령성·길림성을 거쳐 서북한에 이르는 지역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들 작업은 유물 유적의 분류와 전체 지역의 편년 체계를 세우는 것 외에 동시기 주변 지역과 후행 시기 동일 지역 문화

간의 상호 작용 및 계통적 관계, 중범위 수준에서 분류된 특정 문화 내의 소지역 단위의 추출과 소지역 단위 간의 교류 관계, 복합사회의 형성과 물질문화의 변동, 중국계 문화와 토착문화와의 지역 관계, 요령 지역과 북방문화와의 관계, 사회적 위계화와 복합화, 고조선과 부여를 비롯한 여러 종족 집단과 세력을 밝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면서 우선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물질문화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본고에서 다루는 시간과 공간이 장기적이고 광역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이 자체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마친 뒤에는 분류된 각 개별 지역 내 선·후행 문화 간의 문화적인 연속성과 계통적인 상관 관계 및 중국 동북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상호작용권과 그러한 권역의 변동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마지막에 이들 문화와 관련된 족속 문제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물질문화와 전개

논의에 앞서 중국 동북 지역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중국 동북 지역은 글자 그대로 중국의 동북부를 말한다. 흔히 東三省이라 하여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을 전형적인 중국 동북 지역의 범위에 포괄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 동북 지역이라고 할 때 이들 지역 외에 內蒙古 동부와 河北省 북부의 일부 지역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河北省 북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청동기시대 이 지역의 지역 문화가 고대 중국문화와는 다른 권역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華北大平原 北端과 燕山山地 일대까지를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중국 동북 지역은 자연지리적인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크게 河北省 북부의 華北大平原 北端, 河北省 북부의 燕山山地, 內蒙古 동남부·동북부, 遼寧省 서부·동부, 吉林省 서부·중부, 延邊朝鮮族自治州, 黑龍江省 서부·동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들 지역 외에도 몇 개의 지역들이 추려지기는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고대 종족과 정치체와 다소 거

리가 있고 큰 단위 분석에도 적합지 않아 제외하였다. 위에서 나눈 지역 단위는 수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는 물론 전통시대 생업경제권의 분기와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어 분류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河北省 北部的 華北大平原 北端 地域

華北大平原 北端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토기·청동기·묘제 등의 차이에 따라 大坨頭文化, 圍坊3期類型, 張家園上層類型, 西周文化, 燕文化, 秦·漢文化의 순서로 변모된다. 이 가운데 西周文化로부터 秦·漢文化에 이르기까지는 ‘中原文化’라고도 불리는 고대 중국문화에 속한다. 사회정치적으로는 商나라 멸망한 후 北京市 일대에 봉국된 燕나라와 秦·漢의 지방 또는 명목상의 燕國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華北大平原 북단의 물질문화는 물론 정치 체제가 西周文化의 형성을 기점으로 하여 획기적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지방사회에 해당된다.

大坨頭文化는 大廠縣 大坨頭 유적¹⁾을 표지로 하는 유물복합을 말한다. 과거에는 大坨頭文化의 유적에 夏家店下層文化의 토기가 공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또한 夏家店下層文化에 포괄시키거나²⁾, 夏家店下層文化의 토기가 공반하고 있을 뿐 夏家店下層文化 전형의 주거지·묘제·토기 조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夏家店下層文化의 지역적 변체(燕南型³⁾, 海河型⁴⁾, 雪山型⁵⁾)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大坨頭型髙의 형태가 龍山文化 河北型의 髙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龍山文化를 직접적인 선행 문화로 하여 파생된 후계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⁶⁾.

1) 天津市文化局考古發掘隊, 1966, 「河北省大廠回族自治縣大坨頭遺址試掘簡報」, 『考古』1966年 1期.

2) 劉觀民, 1986, 「試析夏家店下層文化陶鬲」, 『中國考古學研究』, 文物出版社.

3) 李經漢, 1980,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4) 張忠培·孔哲生·張文軍·陳雍, 1987, 「夏家店下層文化研究」, 『考古學文化論集』1, 文物出版社.

5) 鄒衡, 1980, 「關於夏商時期北京地區諸鄰境文化的初步探討」,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6) 韓嘉谷, 1991, 「京津地區夏商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七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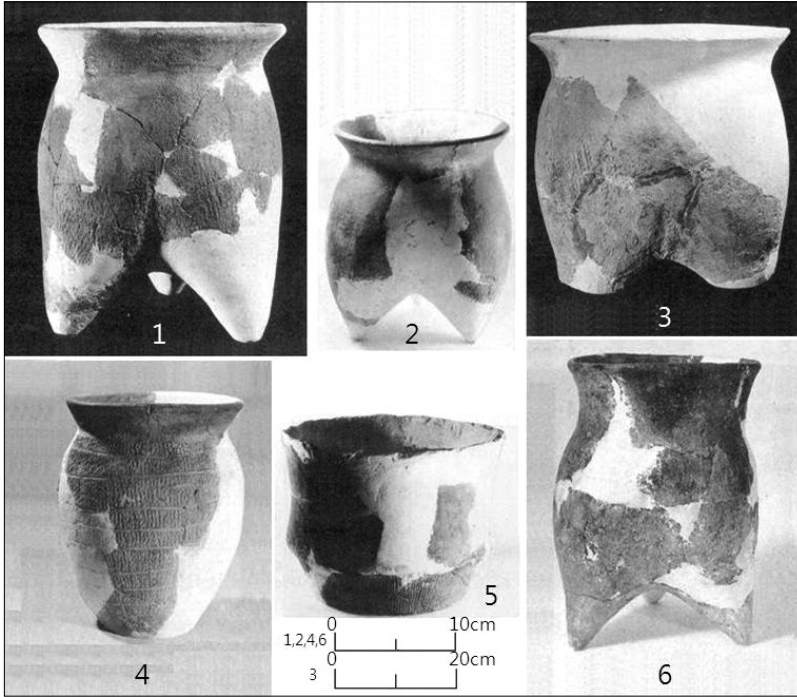


그림 1 大坨頭文化의 주요 토기(작도)
* 蔚縣 圍坊2期文化層

大坨頭文化는 大坨頭型鬲(折肩鬲)과 大坨頭型甕形土器(斂口鼓腹罐) 및 幾何文 彩繪土器가 토기 조합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모제로는 석관묘(唐山市 小官莊⁷⁾)와 토광묘(香河縣 慶功臺⁸⁾)가 있다. 이외 금속 유물로 소형 청동 장식품이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단부를 단타하여 납작한 나팔 꼴을 만들어 놓은 황금제 팔지가 있다. 주거지 등의 조사가 불충분하여 아직 연대가 분명치는 않으나, 蔚縣 庄窠⁹⁾ 30호 저장구덩이 출토 곡식 낱알의 보정 연대가 3515 125년이고, 大坨頭와 涿水縣 富位 취락지¹⁰⁾ 상층에 二里崗上層 2期가 되

7) 安志敏, 1954, 「唐山石棺墓及其相關的遺物」, 『考古學報』 第7冊.

8) 廊房市文物管理所·香河縣文物保管所, 1999, 「河北香河縣慶功臺村夏家店下層文化墓葬」, 『文物春秋』 1999年 6期.

9) 張家口考古隊, 1984, 「蔚縣夏商時期考古的主要收穫」, 『考古與文物』 1984年 1期.

10) 拒馬河考古隊, 1988, 「河北易縣涿水古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88年 4期.

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16~15세기까지는 존속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¹¹⁾.

圍坊 3期類型은 하북성 薊縣 圍坊 3기층¹²⁾을 표지로 하는 유형으로, 주요 유적으로 易縣 北福地¹³⁾, 遵化縣 西三里¹⁴⁾, 遷安縣 小山東莊¹⁵⁾, 唐縣 洪城¹⁶⁾, 盧龍縣 雙望¹⁷⁾ 등이 있다. 圍坊 3期類型的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는 圍坊型 花邊鬲(突帶文鬲), 內灣口高肩鉢, 나팔 꼴 황금 귀걸이, 황금 팔지, 弓形銅器, 商나라식 청동예기, 목관묘와 목곽묘 등이 있다. 圍坊 3期類型은 大坨頭文化를 이은 후계 유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¹⁸⁾, 아직 문화로까지¹⁹⁾ 명명하기에는 유적 유물 양상이 충분치 않다. 주요한 공간역은 華北大平原 北端의 潮白河 중 하류역~灤河 하류역이다.

圍坊 3期類型은 商나라식 청동예기와 토기가 공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商나라와 병렬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 범위는 蔚縣 莊窠²⁰⁾ 유적에서 大坨頭文化層 위에 二里崗上層 문화층이, 遷安縣 小山東莊에서 大坨頭文化層 위에 圍坊 3期類型層이 퇴적되어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는 점과 圍坊型 花邊鬲이 목이 길게 빼어지고 刻目 突帶가 부가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大坨頭型鬲과 직접적인 선후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을 적어도 기원전 14세기 전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한은 西周 초기, 즉 기원전 11세기로 생각된다.

張家園上層類型은 薊縣 張家園 上層²¹⁾을 표지로 하는 유형으로, 주요 유적으로 易縣 燕

11) 紀烈敏, 2002,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演變」, 『邊疆考古研究』 1, 104~105쪽.

12) 天津市文物管理處考古隊, 1983, 「天津薊縣圍坊遺址發掘報告」, 『考古』 1983年 10期.

13) 拒馬河考古隊, 1988, 「河北易縣涑水古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88年 4期.

14) 劉震, 1995, 「河北遵化縣發現一座商代墓葬」, 『考古』 1995年 5期.

15) 唐山市文物管理處·遷安縣文物管理所, 1997, 「河北遷安縣小山東莊西周時期墓葬」, 『考古』 1997年 4期.

16) 保定地區文管所, 1996, 「河北唐縣洪城遺址的調查」, 『考古』 1996年 5期.

17) 李捷民·孟昭林, 1958, 「河北盧龍雙望鄉發現細石器和陶器」, 『考古通訊』 6期.

18) 韓嘉谷, 1991, 「大坨頭文化陶器群淺析」, 『中國考古學會第七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 紀烈敏, 2002,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其演變」, 『邊疆考古研究』 第1輯, 科學出版社, 105쪽.

20) 張家口考古隊, 1984, 「蔚縣夏商時期考古的主要收穫」, 『考古與文物』 1984年 1期, 41~44쪽.

21) 天津市文物管理處, 1977, 「天津薊縣張家園遺址發掘簡報」, 『文物資料叢刊』 1, 文物出版社; 天津市歷史博物館考古隊, 1984, 「天津薊縣張家園遺址第二次發掘」, 『考古』 1984年 8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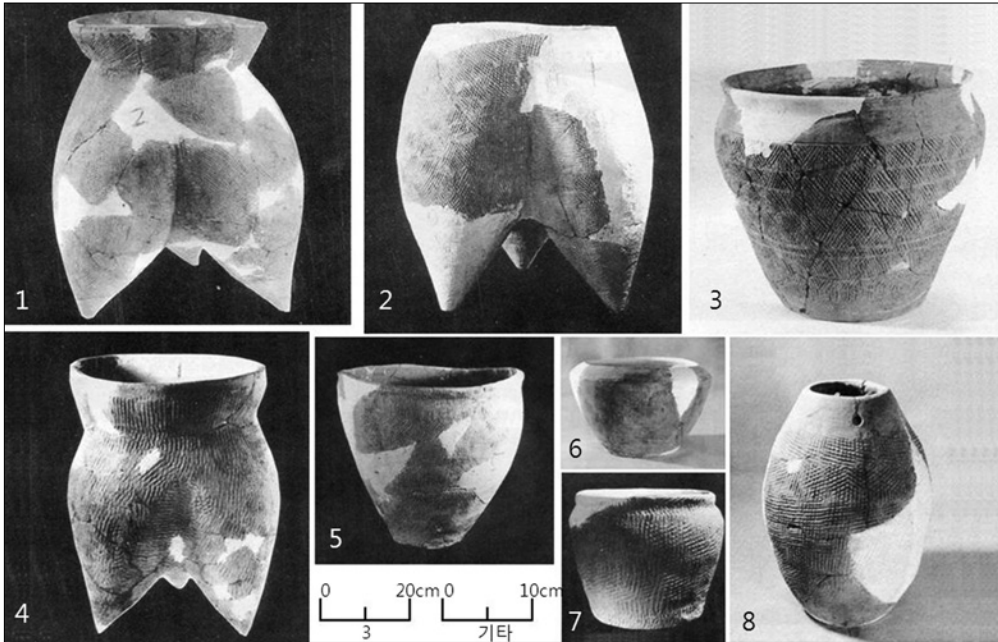


그림 2 圍坊3期類型的 주요 토기(작도)
* 薊縣 圍坊3期文化層

下都²²⁾, 涑水縣 炭山 2기층²³⁾, 薊縣 劉家墳²⁴⁾, 寶坻縣 飲馬臺²⁵⁾, 房山縣 塔照²⁶⁾, 唐山市 古冶²⁷⁾ 등이 있다. 張家園上層類型的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는 張家園上層型鬲, 商周式 토기 (鬲, 罐……), 西周式 청동예기, 북방식 청동장식, 목관모와 목곽모 등이 있다. ‘圍坊 3期文化’²⁸⁾ 또는 ‘張家園上層文化’²⁹⁾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중국식 유물이 상당수 공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圍坊 3期類型과 질적인 차이를 보임과 동시에 문화로 명명하기에는 유물 유적의

22)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文物出版社.

23) 拒馬河考古隊, 1988, 「河北易縣涑水古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1988年 4期.

24) 韓嘉谷 等, 1987, 「薊縣邦均西周時期遺址和墓葬」, 『中國考古學年鑒』, 中國考古學會.

25) 韓嘉谷 等, 1987, 「寶坻縣飲馬臺戰國遺址」, 『中國考古學年鑒』, 中國考古學會.

26) 北京市文物研究所, 1999, 『鎮江營與塔照』,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7) 河北省文物研究所, 1984, 「唐山市古冶商代遺址」, 『考古』1984年 9期.

28) 沈勇, 1993, 「圍坊三期文化初論」, 『北方文物』1993年 3期.

29) 李伯謙, 1994, 「張家園上層類型的若干問題」, 『考古學研究』2, 北京大學出版社; 紀烈敏, 2002,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演變」, 『邊疆考古研究』1, 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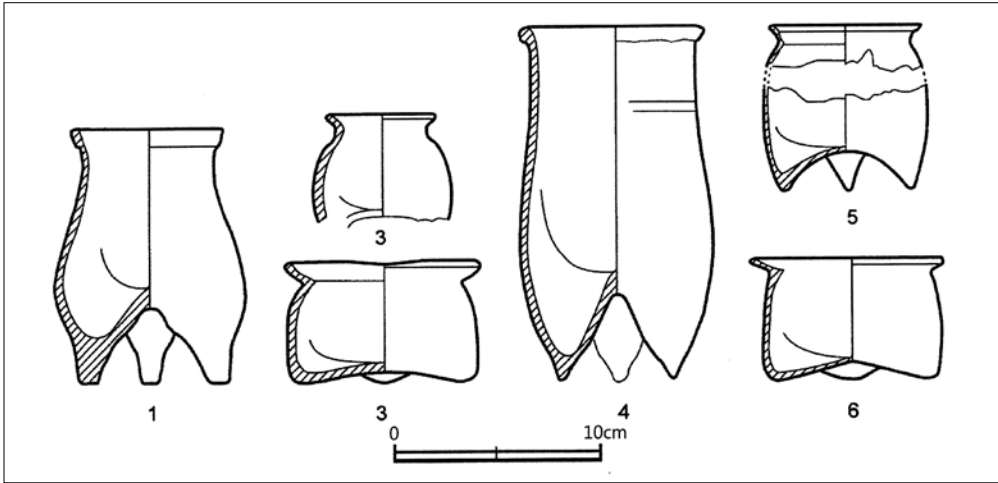


그림 3 張家園上層類型의 張家園上層型鬲과 西周燕式 토기
 *1, 4 : 張家園上層型鬲, 2, 3, 5, 6 : 西周燕式 土器
 **1~3 : 薊縣 青池, 4~6 : 房山縣 鎮江營(吳江原 2011, 그림 9)

고유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유형으로³⁰⁾ 명명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張家園上層類型은 표지 유물인 張家園上層型격이 기신 전반이 세장화되었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는 圍坊型鬲과 선후의 변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다량의 西周 시대 중국 토기가 공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西周와 병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張家園上層類型的의 시간 범위와 관련해 薊縣 劉家墳 82호 시굴 구덩이 출토 목탄의 탄소 연대 측정치(3070 75년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간역은 圍坊 3期類型과 대체로 유사한데, 易縣-北京-寶坻-唐山을 잇는 선의 북쪽 지역, 즉 燕山山地와 맞닿아 있는 華北大平原의 북단부에서만 전형적인 유적이 찾아진다³¹⁾.

30) 韓嘉谷, 1980,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31) 오강원, 2007, 「비파형동검문화 십이대영자 단계 유물 복합의 기원과 형성 과정」, 『단군학연구』 16, 101~105쪽.

2. 河北省 北部의 燕山山地 地域

河北省 北部 燕山山地의 물질문화는 이 일대에서의 유적 조사가 충분치 않은 까닭에 청동기시대 후기와 철기시대 전기 이전의 정황이 불분명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적인 물질문화의 전개 양상은 드러난다. 이 일대의 청동기시대~철기시대 물질문화는 대체로 李大人莊類型, 抄道溝類型, 東南溝-玉皇廟文化, 戰國燕文化, 秦·漢文化의 순서로 변천된다. 이 가운데 戰國燕文化와 秦·漢文化는 고대 중국문화의 전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들 문화의 중심 종족은 고대 漢族이다. 따라서 본고와 관련하여 주요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戰國燕文化 이전의 문화들이 해당된다.

李大人莊類型은 기존에 大坨頭文化³²⁾ 또는 夏家店下層文化³³⁾로 인식하고 있던 유물복합을 말한다. 宣化縣 李大人莊 유적³⁴⁾을 표지로 삼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燕山山地 남쪽 華北大平原 北端의 大坨頭文化와 燕山山地 서쪽 內蒙古 동남부와 遼西 지역의 夏家店下層文化가 중복되어 있으면서³⁵⁾ 그 어느 것보다도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유물복합을 이루고 있다. 大坨頭文化와 夏家店下層文化의 토기, 大坨頭文化와 夏家店下層文化 토기의 속성이 복합된 토기, 소형 청동장식품, 토광묘가 유물 조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대는 대체로 大坨頭文化와 병행한다.

抄道溝類型은 燕山山地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불충분하여 전체적인 문화 면모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양상은 파악된다. 靑龍縣 抄道溝³⁶⁾와 興隆縣 小河南³⁷⁾의 曲柄銅劍과 獸柄銅刀 등의 북방식 청동기를 중심으로 중국식 청동기가 복합되어 있는 때

32) 紀烈敏, 2002,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其演變」, 『邊疆考古研究』第1輯, 科學出版社, 103쪽.

33) 劉觀民, 1986, 「試析夏家店下層文化陶器」, 『中國考古學研究』, 文物出版社.

34) 張家口市文物事業管理所·宣化縣文化館, 1990, 「河北宣化李大人莊遺址試掘報告」, 『考古』1990年 5期.

35) 하북성 북부의 非 중국계 문화는 李大人莊類型 뿐만 아니라 大坨頭文化까지도 주변 지역의 유물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상민, 2010, 「中國 永定河流域 前期 青銅器時代 文化的 形成과 發展-鬲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33, 154~157쪽.

36)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73, 「河北省靑龍抄道溝發現一批青銅器」, 『考古』1973年 1期.

37) 鄭紹宗, 1994, 「附錄 興隆小河南發現北方式青銅器概況」,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青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1994年 4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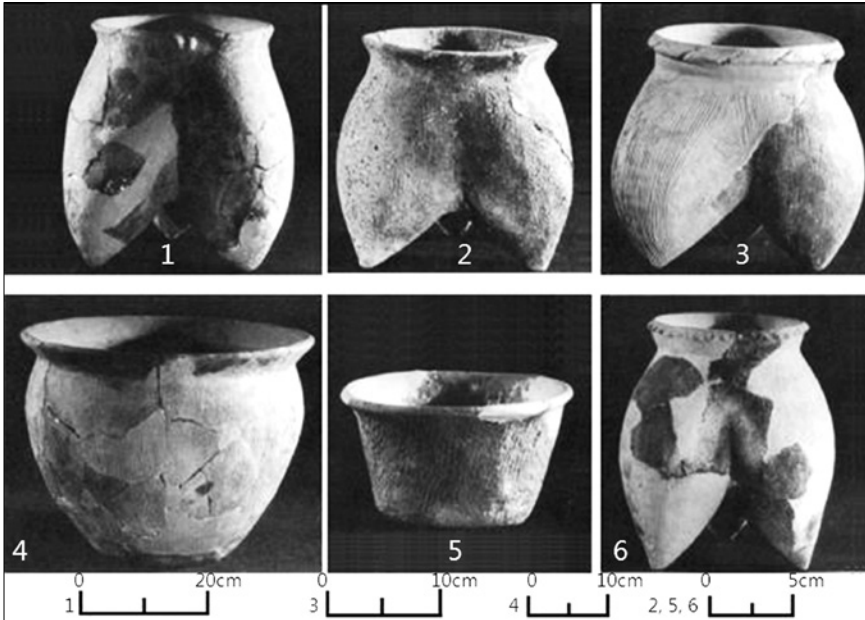


그림 4 李大人莊類型的 주요 토기(작도)
* 宣化縣 李大人莊 유적

납유구, 非 중국계 토기와 청동기가 부장되어 있는 豐寧 土城鎮 牛圈子梁·東溝道下 석관묘³⁸⁾ 등의 예로 보아, 적어도 기원전 12~9세기 무렵 이 일대에 中國 內地·華北大平原 北端·遼西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 유형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抄道溝類型的 형성 배경은 장성 연선 북방계 청동기문화의 동진이 고려된다³⁹⁾.

東南溝-玉皇廟文化는 환수동검과 환수동도를 대표로 하는 북방식 청동기, 雙耳(單耳)罐, 단경호, 동물형 패식, 좁석저분구 석곽묘, 토광묘, 목관·목곽묘 등이 유물 조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문화를 말한다. 東南溝-玉皇廟文化는 구체적인 유물 조합과 유물 형식의 변천 등을 기준으로 東南溝段階, 駱駝梁段階, 玉皇廟段階, 炮臺山段階의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

38) 河北省文物研究所, 1998, 『河北豐寧土城鎮石棺墓調查』, 『河北省考古文集』, 東方出版社.

39) 吳江原, 2011,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青銅禮器 埋納 遺構」, 『韓國上古史學報』 74, 23~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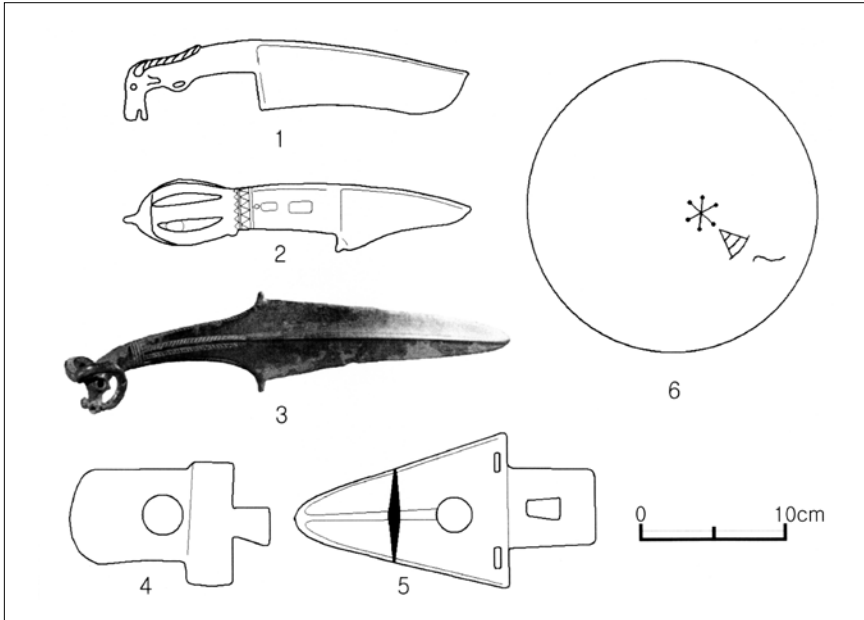


그림 5 河北省 青龍 抄道溝와 興隆 小河南 매납유구 출토 유물(일부)
 1. 牛首銅刀, 2. 鈴首銅刀, 3. 鹿首曲柄銅劍, 4. 管釜鉞, 5. 直內戈, 6. '木祖乙'銘 青銅 器蓋(吳江原 2011, 그림 13)

다. 대표 유적으로는 東南溝段階는 平泉縣 東南溝⁴⁰⁾, 駱駝梁段階는 隆化縣 駱駝梁, 灤平縣 窖上⁴¹⁾, 張家口市 白廟 3類 1組⁴²⁾, 玉皇廟段階는 懷來縣 北辛堡⁴³⁾, 延慶縣 玉皇廟⁴⁴⁾, 灤平縣 苟子溝⁴⁵⁾, 炮臺山段階는 灤平縣 炮臺山⁴⁶⁾ 등이 있다.

이 가운데 炮臺山段階는 동물 순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물 요소가 戰國燕系로 대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東南溝-玉皇廟文化의 마지막 잔영이라고 할 수 있다. 炮臺山段階는 張家口市 白廟의 戰國燕系 鐵刀子와 炮臺山 6호 목관묘의 銅敦이 기원전 4세기 중엽의 河北省

40) 河北省博物館 外, 1977, 「河北平泉東南溝夏家店上層文化墓葬」, 『考古』 1977年 1期.

41) 鄭紹宗, 1984, 「中國北方青銅短劍的分期及形制研究」, 『文物』 1984年 2期, 37~39쪽.

42) 張家口市文物事業管理所, 1985, 「張家口市白廟遺址清理簡報」, 『文物』 1985年 10期, 25쪽.

43)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6, 「河北懷來北辛堡戰國墓」, 『考古』 1966年 5期.

44) 靳楓毅, 1991, 「軍都山山戎文化墓地葬制及主要文化特徵」, 『遼海文物學刊』 1991年 1期.

45) 河北省文物管理處, 1977, 「灤平發現山戎氏族墓地」, 『光明日報』 12月 9日.

46) 河北省文物研究所 外, 1984, 「灤平縣虎什哈炮臺山山戎墓地的發現」, 『文物資料叢刊』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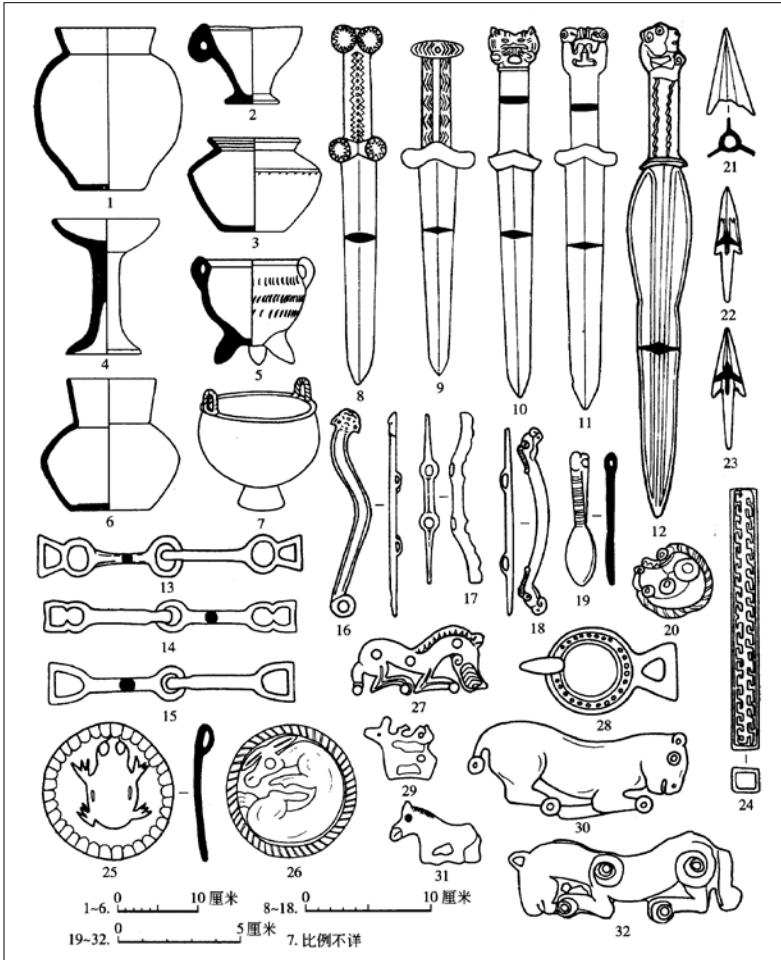


그림 6 東南溝-玉皇廟文化 玉皇廟類型의 주요 유물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4, 圖12-15)

通縣 中趙甫 목관묘⁴⁷⁾ 출토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기원전 4세기 중엽을 하한으로 볼 수 있다. 상한은 東南溝 저분구 석곽묘의 병부에 連續馬文이 장식되어 있는 직병단검이 장성 연선 전체의 단검의 변천 과정에서 환수동검 보다 이른 단계에 배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넓게 잡아 기원전 9~8세기로 편년된다⁴⁸⁾.

47) 程長新, 1985, 「北京通縣中趙甫出土一組戰國青銅器」, 『考古』 1985年 8期, 圖4-2.

48) 吳江原, 2004, 「中國 東北 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先史와 古代』 20, 75~78쪽.

3. 遼寧省 西部 地域

遼寧省 西部(遼西) 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夏家店下層文化, 魏營子類型, 十二臺營子文化, 戰國燕文化, 秦·漢文化의 순서로 변천된다. 이 가운데 戰國燕文化로부터 漢文化까지는 요서 지역의 토착문화와는 전혀 다른 燕·秦·漢의 요령 지역으로의 팽창에 따른 결과로서 그 주체 종족과 정치사회적 성격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夏家店下層文化로부터 十二臺營子文化까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을 밝힌 바 있고, 우리 학계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문화들이므로 간략한 소개만을 하기로 하겠다.

夏家店下層文化는 西拉木倫河~大凌河 유역의 紅山文化와 小河沿文化를 직접적인 기원으로 하여 여기에 龍山文化의 요소가 복합하여 형성된 문화이다⁴⁹⁾. 대표 유적으로는 赤峰市 夏家店⁵⁰⁾, 北票市 豊下⁵¹⁾, 敖漢旗 大甸子⁵²⁾ 등이 있다.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는 夏家店下層型鬲⁵³⁾, 罐形鼎, 折腹盆, 附加堆文甗, 彩繪土器, 有壕溝·有土城 聚落, 토광묘, 土坯牆·石築牆 주거지가 있다. 연대는 赤峰市 四分地⁵⁴⁾와 敖漢旗 大甸子 토광묘 출토 유물에 대한 절대연대측정치, 北票市 豊下 유적의 층위 관계와 토기를 중심으로 한 주변 유적 및 지역과의 조열 관계를 통해 기원전 20~15세기로 편년되고 있다⁵⁵⁾.

魏營子類型은 朝陽縣 魏營子 목곽묘⁵⁶⁾를 표지로 하는 유형으로, 대표 유적으로는 喀左

49) 李經漢, 1980,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5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 「赤峰葯王廟, 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4年 1期.

51) 遼寧省文物幹部訓練班, 1976, 「遼寧省豊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 1976年 3期.

5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遼寧工作隊, 1975, 「敖漢旗大甸子遺址1974年試掘簡報」, 『考古』 1975年 2期.

53) 劉觀民, 1986, 「試析夏家店下層文化的陶鬲」, 『中國考古學研究』, 文物出版社.

54) 遼寧省博物館 等, 1983, 「內蒙古赤峰縣四分地東山嘴遺址發掘簡報」, 『考古』 1983年 5期.

55) 李經漢, 1980,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張忠培 外, 1987, 「夏家店下層文化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郭大順, 1987, 「豊下遺址陶器分期再認識」, 『文物考古論集(文物出版社成立30周年紀念)』, 文物出版社.

56)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遼寧朝陽縣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 1977年 5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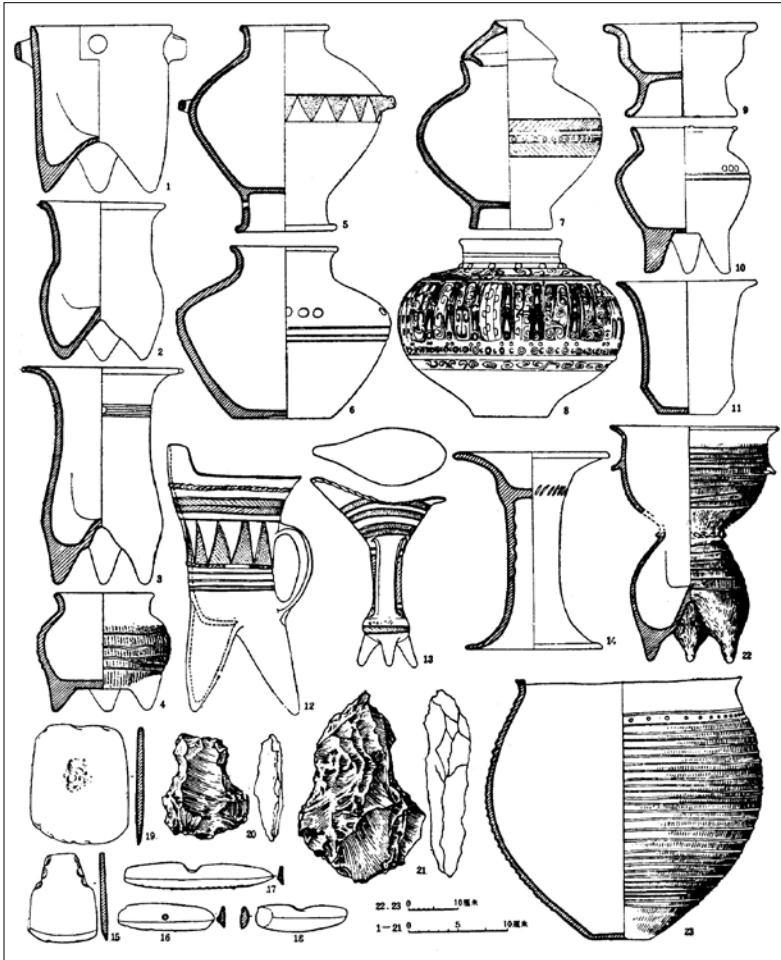


그림 7 夏家店下層文化의 주요 유물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4, 圖85)

縣 北洞 매납유구⁵⁷⁾ ·和尚溝 A묘구⁵⁸⁾ ·高家洞 고분⁵⁹⁾ ·后墳 유물포함층⁶⁰⁾, 建平縣 水泉 유

57) 喀左縣文化館 · 朝陽地區博物館 · 遼寧省博物館 北洞文物發掘小組, 1973, 「遼寧喀左縣北洞村發現殷代青銅器」, 『考古』 1973年 4期; 喀左縣文化館 · 朝陽地區博物館 · 遼寧省博物館 北洞文物發掘小組, 1974, 「遼寧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 1974年 6期.

5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喀左縣博物館, 1989,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年 2期.

5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8, 「遼寧喀左高家洞商周墓」, 『考古』 1998年 4期.

60) 喀左縣文化館, 1982, 「記遼寧喀左縣后墳村發現的一組陶器」, 『考古』 1982年 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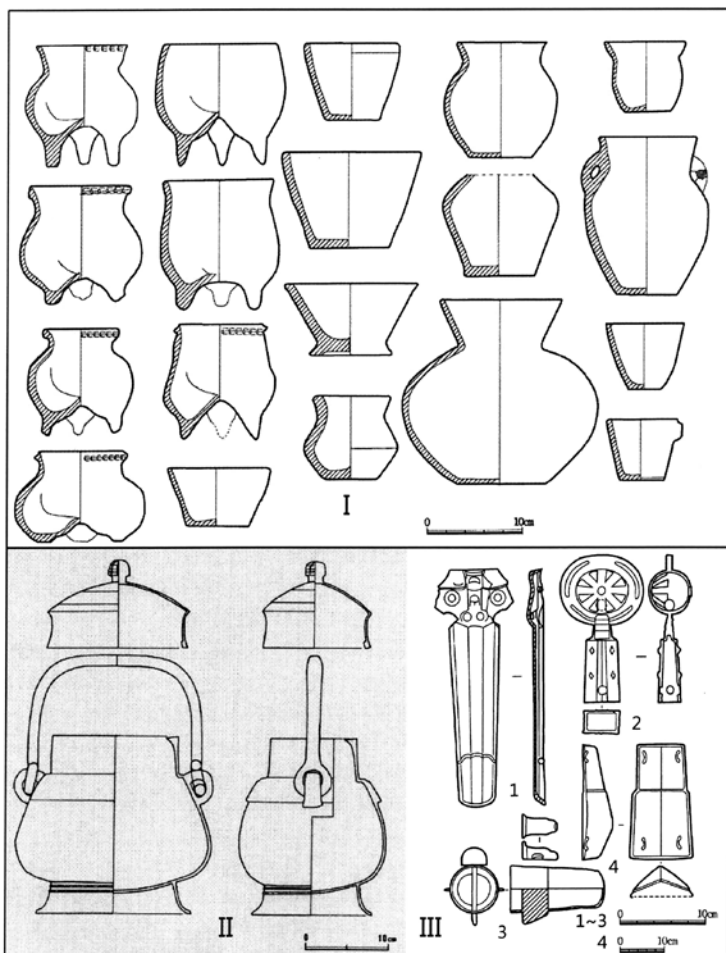


그림 8 魏營子類型的 주요 유물
(吳江原 2011, 그림 10)

물포함층⁶¹⁾, 義縣 向陽嶺 취락지⁶²⁾ 등이 있다.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는 花邊高, 突帶文甌, 二重口緣 繩文鉢, 二重口緣 盆, 無文短頸壺, 口頸 豎環耳 無文短頸壺, 舞文 甕形土器, 無文 甕, 長胴 突帶文 壺形土器, 單鈕圓形銅飾, 청동예기, 抄道溝類 북방식 청동무기와 도구, 황금 팔지, 목곽묘 등이 있다. 魏營子類型은 토기와 묘제에서는 張家園上層類型과, 북방식 청

61)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6年 2期.

6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9, 「遼寧省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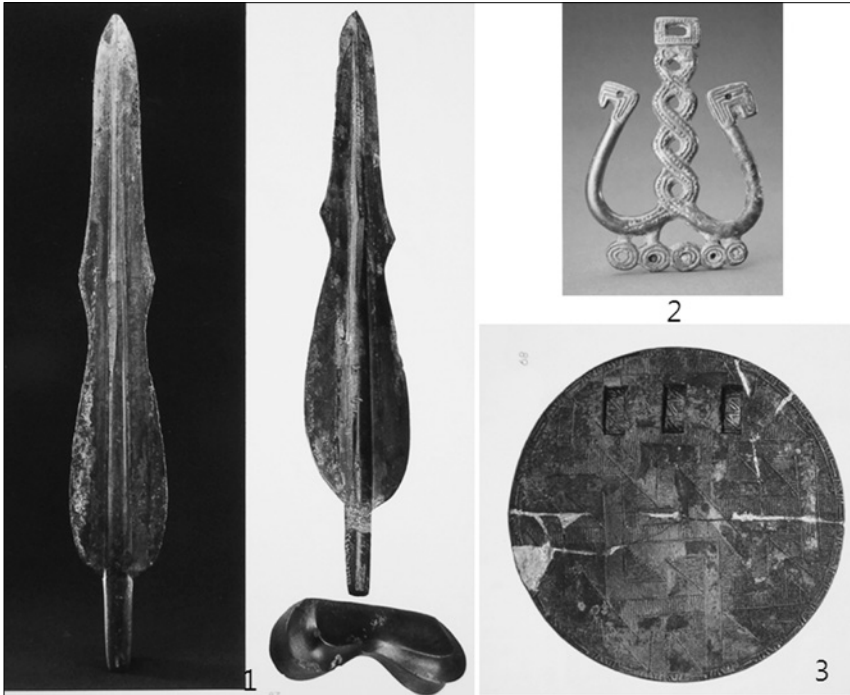


그림 9 十二臺營子文化 十二臺營子類型的 주요 청동기
(吳江原 2012, 그림 4)

동기에서는 장성 연선의 북방계문화와 상사하다.

魏營子類型은 大凌河 상류역을 중심으로 한 요서 일대를 공간으로 하고 있다.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기원전 12세기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데, 하한에 대해서는 기원전 10세기⁶³⁾, 기원전 9세기⁶⁴⁾, 기원전 8세기⁶⁵⁾로 다양하다. 그러나 和尚溝 A구 목곽묘에 商末周初로 편년되고 있는⁶⁶⁾ 청동예기와 함께 魏營子類型的의 늦은 단계의 토기가 부장되어 있고, 和尚溝 B~D구의 고분이 魏營子類型的이

63)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404쪽; 吳江原, 2011,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靑銅禮器 埋納遺構」, 『韓國上古史學報』 74, 23쪽.

64)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 1, 88쪽.

65) 董新林, 2000, 「魏營子文化初步研究」, 『考古學報』 2000年 1期, 12쪽.

66) 廣川守, 1997, 「遼寧大凌河流域의 殷周靑銅器」, 『東北亞考古學研究-中日合作研究報告書』, 文物出版社, 228쪽.

아닌 十二臺營子文化 十二臺營子 단계의 유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원전 10세기를 하한으로 보는 것이 맞다.

十二臺營子文化는 朝陽縣 十二臺營子 석곽묘군을 표지로 하는 문화로서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는 비파형동검·선형동부·다뉴기하문경·석곽묘 등이 있다. 기원전 9세기 大凌河 유역에서 비파형동검과 검병두식 및 소형 청동장식품이 공반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8세기 전 遼西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기원전 6세기에는 河北省 북부로부터 유입된 후기 북방계 유물 요소의 확산과 토착 문화의 그에 대한 반응의 결과 十二臺營子文化 南洞溝類型(遼西)과 鄭家窪子類型(沈陽 일대)으로 분화된다. 기원전 4세기 말의 建昌縣 東大杖子 적석목관묘⁶⁷⁾와 喀左縣 園林處 석곽묘⁶⁸⁾가 하한을 이루고 있다.

4. 遼寧省 東部 地域

遼東 지역은 절대 면적은 작지만 산악이 발달하여 있고 해양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여러 지역 문화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작은 규모의 지역 문화들이 다수 형성되어 있었다. 대체로 기원전 20~11세기의 기간 동안에는 요동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馬城子文化와 雙砬子 1~3期類型이 형성되어 요동의 주변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⁶⁹⁾, 기원전 10~5세기의 기간 동안에는 요동 북부에 二道河子類型(미송리형호와 석관묘 등)이, 요동 남부에 雙房類型(쌍방형토기와 지석묘 등)이, 요동 남단에 崗上類型(강상형토기와 적석총 등)이, 요동 동부에 大梨樹溝類型(대이수구형토기와 석관묘 등)이 있었다.

遼東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6~4세기의 기간 동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같은 기간 沈陽 일대에 十二臺營子文化 鄭家窪子類型的 강력한 중심이 형성된 것과

6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遼寧建昌東大杖子戰國墓地的勘探與試掘」, 『2000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68) 傅宗德·陳莉, 1988, 「遼寧喀左縣出土戰國器物」, 『考古』1988年 7期.

69) 천선행·장순자, 2012, 「馬城子文化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嶺南考古學』 63, 20~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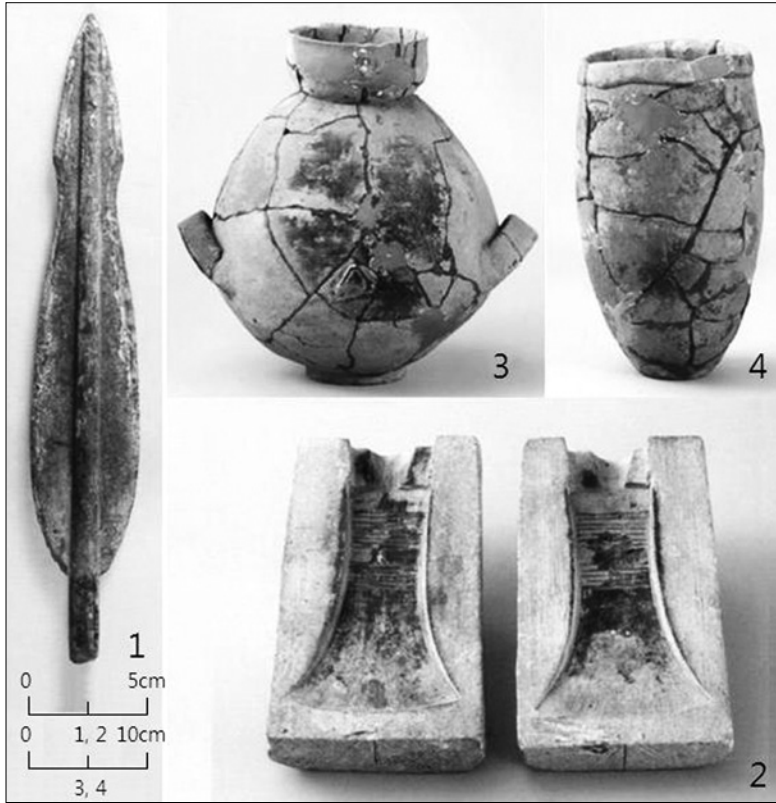


그림 10 雙房類型的 토기와 청동기
 *普蘭店市 雙房 6호 개석식 지석묘(吳江原 2012, 그림 8)

연관이 있다. 鄭家窪子類型的 영향으로 기원전 4~3세기 요동 각지에는 그 이전의 전형적인 청동기문화와는 구별되는 지역 유형들이 형성되는데, 太子河流域의 劉家哨類型과 大連 일대의 尹家村類型 및 桓仁 일대의 大甸子類型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들 토착문화는 요동의 일부 지역에까지 戰國燕이 밀고 들어옴에 따라 戰國燕文化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어 初期 高句麗文化와 秦·漢文化로 재편된다⁷⁰⁾.

70)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404쪽; 吳江原, 2011, 『商末周初 大凌河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流域의 青銅禮器 埋納遺構』, 『韓國上古史學報』 74, 23쪽.

5. 內蒙古 東南部 地域

內蒙古 동남부 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夏家店下層文化, 夏家店上層文化, 鐵匠溝-水泉 諸 類型, 戰國燕文化, 秦·漢文化의 순서로 변모된다. 이 가운데 戰國燕文化부터 秦·漢文化까지는 고대 중국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또한 夏家店下層文化期 內蒙古 동남부, 즉 西拉木倫河(西遼河) 유역은 大凌河 유역의 요서 지역과 동일한 물질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두 지역에서 발견되는 주거지, 취락지와 토성·석성의 구조, 토기 등의 유물이 완전히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사이의 문화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夏家店上層文化는 寧城縣 夏家店 上層 유적⁷¹⁾을 표지로 하는 문화로서,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는 鍔柄式銅劍, 鈞刃狀銅斧, 齒柄銅刀, 長型銅鈴, 雙尾形銅飾, 鳥形銅飾, 單鈕無文鏡, 豎環耳鼎, 板耳筒腹鬲, 喇叭座豆, 石槨墓 등이 있다. 동검과 토기의 형식 변화와 조합 관계를 고려할 때, 克什克騰旗 龍頭山 3層期⁷²⁾에 鍔柄式銅劍과 소형 청동장식품이 공반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寧城縣 小黑石溝 석곽묘군⁷³⁾과 南山根⁷⁴⁾ 석곽묘군기에 전성기에 도달한 다음, 寧城縣 孫家溝 석곽묘기⁷⁵⁾에 이르러 소멸된다. 연대는 조합 동검의 유형과 형식 및 토기를 대비할 때, 기원전 11~5세기이다.

鐵匠溝類型은 敖漢旗 鐵匠溝 토광묘군⁷⁶⁾, 水泉類型⁷⁷⁾은 敖漢旗 水泉 北墓區 고분군을

7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61, 「內蒙古赤峰葯王廟, 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年 2期.

72)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等, 1991, 「內蒙古克什克騰旗龍頭山遺址第一, 二次發掘簡報」, 『考古』 1991年 8期.

73)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2009, 「小黑石溝-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7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81, 「內蒙古寧城南山根102號石槨墓」, 『考古』 1981年 4期;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1973年 2期.

75)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年 4期, 附圖2.

76) 邵國田, 1992, 「敖漢旗鐵匠溝戰國墓地調查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992年 1·2期.

77) 王立新, 2004,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2004年 3期, 2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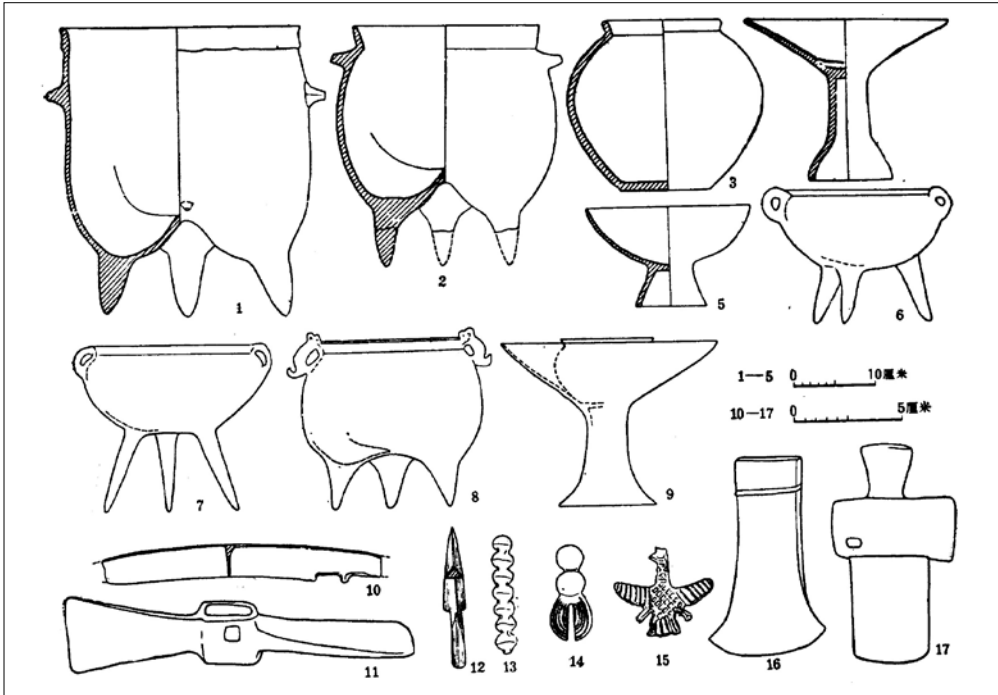


그림 11 夏家店上層文化의 주요 유물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4, 도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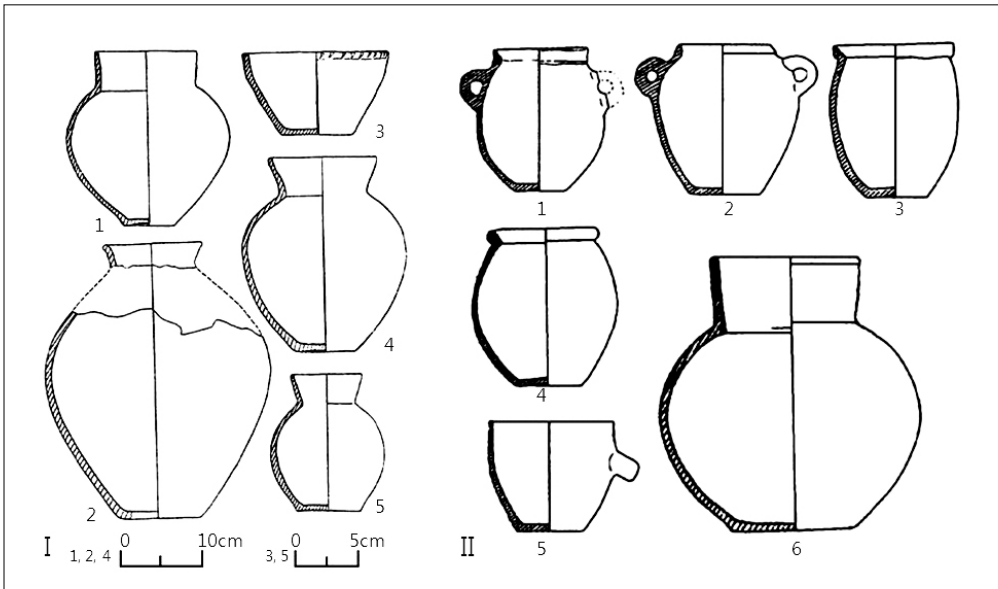


그림 12 鐵匠溝 고분군과 水泉 고분군 출토 토기(작도)

표지로 하는 유형을 말한다. 아직 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夏家店上層文化와 戰國燕文化 중간 단계에 해당하므로, 잠정적이거나 이 일대의 물질문화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 유형 모두 오르도스 계통의 청동기가 다수 복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鐵匠溝類型은 직경·사직경의 단경호, 외반구연단경호, 이중구연완 등이, 水泉類型은 견부에 단면 원형의 環狀把手가 부착되어 있는 옹형토기와 내만구연의 발형토기, 점토대토기, 장경호 등이 부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대는 기원전 5~4세기이다.

6. 內蒙古 東北部 地域

內蒙古 동북부 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哈烏拉文化, 扎賚諾爾類型的 순서로 변모된다. 哈烏拉文化와 扎賚諾爾類型은 본고에서 필자가 처음으로 제기하는 문화이다.

哈烏拉文化는 내몽고 新巴爾虎右旗 達石莫古鄉 哈烏拉 고분군⁷⁸⁾을 표지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⁷⁹⁾. 판석묘·입석과 녹석·이차장·薄葬·소형 발형토기·각종 蚌器와 骨器가 주요한 유물 요소를 이루고 있다. 주요 유적으로는 哈烏拉 고분군 외에 新巴爾虎右旗 德烏拉·達林砬魯 고분군, 新巴爾虎左旗 罕達蓋 고분군⁸⁰⁾ 등이 있다. 몽골 동부의 판석묘 유적군과 사실상 같은 문화로, 분포 범위는 扎賚諾爾類型과 유사하다. 현재의 출토 정황으로는 존속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나, 哈烏拉文化의 판석묘 구조가 타가르문화의 일부 무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와 병행하는 기원전 8~4세기로 판단된다.

扎賚諾爾類型은 內蒙古自治區 呼倫貝爾盟 扎賚諾爾 고분군⁸¹⁾을 표지로 하는 유형을 말한다

78) 郝思德, 1988, 「內蒙古新巴爾虎右旗哈烏拉石板墓」, 『北方文物』 1988年 4期.

79) 기존에 필자는 哈烏拉文化의 판석묘 유적을 忠南 保寧 平羅里 등지의 한반도 圍牆石棺墓의 계통적 기원으로 주목한 바 있다. 吳江原, 1998, 「保寧 平羅里 발견 '異形石棺墓'(圍牆石棺墓) 유적에 관한 考察-古墳의 系統과 同型式의 忠南지역 轉入問題 등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50, 13~31쪽.

80) 郝思德, 1988, 「內蒙古新巴爾虎右旗哈烏拉石板墓」, 『北方文物』 1988年 4期, 7~8쪽.

81) 鄭隆, 1961, 「內蒙古扎賚諾爾古墓群調查記」, 『文物』 1961年 9期; 內蒙古文物工作隊, 1961, 「內蒙古扎賚諾爾古墓群發掘簡報」, 『考古』 1961年 12期; 王成, 1983, 「扎賚諾爾圈河古墓清理簡報」, 『北方文物』 1983年 3期;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扎賚諾爾古墓群1986年清理發掘報告」, 『內蒙古文物考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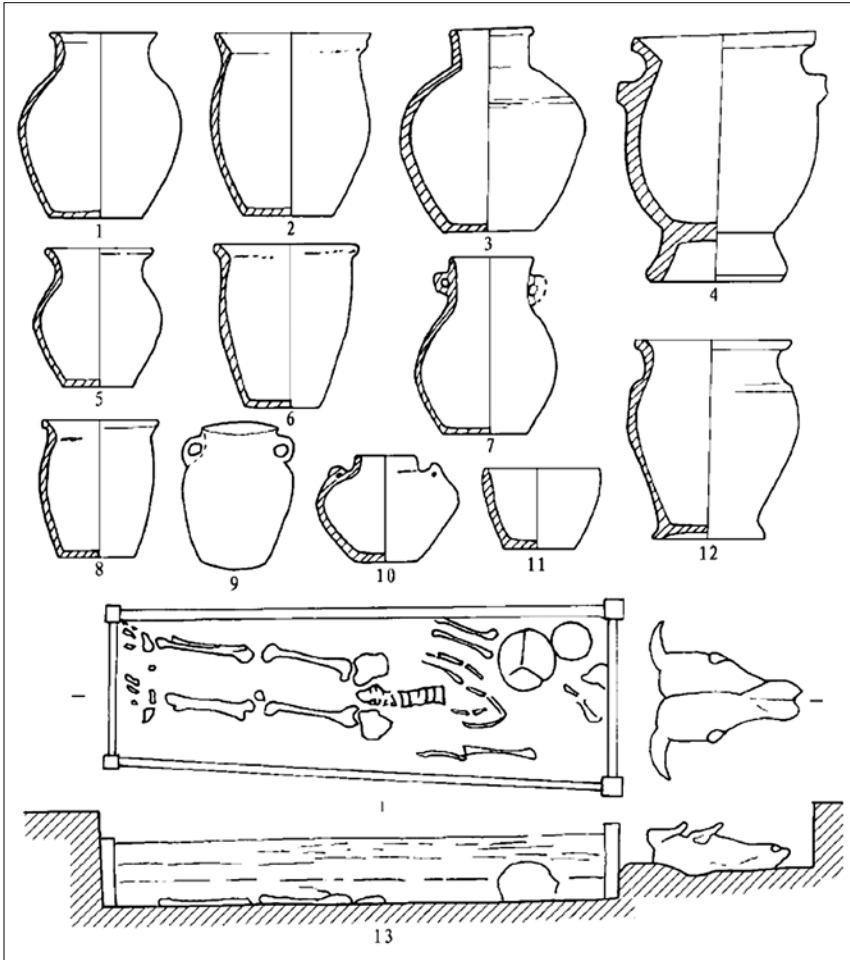


그림 13 扎賚諾爾類型的 고분과 토기
(韋正 2009, 圖9)

다. 전반적으로 松嫩平原의 漢書文化와 외바이칼 일대의 匈奴文化가 복합되어 있으면서 어느 것과도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유적으로는 陳巴爾虎旗 完工 고분군⁸²⁾

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82) 潘行榮, 1962, 「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索木發現古墓葬」, 『考古』 1962年 11期; 內蒙古文物工作隊, 1965, 「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古墓葬清理簡報」, 『考古』 1965年 6期.

83), 額爾古納右旗 拉布達林 고분군⁸⁴), 呼倫貝爾盟 孟根楚魯 고분군⁸⁵) 등이 있다. 분포 범위는 呼倫貝爾盟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몽골 케를렌강 중류역까지, 동쪽으로는 大興安嶺 서사면까지, 북으로는 額爾古納河 북안까지, 남으로는 西烏珠穆沁旗까지이다. 존속 기간은 기원전 2세기 중엽~기원후 2세기 후엽이다.

7. 吉林省 西部 地域

吉林省 서부 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小拉哈文化⁸⁶), 白金寶文化, 漢書文化⁸⁷), 漁場式 遺蹟群의 순서로 변모된다. 小拉哈文化와 白金寶文化는 청동기시대, 漢書文化는 초기철기시대, 漁場式 遺蹟群은 철기시대에 해당된다. 吉林省 서부에서 이들 문화의 분포 범위는 서쪽으로 大興安嶺 동사면까지, 동쪽으로 農安 서쪽의 평지성 구릉 서사면까

83) 完工 고분군을 扎賚諾爾 고분군 등과 구분하여 漢書文化(漢書2期文化)의 고분군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潘玲, 2007, 「完工墓地的文化性質和年代」, 『考古』 2007年 9期, 84쪽), 여기에서는 다량의 匈奴 유물의 복합·묘광 내 이층대를 활용한 이층의 고분 구조·漢書文化 전형 유물 조합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漢書文化와는 다른 扎賚諾爾類型 초기의 고분 유적으로 보고자 한다.

84) 趙越, 1990, 「內蒙古額右旗拉布達林發現鮮卑墓」, 『考古』 1990年 10期;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等, 1994, 「額爾古納右旗拉布達林鮮卑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85) 程道宏, 1982, 「伊敏河地區的鮮卑墓」, 『內蒙古文物考古』 1982年 2期.

86) 小拉哈文化는 기존에 ‘先白金寶文化’ 또는 ‘白金寶1期遺存’(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97, 「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1986年發掘簡報」, 『北方文物』 1997年 4期, 21~22쪽; 楊志軍·許永杰 等, 1997, 「二十年來的黑龍江區系考古」, 『北方文物』 1997年 4期, 8쪽; 朱永剛, 1998, 「松嫩平原先白金寶文化遺存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 1998年 1期, 21쪽)로도 불리웠던 것을 말하는데, 본고에서는 趙賓福(2002, 「松嫩平原早期青銅文化的發現與認識」, 『邊疆考古研究』 1, 183~185쪽; 趙賓福·張偉, 2008, 「論小拉哈文化」, 『北方文物』 2008年 2期, 9~15쪽)의 제안에 따라 ‘小拉哈文化’로 부르기로 하겠다.

87) 漢書文化는 기존에 ‘漢書2期文化’라 부르던 것을 말한다. ‘漢書2期文化’는 1974년 발굴 조사 당시의 문화 층위를 고려하여 명명된 문화 명칭이지만, 이후 1986년과 2001년의 조사에서 4개 문화 층위가 새로이 확인되었고, 이 4개 층위 가운데 漢書 遺蹟 4층이 기존의 ‘漢書2期文化層’에 해당하여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張偉(2010, 「嫩江流域夏至東漢時期的五支考古學文化」, 『北方文物』 2010年 2期, 35~36쪽)의 제안에 따라 기존의 ‘漢書1期文化’를 ‘白金堡文化’, ‘漢書2期文化’를 ‘漢書文化’라 부르기로 한다.

지, 남쪽으로 雙遼市⁸⁸⁾까지이다. 청동기~초기철기시대 吉林省 서부, 즉 嫩江 남안의 洮兒河, 霍林河 상류, 新開河 하류, 西遼河 하류역의 물질문화 양상은 대체로 黑龍江省 서부와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漁場式 遺蹟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漁場式 遺蹟群은 大安縣 漁場 고분군⁸⁹⁾을 표지로 하는 유적군을 말한다. 漁場 고분군은 단순토광묘·상하 이층 고분 구조의 존재·일차장과 이차장의 균등 복합 장식·가축(양 견갑골 등) 순생·折沿深鉢形土器·外反口沿弧頸長頸壺·口沿縱向把手杯·본격적인 철기 생산과 사용(철삭도, 철촉, 철갑편, 반자…)·각종 골기(골촉, 활부속구…)와 蚌器(蚌殼)·자작나무 껍질 제작 기물(활집, 화살집) 등이 특징적인데, 折沿深鉢形土器가 呼倫貝爾盟 扎賚諾爾 고분군과 訥河市 紅馬山 고분군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보다 약간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연대는 대체로 기원후 2~3세기이고, 분포 범위는 嫩江 하류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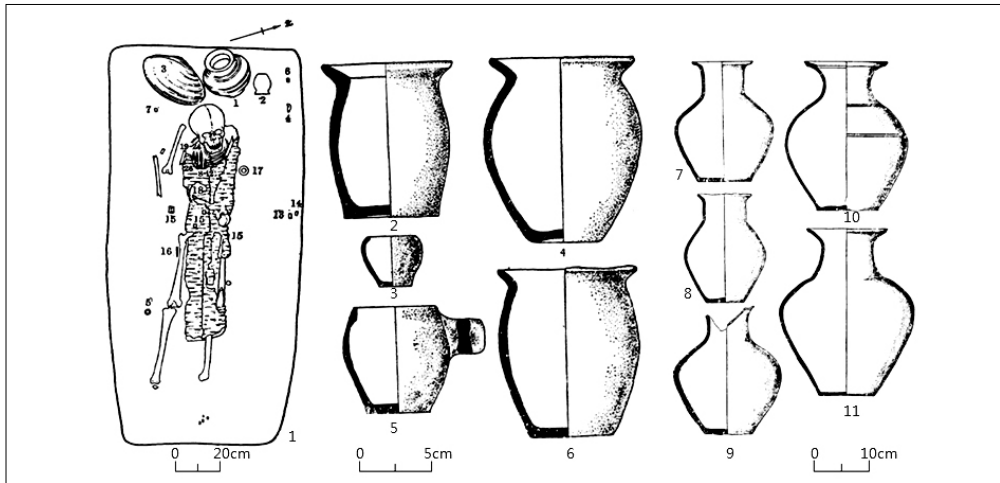


그림 14 漁場式 遺蹟群의 주요 유적과 유물(작도)
* 大安縣 漁場 古墳群

88) 최근 科爾沁 平原의 최동단이자 東遼河와 新開河 및 西遼河가 합수하는 지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雙遼市 東明鎮 後太平村에서 白金寶文化 전형의 토광묘군(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四平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雙遼市文物管理所·雙遼市鄭家屯博物館, 『吉林雙遼市後太平青銅時代墓地』, 『考古』 2009년 5期)이 조사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고분군에서는 다량의 白金寶文化 토기와 함께 遼東 북부와 東遼河 유역의 특징적인 장경호가 공반하고 있기도 한데, 이를 통해 이대가 白金寶文化의 최동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89) 吉林省博物館文物隊·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吉林大安漁場古代墓地』, 『考古』 1975년 6期.

8. 吉林省 中部 地域

길림성 중부 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西團山文化, 大海猛類型, 泡子沿類型의 순서로 변모된다.

西團山文化는 吉林市 西團山 석관묘군⁹⁰⁾을 표지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는 서단산형 토기, 각종 마제석기, 석관묘, 석축 벽체 집자리, 취락의 구릉 상 인공 대지 입지가 있다. 분포 범위는 서쪽으로 霧開河 중상류역(飲馬河의 지류)으로부터 伊通河 중류역에 이르는 선까지, 동쪽으로 蛟河 유역-第2松花江과 輝發河 합수처의 북쪽 지대-飲馬河 최상류역을 잇는 선까지, 남쪽으로 伊通河 상류역-飲馬河 최상류역을 잇는 선까지, 북쪽으로 霧開河 중상류역-飲馬河 중류역-細鱗河·霍倫河 상류역을 잇는 선까지이다. 존속 기간은 기원전 9~4세기 중엽이다.

大海猛類型은 永吉縣 大海猛 유적을 표지로 하는 유형으로, 주요 유적으로는 永吉縣 大海猛 중층⁹¹⁾과 永吉縣 學古 東山 하층⁹²⁾이 있고, 이외 舒蘭縣 黃魚圈 珠山 3층⁹³⁾ 등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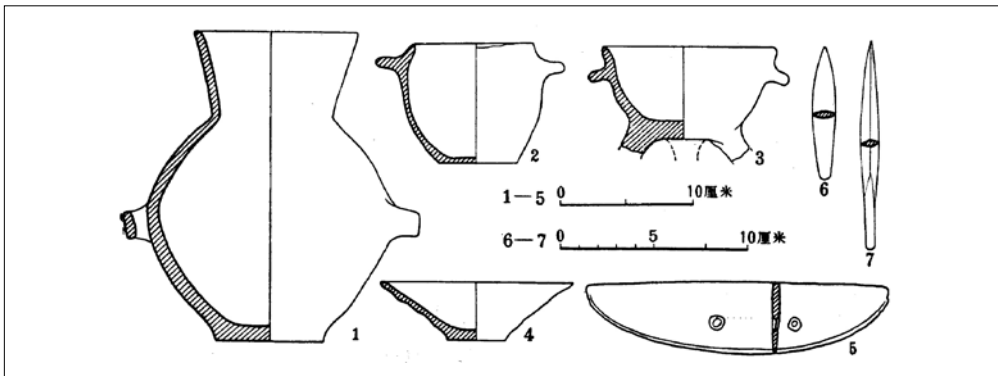


그림 15 吉林市 西團山 석관묘군 출토 西團山文化 주요 유물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4, 圖88.

90) 東北考古發掘團, 1964, 「吉林西團山石棺墓發掘報告」, 『考古學報』1964年 1期.

91) 劉振華, 1973, 「永吉楊屯遺址試掘簡報」, 『文物』1973年 8期; 吉林市博物館, 1987, 「吉林永吉楊屯大海猛遺址」, 『考古學集刊』5集;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永吉縣文化局, 1991, 「吉林永吉楊屯遺址第三次發掘」, 『考古學集刊』7集.

92) 吉林市博物館, 1981, 「吉林永吉縣學古東山遺址試掘簡報」, 『考古』1981年 6期.

93) 吉林省文物工作隊, 1985, 「吉林舒蘭黃魚圈珠山遺址清理簡報」, 『考古』1985年 4期.

다. 大海猛類型은 淺穴 단순토광묘, 大海猛型壺, 長胴短頸壺, 外反圈緣短頸壺, 橫耳長胴 甕形土器, 橫耳深鉢形土器, 瓶形土器, 多孔甌, 豎橋耳舟形器, 橋形把手杯, 橫板狀耳杯, 橋形把手深腹碗, 장주형석도, 쌍공 돌낫과 鹿角灣刀柄 및 뼈송곳 등을 비롯한 각종 골기와 석기를 주요한 유물 조합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분포지는 舒蘭縣 黃魚圈으로부터 吉林市的 牯牛河 양안에 이르기까지의 第2松花江 동안의 하안 층적 대지이다.

大海猛類型的 유물 유적은 석관묘와 서단산형호 등을 중심적인 유물 요소로 하고 있는 西團山文化和 구별됨과 동시에 목관·목곽묘, 포자연형호, 連鈴柄式劍⁹⁴⁾, 神獸 금동 패식, 貝形銅飾, 人面形銅飾, 銅鍍 등과 함께 갈색 타날 승석문 단경호, 帽兒山式 高柄豆, 漢系 淺腹鉢, 철곽, 철모, 철자귀, 철끌, 철송곳 등이 조합하는 泡子沿類型과도 차별적이다. 이러한 점과 함께 大海猛類型的의 표지 유적인 大海猛 중층과 學古 東山 하층이 각각 西團山文化層과 泡子沿類型層의 위와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절대 연대 측정치⁹⁵⁾ 등을 감안할 때, 존속 기간은 기원전 4세기 중엽~3세기로 파악된다.

이의 기원전 4~3세기 길림성 중부 지역에는 伊通河와 飲馬河가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한 第2松花江 하류역 남안의 農安縣 북부와 德惠縣 북부를 공간역으로 하는 邢家店式 遺蹟群, 第2松花江 하류역의 남안, 伊通河와 飲馬河의 합수처 서쪽 지대를 공간역으로 하는 田家屯子式 遺蹟群, 九臺市 石砬山과 關馬山 유적⁹⁶⁾을 표지로 하는 飲馬河 중상류역 동안의 關馬山式 遺蹟群, 樺甸縣 西荒山屯⁹⁷⁾을 표지로 하는 輝發河 유역의 西荒山類型 등이 있는데, 이들 소규모 지역 유형들은 嫩江 유역의 白金寶文化和 東遼河 중상류역의 寶山文

94) 連鈴柄式劍이란 종래 중국 학계에서 “算珠狀式劍”이라 부르던 것을 말한다. 연령병식검의 가장 큰 특징은 손잡이 끝의 길게 연장되어 있는 막대에 주산알 꼴의 방울이 연이어져 달려 있다는데 있다. 저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찍이 이러한 류의 동검을 단순히 방울의 형태만을 반영하여 명명하기 보다는 형태와 기능까지를 고려하여 “連鈴柄式劍”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吳江原, 2000, 「中滿地域の 初期鐵器文化 泡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文化背景 및 夫餘문제와 관련하여-」, 『전환기의 고고학 III-歷史時代의 黎明-』(第24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文集), 11쪽.

95)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C14실험실에서 大海猛 중층 출토 목탄(ZK-93)을 탄소 연대 측정한 결과 기원전 215 75년이, 이를 나이테 측정법으로 교정한 결과 기원전 205 90년의 연대값이 나왔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C14實驗室, 1977, 「放射性碳素測定年代報告(四)」, 『考古』1977年 3期, 200쪽.

9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1, 「吉林九台市石砬山,關馬山西團山文化墓地」, 『考古』1991年 4期.

97)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1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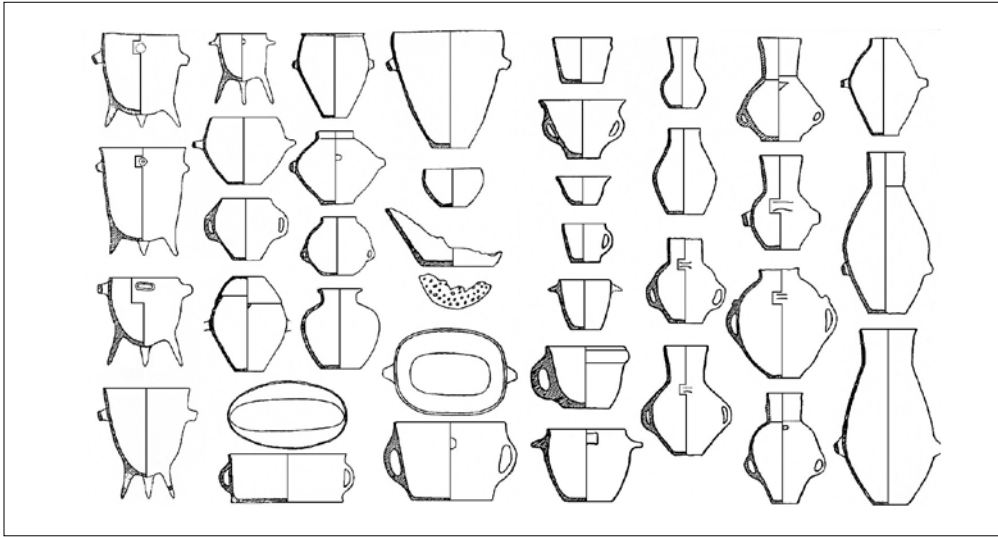


그림 16 大海猛類型的 토기(축적 부동)

化의 동진 및 북진과 토착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유형들이다.

泡子沿類型은 吉林市 泡子沿前山 유적⁹⁸⁾을 표지로 하는 유형을 말한다. 분포 범위는 북쪽으로는 拉林河 남안까지, 남쪽으로는 東遼河 유역까지, 동쪽으로는 威虎嶺 서사면까지, 서쪽으로는 松原市와 農安縣의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는 王文山 평지성 구릉까지이다. 전기(기원전 2세기 초~중엽, 泡子沿前山 상층)·중기(기원전 2세기 중엽~기원후 1세기 전엽, 西豊縣 西岔溝 고분군⁹⁹⁾·東遼縣 石驛 고분군¹⁰⁰⁾·榆樹縣 老河深 고분군¹⁰¹⁾·후기(기원후 1세기 중엽~2세기 말엽, 帽兒山 고분군¹⁰²⁾과 東團山 南城子 성지¹⁰³⁾)로 나누어진다. 高句麗 등과는 달리 고층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⁰⁴⁾.

98) 吉林市博物館, 1985,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1985年 6期.

99)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1960年 8·9期.

100) 劉升雁, 1984, 「東遼縣石驛公社古代墓群出土文物」, 『博物館研究』1984年 3期.

10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02) 吉林市博物館, 1988, 「吉林帽兒山漢代木槨墓」, 『遼海文物學刊』1988年 2期.

103) 李文信, 1946, 「吉林市附近之史迹及遺物」, 『歷史與考古』1, 沈陽博物館; 董學增, 1982, 「吉林東團山原始, 漢, 高句麗, 渤海諸文化遺存調查簡報」, 『博物館研究』1.

104) 吳江原, 2000, 「中滿地域의 初期鐵器文化 泡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文化背景 및 夫餘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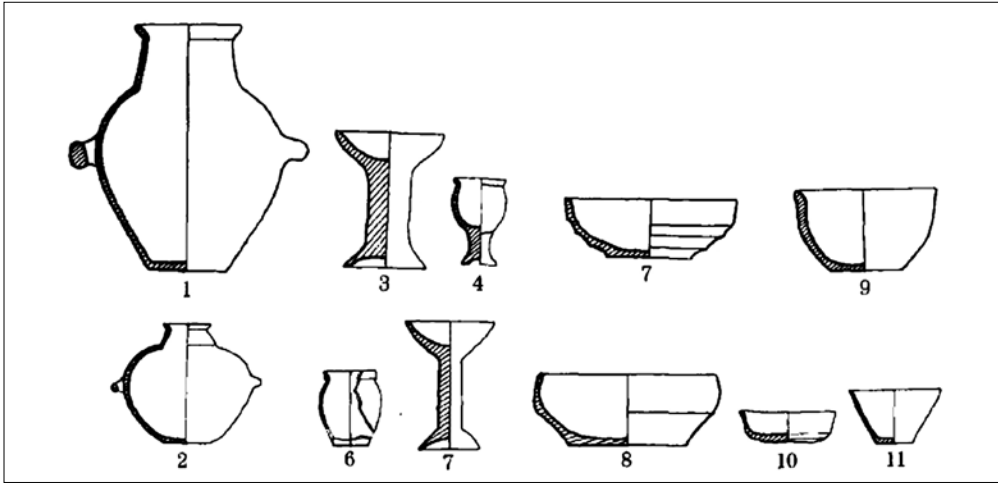


그림 17 泡子沿類의 주요 토기
(張偉 2005, 圖6)

9. 延邊朝鮮族自治州 地域

延邊朝鮮族自治州 일대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興城文化, 柳庭洞文化, 團結文化의 순서로 변모된다. 길림 중부 등지와 마찬가지로 철기시대 燕·秦·漢文化에 포괄되지 않고 토착 전통의 문화가 지속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국학계에서 延邊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을 표지로 하여 이들 문화가 현재의 延邊 지역과 咸鏡北道·咸鏡南道를 아우르는 지역문화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¹⁰⁵⁾, 咸鏡北道 會寧郡 五洞 유적¹⁰⁶⁾과 雄基郡 西浦項 유적¹⁰⁷⁾ 등에서 출토된 각 층위의 토기가 연변 지역과 동질적이면서도 유사한 변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와 관련하여-, 『전환기의 고고학 III-歷史時代의 黎明-』(第24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文集), 3~77쪽.

105) 宋玉彬, 2002, 『圖們江流域青銅時代的幾個問題』, 『北方文物』 2002年 4期, 1~7쪽; 趙賓福, 2008, 『圖們江流域的青銅時代文化研究』, 『考古』 2008年 6期, 69~78쪽.

106) 도유호, 1960, 『유적 발굴 보고 제7집: 회령 오동 원시 유적 발굴 보고』, 과학원출판사.

107) 김용간·서국태, 1972, 『고고민속론문집 4: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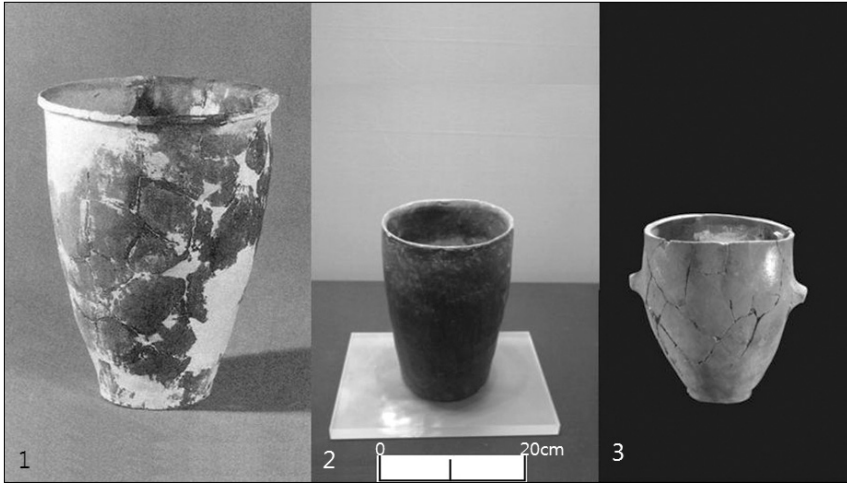


그림 18 興城文化, 柳庭洞文化, 團結文化의 심발형토기(작도)

1. 和龍縣 興城 87BF3:1(興城文化), 2. 汪清縣 百草溝 下層(柳庭洞文化), 3. 러시아 블로치카(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

豆滿江 유역의 청동기~철기문화는 토기에서 강한 지역성과 계승성을 보이고 있는데, 興城文化期로부터 團結文化期에 이르기까지 심발형토기가 시종일관 중심적인 기종을 이루고 있는 점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형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興城文化期는 돌대문이 있는 長胴 鼓腹 小底와 折沿의 斜腹과 直腹의 형태를 띄고 있는 반면, 柳庭洞文化期는 直口 無耳와 直口 乳耳의 형태를 띄고 있고, 團結文化期는 낮은 기고에 柱狀把手가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아울러 延邊 일대의 청동기문화는 비파형동검은 물론 청동기가 사실상 조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이기도 하다.

興城文化는 기원전 20세기¹⁰⁸⁾, 또는 기원전 15세기¹⁰⁹⁾에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하나, 필자는 遼寧省 동부 및 吉林省 중부와 延邊朝鮮族自治州 일대의 청동기문화 상한 전반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원전 15~12세기로 잠정하고자 한다. 柳庭洞文化는 延吉市 柳庭洞 1호 주거지 출토 목탄의 절대연대측정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기원전 10~4세기로 판단된다

108) 趙賓福, 2008, 「圖們江流域의 靑銅時代文化研究」, 『考古』 2008年 6期, 73쪽.

109) 裴真晟, 2007, 「豆滿江流域 無文土器의 實相」, 『嶺南考古學』 42; 김재운, 2011, 「동북한 청동기시대 형성과정-연해주와 연변 고고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東北亞歷史論叢』 32, 東北亞歷史財團.

110). 團結文化는 東寧縣 團結 하층 주거지와 東寧縣 大城子 주거지 출토 유물에 대한 절대 연대측정치와 西漢 五銖錢과 철제품의 공반을 고려하여 볼 때, 기원전 3~기원후 1세기로 생각된다.

10. 黑龍江省 西部 地域

黑龍江省 서부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대략 小拉哈文化, 白金寶文化, 漢書文化, 紅馬山文化의 순서로 변모된다. 二克淺 전기 고분군을 따로 떼어 二克淺文化¹¹¹⁾로 분류하거나 白金寶文化 이후의 黑龍江省 서부 지역을 黑龍江省 서남부와 吉林省 서부의 漢書文化와 구별하여 訥河市 二克淺 후기 유적¹¹²⁾을 표지로 한 二克淺類型¹¹³⁾, 또는 泰來縣 平洋 고분군¹¹⁴⁾과 齊齊哈爾市 三家子 고분군¹¹⁵⁾을 표지로 한 平洋文化¹¹⁶⁾ 또는 平洋-三家子 類型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의 성격상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치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들 모두를 漢書文化의 지역 유형으로¹¹⁷⁾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小拉哈文化는 肇源縣 小拉哈 2期層¹¹⁸⁾을 표지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小拉哈文化는 肇源

110) 오강원, 2008, 『서단산문화와 길림 지역의 청동기문화』, 학연문화사, 217~262쪽.

111) 安路·賈偉明, 1986, 『黑龍江訥河二克淺墓地及其問題探討』, 『北方文物』1986年 2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黑龍江訥河市二克淺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墓葬』, 『考古』2003年 2期.

112) 安路·賈偉明, 1986, 『黑龍江訥河二克淺墓地及其問題探討』, 『北方文物』1986年 2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黑龍江訥河市二克淺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墓葬』, 『考古』2003年 2期.

113) 張偉, 2005, 『松嫩平原戰國兩漢時期文化遺存研究』, 『北方文物』2005年 4期, 2쪽.

114)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0, 『平洋墓葬』, 文物出版社.

115) 黑龍江省博物館·齊齊哈爾市文管站, 1988, 『齊齊哈爾大道三家子墓葬清理』, 『考古』1988年 12期.

116)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0, 『平洋墓葬』, 文物出版社, 169쪽; 張偉, 2005, 『松嫩平原戰國兩漢時期文化遺存研究』, 『北方文物』2005年 4期, 4쪽.

117) 潘玲과 林濤은 平洋 고분군 등을 고분 구조와 장제 및 토기 비교를 통해 漢書文化 자체로 확정하였으나(潘玲·林濤, 2002, 『平洋墓葬的文化性質和年代』, 『邊疆考古研究』1, 194~203쪽), 지역적 차별성 또한 발견되므로 필자는 이를 漢書文化圈 북부의 지역성이 강하게 반영된 지역 유형으로 보고자 한다.

118)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7, 『黑龍江省肇源縣小拉哈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1997年 1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8, 『黑龍江肇源縣小拉哈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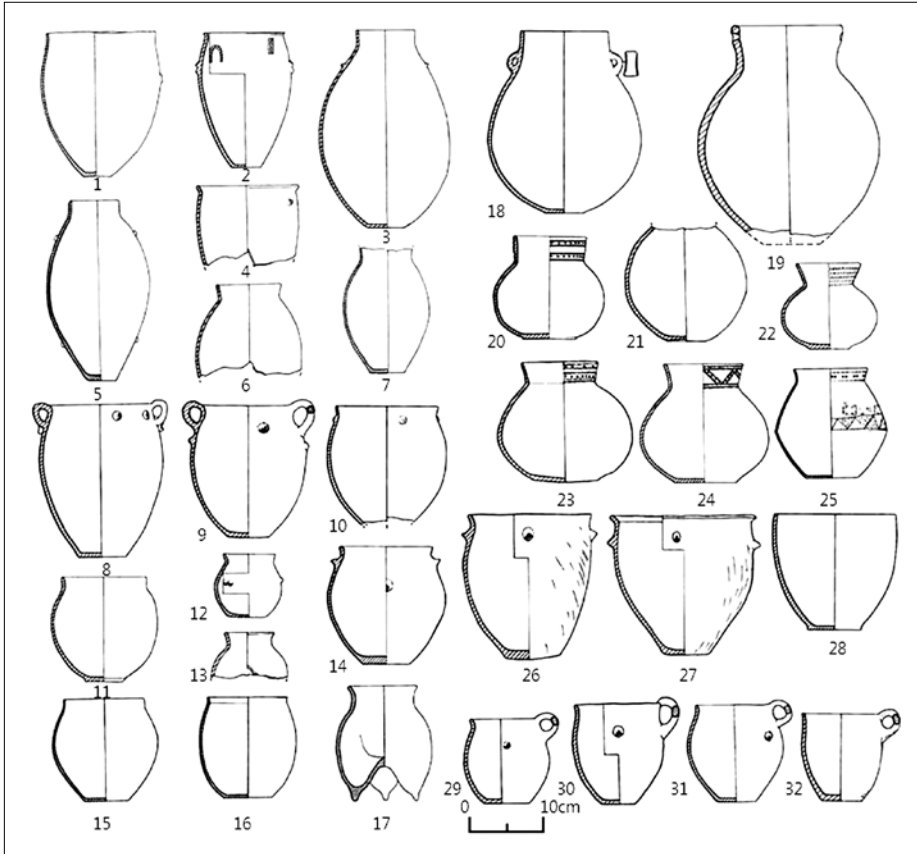


그림 19 小拉哈文化의 주요 토기(작도)
* 肇源縣 白金寶 1期文化層

縣을 중심으로 한 嫩江 하류역에서만 관련 유적이 발견되어 白金寶文化에 비해서는 분포 범위가 넓지 않은 편이나, 白金寶文化圈에서 小拉哈文化期의 유물 양상이 분명치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黑龍江省 서부 지역 전기 청동기문화의 대표 문화로 설정할 수 있다. 토기 조합과 절대연대측정치를 기준으로 전기(기원전 18~13세기 전후)와 후기(기원전 12~11세기) 2개 시기로 나누어지고 있다¹¹⁹⁾. 乳耳深鉢形土器, 口沿縱向把手 長胴鉢形土器, 口沿縱向把手杯, 縱向把手短頸壺가 특징적인 유물을 이루고 있다.

發掘報告, 『考古學報』 1998年 1期.

119) 趙賓福, 2002, 『松嫩平原早期青銅文化的發現與認識』, 『邊疆考古研究』 1, 185~1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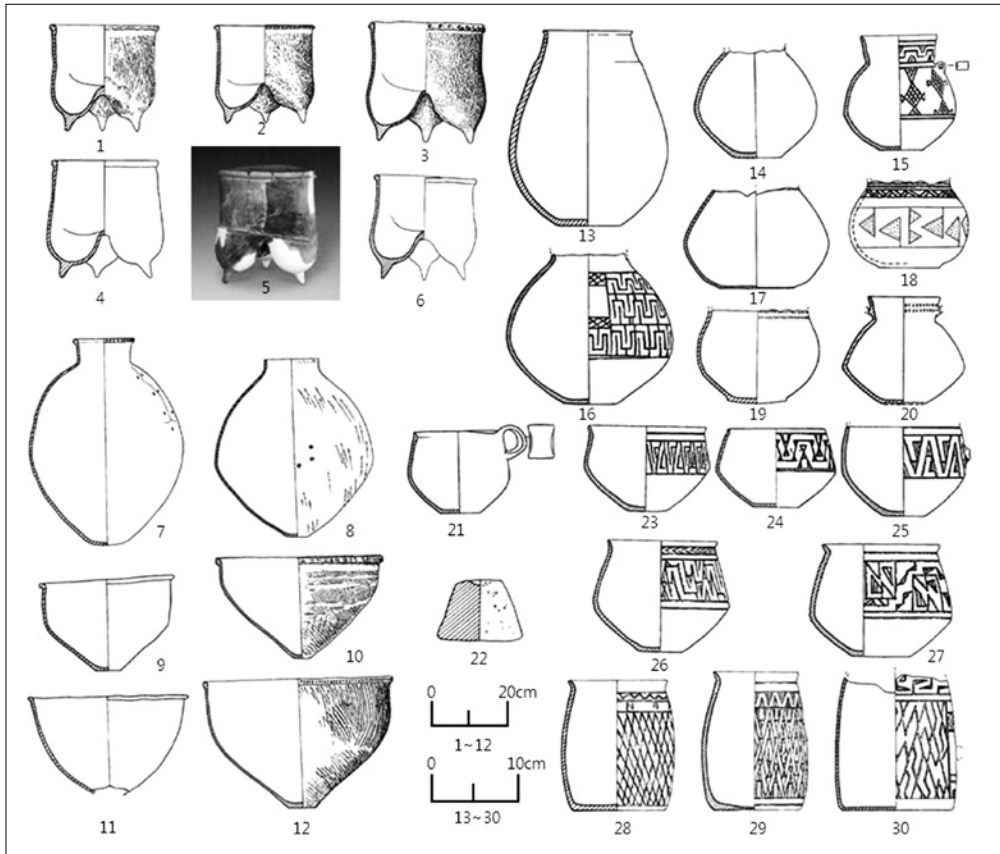


그림 20 白金寶文化의 주요 토기(작도)
* 肇源縣 白金寶 3期文化層

白金寶文化는 肇源縣 白金寶 취락지¹²⁰⁾를 표지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대표 유적으로는 杜爾伯特縣 官地¹²¹⁾, 肇源縣 古城¹²²⁾, 肇東縣 後七棵樹¹²³⁾·哈土崗子¹²⁴⁾, 富裕縣 小登科

120)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2009, 『肇源白金寶-嫩江下游一處青銅時代遺址的揭示』, 科學出版社.

121) 黑龍江省博物館, 1960, 『嫩江下游左岸考古調查簡報』, 『考古』1960年 4期, 15~16쪽.

122) 喬梁, 1993, 『松嫩平原陶鬲研究』, 『北方文物』1993年 2期, 18쪽.

12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8, 『黑龍江肇東縣後七棵樹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1988年 3期.

124)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1988, 『黑龍江省肇東縣哈土崗子遺址試掘簡報』, 『北方文物』1988年 3期.

전기 고분군¹²⁵⁾, 吉林省 大安縣 漢書 102호 토광묘¹²⁶⁾·東山頭 전기 고분군¹²⁷⁾, 鎮賚縣 坦途 西崗子¹²⁸⁾, 乾安縣 後入字井¹²⁹⁾ 유적 등이 있다. 口沿突帶文 直腹鬲, 繩文直腹鬲, 幾何文 杯形鉢, 幾何文 折腹淺鉢, 幾何文 短頸壺, 幾何文 方形折腹長頸壺, 內斜頸 長頸壺, 口沿 縱向把手杯 등이 표지 유물을 이루고 있다. 분포 범위는 嫩江 유역을 중심으로 한 松嫩平原 전체 지역이다. 존속 기간은 기원전 10~6세기이다¹³⁰⁾.

漢書文化는 吉林省 大安縣 漢書 상층을 표지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漢書型土器(篋文 鉢形土器, 口沿突帶文鬲, 口沿突帶文罐, 紅陶壺, 舟形器, 縱向把手杯, 鴨形壺, 三足器 받침 등)·순수토광묘·눌러 댄 석기·蚌製 도구·골기·반지하식 수혈 주거지가 주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고, 嫩江 양안을 중심 구역으로 하여 최대 黑龍江省 서부와 吉林省 서부에 분포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漢書 2期層의 절대연대측정치와 주변 문화와의 유물 비교 등을 통해 대체로 기원전 5~3세기로 보고 있으나, 최근 漢書文化 관련 유적에서 출토된 西漢系 유물을 통해 최대 기원전 2세기로까지 보는 분위기도 있다.

紅馬山文化는 訥河市 紅馬山 취락지¹³¹⁾를 표지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대표 유적으로는 紅馬山 외에 訥河市 兔子地¹³²⁾, 嫩江縣 鐵古拉¹³³⁾ 취락지 등이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訥河市 二克淺과 庫勒川 후기 고분군¹³⁴⁾을 紅馬山文化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¹³⁵⁾. 분포 범위는

125) 張泰湘·曲炳人, 1984, 「黑龍江富裕縣小登科出土的青銅時代遺物」, 『考古』 1984年 2期, 187~188쪽; 趙賓福, 2008, 「白金寶文化的分期與年代」, 『邊疆考古研究』 7, 127쪽.

126)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吉林省博物館考古隊, 1982, 「大安漢書遺址發掘的主要收穫」, 『東北考古與歷史』 1, 文物出版社.

127) 吉林省博物館, 1961, 「吉林大安東山頭古墓葬清理」, 『考古』 1961年 8期; 趙賓福, 2008, 「白金寶文化的分期與年代」, 『邊疆考古研究』 7, 128~129쪽.

128) 吉林省博物館, 1961, 「吉林鎮賚縣細石器文化遺址」, 『考古』 1961年 8期, 402~403쪽.

129) 吉林省文物工作隊, 1984, 「吉林乾安縣大布蘇泡東岸遺址調查簡報」, 『考古』 1984年 5期, 402~403쪽.

130) 朱永剛, 1998, 「松嫩平原先白金寶文化遺存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 1998年 1期, 26쪽; 趙賓福, 2008, 「白金寶文化的分期與年代」, 『邊疆考古研究』 7, 132쪽.

131) 張偉, 2007, 「紅馬山文化辨析」, 『北方文物』 2007年 3期, 3~4쪽.

132) 張偉, 2007, 「紅馬山文化辨析」, 『北方文物』 2007年 3期, 4~5쪽.

133) 趙永軍·俞平, 「黑龍江嫩江縣鐵古拉遺址發掘收穫豐厚」, 『中國文物報』 2004年 8月 18日.

134)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黑龍江訥河市庫勒川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墓葬的發掘」, 『考古』 2006年 5期.

135) 張偉, 2007, 「紅馬山文化辨析」, 『北方文物』 2007年 3期,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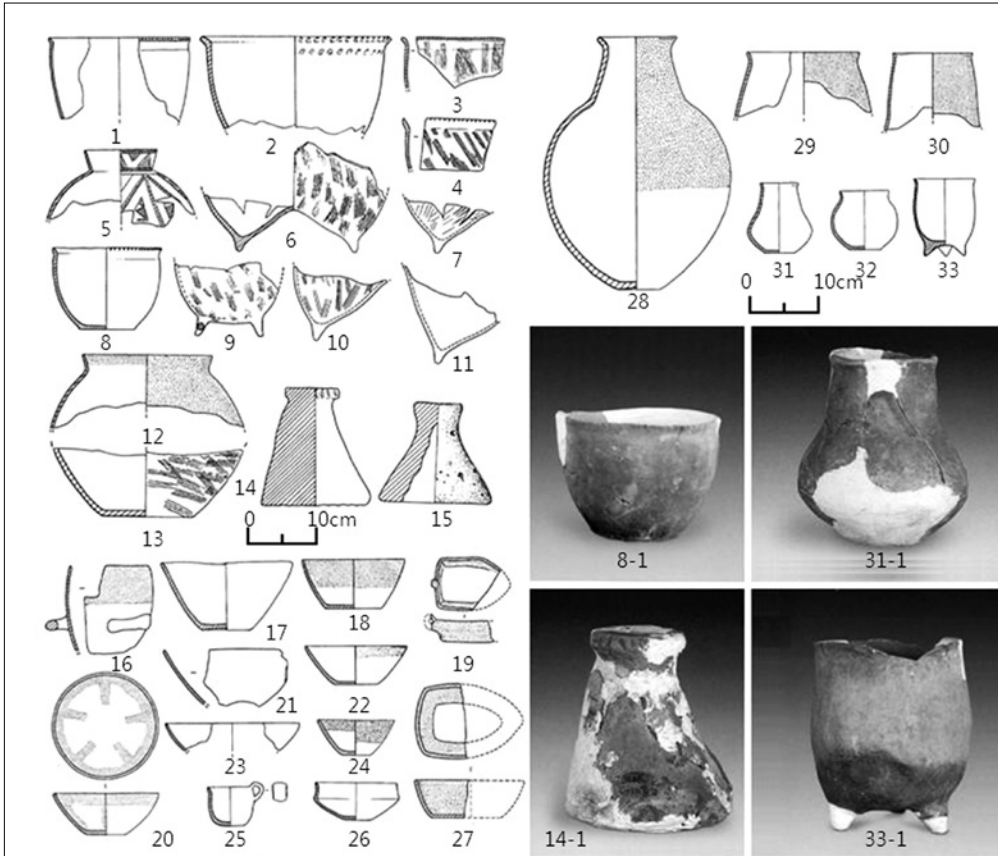


그림 21 漢書文化의 주요 토기(작도)
* 肇源縣 白金寶 4期文化層

嫩江 중상류역이다. 평면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반지하식 판재 벽체 주거지, 折沿深鉢形土器, 口沿突帶文 토기, 短脚의 豆形土器, 縱向把手杯, 각종 철기 등이 주요한 유물 요소를 이루고 있다. 존속 기간은 표지 유물인 심발형토기가 扎賚諾爾 고분군의 심발형토기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원전 1~기원후 2세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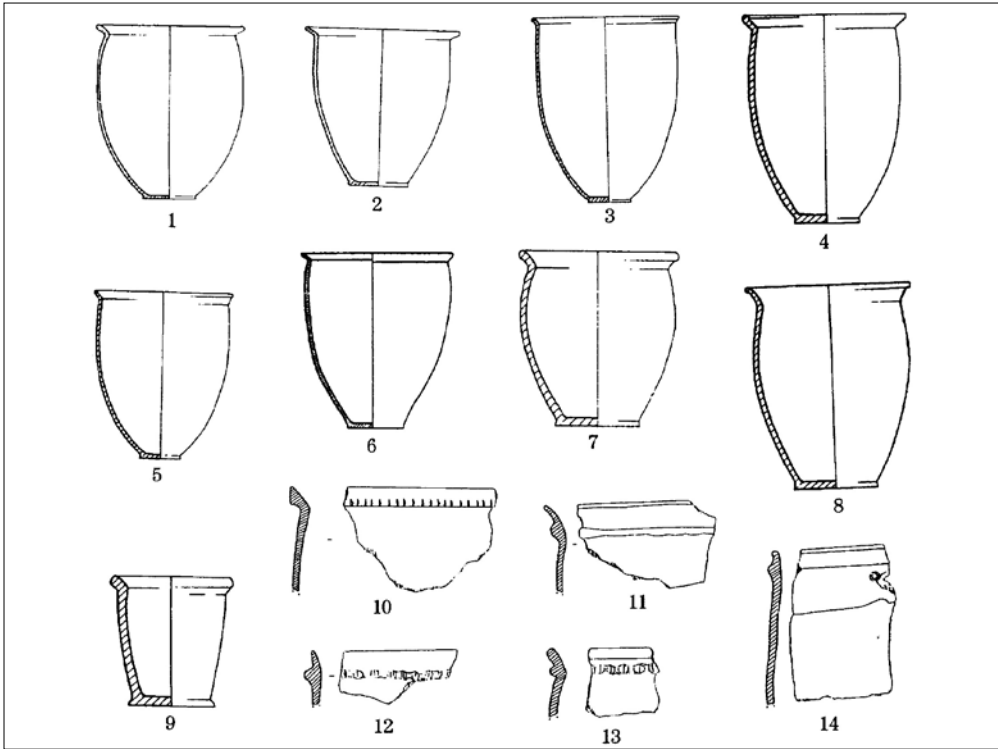


그림 22 紅馬山文化的 折沿口沿 深鉢形土器(張偉 2007, 圖2)

11. 黑龍江省 東部の 諸 地域

小興安嶺 동쪽의 黑龍江省 동부는 워낙 다양한 지형지리면과 수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하나의 지역으로 일괄하여 다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小興安嶺 동쪽 지대를 黑龍江 중하류역 지역(夢北縣, 綏濱縣, 同江市, 撫遠縣…), 倭肯河로부터 七星河 유역에 이르는 저산 구릉과 三江平原 일대(佳木斯市, 雙鴨山市, 富錦市, 七臺河市…), 張廣才嶺 동측으로부터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선에 이르는 牧丹江 중상류역(牧丹江市, 寧安市, 綏芬河市…), 第1松花江 중류역(通河縣~依蘭縣) 남북의 하안 충적지와 그 주변의 小興安嶺 남단과 大靑山에서 鍋盔山에 이르는 구릉 지역(通河縣, 依蘭縣, 方正縣…)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먼저 黑龍江 중하류역의 청동기~철기문화는 우릴문화, 蜿蜒河-폴체문화의 순서로 변모된다. 黑龍江 북안의 러시아 경내에서는 우릴문화 이전의 청동기문화가 찾아지지만, 중국 경내에서는 아직까지 우릴문화 이전 단계의 유적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우릴섬·수히에 프로토키-2·베쭈프 취락지 등에서 철도자와 철슬래그 등이 출토되어¹³⁶⁾ 우릴문화를 초기철기문화로 분류하고 있지만, 중국 경내에서는 아직까지 철기를 공반하는 우릴문화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중국 동북 지역을 다루는 본고에서는 이를 초기철기문화가 아닌 청동기문화로 분류하고자 한다.

우릴문화는 러시아의 우릴섬 취락지를 표지로 한 문화를 말한다¹³⁷⁾. 주로 黑龍江 중류역과 하류역의 러시아 경내에서 발견되고 있을 뿐, 중국 경내에서는 편년이 가능한 유적의 조사 사례가 없다. 다만 黑龍江 중하류역 남안의 중국 경내에서도 우릴문화기의 특징적인 토기가 채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³⁸⁾ 이 일대에 우릴문화의 남쪽 경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우릴문화는 곡선문·파상덧띠문·다치구압인문·자돌문·격자타날문 등이 시문되어 있는 구형 동체의 외반단경호가 가장 특징적이다¹³⁹⁾. 연대는 러시아 측의 절대연대측정치 등을 고려할 때¹⁴⁰⁾, 대체로 기원전 10~5세기로 파악된다.

蜿蜒河-폴체문화는 中國 綏濱縣 蜿蜒河 취락지¹⁴¹⁾와 러시아 폴체 취락지를 표지로 한

136) S. P. 네스테로프 등, 2000, 『고대의 부레야』, 노보시비르스크. (Нестеров С.П., Гребенщиков А.В., Алкин С.В., Болотин Д.П., Волков П.В., Кононенко Н.А., Кузьмин Я.В., Мильникова Л.Н., Табаров А.В., Чернюк А.В. Древности Буреи. Новосибирск, 2000, -С. 352.) (홍형우 2012에서 재인용, 이하 러시아 자료 같음)

137) D. P. 볼로틴 등, 『아무르주의 역사고대에서 21세기까지-』, 블라고베센스크, 2008, 47~48쪽. (Д. П. Болотин ..., История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чала XX века, Благовещенск, 2008, -С 47-48.)

138) 黑龍江省 同江市 街津口 유적 채집 토기편(王海燕·張立玟, 2003, 『黑龍江省同江市街津口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 2003年 1期, 圖3-10~13)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39) 홍형우, 2012, 『홍룡강·연해주 일대 초기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2012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272쪽

140) A. V. 그레벤시코프, Ye.I. 테레반코, 2001, 『아무르지역의 고대민족의 요업』, 노보시비르스크. (Гребенщиков А.В., Е.И. Дервянко, 2001, 『Гончарство древних племен приамурья』, Новосибирск.)

141) 黑龍江省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黑龍江省綏濱縣蜿蜒河遺址發掘』, 『北方文物』 2006年 4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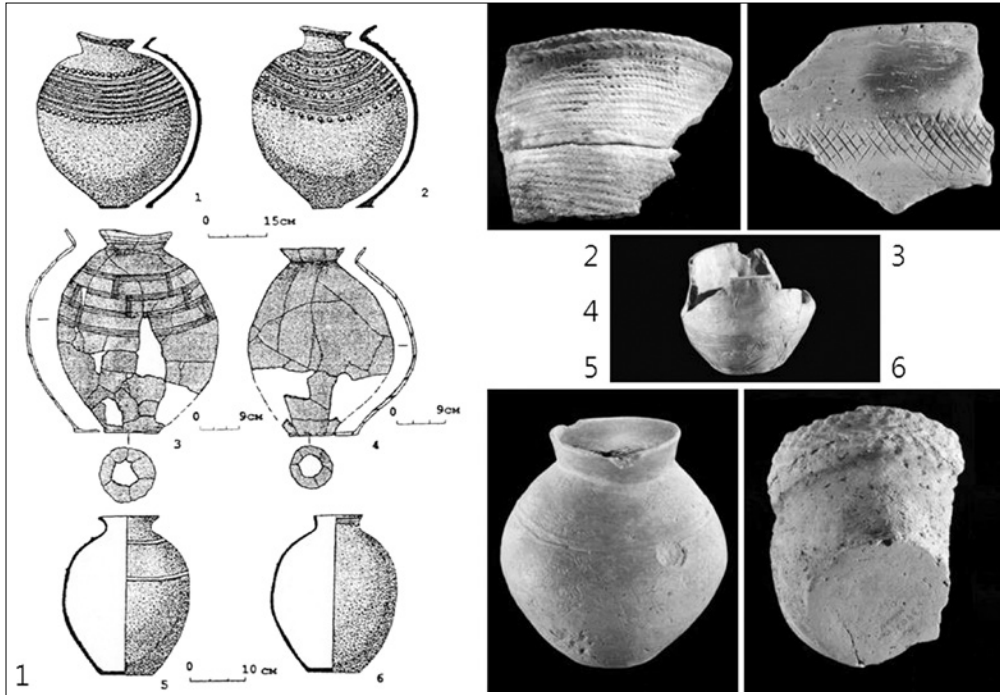


그림 23 러시아 지역 우랄문화의 주요 토기(작도)
 1.우랄문화 토기 일반, 2, 3, 5, 6. 꼬치꼬바뜨까(우랄문화), 4. 리이브노예(꾸켈레보문화)
 * 날개 그림 홍형우 교수 제공

문화를 말한다. 폴체문화는 파상덧띠문·두립문·횡선문·점열문·다치압인문·승문 등이 시문되어 있는 喇叭口 弧形外反 長頸壺·鉢形 外反短頸壺·角狀把手 鉢形 外反短頸壺가 가장 특징적이다. 蜿蜒河-폴체문화는 구체적인 유물 조합의 변천에 따라 몇 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문화의 전체 존속 기간을 기원전 7~기원후 5세기로 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蜿蜒河 2호 주거지의 절대연대측정치를 고려하여 중국 경내에 한해 이 문화의 존속 기간을 기원전 3~기원후 2세기로 보고 있다¹⁴²⁾.

倭肯河로부터 七星河 유역에 이르는 저산 구릉과 三江平原 일대에 이르는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조사의 미비로 철기시대문화인 滾兔嶺文化¹⁴³⁾만이 알려져 있을 따름이

142) 楊虎·林秀貞, 2006, 「試論蜿蜒河類型與波爾采文化的關係」, 『北方文物』 2006年 4期, 26쪽.

143) 趙永軍, 2006, 「試論滾兔嶺文化」, 『北方文物』 2006年 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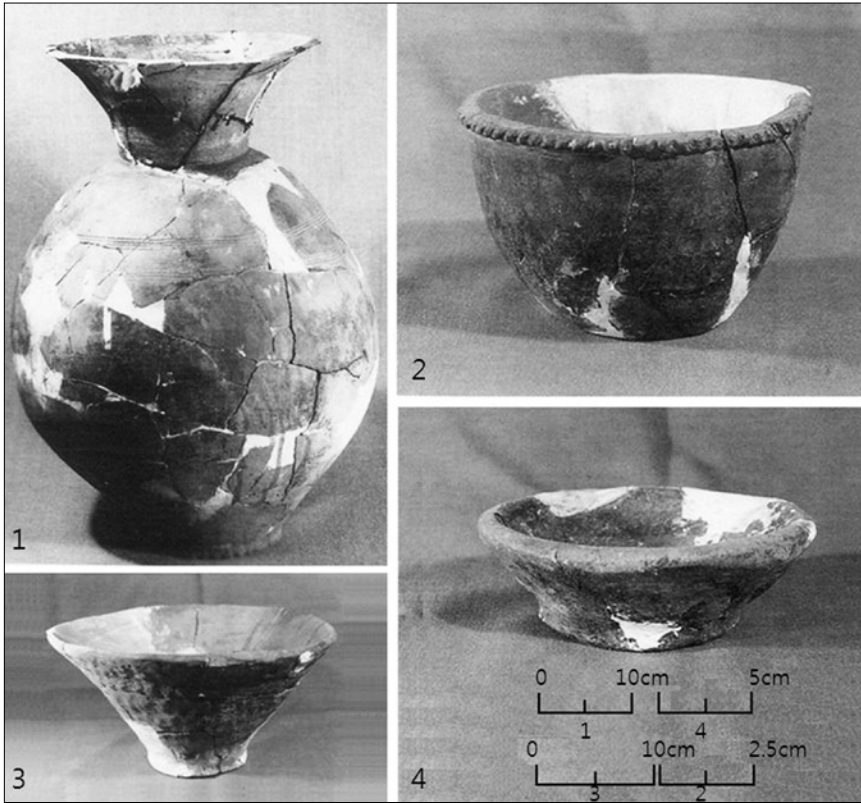


그림 24 중국 경내의 蜿蜒河-폴체문화의 주요 토기(작도)
* 綏濱縣 蜿蜒河 유적

다. 표지 유적으로는 雙鴨山市 滾兔嶺 취락지¹⁴⁴⁾가 있다. 滾兔嶺文化는 大口小底 外反口沿 壺·角狀把手 外反口沿短頸壺·口沿 突帶文 鉢形土器 등이 가장 특징적인데, 토기의 비교를 통해 남하한 우릴문화의 유물 전통과 장성 연선의 角狀把手 토기 전통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⁴⁵⁾. 滾兔嶺文化는 滾兔嶺 7호 주거지와 1호 주거지의 보정 연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존속 기간이 기원전 3~기원후 2세기이다.

張廣才嶺 동측 牧丹江 중상류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는 조사의 미비로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의 변모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초기철기시대의 물질문화만이 분명

144)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7, 「黑龍江省雙鴨山市滾兔嶺遺址發掘報告」, 『北方文物』 1997年 2期.

145) 王樂文, 2011, 「試論滾兔嶺文化的兩個問題」, 『北方文物』 2011年 1期,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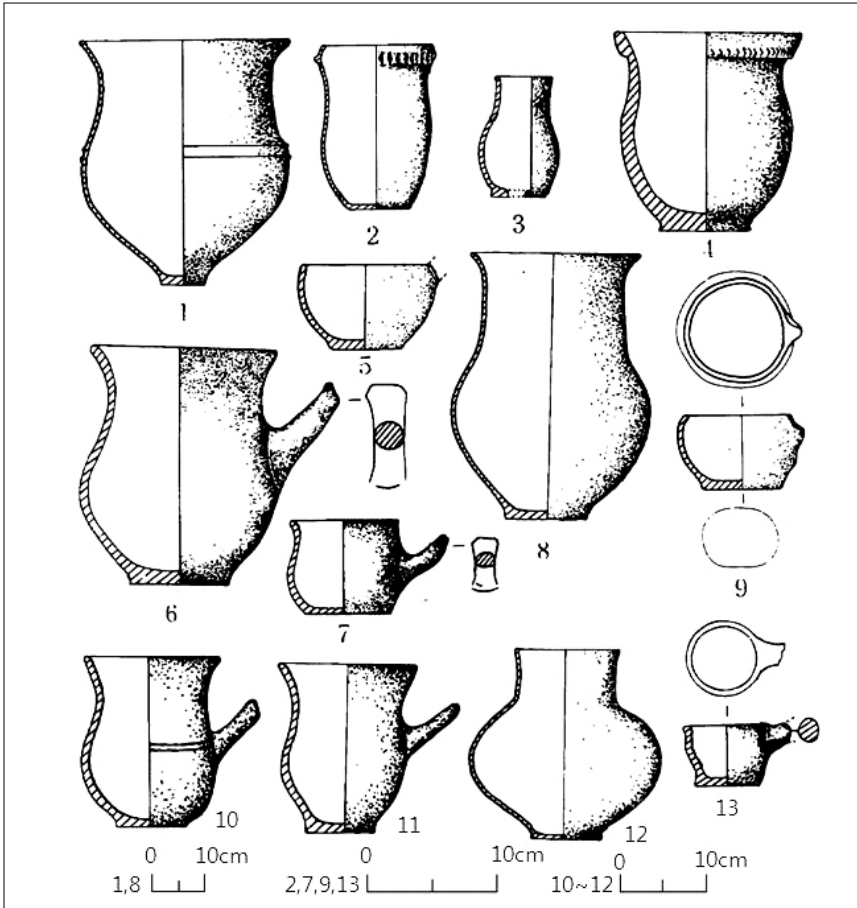


그림 25 滾兔嶺文化의 주요 토기
* 雙鴨山市 滾兔嶺 유적

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寧安縣 東康 유적¹⁴⁶⁾을 표지로 하는 團結文化가 그러하다¹⁴⁷⁾. 이 지역의 團結文化는 延邊朝鮮族自治州 일대와 토기에서 약간의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 지역을 團結文化 東康類型¹⁴⁸⁾으로 재분류하기도 한다. 대체적인 기

146) 黑龍江省博物館, 1975, 「東康原始社會遺址發掘報告」, 『考古』 1975年 3期; 黑龍江省博物館考古隊·哈爾濱師範學院歷史系, 1983, 「寧安縣東康遺址第二次發掘記」, 『黑龍江文物叢刊』 1983年 3期.

147) 楊志軍, 1982, 「牧丹江地區原始文化試論」, 『黑龍江文物叢刊』 1982年 3期; 林濤,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 1985年 1期.

148) 楊虎·譚英杰·張泰湘, 1979, 「黑龍江古代文化初論」,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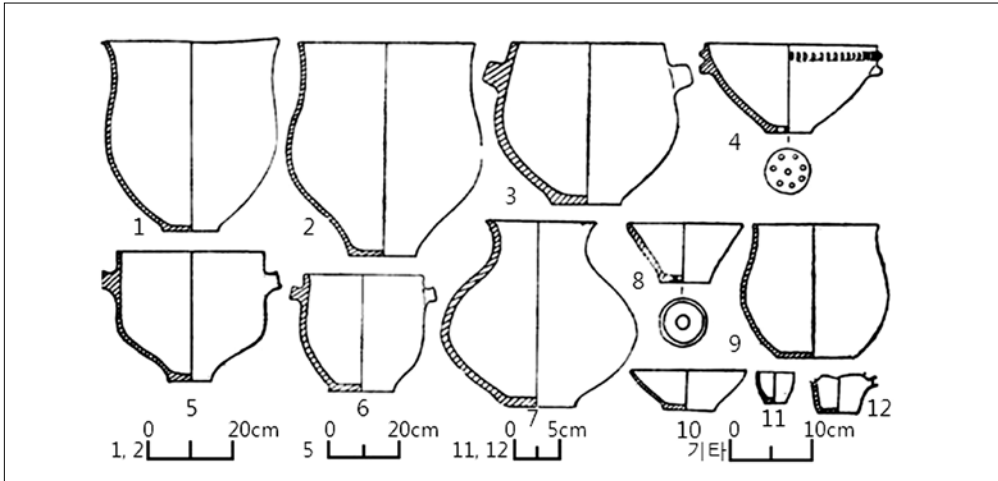


그림 26 東興類型的 주요 토기
* 海林市 東興 유적

종과 기형은 延邊朝鮮族自治州과 沿海州 남부 및 咸鏡北道 虎谷洞 5·6期 등과 유사하지만, 滾兔嶺文化의 속성이 보다 많이 복합되어 있다.

한편 최근 牧丹江 중상류역의 서안으로부터 張廣才嶺 동사면에 이르는 범위에서 團結文化와 滾兔嶺文化의 토기가 비등한 비율로 조합하고 있는 일련의 유적군이 조사되고 있다. 海林市 관내의 東興¹⁴⁹⁾, 河口 전기¹⁵⁰⁾, 渡口 1기¹⁵¹⁾, 振興 2기¹⁵²⁾, 望天嶺 유적¹⁵³⁾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유적에서는 團結文化의 柱狀把手 토기와 滾兔嶺文化의 角狀把手 토기가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조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유적군을

149)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6, 「黑龍江省海林市三道河鄉東興遺址1994年考古發掘簡報」, 『北方文物』1996年 1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黑龍江省海林東興遺址1992年試掘簡報」, 『北方文物』1996年 2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黑龍江海林市東興遺址發掘簡報」, 『考古』1996年 10期.

150)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6, 「黑龍江海林市河口遺址發掘簡報」, 『考古』1996年 2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6, 「1995年海林三道河鄉河口遺址發掘的主要收穫」, 『北方文物』1996年 2期.

151)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黑龍江海林市渡口遺址的發掘」, 『考古』1997年 7期.

15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7, 「黑龍江省海林縣振興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1997年 3期.

15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8, 「黑龍江省海林市望天嶺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1998年 2期.

東興類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대는 團結文化·滾兔嶺文化 보다 상한이 약간 늦으면서 대체로 병행 관계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第1松花江 중류역과 그 주변 구릉 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 또한 조사의 미비로 분명치 않은데,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만을 놓고 볼 때 橋南1期文化, 橋南2期文化와 滾兔嶺文化의 순서로 변모된다.

橋南1期文化는 판석조 노지가 있는 凸字形 주거지, 견부·동체부·견부~동체부에 여러 줄의 돌선문이 있는 大口小底 甕形土器, 縱向把手 短頸壺, 集突線文 杯形淺鉢, 북방식 청동 단검 등을 모방하여 제작한 각종 골기와 청동단추의 공반이 가장 특징적이다. 橋南2期文化는 橋南1期文化의 토기 제작 전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滾兔嶺文化의 토기와 철기 등이 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橋南2期文化期에 이르면 기존의 橋南1期文化圈에 포괄되어 있던 集賢縣 등 이 지역의 동부 변연 지대가 滾兔嶺文化圈으로 잠식되고, 대신 橋南2期文化의 중심 지역이 그보다 다소 하류인 方正縣 일대로 변천되어 다소 복잡하다.

橋南1期文化의 주요 유적으로는 依蘭縣 橋南 1期層¹⁵⁴⁾ 등이, 橋南2期文化의 주요 유적으로는 依蘭縣 橋南2期層¹⁵⁵⁾, 方正縣 于家¹⁵⁶⁾ 등이, 滾兔嶺文化의 주요 유적으로는 集賢縣 永紅 城址¹⁵⁷⁾·福興村 滾兔嶺 城址¹⁵⁸⁾ 등이 있다. 橋南1期文化의 연대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 청동기시대 말기로 보고 있지만¹⁵⁹⁾, 橋南1期文化層에서 沿海州 興凱湖 남안의 씨니가이문화 씨니가이 A 상층의 着帽形骨器와 청동단추장식¹⁶⁰⁾과 같은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기원전 7~4세기로 보고자 한다. 橋南2期文化는 滾兔嶺文化와 병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154) 李硯鐵·劉曉東·王建軍, 2000, 「黑龍江省依蘭縣橋南遺址發掘及相關問題」, 『北方文物』2000年 1期, 2~8쪽.

155) 李硯鐵·劉曉東·王建軍, 2000, 「黑龍江省依蘭縣橋南遺址發掘及相關問題」, 『北方文物』2000年 1期, 8쪽.

156)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黑龍江方正于家屯漢代遺址發掘簡報」, 『文物』2009年 6期.

157) 高愛霞, 2007, 「黑龍江省集賢縣永紅城址一,二,三號灰坑清理簡報」, 『北方文物』2007年 2期.

158) 黃星坤, 2007, 「黑龍江省集賢縣沙崗鎮文物遺址調查簡報」, 『北方文物』2007年 1期, 25쪽, 31쪽.

159) 李硯鐵·劉曉東·王建軍, 2000, 「黑龍江省依蘭縣橋南遺址發掘及相關問題」, 『北方文物』2000年 1期, 9쪽.

160) 테. 엘. 브로단스키 著, 鄭焜培 譯, 1996, 『沿海州의 考古學』, 學研文化社, 그림 100,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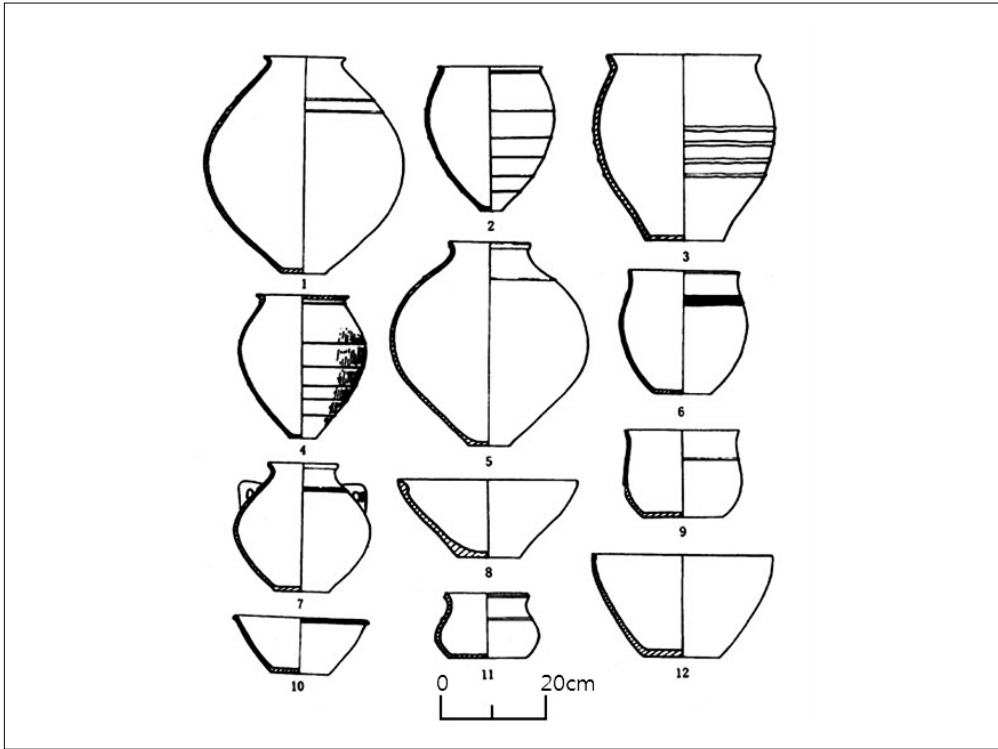


그림 27 橋南1期文化의 주요 토기
* 依蘭縣 橋南 1期文化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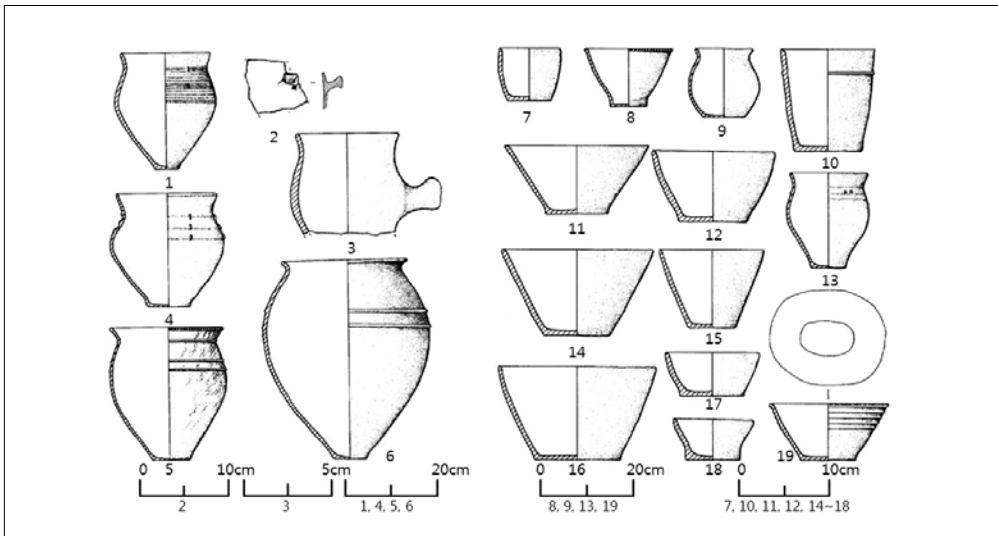


그림 28 橋南2期文化의 주요 토기
* 方正縣 于家 遺蹟

표 1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문화 편년 체계

	華北北端	燕山山地	遼西	遼東				內蒙古		吉 林		延邊	黑龍江西部	黑龍江 東部						
				北部	南部	南端	東部	東南	東北	西部	中部			黑江中河流	三江平原	牧江中上流	第1松中流			
전20	大坨頭文化	李大大人莊類型	夏家店下層文化	馬城子文化	雙砬子2期文化		夏家店下層文化					小拉哈文化								
전19																				
전18																				
전17																				
전16																				
전15	圍坊3期類型			雙砬子3期文化	雙砬子3期文化				小拉哈文化?		興城文化	小拉哈文化								
전14																				
전13																				
전12	張園層類型	抄道溝類型	魏營子類型				夏家店上層文化			白金寶文化		柳庭洞文化	白金寶文化	유림만화						
전11																				
전10	燕文化	東南溝-玉皇廟文化	十二臺營子文化	二道河子類型	雙房類型	崗上類型	大梨樹溝類型	夏家店上層文化	哈烏拉文化	白金寶文化	西團山文化		漢書文化	漢書文化	蜿蜒河 / - 풀체문화					
전9																				
전8																				
전7																				
전6																				
전5																				
전4																				
전3	燕文化	燕文化	燕文化	劉家哨類型	鄭家+崗上	燕文化	大甸子類型	燕文化	漢書文化	漢書文化	大海猛類型	團結文化	漢書文化							
전2																				
전1	漢文化	漢文化	漢文化		漢文化	尹家村類型	漢文化	漢文化	鮮卑文化	扎賚諾爾類型	泡子沿類型	團結文化	紅馬山文化	滾兔嶺文化	團結文化					
후1																				
후2				高句麗文化		高句麗文化		鮮卑文化	漁場		高句麗		高句麗		高句麗					

* 음영은 조사의 미비로 아직 물질문화 양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시기를 말한다.

Ⅲ.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계통과 속속

1. 지역별 선·후행 문화 간의 계통적 상관 관계

河北省 북부 華北大平原 북단(京津地區)의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大坨頭文化에서 張家園上層類型에 이르는 문화와 그 이후의 周·秦·漢文化가 전혀 다른 계통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간적으로 張家園上層類型과 일부 병행 하면서 후행하는 周·秦·漢文化는 黃河 중류역을 핵심 지역으로 하여 仰韶文化로부터 西周文化까지 연속되는 중국 선사·고대문화를 직접적인 계통으로 하고 있는 반면, 大坨頭文化로부터 張家園上層類型에 이르는 華北大平原 북단의 지역 문화는 이 지역의 독특한 물질문화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별개의 계통에 속한다.

그런데 華北大平原 북단의 西周文化 이전의 3개 청동기문화는 시간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간에 중간 공백 없이 연속된다. 이들 문화는 각 문화의 토기를 대표하는 大坨頭型鬲과 圍坊型鬲 및 張家園上層型鬲이, 세부적으로는 구연 돌대문의 발생과 승문 타날 방식의 변화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뒷 시기로 갈수록 일관되게 구경부가 길게 빼어 지고 기신 전반이 세장화되는 형식적 연속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일 계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¹⁶¹⁾. 이들 문화는 북방계 문화와 중국 문화의 중간 속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¹⁶²⁾.

燕山山地的 물질문화 전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원전 4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이 일대의 물질문화가 토착문화와 이질적인 戰國燕文化로 완전히 대체된다는 점이다¹⁶³⁾. 이러한 물질문화 양상은 당연히 戰國燕의 이 일대로의 진출과 내지화와 연관이 있다. 그런

161) 오강원, 2007, 「비파형동검문화 십이대영자 단계 유물 복합의 기원과 형성 과정」, 『단군학연구』 16; 蔣剛·王志剛, 2010, 「關於圍坊三期文化和張家園上層文化的再認識」, 『考古』 2010年 5期, 74쪽.

162)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387쪽.

163)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285~286쪽.

데 燕山山地는 華北大平原 북단과는 달리 戰國燕 이전의 非 중국계 북방문화 간에도 토착적인 물질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성의 연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지역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여러 갈래의 북방계 문화와 중국계 문화가 부딪히는 다양한 판의 접점에 속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燕山山地 최초의 청동기문화인 李大人莊類型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자들이 大坨頭文化로 인식할 정도로 龍山文化 河北型의 유물 요소가 적지 않게 복합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출현한 抄道溝類型은 李大人莊類型的 유물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새로운 계통의 북방계 청동기가 다량 복합함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선행하고 있던 토착 문화인 李大人莊類型的 토기가 연속되지 않는다. 이어 등장한 東南溝-玉皇廟文化 또한 시간적으로 앞서는 東南溝類 유적과 후행하는 玉皇廟類 유적 간에 고분 유형 등에서 계통의 동일성이 명확하게 찾아지지도 않는다.

遼西 지역의 물질문화 전개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세 청동기문화 사이에 1~2세기 간의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점과, 둘째 이 일대의 물질문화가 기원전 3세기 초를 기점으로 戰國燕文化로 완전히 대체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요서 지역의 夏家店下層文化와 魏營子類型 및 十二臺營子文化가 문화 공백기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기왕에 상세하게 밝혔으므로¹⁶⁴⁾ 상론하지 않기로 하겠다.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도 戰國燕의 진출과 내지화와 관련하여 다룬 바 있으므로¹⁶⁵⁾ 역시 상론하지 않기로 하겠다.

遼東 지역은 대체로 산악이 발달한데다 해양과 연안, 평원과 구릉 지형이 복합되어 있는 까닭에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특색을 분명히 하는 다양한 소규모 지역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일대의 각 지역 문화는 요동 남부와 동부가 기원전 20~15세기 또는 기원전 20~13세기 기간 동안의 물질문화 양상이 분명치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비

164)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383~428쪽.

165) 吳江原, 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165쪽~191쪽; 吳江原, 2011, 『紀元前 3世紀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伴 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關係』, 『韓國上古史學報』 71, 12~27쪽.

교적 잘 조사되어 있는 편이다. 아무튼 요동 지역은 요서 지역과는 달리, 비록 기원전 3세기 초 이후 일부 지역에 燕·秦·漢文化가 일정 기간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요동의 토착문화가 철기시대까지 지역적 맥락과 계통성을 이루면서 연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遼東 北部 지역은 기원전 20~3세기까지 馬城子文化, 二道河子類型, 劉家哨類型이 太子河 중상류역을 중심으로 중간 공백 없이 연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세 개 문화가 서로 일맥상통한 동일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馬城子文化와 二道河子類型은 석관장과 미송리형호 등에서, 二道河子類型과 劉家哨類型은 석관묘와 비파형동검문화계 청동기에서 동일한 계통을 이루고 있다. 다만 기원전 2~기원 전후의 물질문화 양상이 분명치 않은 것이 문제인데, 이 시기를 토착문화가 약화된 중간 과도기로 보고 그 직후의 高句麗文化를 고려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遼東 南部 지역의 물질문화는 雙砬子3期文化¹⁶⁶⁾, 雙房類型, 鄭家窪子類型과 崗上類型的 복합적인 영향기, 燕文化, 秦·漢文化의 순서로 변모된다. 이 가운데 燕文化와 秦·漢文化는 요서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착적인 유물 전통이 완전히 배제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기원전 3세기 초 戰國燕의 이 일대 점령과 그 이후의 계속적인 지배와 연관이 있다. 그런데 이 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요동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요동 남부 지역의 경우 戰國燕文化 이전의 청동기문화가 선·후행 문화 간의 계통적 관계가 분명치 않거나 또는 전혀 다른 이질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雙砬子3期文化와 雙房類型은 瓦房店市 鐘銅礦 탁자식 지석묘¹⁶⁷⁾에 雙砬子3期文化와 연결지을 수 있는 옹형토기가 부장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무덤 유형은 물론 토기에서 동일 계통의 선·후행성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지석묘·쌍방형 심발형토기로 상징되는 雙房類型과 그 뒤를 이어 요동 남부에 출현한 鄭家窪子類型的 유적이 이질

166) 遼東 南部 지역의 雙砬子3期文化 유물은 아직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없다. 다만 瓦房店市博物館과 普蘭店市博物館 및 庄河市文物管理所에 지표 조사에 의해 채집되거나 주민들로부터 회수한 이 일대의 雙砬子3期文化 토기와 석기가 적지 않게 수장되어 있을 따름이다. 본고에서 필자가 요동 남부 지역의 청동기문화 가운데 하나를 雙砬子3期文化로 확정지은 것은 위의 기관에 수장되어 있는 관련 유물에 대한 실견과 유물산포지 등에 대한 현지 고찰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특별히 밝혀둔다.

167) 三上次男, 1970, 「滿洲における支石墓の在り方」, 『考古學雜誌』 38卷 4號.

적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원전 5세기를 기점으로 碧流河 유역 등과 함께 전통적인 雙房類型的 지석묘 조성 지역이었던 海城市 일대의 고분 문화가 大屯 토광묘¹⁶⁸⁾에서 알 수 있듯이 鄭家窪子類型에 의해 대체된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遼東 南部 지역의 물질문화에서 확인되는 토착문화의 불연속성과 주변 지역 문화의 계속적인 영향 및 대체 현상은 이 일대의 물질문화 수준이 주변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에서 기인한다. 그나마 기원전 10~6, 5세기의 기간 동안 주변의 지역 문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雙房類型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 또한 기원전 6~4세기 沈陽 일대에 문화 중심을 형성하게 된 鄭家窪子類型的 남하와 영향에 의해 급속하게 소멸되기에 이른다¹⁶⁹⁾. 아울러 기원전 3세기 전후 무렵에는 尹家村類型과 戰國燕文化의 범위에 포괄된다.

遼東 南端 지역은 馬城子文化와 함께 요동 지역에 강한 문화적 영향을 끼치던 雙砬子 諸文化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다. 문화적 연속성 또한 강하여 雙砬子3期文化와 崗上類型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동기시대 전 기간 동안 문화적인 연속성이 확인된다. 다만 기원전 3세기 초를 기점으로 戰國燕文化의 지역 중심이 이 일대에 들어섬에 따라 지역 문화에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위낙 지역 문화의 관성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던 까닭에 기원전 3세기 내내 戰國燕文化의 유적과 토착계 문화인 尹家村類型이 병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遼東 東部 지역은 馬城子文化 중기와 雙砬子3期文化 중기 이전의 물질문화 양상이 분명치는 않지만, 기원전 12~11세기 桓仁縣 大梨樹溝 석관묘¹⁷⁰⁾를 표지로 하는 大梨樹溝類型이 형성된 이후 초기 高句麗文化까지 공백 없이 문화가 지속된다. 요동 동부 지역의 물질문화 전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大梨樹溝類型, 大甸子類型, 望江樓類型, 高句麗文化가 이들 각 문화를 대표하는 무덤의 외형적인 차이(석관묘, 대석개묘, 적석묘, 적석총)에도 불구하고

168) 孫守道·徐秉琨, 1964, 「遼寧寺兒堡等地青銅短劍與大伙房石棺墓」, 『考古』 1964年 6期, 278~279쪽.

169) 吳江原, 2012, 「青銅器文明 周邊 集團의 墓制와 社會: 遼東과 吉林地域의 支石墓와 社會」, 『湖西考古學』 26, 129~132쪽.

170) 梁志龍, 1991, 「桓仁大梨樹溝青銅時代墓葬調查」, 『遼海文物學刊』 1991年 2期.

하고 내용적으로는 무덤 구조와 묘제는 물론 청동기시대는 물론 高句麗文化期까지 심발형 토기가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등¹⁷¹⁾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大梨樹溝類型의 소형 세장방형 석관묘가 기원전 4~3세기 이 일대 수장층의 재부 축적과 권위 확대에 따라 수장층 가족을 일반인의 무덤 조성 구역과 독립된 묘역과 입지에 마련한 동일 묘실에 매장할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족 일원 전체를 광장방형의 묘실 내에 화장을 통해 매장한 후 지상에 대형 개석을 남겨 놓은 대석개묘로 진화하게 되었으며, 기원전 2세기에는 다시 대석개묘의 대형 개석의 하층을 분산시키기 위한 부석이 분구화되면서 묘실이 지상화됨으로써 초기 적석묘가 출현하게 되었고, 급기야 기원 후 1세기에는 고층화되기 시작하여 적석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¹⁷²⁾.

內蒙古 東南部 지역은 河北省 북부의 燕山山地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계통의 문화가 각 문화가 종속된 뒤에 갈마든다. 이러한 점은 이 지역의 전기 청동기문화인 夏家店下層文化와 후기 청동기문화인 夏家店上層文化가 전혀 다른 취락 체계와 생업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夏家店上層文化와 水泉類型 또한 水泉類型에 夏家店上層文化의 중심적인 유물 요소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계통의 문화에 의한 교체를 상정할 수 있다. 水泉類型的 뒤를 이은 戰國燕文化와 秦文化, 그리고 그 뒤를 잇는 鮮卑文化도 마찬가지이다.

內蒙古 東北部 지역은 조사의 미비로 지역 내 문화 전반의 계통적 연관성을 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판석묘로 상징되는 哈烏拉文化와 1세기 간의 문화 공백기를 사이로 한 채 출현하는 북방식 토광묘로 상징되는 扎賚諾爾類型은 고분의 구조·가축 순생·부장 토기의 기종과 기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哈烏拉文化의 묘제가 남시베리아의 타가르문화의 묘제와 상통하는 반면, 扎賚諾爾類型은 북방식 토광묘는 물론 일부 漢書型土器의 속성이 복합된 토기가 공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문화 또한 상이한 문화 전통과 계통에 의한 교체를 상정할 수 있다.

171) 오강원, 2005, 「오녀산과 환인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사회」, 『북방사논총』 3, 고구려연구재단, 33~34쪽;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350~353쪽.

172) 吳江原,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 過程」, 『高句麗渤海研究』 43, 35~49쪽.

吉林 西部 지역은 小拉哈文化로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漢書文化까지 각 문화 사이에 공백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유물 요소의 계통적인 연관성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동일 계통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세 문화 모두 동일 유형의 토광묘를 묘제로 하고 있다든지, 小拉哈文化 前期와 後期の 口沿縱向把手杯¹⁷³⁾와 篋點幾何文 施文 수법¹⁷⁴⁾이 漢書文化까지 그대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다만 漁場式 遺蹟群은 중심적인 토기 조합이 黑龍江省 서부의 紅馬山文化와 연결되는데¹⁷⁵⁾, 이를 통해 이 문화기에 지역 문화 전통의 교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吉林省 中部 지역은 西團山文化와 大海猛類型이 취락 설계와 입지·주거지의 구조·묘제·신기종과 신형식 토기의 출현·토기 정면 수법 등에서 유형적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두 문화의 중심적인 유물(西團山型壺-大海猛型壺, 西團山型鼎-大海猛型鼎, 長蛇山型壺-長胴短頸壺, 長蛇山型罐-橫向把手 長胴甕形土器 등)이 문화적으로 연속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점은 大海猛類型이 猴石山 유적 등과 함께 하여 西團山文化의 후기 또는 말기 단계¹⁷⁶⁾의 유적이 아닌 별개의 문화 유형¹⁷⁷⁾에 속한다는 점과 함께 西團山文化의 계통을 직접적으로 잇는 후행 문화라는 것을 시사한다¹⁷⁸⁾.

다만 泡子沿類型은 일부 유물에서 토착 전통과의 관계가 찾아지기는 하지만, 木棺墓·斜頸長頸壺·泡子沿型 高柄豆·連鈴柄式劍·北方系 靑銅器와 金銀 裝飾 등에서 다른 계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泡子沿類型的 중심적인 유물 요소와 주변 지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嫩江 중상류역의 平洋-三家子式 遺蹟群의 집단이 嫩江과 第1松花江을 건

17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8, 「黑龍江肇源縣小拉哈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98年 1期, 圖21-1, 2, 5~7, 11.

174)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8, 「黑龍江肇源縣小拉哈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98年 1期, 圖19-7.

175) 張偉, 2007, 「紅馬山文化辨析」, 『北方文物』2007年 3期, 12쪽.

176) 劉振華, 1982, 「試論吉林西團山文化晚期遺存」, 『東北考古與歷史』1輯, 81~82쪽; 董學增, 1983, 「試論吉林地區西團山文化」, 『考古學報』4期, 414쪽; 金旭東, 1993, 「西團山文化辨析」, 『靑果集』1, 287~288쪽; 송호정, 1999,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기원과 그 성장과정」,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출판부, 452~453쪽.

177) 오강원, 2000, 「西團山文化의 圈域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33, 19쪽.

178) 오강원, 2008, 「서단산문화와 길림 지역의 청동기문화」, 학연문화사, 412~415쪽.

너 吉林省 중부 지역으로 동남진한 다음 大海猛類型의 토착 집단을 하위 집단으로 종속시킴으로써 泡子沿類型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를 상론한 바 있다¹⁷⁹⁾. 아무튼 이 지역 또한 철기시대에 이르러 문화 전통과 계통의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延邊朝鮮族自治州 일대는 興城文化로부터 團結文化에 이르기까지 각 문화의 중심적인 유물 요소가 계통적으로 연속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점은 삼발형토기를 중심으로 한 토기 각 기종과 오랫동안 유지된 특유의 지역적 석기 제작 전통은 물론 주변 지역과는 구별되는 지역적 모체를 통해서 입증된다. 團結文化 이후는 물질문화 양상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延邊 일대에서 前期 高句麗의 전형적인 토기와 산성이 찾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원후 2~3세기에는 이 일대가 高句麗文化의 강한 영향을 받아 토착 문화의 전통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黑龍江省 西部 지역은 吉林省 西部 지역과 마찬가지로 小拉哈文化로부터 漢書文化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문화 전통과 계통을 이루는 문화가 지속되었다. 기원전 1세기에 출현한 紅馬山文化는 漢書文化와는 달리 주거지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취락을 장기적으로 점유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古墳·短頸壺·縱向把手杯·鴨形壺 등에서는 漢書文化 平洋 유적 등과, 口頸縱向把手壺·折沿深鉢形土器 등에서는 扎賚諾爾類型과 계통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漢書文化가 약화되면서 內蒙古 東北部 扎賚諾爾類型的 유물 요소가 적지 않게 복합됨으로써 출현하게 된 문화로 판단된다.

黑龍江省 東部の 여러 지역 문화는, 앞 장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의 제약과 미비로 청동기문화로부터 철기문화까지의 지역 내 문화 간 계통성을 논하기가 어렵다. 黑龍江 중하류 지역의 경우 우릴문화의 횡집선문 외반단경호를 蜿蜒河-폴체문화의 횡집선문 나팔구 장경호와 연결지을 수도 있지만,中间的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第1松花江 중하류역은 橋南1期文化和 橋南2期文化 간의 계통적인 연관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이 또한 보고된 조사 유적이 적어 일

179) 吳江原, 2000, 「中滿地域의 初期鐵器文化 泡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文化背景 및 夫餘문제와 관련하여-」, 『전환기의 고고학 III-歷史時代의 黎明-』(第24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文集), 42~52쪽.

부 지점과 유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역 전반에 걸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상호작용권

중국 동북 지역은 지역에 따라 청동기문화의 출현 시기와 존속 기간 및 문화의 연속성에 서 큰 차이가 있다. 더욱이 유적 조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황해 연안에 근접하여 있는 지역과는 달리 중국 동북 지역의 북방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까닭에 철기시대 이전의 상당 부분이 기본적인 물질문화 양상마저 드러나 있지 않은 공백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여러 물질문화 간에 형성되어 있던 상호작용권과 상호 작용 관계망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물질문화 전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상호 작용권과 상호 작용 관계망의 변동과 관련하여 몇 개의 뚜렷한 기간이 찾아지는데, 夏家店下層文化期(기원전 20~15세기), 魏營子類型期(기원전 12~10세기 중엽), 十二臺營子文化 十二臺營子類型期(기원전 8~7세기), 南洞溝類型-鄭家窪子類型期(기원전 6~4세기), 戰國燕의 遼寧 진출로부터 西漢 초기에 이르는 기간(기원전 3세기)이 그러하다. 이 기간 중국 동북 지역에는 특정 문화 또는 물질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광역에 걸친 상호작용권이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다시 이·삼차적인 상호 작용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 각 기간에 형성된 상호작용권과 상호 작용 관계는 단순한 물질 자료의 교류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물질문화를 변동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夏家店下層文化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 동북 지역의 상호 작용 관계망은 河北省 북부의 토착 문화에 강한 영향을 주어 이 지역에 大坨頭文化와 李大人莊類型이 형성되기에까지 이른다. 戰國燕과 西漢文化는 河北省 북부와 遼寧省 등지의 토착 문화를 완전히 대체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위에서 제시한 각 시기의 상호작용권과 상호 작용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夏家店下層文化期の 정황을 살펴보면, 같은 시기 중국 동북 지역에는 華北大平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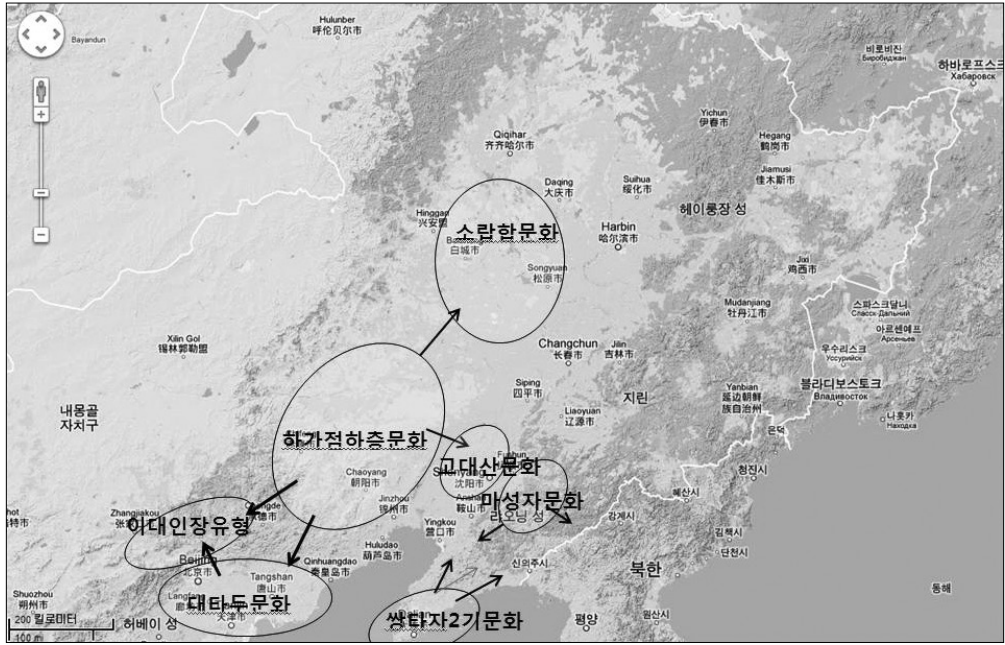


그림 29 夏家店下層文化期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문화와 상호 작용 관계

北端의 大坨頭文化와 燕山山地의 李大人莊類型, 內蒙古 東南部 지역과 遼西 지역의 夏家店下層文化, 遼東 北部를 중심으로 한 馬城子文化와 그 주변의 영향권, 遼東 南部를 중심으로 한 雙砬子2期文化와 그 주변의 영향권, 黑龍江省 西部와 吉林省 西部의 小拉哈文化 해서 5개의 상호작용권이 찾아진다. 이외 黑龍江省 東部에도 러시아 지역의 조사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최소 1개의 상호작용권이 설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설정 가능성만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大坨頭文化와 李大人莊類型은 고분과 토기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상호작용권 내의 지역 문화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大坨頭文化에서 이러한 유물 조합의 전형성과 선형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大坨頭文化圈이라 부르고자 한다. 大坨頭文化圈의 두 문화는 문화 형성 과정에서 중국 내지의 龍山文化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동북 지역의 다른 전기 청동기문화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이러한 점은 묘제와 승문 타날 토기에서 잘 드러난다. 이외 주민 이주¹⁸⁰⁾ 등 夏家店下層文化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특색이다.

그런데 夏家店下層文化期 중국 동북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여러 상호작용권 대부분은 주변 지역 문화와의 교류 강도는 물론 연계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의 분포 범위 또한 소규모라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大坨頭文化圈은 ‘中原文化圈’과 夏家店下層文化圈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두 상호작용권 모두와 긴밀한 상호 작용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정작 이 문화가 河北省 북부를 넘어 상대 문화의 형성과 전개에 깊은 영향을 미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京津地區’ 남쪽의 중국 내지에서 개별적인 유물 외에는 大坨頭文化의 영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반해 夏家店下層文化는 남쪽과 북쪽을 막론하고 주변 지역의 청동기문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단연 주목된다. 大坨頭文化의 형성 자체가 龍山文化 河北型의 지역적 유물 전통과 夏家店下層文化의 유물 요소가 복합·변모되어 형성된 것이라든지, 요령성 중부 柳河 유역의 高臺山文化 전기 단계의 縱向把手 筒腹鬲의 형성에 夏家店下層文化型鬲의 영향이 있었다든지¹⁸¹⁾, 嫩江 유역 小拉哈文化 말기의 白金寶 1期層 3028호 주거지 출토 鬲이 夏家店下層文化型鬲과 유사하다든지¹⁸²⁾ 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夏家店下層文化를 동시기 중국 동북 지역 최대 문화로 설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 遼東 지역의 馬城子文化와 雙砬子2期文化, 嫩江 하류역을 중심으로 한 小拉哈文化는, 비록 개별 토기의 형성 과정에서 동일 지역의 선행 문화와의 계통적인 연관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들 문화가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서 원거리의 주변 문화와 문화 내적인 변동을 야기할 정도로 밀도 깊은 상호 작용을 한 양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문화는 夏家店下層文化와는 달리 광역에 걸친 상호작용권 형성과 동일 문화의 확산 보다는 역내 지

180) 河北省 蔚縣 三關村 고분군(張家口考古隊, 1984, 「蔚縣夏商時期考古的主要收穫」, 『考古與文物』 1984年 1期, 40~41쪽)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三關 고분군은 夏家店下層文化 전형의 토광묘 내에 夏家店下層文化型鬲을 비롯한 夏家店下層文化 유물만이 배타적으로 부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夏家店下層文化 주민 집단의 이주를 상징할 수 있다.

181) 趙賓福, 1993, 「關於高臺山文化若干問題的探討」, 『靑果集』 1, 282쪽.

18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97, 「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1986年發掘簡報」, 『北方文物』 1997年 4期, 圖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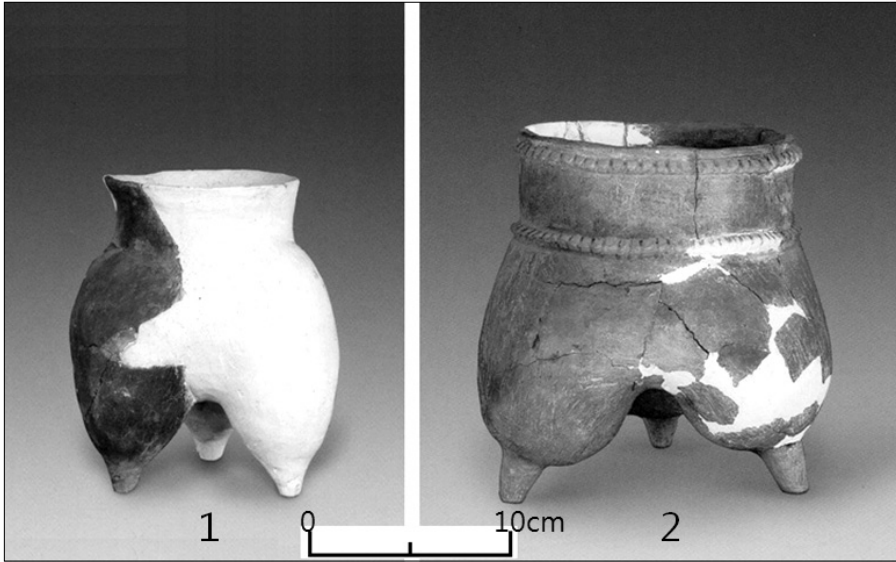


그림 30 小拉哈文化的 夏家店下層型屬과 白金寶文化 조기의 魏營子型屬
1. 白金寶1期文化層, 2. 白金寶2期文化層

역적 전통의 확립과 이러한 유물 전통을 동일 지역 내에서 지속시키는데에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점 夏家店下層文化圈과 대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夏家店下層文化期 이후에 주목할만한 시기는 魏營子類型期이다. 중국 동북 지역 내 각 지역 별로 魏營子類型期和 정확하게 부합되는 문화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華北大平原 北端은 圍坊3期類型的 후기와 張家園上層類型이, 燕山山地는 抄道溝類型이, 遼寧省 東部는 馬城子文化 후기와 二道河子類型 초기·雙砬子3期文化和 雙房類型 초기·雙砬子3期文化和 崗上類型的 중간 공백기·大梨樹溝類型 전기가, 內蒙古 東南部는 夏家店上層文化 전기, 黑龍江省 西部와 吉林省 서부는 小拉哈文化 후기와 白金寶文化 전기, 延邊朝鮮族自治州는 興城文化 후기와 柳庭洞文化 초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중국 동북 지역 전반에 걸쳐 물질문화와 상호작용권은 물론 상호 작용의 기본 축이 변동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燕山山地의 청동기문화는 이 시기에 抄道溝類型으로 변모되는데, 이의 출현과 함께 이 지역 재래의 물질문화는 물론 상호작용권에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이 시기에 이르러 燕山山地가 그 남쪽의 大坨頭文化圈에서 이탈하여 陝西省 북부·山

西省 북부를 중심지로 하여 동쪽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곡병동검·곡병동도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북방계 상호작용권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물론 抄道溝類型 또한 그 남쪽의 張家園上層類型 등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식 청동예기 모티프 등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¹⁸³⁾, 유물 전반에서 동일 상호작용권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遼西 지역 또한 마찬가지여서 夏家店下層文化期까지만 해도 內蒙古 東南部와 동일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던 遼西 지역이 魏營子類型的 출현과 함께 2개의 다른 상호작용권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한편 魏營子類型은 목곽묘와 승문 타날 토기 및 청동예기에서 華北大平原 北端의 張家園上層類型과의 긴밀한 교류 관계가 상정되기는 하지만, 魏營子類型과 기하문 및 북방식 청동기에서 抄道溝類型을 포함한 장성 연선의 동서 횡향의 문화대와 동일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었다¹⁸⁴⁾. 따라서 遼西 지역 또한 이 시기에 물질문화는 물론 상호작용권에서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서 지역의 魏營子類型은 중국 동북 지역에 魏營子類型을 중심으로 한 광역의 상호작용권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은 주변 지역에 魏營子類型的 특정 유물, 심지어 이념적 행위까지도 광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內蒙古 東南部 克什克騰旗 天寶同 제의 유적에 魏營子型鬲의 구연부편과 함께 청동예기가 매납되어 있다든지¹⁸⁵⁾, 高臺山文化 후기의 法庫市 彎柳街 유적¹⁸⁶⁾과 望花類型的 撫順市 유적¹⁸⁷⁾에서 管鋸斧·鈴首銅刀·鹿首銅刀와 고식 環首銅刀가 출토되었다든지, 小拉哈文化 말기의 肇源縣 白金寶 1期層의 3012호 주거지에서 魏營子類型鬲이 출토되었다든지 하는 것¹⁸⁸⁾ 등을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183) 대표적인 예로 河北省 興隆縣 小河南 매납 유구의 ‘木祖乙’銘 青銅器盖를 들 수 있다. 鄭紹宗, 1994, 『附錄 興隆小河南發現北方式青銅器概況』,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青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1994年 4期.

184) 오강원,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395~409쪽.

185) 克什克騰旗文化館, 1977, 『遼寧克什克騰旗天寶同發現商代銅鬲』, 『考古』1977年 5期.

186) 鐵嶺市博物館, 1990, 『法庫縣彎柳街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1990年 1期, 圖7.

187) 撫順市博物館, 1981, 『遼寧撫順市發現殷代青銅環首刀』, 『考古』1981年 2期, 圖1-1.

188)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97, 『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1986年發掘簡報』, 『北方文物』1997年 4期, 圖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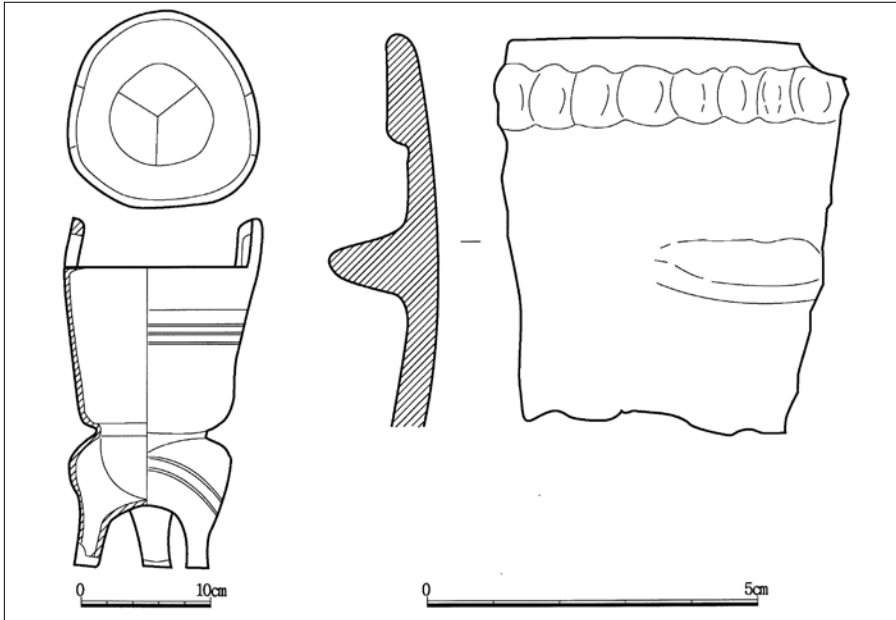


그림 31 克什克騰旗 天寶同 제의 유적 출토 銅甗과 魏營子型土器片
(오강원 2011, 그림 24)

魏營子類型期 중국 동북 지역에서 魏營子類型에 필적할만한 광역의 상호작용권을 형성한 문화는 없다. 그렇지만 이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 지역의 물질문화가 지역 내 유물 전통을 확립하여 동일 문화 계통의 새로운 청동기문화로 전환되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 시기에 華北大平原 北端 지역은 圍坊3期類型이 張家園上層類型으로, 遼東 北部 지역은 馬城子文化가 二道河子類型으로, 遼東 東部 지역은 馬城子文化의 영향을 받은 大梨樹溝類型이, 黑龍江省 東南部와 吉林 西部는 小拉哈文化가 白金寶文化로, 延邊朝鮮族自治州는 興城文化가 柳庭洞文化로 각각 전환된다.

魏營子類型期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魏營子類型이 쇠퇴·소멸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黑龍江省 東部 지역 가운데 黑龍江 중하류역 남안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우릴문화가 확산되어 이 일대(중국 경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黑龍江 중하류역 남안의 우릴문화 유적은 이 일대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물질문화와 같은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이자, 黑龍江省 동부 일대가 같은 시기 적어도 遼寧省과 吉林省 중부 및 黑龍江省 서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던 그 서쪽 일대와는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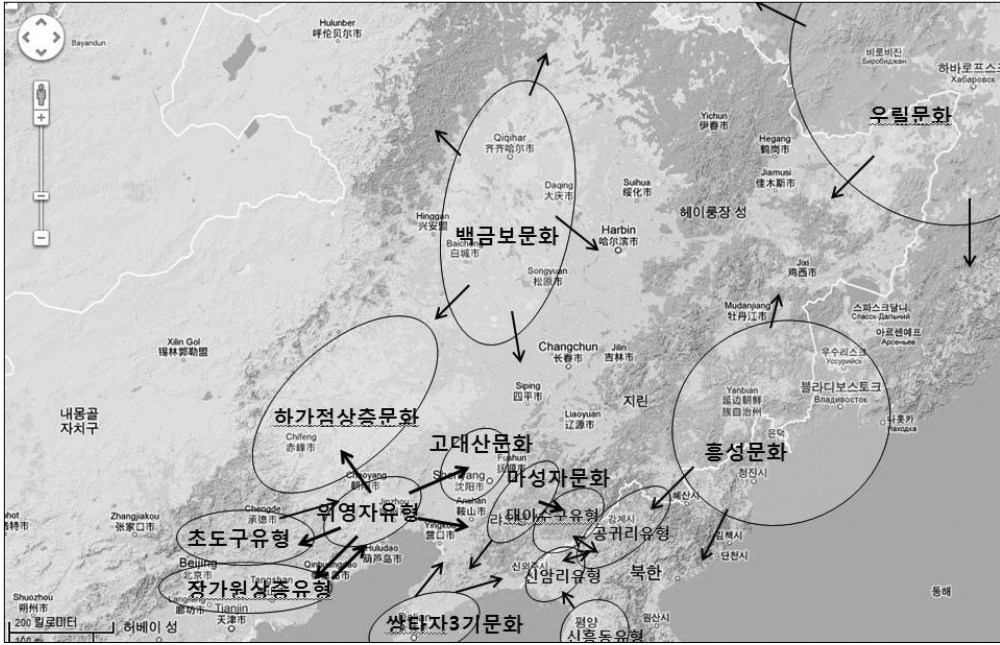


그림 32 魏營子類型期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문화와 상호 작용 관계

다른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十二臺營子文化 十二臺營子類型期이다. 이 시기 각 지역의 주요 문화로는 華北大平原 北端의 西周燕文化, 燕山山地的 東南溝-玉皇廟文化, 遼東 北部 지역의 二道河子類型, 遼東 南端 지역의 崗上類型, 遼東 南部 지역의 雙房類型, 遼東 東部 지역의 大梨樹溝類型, 內蒙古 東南部 지역의 夏家店上層文化, 內蒙古 東北部 지역의 哈烏拉文化, 黑龍江省 西部와 吉林省 西部 지역의 白金寶文化, 吉林省 中部 지역의 西團山文化, 延邊朝鮮族自治州 지역의 柳庭洞文化, 黑龍江省 東部 제 지역 가운데 黑龍江 중하류역 남안 중국 경내의 우릴문화 등이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종래 遼西 지역의 魏營子類型을 중심으로 형성된 광역의 상호작용권이 해체되는 대신 內蒙古 東南部の 夏家店上層文化를 중심으로 광역의 상호 작용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夏家店上層文化는 寧城縣 小黑石溝와 南山根 고분군으로 대표되는데, 이들 고분군에 부장되어 있는 유물과 부장 수준을 통해 당시 중국 동북 지역에 夏家店上層文化를 상위로 하여 가깝게는 燕山山地的 東南溝-玉

皇廟文化와 遼西 지역의 十二臺營子文化가, 멀게는 黑龍江省과 吉林省 서부의 白金寶文化가 夏家店上層文化 중심 상호 작용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⁹⁾.

이와는 별개로 遼寧省과 吉林省 지역의 물질문화 간의 상호 작용 관계망에도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일대에 느슨하게나마 형성된 상호 작용 관계망은 遼西 지역의 十二臺營子文化를 청동기 제작 기술의 원천 지역으로 하여 遼東의 여러 지역과 吉林省 중부의 토착 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편 吉林省 중부 지역은 遼東 지역에 일차 수용된 十二臺營子文化의 청동기 제작 기술을 청동기 제작 모티프로 수용함은 물론 夏家店上層文化 중심의 상호 작용 관계망을 통해 유포된 齒柄銅刀 등의 夏家店上層文化 양식의 청동기가 수용되기도 하였다¹⁹⁰⁾.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현상은 이 시기에 비로서 遼寧省과 吉林省 중부 지역이 느슨한 형태나마 동질적인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형성된 상호작용권은 다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다. 즉, 청동기에서는 遼西와 遼東·吉林省 중부 지역이 이·삼차적인 긴밀한 상호작용권을 형성하여 이들 지역 전체가 단일한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되, 묘제와 토기 및 석기에서는 遼東 북부-遼東 동부-吉林省 남부-吉林省 중부가 긴밀한 내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부분적인 유물에서 遼東 남부와 遼東 남단이 연결되고 遼西 지역은 이 관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十二臺營子文化 南洞溝類型-鄭家窪子類型期이다. 이 시기는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6~4세기에 해당되는데, 十二臺營子類型期까지만 해도 遼西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十二臺營子文化가 遼寧省 중부 지역(柳河 유역)과 遼河를 건너 遼東 북부의 沈陽 일대로까지 확산되고, 그 결과 遼西 지역의 南洞溝類型과 沈陽 일대의 鄭家窪子類型이 형성된다. 遼東 지역에 十二臺營子文化 鄭家窪子類型的 중심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遼西와 遼東 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느슨한 형태와 구조의 상호작용권이 직접적인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 吳江原, 2004, 「中國 東北 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先史와 古代』 20, 83~87쪽.

190) 오강원, 2008, 『서단산문화와 길림 지역의 청동기문화』, 학연문화사, 371~3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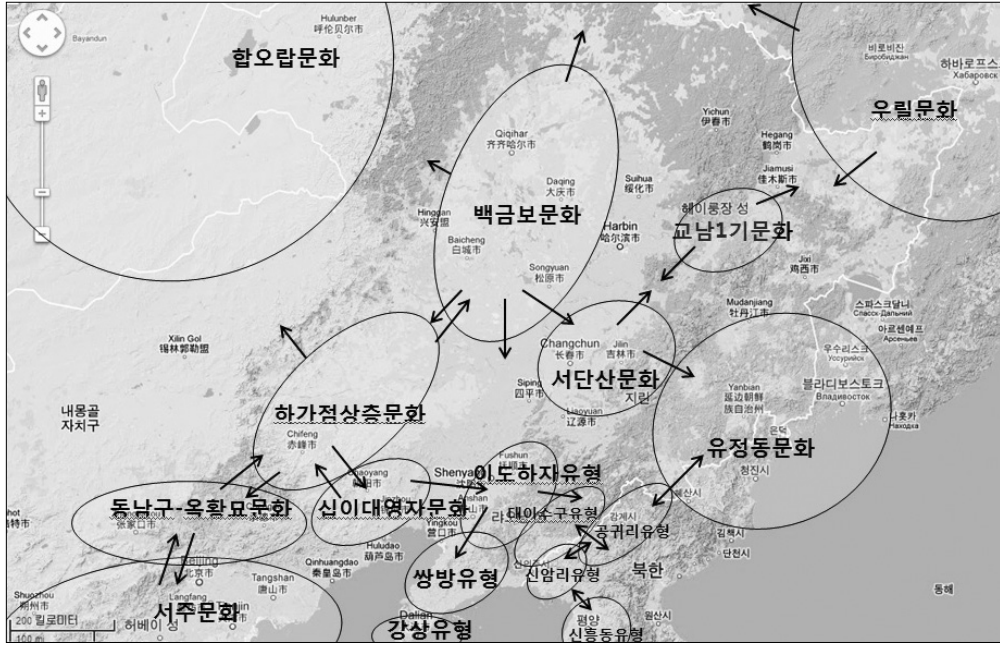


그림 33 十二臺營子文化 十二臺營子類型期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문화와 상호 작용 관계

실제로 鄭家窪子類型期 遼寧省 지역은 鄭家窪子類型을 매개로 하여 그 서쪽의 南洞溝類型과 遼東의 제 지역이 동일한 교역망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遼東 지역의 요동형 비파형동검 등이 요서형 비파형동검으로 완전히 대체됨과 동시에 遼東 북부의 일부 지역과 遼東 남부 지역 등의 묘제가 토광묘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이 시기 鄭家窪子類型을 중심으로 확산된 물질문화의 혁신과 파동은 다시 遼東 각 지역의 수장층을 매개로 하여 吉林省 중부와 西北韓 地域으로까지 확산되는데, 그 결과 이 일대의 물질문화가 기원전 4세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지역 문화로 변모되기까지 이른다.

이 시기 遼寧省과 吉林省 중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十二臺營子文化期 夏家店上層文化를 중심으로 광역에 걸쳐 형성된 상호작용권이 급속하게 와해되는 대신 북방계 청동단검문화의 상호 작용 관계망이 燕山山地의 東南溝-玉皇廟文化를 중심으로 하여 南洞溝類型과 夏家店上層文化가 연결되는 형식으로 변모된다. 이러한 점은 東南溝-玉皇廟文化의 후기 북방계 유물이 위의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상호 작용 관계망의 가동으로 內蒙古 동남부의 경우 夏家店上層文化가 소멸되고 水泉類型이 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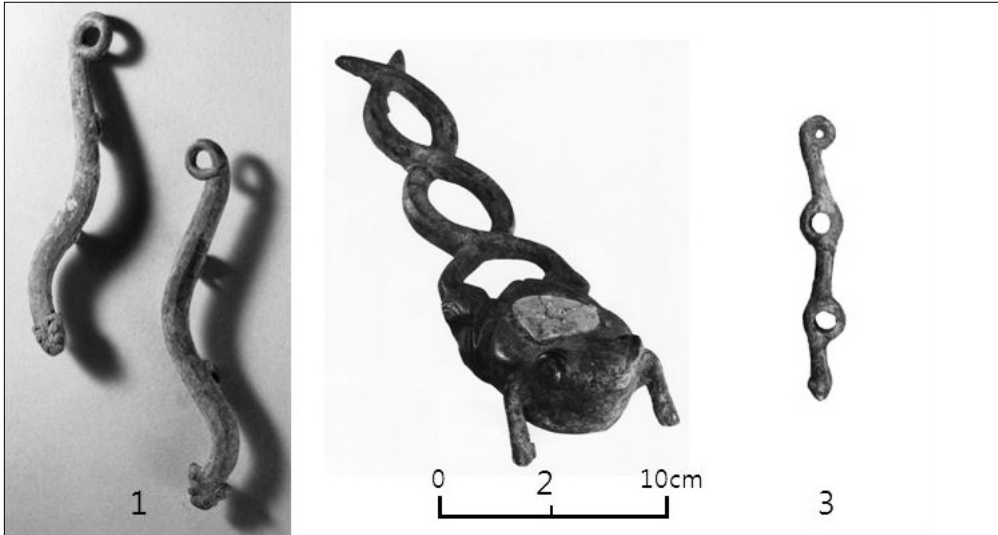


그림 34 東南溝-玉皇廟文化, 十二臺營子文化 南洞溝類型, 十二臺營子文化 鄭家窪子類型的 뱀꼴 말재갈머치와 뱀꼴 장식(작도)
1. 懷來縣 甘子堡 토광묘, 2. 喀左縣 三官甸 석곽묘, 3. 沈陽市 鄭家窪子M6512

城縣과 敖漢旗를 잇는 선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 黑龍江省 東部の 第1松花江 중하류역에서는 橋南1期文化가 형성되어 있었다. 橋南1期文化는 토기의 기종과 기형에서 드러나듯이, 白金寶文化는 물론 柳庭洞文化와도 전혀 다른 계통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정황만으로는 橋南1期文化의 토기는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동시기 물질문화의 토기와도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第1松花江 중하류역이 黑龍江省 동부 전체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黑龍江省 동부의 제 지역이 러시아 연해주 일대와 그나마 상대적으로 근사한 가운데 그 서쪽과 남쪽과는 다른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상호작용권과 상호 작용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戰國燕의 遼寧省 진출로부터 西漢文化 초기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청동기시대 遼寧省과 內蒙古 東南部 지역의 토착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상호 작용권과 상호 작용 관계망이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戰國燕과 西漢文化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양상과는 다르다¹⁹¹⁾. 더욱이 戰國燕과 西漢文化는 이미 성숙한

191) 李盛周, 1996, 「青銅器時代 東아시아 世界體系와 韓半島의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2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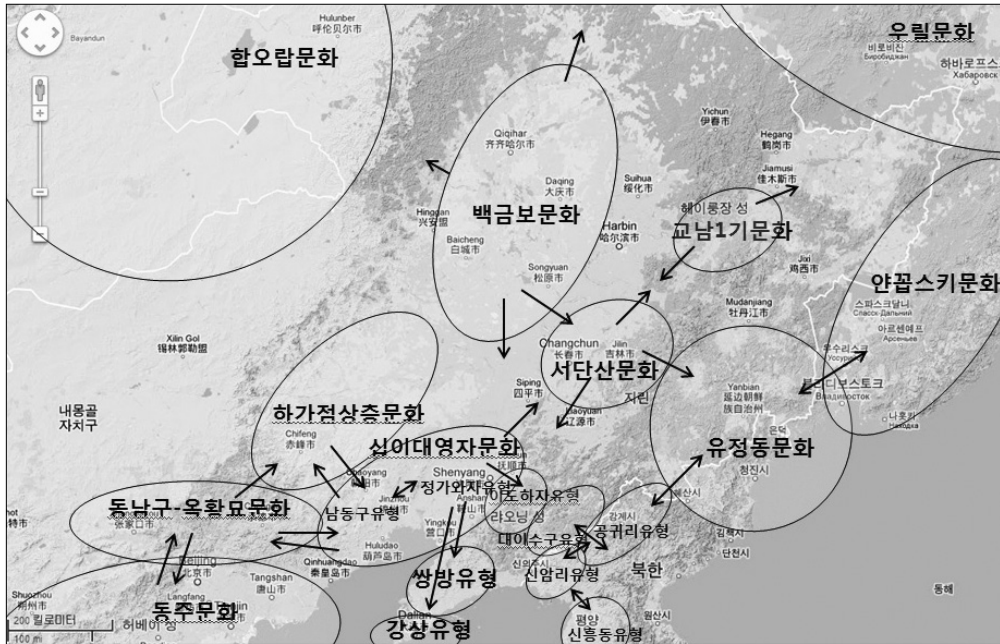


그림 35 十二臺營子文化-南洞溝類型-鄭家窪子類型期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문화와 상호 작용 관계

국가 단계에 도달한 사회였기에 이들의 內蒙古 東南部和 遼寧省 일부 지역으로의 진출은 문화의 교체 외에 국가 단계 지방 사회의 이식과도 연관이 되기에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戰國燕의 遼寧省 등지로의 진출로부터 西漢文化 초기에 이르는 기간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기원전 3세기 초 戰國燕의 內蒙古 東南部和 遼寧省 일부 지역으로의 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戰國燕이 점령하여 내지화한 지역에는 그 직전 청동기시대의 물질문화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長城·障塞·군사 및 행정 城堡·등급화된 聚落址·각종 생산 시설·鐵製 利器·木槨墓群·貨幣 埋納遺構 등의 戰國燕文化를 상징하는 유적과 유물이 긴밀한 조합 관계를 이룬 채 이들 지역에 거점 성보와 취락지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등장한다¹⁹²⁾.

36쪽; 이성주, 2011, 「巨視의 관점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 『동북아역사논총』 33, 338쪽.
192) 吳江原, 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165 ~171쪽.

戰國燕의 內蒙古 東南部와 遼寧省 일부 지역의 점유로 인해 빚어진 사회문화적인 반향은 주변 지역에 이·삼차적인 파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결과 중국 동북 지역 각지의 물질문화가 대략 기원전 3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燕長城 안쪽의 內蒙古 東南部와 遼西 및 遼東의 일부 지역에 걸친 眉眼溝類型(戰國燕文化), 遼東 北部 太子河 중상류역의 劉家哨類型, 遼東 南端의 尹家村類型, 遼東 東部의 大甸子類型, 黑龍江省과 吉林省 西部의 漢書文化, 黑龍江省 東部 제 지역의 蜿蜒河-플체문화, 滾兔嶺文化, 團結文化, 橋南2期文化 등이 이 시기의 물질문화이다.

戰國燕의 內蒙古 東南部와 遼寧省 일부 지역으로의 진출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토착문화의 변동 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전에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¹⁹³⁾ 본고에서는 상론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이 시기에 발생한 문화 변동과 延邊朝鮮族自治州 및 黑龍江省 東部 제 지역 물질문화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이들 지역이 요령 지역과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물질문화의 변동 사례를 들어 이들 지역 또한 기원전 3세기 초 戰國燕과 遼寧省 일부 지역에 대한 점령과 내지화에 의해 형성된 戰國燕의 상호작용권에 의해 영향 받은 것임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延邊朝鮮族自治州的 團結文化는 黑龍江省 동남부 牡丹江 중상류역과 러시아 興凱湖 이남의 沿海州 남부 지역 및 茂山郡 虎谷洞 5·6기를 중심으로 한 咸鏡北道 일대를 포괄하고 있는 문화로서, 연구자에 따라 러시아에서 연해주 남부 지역의 관련 유적군을 크로우노프카문화라 부르는 것을 고려하여 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¹⁹⁴⁾라 부르기도 한다. 團結文化의 유물 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 직전의 柳庭洞文化와는 달리 주조철부를 중심으로 한 철기가 갑작스럽게 복합하기 시작한다는 점과 祭器形 高柄豆가 延邊朝鮮族自治州는 물론 團結文化圈 전반에서 고르게 복합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 기원전 8~4세기로 편년되고 있는¹⁹⁵⁾ 안콥스키문화부

193) 吳江原, 2011, 「紀元前 3世紀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伴 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關係」, 『韓國上古史學報』 71, 12~27쪽.

194) 홍형우, 2012, 「흑룡강·연해주 일대 초기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2012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278쪽.

195) 홍형우, 2008, 「두만강 유역 및 연해주 철기문화의 발생과 전개-안콥스키 문화를 중심으로-」, 『2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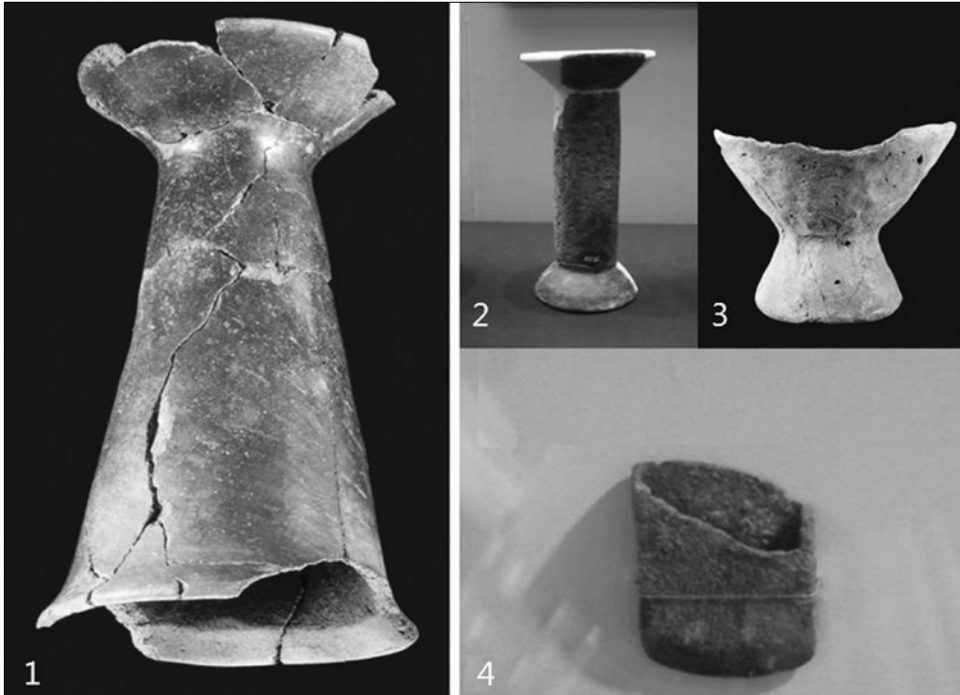


그림 36 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의 豆와 주조철부(작도)

1. 러시아 블로치까(제기형 고병두), 2. 세장병 고병두(龍井市 農林 고분군), 3. 러시아 연해주 블로치까(喇叭座 豆), 4. 주조철부(龍井市 農林 고분군)

터 철기가 공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라바시-3 유적¹⁹⁶⁾인데, 제련로와 단야구까지 갖춘 철기 공방에서 공부 단면 장방형의 주조철부와 철제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고려하여 기원전 5~3세기로 편년되고 있어¹⁹⁷⁾, 러시아 측의 편년관에 따르면 안콥스키문화 말기에 이미 발달된 제작 방

의 한국고고학 1: 희정 최몽룡 교수 정년퇴임논총(Ⅰ), 302~307쪽.

196) N.A. 클류예프, A.B. 가르코빅, 2010, 「2007-2009년 연해주 바라바시-3 유적 조사 개요」, 『새천년 커튼을 열며...』, 블라디보스톡, 224~245쪽. (Н.А. Ключев, А.В. Гарковик,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памятника барабаш-3 в приморье в 2007-2009 гг. // Приоткрытая завесу тысячелетий..., Владивосток, 2010, - 348С .

197) N.A. 클류예프, A.B. 가르코빅, 2010, 「2007-2009년 연해주 바라바시-3 유적 조사 개요」, 『새천년 커튼을 열며...』, 블라디보스톡, 224~245쪽. (Н.А. Ключев, А.В. Гарковик,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памятника барабаш-3 в приморье в 2007-2009 гг. // Приоткрытая завесу тысячелетий...,

식(가열 냉각)이 도입된 주조철부가 제작된 셈이 된다. 한편 안콥스키문화 말기에는 철기와 함께 제기형 고병두와 세장병 고병두가 공반한다.

바바라시-3 유적은 철기와 공반하는 토기의 기형과 문양이 안콥스키문화 후기의 말라야 포두세치카 하층 및 리이박-1 유적¹⁹⁸⁾과 근사하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 학계에서는 이 유적을 의심의 여지없이 안콥스키문화 말기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¹⁹⁹⁾.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바바라시-3 유적 등에 공반하고 있는 공부 단면 제형·장방형의 주조철부와 세장형 고병두·제기형 고병두가 중국 경내에서는 遼寧省 大連市 尹家村 下層 2期層²⁰⁰⁾, 吉林省 梨樹縣 二龍湖 戰國燕 성지²⁰¹⁾, 東遼縣 謝家街 西山²⁰²⁾·大架山 上層²⁰³⁾ 등 요령성과 길림성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두루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內蒙古 東南部 지역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들 유적은 모두 秦나라와 西漢 건국 초기까지 염두에 둔 기원전 3세기에 포괄된다. 아울러 이 시기 중국 동북 지역에 주조철부와 공반하고 있는 세장병 고병두와 제기형 고병두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喇叭座柄豆와 短脚高杯形 豆와는 전혀 다른 배경의 戰國燕文化의 유물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바바라시-3 유적은 안콥스키문화의 토기 제작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 초기의 유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 또한 戰國燕文化로 인한 파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Владивосток, 2010, - 348С.

198) A.B. 가르코빅, 2003, 「연해주 후기 토기복합 유적 리이박-1」, 『극동과 주변 지역의 고고학과 사회인류학』, 블라고베센스크, 175~181쪽. (Гарковик А.В. Поздний кера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памятника Рыбак-1 в Приморье // Археология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материалы XI сессии археолог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ретья междунар. науч. конф.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убежах. Благовещенск, 2003. С. 175~181.

199) 홍형우, 2012, 「홍룡강·연해주 일대 초기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2012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277쪽.

200)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 1966, 「VI. 윤가촌」,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그림91-1~3, 8~10.

201) 朱永剛, 1988, 「吉林省梨樹縣二龍湖古城址調查簡報」, 『考古』1988年 6期, 圖5-5, 6, 12, 圖6-2~6.

202) 東遼縣文物志編寫組, 1986, 『東遼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70~73쪽.

20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8, 「吉林東豐1985年考古調查」, 『考古』1988年 7期, 圖4,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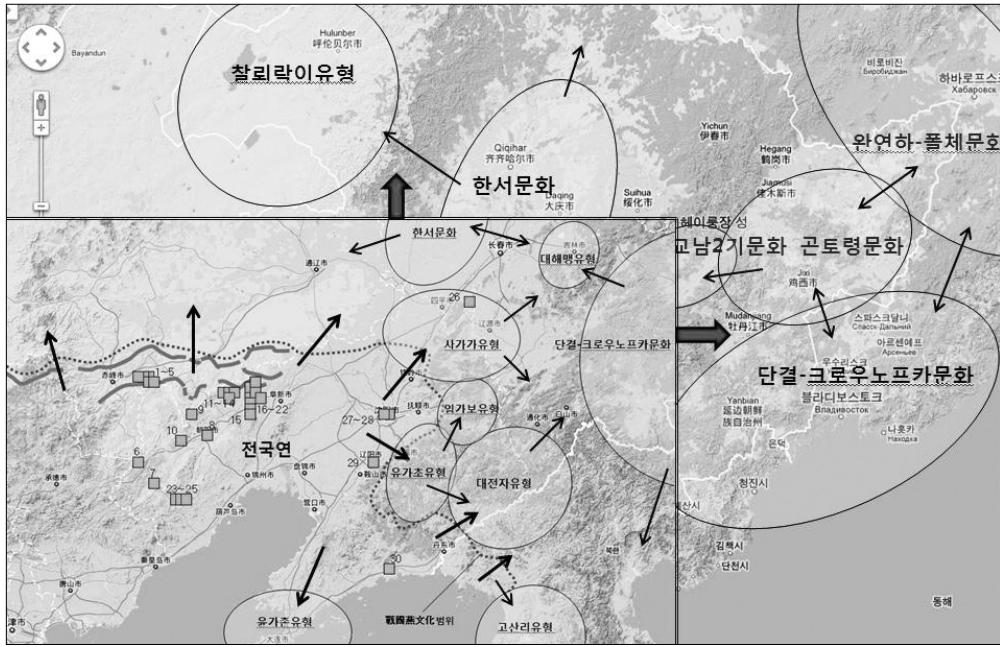


그림 37 戰國燕~西漢 초기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문화와 상호 작용 관계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黑龍江省·吉林省 서부의 漢書文化 후기와 黑龍江省 동부 제 지역의 蜿蜒河-플체문화, 滾兔嶺文化, 橋南2期文化, 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 등은 戰國燕文化를 중심으로 한 요령과 길림 중부와 남부 등지(尹家村類型, 劉家哨類型, 任家堡類型, 大甸子類型, 謝家街類型, 大海猛類型)에 형성되어 있었던 상호작용권과는 다른 별개의 상호작용권을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 동북 지역은 대체로 漢書文化圈과 黑龍江省 東部 제 지역의 여러 문화를 각각 별개의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남쪽에 형성되어 있던 戰國燕文化 중심 상호작용권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띄고 있었다.

끝으로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 전반의 전개 양상과 상호 작용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非 중국계 문화의 상호작용권을 개관하면, 분석 시점과 단계를 어디로 놓는가에 따라서 지역 범위에 커다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청동기~철기시대 전반의 흐름을 놓고 보면, 대체로 河北省 北部, 內蒙古 東南部, 內蒙古 東北部, 遼寧省과 吉林省 中部, 黑龍江省 西部와 吉林省 西部, 延邊朝鮮族自治州과 黑龍江省 東部

해서 도합 6개의 동질적인 소규모 상호작용권 단위를 추출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경외에 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黑龍江省 東部 등의 상호작용권에 포괄된다.

3.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족속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족속을 밝히는데에 동원될 수 있는 자료로는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학적 자료가 있다. 고고학적 자료로는 종족과 지역 명칭이 새겨져 있는 청동예기와 토기 등이 있고, 역사학적 자료로는 각종 先秦文獻과 史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각종 先秦文獻은 대부분 戰國時代~西漢 때에 편찬되었을 뿐 아니라 건국과 통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상징적으로 가공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²⁰⁴⁾.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늦은 시기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정사류 사서를 실마리로 하여 논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중국의 초기 정사류 사서 가운데 『三國志』는 陳壽(233~297년)가 三國時代(220~265년)를 대상으로 엮은 紀傳體 私撰 사서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三國志』가 현전하는 중국의 정사류 사서 가운데 중국 동북 지역의 족속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기록을 남긴 사서라는 점이다. 즉, 『三國志』에는 기원후 3세기 중국 동북 지역의 제 족속이 「烏丸鮮卑東夷傳」에 편제되어 일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대 각 족속의 지리·분포·정치·사회·풍습·주변 족속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들 족속 스스로 또는 중국인의 관점에서 정리한 족속의 기원과 변천 및 족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烏丸과 鮮卑를 제외한 그 동쪽의 모든 족속이 「東夷傳」에 편제되어 있다. 그런데 『三國志』 「東夷傳」에는 挾婁와 倭人까지 포괄되어 있어, 『三國志』에서 말하는 ‘東夷’가

204) 李成珪,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26~30쪽; 오현수, 2012,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9, 159~174쪽; 오현수, 「『逸周書』 「王會解」篇의 성서 시기 연구」 『王會解』篇 중 ‘成周之會’ 관련 원전의 성서 시기, 『한국민족문화』 46, 10~14쪽.

烏丸과 鮮卑를 중간 집단으로 하여 현재의 新疆省 등지에 분포하고 있던 '西域 諸國'에 대비된 '동쪽의 이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國志』 「東夷傳」을 자세히 읽어보면, 高句麗·夫餘·東沃沮·濊·三韓은 '濊'·'濊貊'·'貊'系로 분류되고 있으면서 언어와 풍습이 상통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挹婁와 倭人은 다른 존재임을 밝히고 있어 구분을 짓고 있다.

『三國志』 「東夷傳」에서 東夷로 편제한 족속 또는 정치체와 사실상 다른 족계로 분류한 挹婁와 倭人 가운데 倭人은 九州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日本列島の 족속과 정치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挹婁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의 물질문화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지리 분포와 물질문화가 잘 드러나 있는 高句麗(鴨綠江 유역)·夫餘(泡子沿類型)·北沃沮(團結文化 東康類型)·東沃沮(團結文化)와의 지리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蜿蜒河-폴체문화²⁰⁵, 滾兔嶺文化²⁰⁶와 그 뒤 시기의 鳳林文化²⁰⁷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蜿蜒河-폴체문화와 滾兔嶺文化-鳳林文化 등은 細長柄·祭器形 高柄豆 등이 토기 조합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鳳林文化는 저산 구릉 정상부의 방어성 자연 취락에서 발전된 평면 타원형 성지가 분포 범위 내에 취락망을 형성한 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²⁰⁸, 『三國志』에 그려져 있는 “處山林之間, 常穴居”하며 “東夷飲食類皆用俎豆, 唯挹婁不, 法俗最無綱紀也”한 挹婁와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三江平原 일부와 그 남부의 저산 구릉 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기원후 3세기에 형성된 鳳林文化는 철제 무기가 보편화되어 있고 외줄 온돌을 갖춘 주거지²⁰⁹까지 출현하고 있다.

205) 林滄, 1986, 「肅慎, 挹婁和沃沮」, 『遼海文物學刊』 創刊號.

206) 賈偉明·魏國忠, 1989, 「論挹婁的考古學文化」, 『北方文物』 1989年 3期, 26~28쪽;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41, 24~31쪽.

207) 張少珊·蘆會影, 2012, 「東北亞視域中的鳳林文化」, 『北方文物』 2012年 1期, 29쪽.

208) 靳維柏·王學良·黃星坤, 「黑龍江省友誼縣鳳林古城調查」, 『北方文物』 1999年 3期, 22쪽; 田禾, 2004, 「鳳林文化淺析」, 『北方文物』 2004年 1期, 28~29쪽.

209) 黑龍江省友誼縣鳳林村城址 후기층 1호 주거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2004, 「黑龍江友誼縣鳳林古城址的發掘」, 『考古』 2004年 12期, 圖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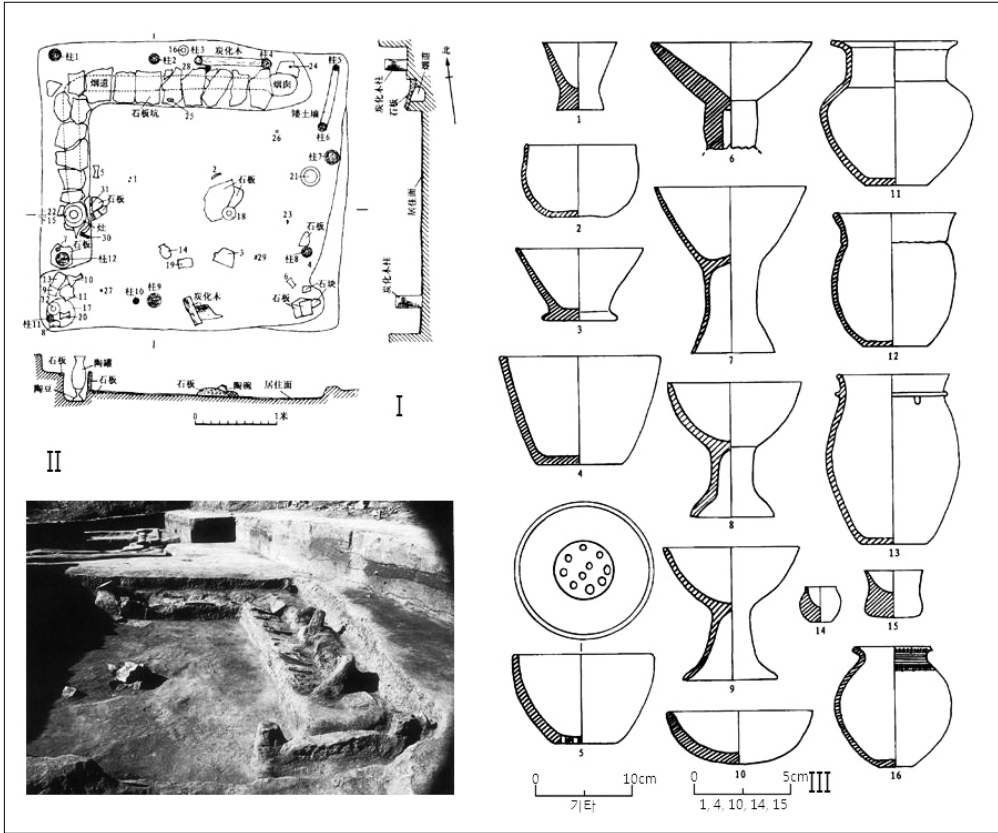


그림 38 鳳林文化의 주요 유적과 유물(작도)

* I : 鳳林 성지 1호 주거지 평면도, II : 鳳林 성지 1호 주거지 노출 전경, III : 토기

따라서 『三國志』의 기록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黑龍江省 동부의 물질문화는 挾婁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三國志』 「高句麗傳」의 幽州刺史 毌丘儉이 高句麗를 공파하였다는 기록²¹⁰⁾과 『三國志』 「毌丘儉傳」의 毌丘儉의 戰役 때 玄菟郡 太守 王欣이 東川王을 肅愼氏의 남쪽 경계까지 추격하였다고 하는 기록²¹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사가 『三國史記』 東川王 20년조에도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高句麗 東川王이 ‘梁貊

210)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列傳』 第30, <高句麗>. “正始三年, 宮寇西安平. 其五年, 爲幽州刺史毌丘儉所破. 語在儉傳”

211) 『三國志』 卷28, 『魏書』 28, <毌丘儉傳>. “……至肅愼氏南界”

之谷'의 전투 이후에 대패하여 鴨綠原으로 퇴각한 뒤 다시 丸都城을 빼앗기고 南沃沮로 피신하였다가 재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²¹²⁾.

그렇다면 挹婁는 南沃沮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三國志』 「東沃沮傳」의 東川王이 沃沮로 도망하였다가 沃沮 북쪽 800여리 떨어져 있으면서 挹婁와 접경하고 있는 置溝婁라고도 불리우는 北沃沮로 도망하였고 王頎가 별동대를 파견하여 바닷가까지 추격하여 그곳의 耨老에게 바다 건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는 기사²¹³⁾가 참고된다. 여기서 沃沮의 중심지를 永興邑을 중심으로 하는 元山灣으로, 1리를 대략 400m로 계산할 경우, 北沃沮는 元山灣으로부터는 豆滿江 대안에, 豆滿江 유역으로부터는 興凱湖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위의 거리 계산에서 豆滿江 남안으로부터 기산한 興凱湖 동남쪽의 沿海州 스파스크달니와 아르센예프 일대는 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의 범위에 포괄됨과 동시에 이 문화의 동북변계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王頎의 별동대가 東川王을 추격하여 다다른 곳이 내륙이 아닌 동해 바닷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三國志』에서 지목하고 있는 挹婁는 蜿蜒河-폴체문화 중에서도 중국 경내의 黑龍江省 동부가 아닌 黑龍江 하류역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경내의 폴체문화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러시아 경내의 폴체문화 유적에서는 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와는 달리 세장병·제기형 고병두의 조합이 중심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추정의 타당성은 蜿蜒河-폴체문화의 계통을 이으면서 이 문화에 이어 黑龍江 중하류역과 三江平原 북단에 출현한 綏濱縣 同仁 유적²¹⁴⁾을 표지로 하는 同仁文化가 모든 연구자들로부터 공히 勿吉과 黑水靺鞨의 물질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晉書』 「肅慎氏」에서 肅慎과 挹婁가 같은 족속에 대한 다른 명칭이라 한 뒤 不咸山 북쪽

212)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 第5, <東川王 20年條>. “二十年, 秋八月, 魏遣幽州刺史 田丘儉, 將萬人, 出玄菟來侵. ……再戰於梁貊之谷, 又敗之, ……儉爲方陣, 決死而戰, 我軍大潰. ……王以一千餘騎, 奔鴨綠原. 冬十月, 儉攻陷丸都城屠之, 乃遣將軍 王頎追王, 王奔南沃沮. ……王復國論功……”

213)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列傳」 第30, <東沃沮>. “田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斬獲首虜三千餘級.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與挹婁接. ……王頎別遣追討宮, 盡其東界, 問其耨老海東復有人不……”

214)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6, 「黑龍江綏濱同仁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2006年 1期.

에 있다고 하였는데²¹⁵⁾, 『魏書』 「勿吉傳」에 勿吉이 高句麗의 북쪽에 있고 옛적의 숙신이라고 한 것²¹⁶⁾ 또한 위의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 경내의 우릴문화와 그 이전의 유물 복합은 자연스럽게 肅慎族²¹⁷⁾의 물질문화와 분포 범위에 해당된다.

黑龍江省 중하류역 러시아 경내의 폴체문화가 挹婁로 비정된 만큼, 그 서쪽에 연접하여 있는 黑龍江省 동부 지역 가운데 물질문화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은 勿吉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寇漫汗國과 寇漫汗國의 선계 집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물질문화의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 지역의 족속이 불분명한 것은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집단이 기원후 3세기까지 漢·魏·晉, 高句麗, 夫餘, 특히 고대 중국과 특정 사건으로라도 직접적인 접촉이나 충돌을 겪지 않은데서 유래한 것이다.

遼寧省과 吉林省 中部 및 延邊朝鮮族自治州 일대의 물질문화는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찍부터 밀접한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호작용권에는 한반도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었다²¹⁸⁾. 이들 지역은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와 풍속에서도 유사성이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 때문인지 고대 중국에서 이들 모두를 濊·貊·濊貊·韓으로 불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학계에서 일찍부터 이 지역 범위를 ‘濊貊文化圈’이라 불렀다²¹⁹⁾. 濊貊文化圈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다양한 濊貊系 종족과 정치체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분석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상론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중국 동북 지역 청동기~철기시대 물질문화와 연관이 있는 古朝鮮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古朝鮮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사료로는 『史記』 「朝鮮列傳」

215) 『晉書』 卷97, 「列傳」 第67, <四夷>, 肅慎氏. “肅慎氏一名挹婁, 在不咸山北, 去夫餘可六十日行. 東濱大海, 西接寇漫汗國, 北極弱水”

216) 『魏書』 卷100, 「列傳」 第88, <勿吉國>.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慎國也”

217) 肅慎族을 挹婁와 구분해 古朝鮮과 동이어로 보고 이의 활동 무대를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韓圭哲, 1988, 「肅慎·挹婁研究」, 『白山學報』 35, 35~40쪽.

218) 吳江原, 2012,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 청동기문화권과 복합사회의 출현」, 『東洋學』 51, 4~12쪽.

219) 金貞培, 1968, 「濊貊族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5; 金貞培, 1971, 「韓國 青銅器文化의 史的 考察」, 『韓國史研究』 6; 金貞培, 1972, 「古朝鮮의 民族 構成과 文化的 複合」, 『白山學報』 12; 金貞培, 1979, 「韓國青銅器文化의 起源에 관한 小考」, 『古文化』 17; 金貞培, 1991, 「中國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 青銅遺物의 問題; 石棺墓의 劍 鏡 玉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1.

과 『東觀漢紀』 「地理志」를 저본으로 작성된 『魏略』의 古朝鮮 관계 기사²²⁰⁾ 및 『戰國策』 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戰國燕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準王 古朝鮮과 衛滿朝鮮 및 樂浪郡 朝鮮縣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平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세형동검 관련 유적과 樂浪 고분 등은 이 일대가 바로 準王 古朝鮮 등의 지역임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해준다.

따라서 西北韓 일대 세형동검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주변 지역 물질문화에 비해 상위 수준을 보이는 遼寧 지역의 물질문화와 지역을 準王 이전의 古朝鮮으로 볼 수 있다. 현재 遼寧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기원전 6~4세기 沈陽 중심의 十二臺營子文化 鄭家窪子類型뿐이다. 아울러 鄭家窪子類型이 十二臺營子文化 十二臺營子類型을 직접적으로 잇는 유물 복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기원전 8~7세기 遼西 지역의 朝陽 일대를 前期 古朝鮮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十二臺營子文化 형성 초기인 기원전 9세기는 濊貊族 범위 내의 古朝鮮 주체 집단의 선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魏略』의 기록에 따른다면²²¹⁾, 準王 이전의 古朝鮮은 沈陽이 아니라 喀左 일대가 되어야 한다. 喀左는 기원전 6~4세기 十二臺營子文化 南洞溝類型的 중심이 있었던 곳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의문을 품고 『史記』와 『魏略』 및 이 일대 물질문화 동향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기원전 6~4세기 喀左 중심의 古朝鮮 聯盟體와 沈陽 중심의 古朝鮮 聯盟體가 병존하고 있다가, 喀左 중심 연맹체와 戰國燕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沈陽 중심 연맹체 또한 휘말리게 되었고,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후대 중국 사가들이 각각 다른 분위기의 전승을 기록한 것으로 본 바 있다²²²⁾.

청동기시대 遼寧省의 十二臺營子類型 · 南洞溝類型 · 鄭家窪子類型과 초기 철기시대 西北韓의 孤山里式 유적군 · 松山里式 유적군 · 貞栢洞類型을 각각 前期 古朝鮮, 中期 古朝鮮, 後期 古朝鮮, 衛滿朝鮮, 樂浪郡의 물질문화로 설정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濊貊文化圈

220) 吳江原, 2012, 「『三國志』 裴松之 注와 『魏略』 古朝鮮 관련 기사」, 『정신문화연구』 35권 3호, 164~169쪽.

221) 陳壽,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條> 인용 魚豢의 『魏略』, “……後子孫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222)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 · 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 53.

외곽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물질문화는 古朝鮮·濊貊系 제 족속 및 정치체(夫餘 등)와는 성격이 구별되는 족속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원전 3세기 초 內蒙古 東南部和 遼西 및 遼東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眉眼溝類型(戰國燕文化), 秦文化, 西漢文化는 중국 고대 국가와 연관되므로 상론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濊貊系 제 족속과 古朝鮮 및 中國 고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일차적으로 주목되는 것이 山戎과 東胡이다. 이 가운데 山戎은 기원전 706년 齊나라를 공격한 것을 처음으로 하여 주로 燕의 북방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燕과 상쟁하다가²²³⁾, 기원전 663년 齊桓公이 이끄는 제후국 연합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²²⁴⁾, 이후 다시 재기하여 기원전 5세기 東胡와 함께 燕나라 북쪽의 중요 이민족 세력으로 언급되다가²²⁵⁾ 기원전 4세기 중엽 이후에는 더 이상 중국 역사 자료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외 기원전 9~8세기 초엽 北戎으로 불린 燕나라 주변의 세력도²²⁶⁾ 있었다.

현재 山戎 관련 문헌 기록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물질문화는 河北省 北部 燕山山地의 東南溝-玉皇廟文化 외에는 없다. 앞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東南溝-玉皇廟文化는 고분 구조와 유물 조합의 차이에 따라 기원전 9~7세기의 東南溝類型과 기원전 6~4세기 중엽의 玉皇廟類型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東南溝類型은 기원전 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기원전 6세기 玉皇廟類型으로 전환될 때까지 물질문화 쇠퇴와 변모 현상이 확인되는데, 물질문화의 변모에는 중국 내지 양식의 목관·목곽의 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문화가 山戎의 문화임이 확실하다.

河北省 北部 燕山山地의 전기 청동기문화인 李大人莊類型과 중기 청동기문화인 抄道溝

223) 『史記』卷14, 「十二諸侯年表」第2. “齊釐公二十五年, 山戎伐我”; 『春秋左傳正義』卷10, 莊公 30年條. “冬, 遇于魯齊, 謀山戎也, 以其病燕故也”(傳)

224) 『史記』卷32, 「齊太公世家」<齊> 2. “(桓公)二十三年, 山戎伐燕, 燕告急於齊. 齊桓公救燕, 遂伐山戎, 至于孤竹而還”; 『國語』卷6, 「齊語」, “……遂北伐山戎, 荆令支, 斬孤竹而南歸”; 『史記』卷14, 「十二諸侯年表」第2. “齊桓公二十三年, 伐山戎, 爲燕也”

225) 『春秋左傳正義』卷29, 襄公 4年條. “無終子嘉父使孟樂如晉, 因魏莊子納虎豹之皮, 以請和諸戎”(傳); 『史記』卷110, 「匈奴列傳」第50. “晉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散居谿谷, 自有君長, 往往而聚者百有餘戎, 然莫能相一”

226) 『春秋左傳正義』卷4, 隱公 9年條. “北戎侵鄭, 鄭伯禦之, 患戎師曰, 彼徒我車, 懼其侵軼我也”(傳); 『春秋左傳正義』卷6, 桓公 6年條. “北戎伐齊, 齊師乞師于鄭”(傳)

類型은 자료의 부족으로 족속을 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지역 물질문화에서 계통의 불연속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중심 집단의 교체와 이주가 빈번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興隆縣 小河南 유적에서 ‘木祖乙’銘 靑銅 器蓋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유적을 남긴 집단의 족속을 위의 명문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여지는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와 청동예기가 陝西省 북부와 山西省 북부의 북방계 문화와 직결되는 것을 통해 이들 지역의 족속과 연계한 추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河北省 북부 華北大平原 北端은 大坨頭文化부터 張家園上層類型까지 지역적인 전통이 계속적으로 연속된다. 大坨頭文化 계통의 이들 문화는 그 남쪽에 포진하고 있던 商文化 · 西周文化는 물론 북쪽의 다른 非 중국계 문화와도 계통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족속 계통으로 일괄할 수 있다. 이들 족속에 대해서는 先秦文獻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을 음운학적 고증 등을 통해 이런 저런 의견들이 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河北省 북부에서 폭넓게 발견되고 있는 非 중국계 집단의 족속 명칭이 보다 이들 지역의 족속을 밝히는데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商나라 후기 동북방 거점이었던 河北省 藁城 臺西 대형 취락 유적이다. 藁城 臺西 취락 유적은 商나라가 동북 변경의 개척과 북방계 족속의 통제를 목적으로 건설된 까닭에 자연스럽게 圍坊3期類型과 긴밀한 상호 작용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 취락 유적에서는 非 商文化 계통의 이질적인 유물 요소가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臺西 유적의 商式 토기가 殷墟 유적의 圓底器 전통에서 벗어나 平底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²²⁷⁾, 臺西 유적의 파괴 고분에서 북방식 청동기인 靑銅製 羊首匕²²⁸⁾가 출토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또한 藁城 臺西 유적의 각종 토기에서는 ‘臣’·‘止’·‘己’·‘己’·‘豐’·‘乙’·‘魚’·‘大’·‘刀’·‘矢’·‘戈’·‘肉’·‘貫萑’ 등의 銘文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명문 가운데 어떤 것들은 토기의 용도 및 토기 제작자(또는 사용자)와 연관이 있겠지만, 일부는 商나라 후기의 북방 거점과 연

227) 河北省文物管理處臺西考古隊, 1979, 「河北藁城臺西村商代遺址發掘簡報」, 『文物』 1979年 6期, 43쪽.

228) 河北省博物館文物管理處, 1973, 「河北藁城縣商代遺址和墓葬的調查」, 『考古』 1973年 1期, 圖版2-1.

결되어 있는 陝西省~河北省 일대의 소국 또는 씨족 집단²²⁹⁾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이 가운데 ‘魚’는 喀左 海島營子²³⁰⁾ · 山灣子²³¹⁾ 매납유구는 물론 西周 초기의 房山 琉璃河 253호 목곽묘 출토 청동예기²³²⁾에서, ‘戈’는 房山 琉璃河 251호 · 1149호 목곽묘 출토 청동예기에서 族徽의 형태로²³³⁾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바로 遼西 지역의 十二臺營子文化 이전의 魏營子 類型의 족속이다. 魏營子 類型은 장성 연선의 북방계 청동기문화의 동진 조류 속에서 출현한 문화이다. 魏營子 類型은 喀左縣 등지에 중심을 형성하게 되면서 河北省 북부 華北大平原 北端의 여러 족속들과 잦은 교류를 하였다. 陝西省 涇陽縣 일대에 있던 戈國의 族徽가 새겨진 청동예기가 房山縣 琉璃河 목곽묘와 喀左縣 海島營子 매납유구²³⁴⁾에 매납되어 있다든지, 喀左縣 和尚溝 A區의 1호 목곽묘 부장 외래산 銅甗에 교역을 상징하는 海貝가 근 100매 내장되어 있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 사례에 해당된다²³⁵⁾.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원전 12~10세기 遼西 지역에 魏營子 類型을 남긴 족속은 주로 燕山山地를 포함한 河北省 북부의 토착 집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河北省 북부 토착 집단 이외는 山西省 북부에 기원을 두는 이주 족속이 일부 복합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喀左縣 和尚溝 목곽묘군 부장 청동예기의 族徽가 山西省 靈石縣 旌介 고분군²³⁶⁾에서 무려 34점이나 확인된다는 점²³⁷⁾ 등을 통해서 추정 가능하다.

229) 이 가운데 ‘戈’는 陝西省 涇陽縣 高家堡에서 西周 초기의 戈國 首長墓(陝西省考古研究所, 1995, 『高家堡戈國墓』, 三秦出版社)가 발견된 바 있다.

230) 熱河省博物館籌備處, 1955, 『熱河凌源縣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銅器』, 『文物參考資料』 1955年 8期, 16쪽.

231)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7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殷周青銅器』, 『文物』 1977年 12期, 24쪽.

232) 北京市文物研究所, 1995, 『琉璃河西周燕國墓地 1973-1977』, 文物出版社, 135쪽.

233) 北京市文物研究所, 1995, 『琉璃河西周燕國墓地 1973-1977』, 文物出版社, 128쪽.

234) 熱河省博物館籌備處, 1955, 『熱河凌源縣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銅器』, 『文物參考資料』 1955年 8期, 27쪽.

235) 吳江原, 2011,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青銅禮器 埋納 遺構』, 『韓國上古史學報』 74, 38쪽.

236) 戴尊德, 1980, 『山西靈石縣旌介村商代墓和青銅器』, 『文物資料叢刊』 3.

237) 鄒衡, 1980, 『關於夏商時期北部地區諸隣境文化的初步討論』,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그러나 魏營子類型을 남긴 족속은 기원전 10세기 중엽 급속하게 쇠퇴하고, 그 자리를 十二臺營子文化를 남긴 濊貊族이 대체하게 된다.

內蒙古 東南부와 遼西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주변 지역에 강한 문화적 영향을 끼치던 夏家店下層文化에 대해서는 先秦文獻에 대한 추론에 추론을 거쳐 商나라의 선계 족속이었다는 등 여러 견해가 제기되어 있지만²³⁸⁾, 근거로 삼고 있는 先秦文獻의 기사 자체에 대한 이견들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 夏家店下層文化의 유물에 주인공을 시사하는 어떠한 물질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현재로서는 차라리 이러한 문화를 남긴 일체의 여러 族屬群을 ‘夏家店下層文化人’이라 잠정한 뒤, 夏家店下層文化의 전개 과정과 주변 문화와의 상호 작용 관계 및 후행 문화와의 상관성을 통해 族群의 유동을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內蒙古 東南부의 夏家店下層文化 이후 夏家店上層文化와 鐵匠溝-水泉 諸 類型的 족속은, 鐵匠溝와 水泉 遺蹟群이 戰國燕文化로 대체되었다는 점과 『史記』²³⁹⁾, 『戰國策』²⁴⁰⁾, 『山海經』²⁴¹⁾의 관계 기사를 고려할 때, 이들 유적군이 東胡族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문제는 夏家店上層文化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유적군이 주로 夏家店上層文化圈의 외곽이자 토광묘 문화권에 속해 있던 敖漢旗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鐵匠溝 고분군의 일부 토기가 夏家店上層文化와 계통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문화 집단 또한 河北省 북부의 山戎族과 구별되는 東胡族의 직접적인 선계 족속인 것으로 판단된다.

內蒙古 東北부의 哈烏拉文化는 板石墓와 鹿石 및 立石에서 드러나듯이 중국 동북 지역의 일반적인 청동기~철기시대 문화와는 전혀 다른 상호작용권에 포괄되어 있던 문화이다. 이 또한 先秦文獻에 나오는 각종 실날 같은 기사를 엮어 족속을 추론할 수 있겠지만, 戰國時代 이전에는 夏家店上層文化의 족속조차 중국의 기록에 남겨지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320쪽.

238) 干志耿·李殿福·陳連開, 1985, 「商先起源于幽燕說」, 『歷史研究』 1985年 5期; 蔭新建, 1985, 「先商文化探源」, 『北方文物』 1985年 2期; 黃中業, 1990, 「從考古發現看商文化起源于我國北方」, 『北方文物』 1990年 1期.

239)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晉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散居谿谷, 自有君長, 往往而聚者百有餘戎, 然莫能相一”; 『史記』 卷43, 「趙世家」 第13. “(趙惠文王)二十六年, 取東胡馱代地”

240) 『戰國策』 卷19, 「趙」 2. “自常山以至代上黨, 東有燕東胡之境……”

241) 『山海經』 第11, 「海內西經」. “東胡在大澤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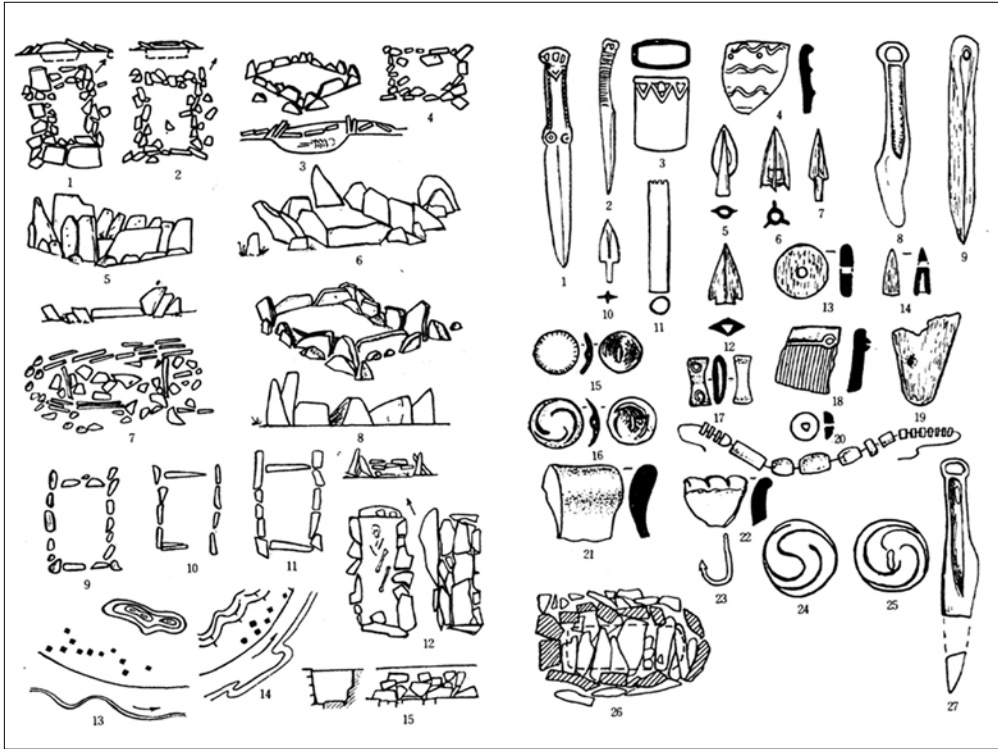


그림 39 외바이칼호 일대의 판석묘와 출토 유물

때, 현재로서는 남시베리아·몽골 동부의 족속군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타가르문화와 板石墓의 분포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외바이칼호 일대와 몽골 동부의 판석묘 집단의 동진에 의해 남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하다.

內蒙古 東北部의 扎賚諾爾類型은 그간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大興安嶺 북단 嘎仙洞 유적²⁴²⁾ 일대에서 大興安嶺 서쪽 呼倫貝爾盟을 일대로 이주한 拓拔鮮卑族 선계가 남긴 문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⁴³⁾. 扎賚諾爾類型 가운데 完工 고분군에 대해서는 외바이칼호 일대의 北匈奴文化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족속에 의해 남겨진 것으로 보기도 하

242) 米文平, 1981, 「鮮卑石室的發現與研究」, 『文物』 1981年 2期.

243) 馬長壽, 1962, 『烏桓與鮮卑』, 上海人民出版社; 宿白, 1977, 「東北, 內蒙古地區的鮮卑遺迹-鮮卑遺迹輯錄之一-」, 『文物』 1977年 5期; 許永杰, 1993, 「鮮卑遺存的考古學考察」, 『北方文物』 1993年 4期.

나²⁴⁴⁾, 完工 고분군이 拓拔鮮卑의 선계가 大興安嶺 산림에서 초원으로 나온 직후 경제유형은 물론 문화가 변형되는 시점에 남겨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扎賚諾爾類型을 남긴 중심 족속에 의해 남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이제 남은 것은 黑龍江 서부와 吉林省 서부의 청동기~철기시대 족속 문제이다. 이 일대의 물질문화는 小拉哈文化, 白金寶文化, 漢書文化, 紅馬山文化의 순서로 변모되는데, 앞 장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 문화는 동일 계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를 松嫩平原이라는 독특한 생태 환경에 적응한 유사한 族屬群에 의해 남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平洋 고분군을 烏桓族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平洋 고분군이 고분 구조와 장식·장법 및 토기에서 白金寶文化 계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이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기본으로 하는 유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지역은 중국 내지의 원격지 내륙 심처에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에 직접적인 관련 기록이 없다. 그런데 『後漢書』와 『論衡』에 夫餘를 건국한 東明이 원래 ‘北夷 橐離國’ 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²⁴⁵⁾.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夫餘文化(泡子沿類型)는 黑龍江省 서부 嫩江 유역의 平洋-三家子式 유적군이 동남진하여 吉林市를 중심으로 한 吉林省 중부의 토착문화와 결합하여 형성된 문화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일대의 족속을 고대 중국에서 烏桓, 鮮卑, 濊貊族을 중심으로 한 東夷 어느 족속과도 일치하지 않는 북쪽의 다른 부류의 족속군으로서 ‘北夷’라 지칭한 것이 아닐까 한다.

244) 陳雍, 1986, 「扎賚諾爾等五處墓葬陶器的比較研究」, 『北方文物』 1986年 3期; 鄭君雷, 1998, 「早期東部鮮卑與早期拓拔鮮卑族源關係概論」, 『靑果集: 吉林大學考古系建系十周年紀念文集』, 知識出版社, 314~317쪽.

245)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夫餘國>. “夫餘國, 在玄菟北千里. 南與高句驪,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本濊地也. 初, 北夷索離國王出行, 其侍兒於後妊身. ……東明奔走, 南至掩淲水, 以弓擊水, 魚鼈皆聚浮水上, 東明乘之得度, 因至夫餘而王之焉”; 王充, 『論衡』卷2, 吉驗篇. “北夷橐離國王待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令其母收取, 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掩淲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渡, 魚鼈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V. 맺음말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에는 지역성과 유물 전통을 달리하는 여러 물질문화가 있었다. 이들 문화는 조사의 불균일성과 지역적 낙차에 따라 청동기문화의 개시와 문화 규명에 편차가 존재하기도 하나 대체적인 양상은 파악된다. 중국 동북 지역의 각 문화는 대체로 하북성 북부의 화북대평원 북단과 연산산지, 내몽고 동남부와 동북부, 요서, 요동, 길림성 서부와 중부, 연변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 서부와 동부의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지역 가운데 요동과 흑룡강성 동남부는 다양한 생태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역내에 소규모 지역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 물질문화는 지역 내, 지역 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떤 경우는 시종일관 동일한 지역적 유물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가 연속적으로 변모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청동기 시대로부터 철기시대까지 전혀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물질문화가 갈마들며 교체되어 지역적 유물 전통이 불연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앞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黑龍江省과 吉林省 西部의 小拉哈文化, 白金寶文化, 漢書文化, 紅馬山文化-漁場式 遺蹟群을, 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內蒙古 東南部の 夏家店下層文化, 夏家店上層文化, 水泉類型, 戰國燕·秦·西漢文化, 烏桓·鮮卑文化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에는 몇 개의 주목할만한 상호작용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시간과 문화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북성 북부, 내몽고 동남부, 내몽고 동북부, 요령성과 길림성 중부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 서부와 길림성 서부, 흑룡강성 동남부에 느슨한 형태이든 밀도 깊은 형태이든 간에 상호작용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요령 등지는 한반도까지, 흑룡강성 동남부는 연해주 지역까지, 내몽고 동북부는 몽골 동부와 외바이칼호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시베리아까지 걸치는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각 물질문화 가운데 일부는 광역에 걸친 상호 작용 관계망을 통해 주변 지역의 물질문화의 형성과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 기원전 20~15세기에는 夏家店下層文化, 기원전 12~10세기에는 遼西 지역

의 魏營子類型, 기원전 8~7세기에는 遼西 지역의 十二臺營子文化 十二臺營子類型, 기원전 6~4세기에는 燕山山地~沈陽 일대의 東南溝-玉皇廟文化·十二臺營子文化 南洞溝類型·十二臺營子文化 鄭家窪子類型, 기원전 3세기에는 內蒙古 東南부와 遼西 및 遼東 일부 지역의 戰國燕·秦·西漢文化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각 지역의 물질문화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역사 자료와 청동예기와 토기 명문 등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족속과 정치체를 일부 밝힐 수 있다. 대체로 華北大平原 北端의 청동기문화와 燕山山地的 李大人莊類型과 抄道溝類型 및 遼西의 魏營子類型은 청동예기의 族徽 등에 언급되어 있는 일부 족속 및 그의 선계와 연관이 있고, 燕山山地的 東南溝-玉皇廟文化는 山戎族, 內蒙古 東南부의 夏家店上層文化는 東胡族의 선계, 水泉類型은 東胡族, 遼寧省·吉林省 中部·延邊朝鮮族自治州·沿海州 南部·韓半島는 濊貊系 제 족속, 十二臺營子文化期 遼寧의 일부와 초기철기시대의 西北韓은 古朝鮮에 해당된다.

또한 內蒙古 東北부의 哈烏拉文化는 몽골 동부와 외바이칼호 일대의 족속, 扎賚諾爾類型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拓拔鮮卑族의 선계와, 黑龍江省과 吉林省 西部의 白金寶文化부터 紅馬山文化까지는 고대 중국에서 鮮卑·烏桓은 물론 東夷 제족과도 구분되는 北夷로 인식한 별개의 족속과, 黑龍江 하류역 러시아 경내 沿海州의 풀체문화와 그 전후는 肅慎-挹婁-勿吉-黑水靺鞨族, 黑龍江省 東南部 제 지역의 문화는 일부가 挹婁 서쪽에 있었다고 하는 寇漫汗國의 선계와 연관이 있되 대부분 고대 중국에 알려져 있지 않은 족속과 연관이 있다. 高句麗, 夫餘, 沃沮 등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는 것과 같다.

토론문

「청동기 ~ 철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계통 및 속속」에 대한 토론

이 성 주(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이라는 광범한 영역의 고고학 자료를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체계화한 최초의 작업이다. 연구대상의 영역을 11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뒤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 문화의 단계를 구분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설명해내려고 하였던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11군데의 각 지역에서 문화단계의 변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승적인 관계 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문화단계와 문화단계 사이는 단절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급격한 변동이 보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 제 지역 단위의 문화들 사이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 어떤 지역단위의 문화는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며, 또 어떤 문화단위들 사이에는 상호 교류를 통해 공통적인 문화요소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주변에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문화의 존재를 주목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적인 문화요소를 공유하였던 지역단위들의 분포 범위를 상호작용의 권역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이 연구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고고학적 문화단위 그 자체의 인식이나 그 변동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와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선

진문헌으로부터 고대 기록물에 그 존재와 활동이 등장하는 종족을 고고학 자료에 나타난 지역문화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발표자도 지적인 바와 같이 이 작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동북지방의 고대 종족에 대한 기록이 선진문헌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을 지녔다면 논외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신뢰할 만한 출토문자, 그리고 『史記』, 『三國志』에 나타난 고대 종족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리적인 위치와 시간적인 존속에 대한 본 논문에 대한 해석은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작업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신 발표자의 역량이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연구 대상지역으로 익숙해진 요령성과 길림성의 범위를 넘어 연구영역을 훨씬 동북으로 확대하여 흥룡강 유역과 연해주지역의 자료를 섭렵하는 가운데 이 연구가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연구영역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동북아고고학에서 중국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지녀왔던 연구의 관심과 해석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자료를 우리 민족문화 혹은 정치체계의 기원지로 생각하고 접근 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선사 및 고대문화와의 관련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선형적으로 연결되는 문화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왔기에 그 해석은 시공간적 계통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한 지역문명으로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다루는 중국 학계의 연구 관점도 유사한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 문명 안에서의 관계에 주목하여 상사성과 상이성을 논하고 있으며 특히 燕秦·漢 시기의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마련이었다. 본 발표자의 연구 관점은 중국 동북지역 그 자체를 하나의 지리적인 영역으로 보고 고고학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연구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리된 고고학적 체계를 통해서만 보다 진전된 이론적 논의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닌 중요성이 찾아진다고 생각된다.

사실 본 발표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본 토론자로서는 능력 밖의 일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적인 정의와 해석의 관점에 대

해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할 따름이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분석적인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문화의 형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지리적인 영역에 걸쳐 유사한 물질문화의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웃한 지역과 구분되어 가는 요인이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채집 사회에서는 생태적,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동시에 자연지리적인 장벽과 같은 것에 의해 문화지역의 구분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분포를 크게 뒤흔드는 요인으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농경이라는 자원-인간집단의 상호관계와 사회의 조직적 성격을 포함한 생활방식의 변화가 확산-채용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물론 본 연구가 청동기시대 이후의 고고학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신석기시대에 확립된 문화지역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또 하나의 요인은 정치적인 통합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정치세력화가 진행되거나 한 지역 문화단위가 이웃한 정치체제로 편입된다면 그 지리적인 영역에는 동질의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첫째로 발표자께 농경 확산-채용, 그리고 정치체계의 확장 이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해석될 지역문화권 및 상호작용권의 변동은 없는지 여쭙고 싶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문화사고고학자들이 즐겨 사용한 문화권이란 용어를 폐기하고 지역단위의 문화와 상호작용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문화변동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 광범위한 영역에 문화적인 유사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구체성이 결여된 문화의 확산과 전파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과정주의 계열 혹은 그에 영향을 받은 고고학 이론가들이 문화 권역에서 사회집단을 찾아내고 그들 사이의 교역, 전쟁, 경쟁적 모방 기타 정치적, 이념적인 상호작용의 구체적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은 본 발표자도 그러한 목표의식을 깔고 이번 논문을 준비하신 듯한데 지면관계상 세부적인 논의는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어떤 주도적인 문화집단의 존재를 상호작용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계신데 그 중의 어떤 한 예를 들어서라도 보다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내용을 정리해 주실 수는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의 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다. 본 연구에서 청동기문화지역으로 포괄하고 있는 지역문화들 중에는, 가령 小拉哈文化라든가 興城文化, 뒤에 오는 自金寶文化까지도 청동기가 실제적으로 출토되지 않거나 설사 발견되더라도

라도 청동기가 해당사회에서 한 역할이 불분명한데도 청동기시대 문화의 상호작용의 범위로 포괄되어 있다. 이는 상호작용의 권역을 설정하더라도 상호작용의 본질을 다르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나아가 동북아 고고학의 시기구분이나 범주를 정하는데도 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먼저 이점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 또 하나는 극동지역의 우릴문화와 풀체문화 권역에서 발견되는 주조철기와 갑주편과 같은 유물이다. 이 지역은 동시기 철-철기생산의 중심지에서 보았을 때 최외곽의 주변지역이고 철기형식도 서한시기로 보아야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의 고고학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연대를 상당히 올리는 경향이 있다. 본 토론자는 이를 서한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다. 만일 이를 서한시기에 공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는데 그것이 전달되는 상호작용의 관계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단 동시기 분배의 중심지로 가장 가까운 곳은 요령 중동부쯤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요령성 북동부와 길림성 중북부, 그리고 송화강-흑룡강으로 우회하는 집단의 관계망이 확인되는지 아니면 아예 한반도로 우회하는 관계망을 따른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Земледелие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у чжурчжэней Приморья в XII-XIII вв.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материалам)

Н.Г. Артемьева

Ос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люб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является земледелие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яют характер и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хозяйства. По письменным источникам, а сейчас и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данны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что экономика чжурчжэней была многоотраслевой (Воробьев М.В., 1983, с. 71; Шавкунов Э.В., 1990, с. 105). В письменном источник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чжурчжэни любили хлебопашество, рыбную ловлю и охоту, что почвы их пригодны к возделыванию конопли и посеву хлеба (Васильев В.П., 1858, с. 199-200). В другом источник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отдельных районах много лесов и полей, земля годна под коноплю и хлеба, и чжурчжэни занимаются земледелием. Они не знают шелководства, выращивают отличных лошадей, добывают золото, крупный жемчуг, жэньшэнь, а также мед и воск. Чжурчжэни изготавливают тонкий холст, собирают кедровые орехи и белый аконит (волкобой). Для охоты используют соколов хайдунцин. Из животных там много коров, овец, оленей, диких собак, кабанов, белок, соболей. Из плодов и цветов имеются белые гортензии, арбузы. В море много крупной рыбы и раков (крабов) (Кычанов Е.И., 1966, с. 272-273). Безусловно,

хозяйственный уклад чжурчжэней зависел от многих фактор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географическо-климатических. Так уклад чжурчжэней, расселившихся в южных зонах Маньчжурской равнины, развивался как скотоводческо-земледельческий в основном из-за деградированных чернозёмов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равнины и степных серозёмов – в южной.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они тяготели к империи Ляо с её киданями скотоводами и китайскими земледельцами.

Чжурчжэни, жившие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областях с северными подзолистыми почвами, либо в юго-восточных горных областях, для которых характерны бурозёмы, занимались охотой, рыбной ловлей. Их переход к земледелию затруднён был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прям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опыта китайских земледельцев в Южной Маньчжурии. Их земли требовали удобрений, более глубокой вспашки валами, иных культурных растений и иного севооборота (Воробьёв М.В., 1975, с. 316).

Создав свое государство, чжурчжэни приня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кты, относящиеся к аграрным проблемам, вырабатывалось земельн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пополнялась казна, и обеспечивалось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население. Была ограничена част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обеспечено господство мелк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делах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занимало земледелие, которое находилось у чжурчжэне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Господствовало плужное земледелие, поддерживалось ирриг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поощрялся квадратно-гнездовой способ высадки рассады, заливные поля (Воробьёв М.В., 1975, с. 215-233).

Многолет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чжурчжэньских городищ времени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Восточного Ся (1215-1233 гг.)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удить, что земледелию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у в этот период отводилось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а судя по количеств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нвентаря, находящегося почти в каждом жилище, это хозяйстве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ревалировали. Набор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орудий удивляет своей схожестью и однообразием.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ем, ч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Восточного Ся являлось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копией цзиньского. При соз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а применена военная система - мэньань и моукэ. Военные поселенцы, объединённые в такие военные общины, получали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оенные наделы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тягловый скот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инвентарь (Воробьёв М.В., 1975, с. 135). Такие военные поселения должны были находиться на самообеспечение. Чтобы прокормить свою семью, им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заниматься земледелием, животноводством, охотой и рыболовством.

Вопросам земледелия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у чжурчжэней Приморья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материалам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диссерт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В.И. Болдина (Болдин В.И., 1986), а также исследования Э.В. Шавкунова (Шавкунов Э.В., 1990), В.Д. Ленькова, Н.Г. Артемьевой (Леньков В.Д., Артемьева Н.Г., 2003), Т.А. Васильевой (Васильева Т.А., 2008, 2011, 2012, 2012 а), В.А. Хорева (Хорев В.А. 2012). Э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экономику чжурчжэн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осточное Ся по данны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Исследуемые памятники, располагались в горах, но обязательно рядом с широкой плодородной долиной и большой рекой. В долинах, закрытых между сопками, всегда создавался микроклимат, способствующий успешному занятию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Этому же содействовали и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умеренно холодные ветра, малоснежные зимы, влажное лет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теплая осень.

Сообразуясь с ест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края, чжурчжэни использовали пойменные земли по долинам рек, применяя паровую систему, не исключа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дсечно-огневой обработки земли, а также обрабатывали землю такими системами, как заложённая, переотложенная и грядковая (Болдин

В.И., 1986, с. 11-12; Болдин В.И., Шавкунов Э.В., 1979, с. 122-130).

Судя по находкам н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городищах, чжурчжэни имели довольно разнообразные орудия для обработки почвы,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годны для обработ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земел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инвентарь по функциональному назначению делится на орудия обработки почвы (лемехи, отвалы, лопаты, мотыги), уборки урожая (серпы, цепи, вилы),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зерна (ступы, ручные жернова).

Плужные лемехи были сделанные из чугуна (рис. 1, 2).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упряжным пахотным орудиям. Лемехи имели однообразную форму, близкую к равнобедренному треугольнику. Соотношение высоты к ширине обнаруженных лемехов: 42,5:35 см, 15:17 см. Лемех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частей – пера и полой трубицы. Края пера являются лезвиями и отрезают пласт земли, который затем поднимает. Трубица служит для насаживания лемеха на переднюю часть полоза. Перо напоминает форму треугольника. Нос пера всегда острый, чаще опущен вниз. Верхняя часть лемеха, в одном случае, прямая, в другом – полукруглая. В средней части лемеха располагалось отверстие диаметром 4 см, которое также предназначалось для крепления лемеха к деревянной основе.

Чжурчжэньские лемехи отличаются от лемехов этого же времени соседних народов. Ближе всего по форме к чжурчжэньским лемехам когурёские. Это сходство объясняется аналогичными почвенно-климат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север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южных районов Приморья (Болдин В.И., 1976, с. 132).

Второй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плуга является отвал (рис. 1). Они изготавливались также из чугуна. На памятниках обнаружено два типа отвалов: 1 - отвал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широкую, слегка вогнутую пластину с нижним краем и расширяемым кверху и закругляемым – верхним (длина 41, ширина 23 см). Его лицевая, рабочая, поверхность ровная. Посередине задней поверхности располагаются два ушка со сквозными отверстиями, в которые продевались

верёвки, прикрепляющие отвал к плугу. Своим нижним краем отвал вплотную устанавливался на лемех и служил как бы продолжением его верхней поверхности. Отвалы этого типа были очень массивными. Их соотношение длины к ширине: 26:11; 27:7 см (Болдин В.И., 1976. с. 132-133); 2 – отвал (плуг бороздник) имеет вид продольно согнутой под определенным углом лопасти, отдаленно напоминающей собой двускатную крышу (рис. 2). На нем также имеются две петельчатых ушка,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внутренней вогнутой поверхности отвала для тех же целей, что и у отвала 1 типа (Шавкунов Э.В. 1990, с. 106). Плоскость отвала должна была располагаться наклонно относительно земли. Овал был нужен, чтобы принимать с лемеха отрезаемый пласт земли и, перевернув его, укладывать в ранее проведённую борозду (Стариков В.С., 1967, с. 143). Отвалы двух типов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как по форме, так и по размеру и весу. 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они, скорее всего, на разные типы плугов – большой и малый. Большим плугом вспахивали залежные земли и поднимали целину. Благодаря большому отвалу земля отваливалась на левую по ходу плуга сторону. При вспашке же малым плугом земля отваливалась по обеим сторонам. Малый плуг мог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рыхления старопахотных земель и при окучивании (Шавкунов Э.В., 1990, с. 107).

Находки лемеха и отвала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говорить о плужном земледелии. Сам плуг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довольно сложную конструкцию, которую можно восстановить п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у материалу (Стариков В.С., 1967. рис. 49, 50). Для работы с большим плугом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тягловые животные – лошади, быки. Их количество зависело от плотности почвы и вида пахоты.

К орудиям обработки почвы относятся и мотыги (рис. 3). Они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железное полотно длиной 15-26 см, одна сторона которого расширена от 3 до 6 см, край - прямой, заострённый. Другая сторона мотыг сделана в виде петли, т.е. прокованной полосы железа, внутренний диаметр которой 3-6 см. Через это

отверстие к полотну прикреплялся деревянный черенок под углом 75-90°. Мотыги с таким полотном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на мягких, рыхлых и старопахотных почвах, на твёрдых грунтах применялись мотыги с более узким полотном и даже чаще с клиновидным рабочим концом (Стариков В.С., 1967. с. 135). Мотыги различаются формой полотна: конусовидное полотно с клювовидным рабочим концом и полотно узкое и длинное с овальным лезвием (Болдин В.И., 1976. с. 133-134).

Лопаты – необходим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земляных работ (рис. 4).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ростую проковку из железа. Лезвие лопаты в одном экземпляре – полукруглое, в другом – почти прямое. Плечики лопаты ровны, слегка покатые в месте перехода в полотно. Втулку для черенка лопаты готовили при помощи сварки горячего металла на металлическом стержне. Длина полотна лопаты 15-30 см, ширина 13-16 см, высота втулки 6 см, диаметр втулки 3-3,5 см.

Часто лопаты использовали вторично, то есть к остатку лопаты приращивалось новое полотно. Лопаты имели разное назначение: вскопка земли или её отбрасывание.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и форма лопат была различной.

К орудиям для сборки урожая относятся серпы (рис. 4). По способу крепления к рукояти серпы делятся на два типа:

I тип – черенковые. Серпы этого типа имеют изогнутое полотно длиной 14-19 см, внутренняя часть которого заострена. Край полотна закруглён, в редких случаях он заострён. Ширина полотна на переходе к рукоятке имеет размеры 3,5-5,5 см. Переход полотна к черенку идёт под углом 110-120°. Рукоять для крепления шириной около 1 см, край её расширен, для лучшего закрепления.

II тип – без черенковые. Этот тип серпов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овное железное полотно с плавно поднятым вверх и скруглённым краем. Задняя сторона серпа (обушок) закруглялась в виде скобы,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и крепилась за рукоять. Размеры полотна серпов этого типа 15-20 см, ширина 3,5-5,7 см. Рукоять в серпах этого типа крепилась под углом 90°.

В литературе появилось мнение, что у чжурчжэней серпов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и связывают это с тем, что они практиковали грядковую систему земледелия, при которой пользовались жатвенными орудиями (Болдин В.И., Шавкунов Э.В., 1979, с. 130). По форме и устройству последние напоминают русские косы-горбуши. Авторы этого вывода сами себе противоречат, так как в приведённом в статье рисунке 2 под № 9-12 ими же названы эти предметы, как серпы-горбуши.

Чжурчжэньские серпы аналогичны маньчжурским серпам-косам (Стариков В.С., 1967, с. 158, рис. 59) (рис. 5, 6). Они совпадают по форме, размерам и функциональному назначению. Серпом-косой убирали культурные полевые растения, а также его использовали при заготовке сорных растений, употребляемых в сушёном виде как топливо.

Обмолот зерна чжурчжэни производили деревянными цепами, от которых сохранились втульчатые наконечники с загнутым в кольцо концом. Зерно от сора и шелухи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веивать при помощи деревянных лопат.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данным следует, что чжурчжэни культивировали мягкую пшеницу, ячмень, чумизу, гаолян, гречку, горох, сою, фасоль, вигну и рис (Шавкунов Э.В., 1990, с. 106).

При исследовании Анань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 30 жилищах и 5 свайных амбарах,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тки зерна культурных растений: пшеница мягкая – карликовая, пшеница-двузернянка, ячмень голозерный, ячмень пленчатый, просо итальянское (чумиза), гречиха культурная, маш (мелкосеменная фасоль), перилла (судза), гаолян (?), пайцза (просо японское) (Хорев В.А., 2012, с. 50-51). Основу зерн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селения городища ячмень, просо итальянское (чумиза), просо обыкновенное и просо японское. Эти культуры неприхотливы к климат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Маньчжурии: хорошо переносят засуху и переувлажнение, имеют короткий веге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требуют меньше тепла, чем другие зерновые культуры и высокоурожайны.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также подтверждают, что на севере и северо-востоке чжурчжэньской империи преобладали посевы ячменя и проса (Воробьев М.В., 1975, с. 224).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на Анань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стречена пшениц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для данной культуры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прибрежной зоны края, в черте которой расположено городище, не слишком благоприятны. Выращивали гречиху, для произрастания которой почвенно-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края весьма подходили. Наряду с хорошими урожаями она приносит и значительную пользу в рекультивации почвы — борьбе с сорняками. Из бобовых на городище обнаружены мелкосеменная фасоль (маш), соя (16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й) и горох. Фасоль — культура теплолюбивая и хорошо растет в Южном Приморье. Одна из культур, для которой климат края наи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ен для произрастания, — соя (Хорев В.А., 2012, 51; Сергушева Е.А., 1991). Также найдено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ерновых остатков периллы, или судзы. Эта масличная культура нетребовательна к плодородию и чистоте почв. Масло, которое выжимали из нее,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для приправы блюд и освещения.

На Екатерин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были найдены зерна просовой чумизы, зерна красной фасоли, просо итальянское (Васильева Т.А., 2008), а на Горнохуторском — зерна проса (Васильева, 2012а, с. 51).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селение средневековых городищ Приморья выращивало многих видов культурных растений, включая зерновые, бобовые, технические и огородные культуры.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у чжурчжэней известны три способа хранения зерна: в глиняной (рис. 8), деревянной и берестяной посуде, в закромах свайных амбаров и земляных ямах-зернохранилищах (Болдин В.И., 1986; Шавкунов Э.В., 1990, с. 111). Форму и объем берестяной посуды восстановить не удалось. В некоторых жилищах сохранились лишь отдельные части берестяной и деревянной посуды. Часто зерно находили в однотипных серо-глиняных тонкостенных горшках с петлевидными

ручками, объем их от 3 до 6–7 л. На тулове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имелись небольшие сквозные круглые отверстия — продушины для вентиляции (Хорев В.А. 2012, с. 51).

При раскопках остатков свайных амбаров жилищ Ананьевского и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 обнаружены большие скопления зерна, которое засыпалось в амбары для хранения (Шавкунов Э., 1990, с. 110).

На Шайг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жилище 88 обнаружена яма, заполненная зерном проса.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ямы на обгоревших фрагментах дерева лежал закрытый железный замок, а на дне – бронзовое зеркало и железные двузубые вилы (рис. 7: 1). Скорее всего, что в яме находился деревянный ларь, в котором хранилось зерно. Размеры ларя 70x70x50 см.

Хранения зерна в яме такж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а Анань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жилище № 20. В яме размерами 1,0x1,0x0,47 м дно и стенки обмазаны тонким слоем глины и обожжены. В заполнении ее наход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древесного угля, кусков обожженной обмазки и много обуглившегося зерна. В зерне найдена небольшая бронзовая статуэтка Будды. Немало зерна лежало на секциях кана на обгоревших берестяных подстилках, на деревянном обуглившемся коробе. Здесь же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тки берестяного туюска и фрагменты раздавленного керамического сосуда (Хорев В.А., 2012, с. 51-52).

О способах обрушивания и превращения в крупу хлебных злаков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наличию в каждом втором жилище каменных ступ – камень, базальтовой или гранитной породы с конусообразным углублением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рис. 9). Поверхность углубления покрыта продольными желобками, что увеличивало силу сцепления зерна со стенками и ускоряло его шелушение и дробление. Рядом со ступой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ямки от столбиков ножного крупоруш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в виде деревянного рычага с каменным или деревянным пестом. Кроме каменных ступ в жилищах чжурчжэней зафиксированы и деревянные ступы (Шавкунов Э.,

1990, с. 111).

Для превращения зерен в муку применяли каменные ручные жернова, которые состояли из двух частей: верховод – гранитная чаша диаметром 35,5 см, высотой 9,3 см,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которой находилось отверстие диаметром 2,5 см, глубиной 4,5 см от деревянной ручки (рис. 10). В центре чаши находилось сквозное отверстие диаметром 3,5 см для штыря, который скреплял верхнюю часть жернова с нижней. Для ссыпания зерна между трущимися поверхностями рядом с центральным отверстием для скрепления находилось ещё одно отверстие диаметром 3,5 см. Нижняя часть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круг, слегка повышающийся к центру, немного большего размера, чем верховод. Обе части жернова были оформлены бороздками для хорошего размола зерна (Болдин, Шавкунов Э., 1976, с. 118–124).

Чжурчжэни также для помола зерна использовали больших размеров жернова, движение которых осуществлялось при помощи тяговых животных (рис. 11). Эти жернова состояли также из двух частей. Верховод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круг, диаметром около 70 см, толщиной 11-12 см. Центральная часть трущейся поверхности выпуклая (высотой 5 см, диаметром 30 см), края покрыты насечками. В центре находится углубление,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для закрепления верхней части жернова на постав. Рядом с ним находились два сквозных отверстия, диаметром около 6 см для засыпки зерна. Эти отверстия в нижней части верховода переходили в расширяющиеся желобки. Постав такой мельницы имел такой же диаметр и высоту. Основание его плоское с насечками, центральная часть заглублена в виде чаши, в которую опускалась выпуклина верховода. В центре чаши также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отверстие. Между отверстием верховода и поставом вставлялся деревянный штырь,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л две части жернова.

В боковых частях верховода сделаны два углубления, в которые вставлялись штыри для его вращения, которое приводилось в движение животными.

Сохранились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которые подробно сообщают о пище

и питье чжурчжэней: «Питье и пища грубые. Из бобов делают отвар. Также любят полупроваренную рисовую кашу. Смачивают ее свежей собачьей кровью, приправляют чесноком и так едят». «Из молодых всходов риса гонят водку, из сои делают соевую похлебку, из полузрелого риса делают кашу, когда она испортится, берут свежую кровь собаки, лук и порей, смешивают и едят. Из зелени едят початки травы. Мяса немного: только едят сырое мясо рыб и оленей, временами жарят мясо. Зимой пью холодное. Деревянные тарелки наполняют кашей, деревянные миски – похлебкой и едят. Мясо наряду с отваром. Пьют водку без меры. При этом употребляют один деревянный сосуд, поочередно наполняют его. Жарят и варят сушеное мясо и вместе с остатками мяса и овощей, толченными в ступке, превращают в кашицу». «...К северу от р. Хунтунцзян в Сянчжоу не разнообразны злаки и лаковые деревья: только куколь и пшеничка. Обдирают зерна и тут же варят кашу. Встретившись с Агудой, собрали вождей и вместе ели. На каны ставят низкие подставки или деревянные столики, тесно один к другому. Люди кладут в миски кашу и ложку сверху, рядом ставят мелко нарубленный лук, порей, дикий чеснок, длинную тыкву – все моченья и соленья. На деревянные тарелки кладут мясо свиньи, овцы, курицы, оленя, зайца, волка, кабарги, сайги, лисицы, коровы, осла, собаки, лошади, гуся, казарки, рыбы, утки, лягушки, и др., либо жареное, либо вареное, либо сырое. Много горчицы, чеснока. Помыв, выставляют в ряд; каждый берет нож, весящий у пояса, и режет мясо на куски. К северу от Биньчжоу, Восточной столицы очень мало пшеничной муки. Ежедневно каждый стреляет из лука птиц и зверей». Есть сведения, что среди редких культурных растений чжурчжэни знали арбуз и западную тыкву, а также чай (Воробьев М.В., 1965, с. 23-25).

В пищу чжурчжэни употребляли белый пион, который до сих пор произрастает в Приморье. «У чжурчжэней много цветов – белых пионов, все дикорастущие, совсем нет красных. Выгодное дело для семьи срезать их почки и зелень и

поджаривать их в муке. Вс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и принимают за чистоту и простоту и используют вкус и аромат. Хрупкие и красивые, могут долго сохраняться» (Воробьев М.В., 1965, с. 25).

Из выше перечисленных данных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видно, что у чжурчжэней пища была довольно разнообразной. Наряду с продуктами земледелия, в целом преобладал мясной стол.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ажное место наряду с земледелием в хозяйстве чжурчжэней занимал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Скот был эквивалентом обмена, дани, подарков,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й. Разводили как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и пахоте, а так же при перевозках, так и лошадей, овец, свиней, собак. В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ах часто упоминается, что чжурчжэни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употребляли в пищу мясо, что, естественно, стимулировало у них развити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Коров разводили на молоко и на мясо, реже на мясо употребляли овец, собак. В рационе питания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ли молоко – коровье, верблюжье, кобылье – как в натуральном виде, так и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масла, кумыса, сыра, топленого молока, молочных лепёшек. Для получения яиц и мяса выращивали кур, гусей, уток (Воробьев М.В., 1983, с. 98).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в особенности коневодство, находилось под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надзором. Были выпущ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законы, запрещающие забой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и лошадей.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с боязнью затруднений при пахоте и с желанием иметь многочисленную конницу (Воробьев М.В., 1975. с. 225).

Есл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чжурчжэни, испытывая нехватку коней, привозили их морским путем из Ляодуна, то очень скоро они стали крупнейшими их экспортерами. Ежегодно отдельные чжурчжэньские племена посылали киданям в дань от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до нескольких сот тысяч коней. Продажа коней стала важнейшим предметом торговли с Китаем (Воробьев М.В., 1965, с. 8).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жизни чжурчжэней играла лошадь, которая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в основном

в коннице и служила для верховой езды, но также применялась как тягловая сила. На городищах обнаруж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метов, связанных со снаряжения верхового коня: подпружные, уздечные, сбруйные пряжки, удила, железные и бронзовые распределители ремней конской сбруи, стремена, предметы конской защиты – железный наголовник, подковы (Шавкунов Э., 1990, с. 114-121) (рис. 14; 13:3). Коней метили при помощи тавра (рис. 13: 1). Эти предметы обнаружены на Шайгинском Майском городищах.

Основу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у чжурчжэней составляло скотоводство наряду с коневодством, потому что в то время экономика базировалась на пашенном земледелии.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 качестве тягловой силы на различ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ах, как вьючное, тягловое и транспортное животное. Его даже подпрягали к баржам и запрягали в парадные экипажи. Широкое применение он имел в армии, а в войсковом стад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до 130 тысяч быков. Особенно ценились волы (Воробьев М.В., 1975, с. 59, 199, 288).

В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ах приводится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сведений о хозяйстве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Мясо и молоко употреблялось в пищу, из шкур шили одежду, из кожи могли изготавливать ремни подпружные, уздечные и др., седла. В то же время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буйволы, быков, коров) применяли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тягловой силы. Для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использовали двухколесные повозки. На всех чжурчжэнь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обнаружены чугунные втулки ступиц колес и че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закрепления колес на неподвижной оси.

Среди животных также широко разводили быков, овец и свиней.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ный остеолог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из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выяснить состав стада на этом памятнике. Первое место принадлежало крупному рогатому скоту. Сравнивая соотношение костей диких

и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встреченных на Шайг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осно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мясной пищи служили домашние животные, включая сюда собаку, свинью, корову, лошадь, барана (Шавкунов Э.В., 1990, с. 113). На Анань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по остеологическому материалу было выделено три вида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Доминировали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и лошади, а кости свиньи обнаружены только в одном жилище (Хорев В.А., 2012).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забивал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о взрослом и старом возрасте, а лошадь – в молодом, полувзрослом и взрослом состоянии (Алексеева Э.В., Шавкунов Э.В., 1983, с. 72-73).

Судя по остеологическому материалу – коренным зубам, таранным костям, чжурчжэни в Приморье разводили свиней,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 лишь третье место после скотоводства и коневодства (Алексеева Э.В., Шавкунов Э.В., 1983, с. 71).

На Шайг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обнаружены кости собак, которые составляли 1, 9% от числа костей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Причем убивал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молодых животных (Алексеева Э.В., Шавкунов Э.В., 1983, с. 72, 75).

Кости мелк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е прослежены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м материале, но о присутствии овец в хозяйстве чжурчжэней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наличию тяжелых пряслиц, используемых при изготовлении нити из шерсти (Рубленко Н.Г., 1983, с. 100-105),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пружинных ножниц.

Среди коллекции остеолог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встречены кости птиц – диких и домашней курицы (Алексеева Э.В., Бурчак-Абрамович Н.И., Нечаев В.А., 1984, с. 57-58), а судя по письменным источникам чжурчжэни еще разводили уток и гусей (Воробьев М.В., 1975, с. 199).

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е у чжурчжэней также можно судить и по орудиям для заготовки и переработки кормов, деталям повозок, упряжи и другим вещам. Возможно, что животные находились на вольном выпасе, на ближайших от городищ угодьях. Такая форма выпаса позволяла ежедне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кот для

различных хозяйственных нужд. На ночь скот могли содержать в специальных загонах. На многих городищах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обвалованные участки, удаленные от жилых районов, которые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загон.

Сред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обнаружены орудия для заготовки кормов для животных – это соломорезки и сечки (рис. 12; 7: 2, 3). Устройство соломорезки представляло собой массивный деревянный брус-станину с узкой продольной прорезью. Края прорези были оббиты узкими железными полосками, которые предохраняли края станины от разрушения. Железными обжимными скобками укреплялись и оба верхних торцовых края станины. В прорезь станины помещался железный резак, который фиксировался в станине железным штырём. Края сквозного отверстия предохранялись от разрушения плоскими железными шайбами (Макиевский С.В., 2009). Нож соломорезки был сделан в виде широкого режущего полотна с отверстием на наконечнике лезвия, ручка - в виде втулки. Они отличаются лишь такими деталями, как форма, размер, оформлением наконечника и способом изготовления (крепления) ручки-втулки. Длина лезвия 45-50 см, ширина 14-15 см, длина рукоятки 15-17 см, диаметр втулки рукоятки 3 см.

На Анань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была найдена железная сечка в виде овальной формы пластины с заостренным лезвием и втульчатой рукоятью (рис. 7: 2). Длина орудия 17, ширина пластины 12, диаметр втулки 3 с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данные указывают, что у чжурчжэней существовала осёдлая система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которая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отгонной, выгонной и стойловой формами. Отгонная форма была связана с коневодством. Выгонная и стойловая формы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для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для которого требовалось придомовое и стойловое содержание (Болдин В.И., 1986, с. 15; Болдин В.И., Хорев В.А., 1993, с. 6).

Для того, что правильно оценить роль земледелия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в экономике чжурчжэ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XII-XIII вв., необходимо понять, что эти отрасл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есно взаимосвязаны. Развитие пашенного земледели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аличия скота как тягловой силы. Скоту необходим корм, который частично дает земледелие. Скот необходим как транспортное животное для перевозки пахотных орудий и урожая. Но не только пашенное земледелие стимулировало развити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ни последнюю роль в этом играли военные завоевания, при которых огромная роль отводилась лошадям. Продукты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одежды, обуви и играли определенную роль в питани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расшир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хозяйственном укладе чжурчжэней, но убедительно определяет ведущую роль в экономике населения земледелия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города в государстве Восточное Ся несли на себе большей частью военные функции, но все же их можно называть военно-земледельческими поселениями.

ЛИТЕРАТУРА

Алексеева Э.В., Шавкунов Э.В., 1983 Дикие и домашние животные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атериалы по древней и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меж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ладивосток: ДВНЦ АН СССР. С. 3-11.

Алексеева Э.В., Бурчак-Абрамович Н.И., Нечаев В.А., 1984. К фауне неворобьиных птиц голоцена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Фаунистика и биология птиц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Владивосток. С, 53-59.

Болдин В.И., 1976.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орудий с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Новейши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ладивосток. С. 129-135.

Болдин В.И., 1986. Земледелие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у бохайцев и чжурчжэней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ист. наук. Новосибирск. 17 с.

Болдин В.И., Шавкунов Э.В., 1979. О характере и роле в хозяйстве населения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СЭ. № 6. С.122-130.

Болдин В.И., Хорев В.А., 1993.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Анань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вестник.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С. 87–91.

Васильев В.П., 1858. История древности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Средней Азии от X до XIII вв. с приложением китайских известий о киданях, ждуржитах и татаро-монгол // Труды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Пб. Ч. IV. Вып. 1. 235 с.

Васильева Т.А., 2008. Занятие земледелием населения Екатерин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Интеграц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овосибирск. С. 205-209.

Васильева Т.А., 2011. Реконструкц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жителей

Екатерин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Труды III (XIX) Всесоюзн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съезда. Т. II. СПб – М. -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С. 11.

Васильева Т.А., 2012. Хозяйство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хутор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Вып. 1. С. 49-60.

Васильева Т.А., 2012 а. Горнохуторское городище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Вып. 2. С. 41-55.

Воробьев М.В., 1965. Хозяйство и быт чжурчжэней до образования династии Цзинь // Доклады по этнографии. Вып. 1 (4). ГО СССР. Л. С. 3-27.

Воробьев М.В., 1975 Чжурчжэни и государство Цзинь (X в. – 1234 г.).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М.: Наука. 448 с.

Воробьев М.В., 1983 Культура чжурчжэней и государства Цзинь (X в. – 1234 г.). М.: Наука. 368 с.

Кычанов Е.И., 1966 Чжурчжэни в XI в. (материалы для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Древняя Сибирь.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Вып. 2. С. 269-281.

Леньков В.Д., Артемьева Н.Г., 2003 Лаз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83 с.

Макиевский С.В., 2009. Чжурчжэньские соломорезки. Десят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олодых историков: сб. материалов.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268-288.

Сергушева Е.А., 1991 Изучение семян культурных растений с Анань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олодых обществове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пр. –Владивосток. С. 88–91.

Стариков В.С., 1967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китайцев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й КНР. М.: Наука. 254 с.

Хорев В.А. 2012. Ананьевское городище.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340 с.

Шавкунов Э.В., 1990 Культура чжурчжэней – удиге XII-XIII вв. и проблем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унгусских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 Наука. 284 с.

Подписи к рисункам:

Рис. 1. 1 - Лемех, отвал (чугун), 2 – основные части плуга: 1 – грядиль; 2 – полозок; 3 – стойка полозков; 4 – передняя стойка; 5 – челнок; 6 – задняя стойка; 7 – верхняя рукоятка; 8 – нижняя рукоятка; 9 – полоз; 10 – клинышки; 11 – пятка полоза; 12 – лемех, 3 – сдвоенный плуг (по В.С. Старикову, 1967).

Рис. 2. 1 - Плуг бороздник (чугун); 2 – Бороздник с одним сошником, 3 - Бороздник с двумя сошниками (по В.С. Старикову, 1967).

Рис. 3. Мотыги (чугун).

Рис. 4 Лопаты (железо).

Рис. 5. Серпы (железо).

Рис. 6. Серпы (железо).

Рис. 7. 1 - Вилы (железо), 2, 3 – Сечки (железо), 4 - цепи (железо).

Рис. 8. Тарная посуда для зерна.

Рис. 9. 1 – Жилище со ступой, 2 - план жилища; 3 – Ступа (камень), 4 – Ножная крупорушка (по Э.В. Шавкунову, В.И. Болодину, 1976).

Рис. 10. 1 – Реконструкция ручной мельницы, 2 – ручной жернов (камень),

Рис. 11. Большой жернов (камень).

Рис. 12. 1 – Реконструкция работы соломорезки, 2, 4 – Ножи соломорезок (железо).

Рис. 13. 1 - Тавро (железо), 2 – Ножницы (железо), 3 – подковы (железо).

Рис. 14. 1 – Конский намордник (железо), 2, 4 – удила (железо), 3 – стремена (железо).

12~13세기 연해주 여진의 농업과 동물사육 - 고고학 자료를 통해 -

아르찌미예바 N.G

농업과 동물사육은 모든 국가의 경제의 기초로서 경제의 성격과 발전수준을 결정한다. 문헌자료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여진의 경제는 다부문적이었음이 잘 알려져 있다(보로비요프 M.V., 1983, 71쪽; 샤브꾸노프 E.V., 1990, 105쪽). 문헌자료에는 여진인들이 농사, 물고기 잡이,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였고, 그들의 땅은 대마 재배와 곡물 파종에 적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바실리에프 V.P., 1858, 199~200쪽). 다른 자료에는 개별 지역들에 숲과 들판이 많고, 땅은 대마와 곡물에 적합하고, 여진인들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비단은 생산하지 못하였고, 좋은 말을 사육하였으며, 금, 큰 진주, 산삼, 그리고 꿀과 밀랍을 채취하였다. 여진인들은 가느다란 마포를 만들었고, 잣과 백색 바닷물을 채집하였다. 사냥에는 해동청이라는 매를 이용하였다. 동물 중에는 소, 양, 사슴, 들개, 멧돼지, 다람쥐, 담비가 많았다. 과일과 꽃에는 수박과 백색 자양화가 있었다. 바다에는 수많은 큰 물고기들과 게가 있었다(ИИ차노프 E.I., 1966, 272~273쪽). 물론 여진의 경제 기구는 지리-기후적 요인을 포함하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만주 평원의 남쪽지대에 거주한 여진의 경제기구는 북쪽의 퇴화된 흑토와 남쪽의 스텝 회토로 인해 기본적으로 목축-농업이었다. 경제적 관계에서 그들은 거란의 목축과 중국의 농경인들을 가진 요제국과 비슷하였다.

회색 염분 토양의 북동지역에 거주하거나 갈색 토양의 남동산악지역에 거주한 여진인

들은 사냥과 물고기 잡이에 종사하였다. 그들의 농업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것은 남만주 중국 농업인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땅은 기름, 보다 깊게 갈기, 다른 농작물과 다른 윤작을 필요로 하였다(보로비요프 M.V., 1975, 316쪽).

자신의 국가를 건국한 여진인들은 농사문제와 관련된 국가 규정을 제정하였고, 토지법을 만들었다. 덕분에 국고가 채워지고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할 수 있었다. 사유재산이 제한되었고 국유지에서의 우세한 소농 경작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농업이 중심 위치를 차지하였다. 여진의 농업은 수준이 높았다. 쟁기 농업이 일반적이었고, 관개시스템이 뒷받침되었으며, 격자-동지식의 옮겨심기 방법과 수전이 장려되었다(보로비요프 M.V., 1975, 215~233쪽).

동하국(1215~1233년) 존속 시기의 여진 성들에 대한 다년간의 조사는 이 시기에 농업과 가축사육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농기구의 수량을 통해 볼 때에 이 분야의 생업이 일반적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농기구 세트들은 그 유사성과 천편일류성이 놀라울 정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하의 국가기구가 많은 면에서 금나라의 복사판이라는 점으로 설명된다. 건국 시에는 맹안모곡이라는 군사제도가 적용되었다. 그와 같은 군사 공동체로 합쳐진 군사 취락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로 군대의 땅과 노동용의 가축 그리고 농기구를 공급 받았다(보로비요프 M.V., 1975, 135쪽). 그와 같은 군사 취락들은 자급자족을 해야만 하였다.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들은 농경, 동물사육, 사냥, 그리고 물고기 잡이에 종사해야만 하였다.

고고학 자료를 통한 연해주 여진의 농경과 동물사육에 대한 문제는 V.I.볼딘의 박사학위 논문(볼딘 V.I., 1986), E.V.샤브꾸노프(1990), V.D.렌코프와 N.G.아르찌미예바(2003), T.A.바실리에바(2008, 2011, 2012, 2012a), V.A.호레프(2012) 등이 각각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 동하 여진국의 경제를 복원할 수 있게 한다.

발굴조사가 실시된 유적들은 산위에 위치하지만 주변에는 항상 넓고 비옥한 들판과 큰 강이 있다. 산들로 둘러싸인 들판들에는 항상 성공적인 농사일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 기후가 조성되었다. 여기에는 적당하게 차가운 바람, 눈이 적은 겨울, 습한 여름, 따뜻함이 오래가는 가을 등과 같은 연해주의 기후조건도 도움이 되었다.

여진인들은 지역의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이해하면서 강안의 침수지를 이용하였다. 휴한농법을 적용하였고, 화전도 하였다. 장기 휴한, 중장기 휴한, 그리고 두둑재배법 등으로 땅을 관리하였다(볼딘 V.I., 1986, 11~12쪽; 볼딘 V.I., 샤브꾸노프 E.V., 1979, 122~130쪽).

중세 산성들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볼 때에 여진인들은 토양을 경작하는데 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도구들은 극동의 토양에 적합한 것들이었다. 농기구들은 그 용도에 따라 경작용 도구(보습, 벧, 삽, 팽이)와 수확용 도구(낫, 도리깨, 호크) 및 곡물가공용 도구(절구, 맷돌)로 구분된다.

쟁기의 보습은 주철로 만들었다(도면 1, 2). 보습은 가축을 이용하는 경작 도구이다. 보습은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우며 형태가 한가지이다. 출토된 보습들의 높이에 대한 너비의 상관관계는 42.5:35cm, 15:17cm이다. 보습은 몸 부분과 끼우기 부분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 부분의 가장자리는 날로서 흙을 갈아 올리는데 사용된다. 끼우기 부분은 보습을 쟁기의 지면에 닿는 술바닥에 끼우는데 사용된다. 몸 부분은 삼각형 모양을 연상시킨다. 몸 부분의 코는 항상 날카롭고 흔히 아래로 쳐져있다. 보습의 위 부분은 곧은 것도 있고 반원형인 것도 있다. 보습의 가운데 부분에는 직경 4cm의 구멍이 하나 있는데 보습을 쟁기 술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진의 보습들은 동 시기 이웃 민족들의 보습들과 차이를 보인다. 모양이 여진의 보습에 가장 가까운 것은 고구려의 보습이다. 이 유사성은 한반도와 연해주 남부지역의 토양-기후 조건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볼딘 V.I., 1976, 132쪽).

쟁기의 두 번째 구성 부분은 보습 벧이다(도면 1). 벧 역시 주철로 만들었다. 2개 유형의 벧이 출토된다. 유형 1은 넓고 아래 가장자리가 약간 오목한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서 넓어지고 위 가장자리가 둥그스름한 판이다(길이 41cm, 너비 23cm). 이 유형 1 벧의 앞면 노동부위는 고르다. 뒷면의 중간부분에는 관통된 구멍이 뚫려있는 두 개의 귀가 있는데 이 귀에 줄을 넣어 벧을 쟁기에 고정시켰다. 벧의 아래 가장자리는 보습에 꼭 맞아 마치 보습의 뒷면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 유형의 벧은 매우 육중하였다. 이 벧들의 길이에 대한 너비의 상관관계는 26:11cm, 27:7cm이다(볼딘 V.I., 1976, 132~133쪽). 유형 2 벧은 일정한 각도로 굽은 삽 모양으로서 어느 정도 양면지붕을 연상시킨다. 이 유형 벧에도 유형 1의 벧과 동일한 목적의 구멍 뚫린 귀가 2개 있다(샤브꾸노프 E.V., 1990, 106쪽). 벧의 면은 땅에 비스듬하게

대어져야만 하였다. 벼은 보습으로부터 갈려 올라온 흙을 받아서 뒤집어 앞서 형성된 고랑으로 놓이게 하기 위해 필요하였다(스파리코프 V.S., 1976, 143쪽). 두 가지 유형의 벼은 형태, 크기, 무게가 서로 차이가 난다. 아마도 그들은 크고 작은 다른 유형의 쟁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큰 쟁기로는 장기 휴한지를 경작하였고, 처너지를 갈았다. 큰 벼 덕분에 흙이 쟁기의 왼쪽으로 넘어갔다. 작은 쟁기로 경작을 할 때에는 흙이 양쪽으로 넘어갔다. 작은 쟁기는 구경작토를 무르게 하거나 흙을 복돋을 때에 사용할 수 있었다(샤브꾸노프 E.V., 1990, 107쪽).

보습과 벼 유물들은 쟁기 농경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쟁기 자체는 꽤 복잡한 구조를 가졌는데 민족지학 자료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스파리코프 V.S., 1967, 도면 49, 50). 큰 쟁기를 사용할 때에는 말, 황소 등 가축의 힘을 이용하였다. 쟁기질에 활용된 가축의 수는 토양의 단단한 정도 그리고 경작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났다.

토양을 경작하는 도구에는 팽이도 해당된다(도면 3). 팽이는 길이 15~26cm의 철제 혀 모양인데 한쪽이 3~6cm가 더 넓고 가장자리는 곧고 뾰족하다. 팽이의 다른 한 쪽은 구멍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둥근 철의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직경이 3~6cm이다. 이 구멍을 통해 75~90° 각도로 나무 자루를 끼웠다. 그와 같은 혀 모양 팽이는 부드러운 토양, 무른 토양, 그리고 구경작토에 사용하였고, 단단한 토양에는 보다 좁은 혀가 있는 팽이와 흔히 췌기 모양의 날 부분이 있는 팽이를 사용하였다(스파리코프 V.S., 1967, 135쪽). 팽이는 혀의 형태에 따라 부리 모양의 날 부분이 있는 원추형의 혀와 타원형의 날 부분이 있는 좁고 긴 혀로 서로 구분된다(볼딘 V.I., 1976, 133~134쪽).

삽은 땅을 파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도면 4). 삽은 철로 된 단순 단조 제품이다. 삽의 날은 한 경우에는 반원모양이고 다른 한 경우에는 거의 곧은 모양이다. 삽자루를 끼우기 위한 끼우기 대롱은 금속 축에 뜨거운 금속을 용접하여 만들었다. 삽의 날 길이는 15~30cm, 너비는 13~16cm, 끼우기 대롱의 높이는 6cm, 끼우기 대롱의 직경은 3~3.5cm이다.

흔히 삽은 재사용을 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삽의 잔존물에 새 날을 고정시켰다. 삽은 흙을 파내거나 혹은 파낸 흙을 던지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 이 이유로 인해 삽의 형태가 다양하였던 것이다.

수확용 도구에는 낫이 해당된다(도면 4). 낫은 손잡이를 고정시키는 방식에 따라 두 개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1 - 스패가 있는 것. 이 유형의 낫에는 길이 14~19cm의 굽은 낫몸이 있으며 안쪽 부분이 날이다. 낫몸의 가장자리는 둥그스름하나 드문 경우에는 뾰족하기도 하다. 낫몸의 너비는 손잡이로 넘어가는 부분이 3.5~5.5cm이다. 낫몸과 스패 사이의 각도는 110~120°이다. 너비 약 1cm의 손잡이 고정 부분은 가장자리가 고정이 잘 되게 넓어져 있다.

유형 2 - 스패가 없는 것. 이 유형의 낫은 완만하게 위로 올라가는 둥그스름한 가장자리가 있는 고른 철제의 혀 모양이다. 낫의 뒤 부분은 꺾쇠 모양으로 말려있어 손잡이에 고정시킬 수 있다. 이 유형 낫의 몸은 크기가 15~20cm, 너비가 3.5~5.7cm이다. 이 유형 낫에는 손잡이를 90° 각도로 고정시켰다.

여진에게는 낫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은 수확용 도구가 사용된 여진의 두둑농법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볼딘 V.I., 샤브꾸노프 E.V., 1979, 130쪽). 그 수확용 도구는 형태와 구조가 러시아의 중형 큰 낫을 연상시킨다. 그 결론을 내린 저자들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의 논문에 제시한 도면 2의 9~12번 그림을 스스로 낫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이다.

여진의 낫은 만주의 낫-큰 낫과 닮았다(스파리코프 V.S., 1967, 158쪽, 도면 59)(도면 5, 6). 그것들은 형태, 크기, 그리고 기능이 서로 일치한다. 낫-큰 낫은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그리고 건조된 상태에서 연료로 사용한 잡초를 준비하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여진인들은 탈곡을 할 때에 나무 도리깨를 사용하였는데, 끝이 고리모양으로 굽은 대롱모양 끝 부분이 남아있다. 티끌과 껍데기에서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넓은 나무 삼을 이용하여 까부러야만 하였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에 여진인들은 밀, 보리, 조, 수수, 메밀, 완두콩, 콩, 강낭콩, 팥, 그리고 벼를 재배하였다(샤브꾸노프 E.V., 1990, 106쪽).

아나니예브가 성을 조사할 때에 30기의 주거지와 5기의 창고자리에서 다음의 농작물 잔재들이 출토되었다: 밀(*Triticum aestivum*), 엠머 밀(*Triticum dicoccum*), 보리(*Hordeum nudum*), 보리, 조, 메밀, 녹두, 들깨, 수수(?), 일본 기장(호레프 V.A., 2012, 50~51쪽). 이 성 주민들의 기본 농작물은 보리, 이탈리아 기장(조), 기장, 일본 기장이었다. 이 농작물들은 만주의 기후 조건에 적합하였다. 건조 및 다습한 상태를 잘 견디고 짧은 생육기간을 가지며

다른 농작물보다 더 낮은 온기를 필요로 하고 수확량이 많았다. 문헌자료들도 여진 제국의 북쪽과 북동쪽 지역에 보리와 기장을 더 많이 파종하였다고 전한다(보로비요프 M.V., 1975, 224쪽).

아나니예브카 성에서는 밀도 발견되었는데 밀은 이 성이 위치하는 해안지역의 기후 조건에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못하다. 메밀도 재배하였는데 메밀 재배는 이곳의 토양-기후 조건이 매우 적합하였다. 메밀은 수확이 좋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경작-잡초와의 싸움에 큰 도움을 준다. 이 성에서 콩류는 녹두, 콩(16개 지점), 그리고 완두콩이 출토되었다. 녹두는 온대성이고 남부 연해주에서 잘 자란다. 연해주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농작물 중의 하나는 콩이다(호레프 V.A., 2012, 52쪽; 세르구쎬바 E.A., 1991). 들깨의 잔재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 기름 작물은 토양의 비옥함과 깨끗함을 가리지 않는다. 들깨 기름은 요리의 양념으로 그리고 빛을 밝히는데 사용하였다.

예까제리나 성에서는 조, 붉은 강낭콩, 이탈리아 기장이(바실리에바 T.A., 2008), 고르노 후프르 성에서는 기장이(바실리에바 T.A., 2012a, 51쪽) 각각 발견되었다.

따라서 연해주의 중세 성들의 주민들은 곡류, 콩류, 공예작물, 야채 등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현재 여진의 곡식 저장 방법이 3가지 알려져 있다: 토기(도면 8), 목기, 자작나무 껍질 용기에의 보관, 창고 속의 곡식보관용기에의 보관, 흙구덩이-곡물저장구덩이에의 보관(볼딘 V.I., 1986; 샤프꾸노프 E.V., 1990, 111쪽). 자작나무껍질 용기의 형태와 크기는 복원되지가 못하였다. 몇몇 주거지들에 목기와 자작나무껍질 용기의 개별 부분들만이 보존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흔히 곡물은 귀모양의 손잡이가 달리고 기벽이 얇은 단일 유형의 회토 항아리에 보관하였다. 이 항아리는 크기가 3리터에서 6~7리터까지이다. 그 항아리들 중에는 동체에 자그마한 둥근 구멍들이 뚫려있는 것들도 있는데 환기를 위한 것이다(호레프 V.A., 2012, 51쪽).

아나니예브카 성과 샬이가 성의 주거지 창고 발굴을 할 때에 보관을 위해 창고에 묻은 다량의 곡물무지들이 발견되었다(샤프꾸노프 E.V., 1990, 110쪽).

샬이가 성의 88호 주거지에서는 기장으로 가득 찬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이 구덩이의 위 부분에는 불에 탄 나무 조각에 채워져 있는 철제 자물쇠가 있었고, 바닥에는 청동 거울과

철제 2치의 포크가 있었다(도면 7: 1). 아마도 이 구덩이에는 곡물을 저장한 나무 껍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이 껍질은 크기가 70×70×50cm이다.

구덩이에의 곡물 저장은 아나니예브까 성의 20호 주거지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구덩이는 크기가 1.0×1.0×0.47m이고 바닥과 벽에 얇게 진흙을 바르고 불로 그슬렸다. 구덩이의 내부 퇴적토에서는 다량의 숯과 소토덩이 그리고 수많은 탄화 곡물이 발견되었다. 탄화 곡물들 사이에서 작은 청동불상 1점이 들어있었다. 적지 않은 곡물이 구들 위의 불에 탄 자작 나무 받침대 위에서, 불에 탄 나무 상자 위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자작나무 껍질 바구니의 잔재와 놀리어진 토기편들도 발견되었다(호레프 V.A., 2012, 51~52쪽).

곡물을 파쇄하고 가루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주거지 중의 한 주거지마다 있는 돌로 만든 확돌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 확돌은 현무암 혹은 화강암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위쪽에 원추형의 구멍이 파여 있다(도면 9). 확돌 구멍의 표면은 세로 방향의 홈들로 덮여 있는데 곡물이 벽에 밀착되게 하여 껍질을 벗기고 분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확돌과 나란히 돌 혹은 나무공이가 있는 나무 지렛대 모양의 디딜방아 방아채의 볼씨 구멍이 확인된다. 돌로 만든 확돌 이외에 여진의 주거지들에서는 나무로 만든 확돌이 발견되기도 한다(샤브꾸노프 E.V., 1990, 111쪽).

곡물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 돌로 만든 맷돌을 사용하였다. 맷돌은 위와 아래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으로 만든 윗돌은 직경 35.5cm, 높이 9.3cm의 완 모양인데 위쪽에 손잡이를 위한 직경 2.5cm, 깊이 4.5cm의 구멍이 하나 나있다(도면 10). 가운데 부분에는 아랫돌과 연결하는 축을 위한 직경 3.5cm의 구멍이 뚫려있다. 가운데 구멍과 나란히 곡물을 넣기 위한 직경 3.5cm의 구멍이 하나 더 있다. 아랫돌은 가운데가 약간 볼록한 원이며 윗돌 보다는 조금 더 크다. 맷돌은 윗돌과 아랫돌 모두에 곡물이 잘 분쇄되게 골들을 내어 놓았다(볼딘, 샤브꾸노프 E.V., 1976, 118~124쪽).

여진인들은 곡물을 빻기 위해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대형의 맷돌도 사용하였다(도면 11). 이 맷돌들도 윗돌과 아랫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위 부분은 직경 약 70cm, 두께 11~12cm의 원 모양을 한다. 곡물이 갈리는 아래 가운데 부분은 볼록하며(높이 5cm, 직경 30cm) 그 가장자리는 홈들로 덮여 있다. 가운데에는 윗돌을 아랫돌과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 있다. 가운데 구멍과 나란히 곡물을 넣기 위한 직경 약 6cm의 구멍이 2개 나있다. 이

구멍들은 윗돌의 아래 부분에서 넓어지는 홈들로 이행된다. 아랫돌은 윗돌과 같은 직경과 높이를 가진다. 아랫돌은 기저부가 편평하고 홈들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가 완과 같이 오목한데 이곳으로 윗돌의 아래 볼록한 부분이 들어간다. 아랫돌의 가운데에도 구멍이 있다. 윗돌과 아랫돌의 사이의 구멍에는 나무 축을 끼워 돌을 서로 연결하였다.

윗돌의 측면에는 2개의 구멍을 내어 회전을 위한 축을 끼웠는데 멧돌의 회전은 동물의 도움을 받아 하였다.

여진인들의 음식과 음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헌자료들이 남아있다. “음료와 음식이 거칠다. 콩류로 국물을 만든다. 또한 반만 삶은 쌀죽을 좋아한다. 그 쌀죽을 신선한 개의 피로 적시고, 마늘로 양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먹는다”. “어린 벼의 싹으로 술을 빚고, 콩으로 콩국을 만들며, 반만 익은 벼로 죽을 만드는데 그 죽이 상하면 신선한 개의 피, 파, 대파를 가져와 섞어서 먹는다. 샐러드는 풀의 이삭을 먹는다. 고기는 많지가 않다. 오직 물고기와 사슴의 날고기를 먹으며, 때대로 고기를 굽는다. 겨울에는 차가운 것을 마신다. 나무 접시에는 죽을 담고, 나무 대접에는 국을 담아서 먹는다. 고기는 국물과 함께 먹는다. 술은 한정이 없이 마신다. 이 때 하나의 용기를 사용하는데 순서대로 술을 채운다. 말린 고기를 굽고 삶으며 절구에 찼은 고기 및 야채 남은 것과 함께 죽을 만든다”. “Xiangzhou의 Hongtong 강 북쪽으로는 곡초와 옷나무가 다양하지가 못하다. 선홍초와 밀이 있을 뿐이다.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죽을 삶아 만든다. 아구다와 만난 다음에 수령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구들에는 낮은 탁자나 나무 탁상을 뽁뽁하게 놓는다. 사람들은 대접을 죽을 담고 그 위에 숟가락을 얹으며, 나란히 잘게 자른 파, 대파, 야생 마늘, 긴 호박을 놓는데 모두 적셔졌고 소금이 쳐졌다. 나무 접시에는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늑대고기, 사향고양이고기, 사이가고기, 여우고기, 소고기, 나귀고기, 개고기, 말고기, 거위고기, 기러기고기, 물고기, 오리고기, 개구리고기 등등을 놓는데 혹은 구웠거나 혹은 삶았거나 혹은 날것이다. 겨자와 마늘이 많다. 씻은 다음에 열을 맞추어 놓는다. 각자 허리띠에 매달고 있던 칼을 집어 고기를 조각으로 자른다. Binzhou, 동경 북쪽으로는 밀가루가 매우 적다. 매일같이 각자 활을 쏘아 새와 짐승을 잡는다”. 귀한 작물 중에 여진인들이 수박과 서양 호박, 그리고 또한 차도 알았다는 기록이 있다(보로비요프 M.V., 1965, 23~25쪽).

여진인들은 백색 작약도 음식에 사용하였는데 이 작약은 지금도 연해주에 자라고 있다.

“여진인들에게는 수많은 꽃이 있다. 백색 작약들은 모두 야생으로 자라며 적색 작약은 하나도 없다. 가족을 위해 작약의 꽃 봉우리와 잎사귀를 잘라 밀가루에 넣어 튀긴다. 모두 깨끗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며 맛과 향을 이용한다. 바삭거리고 아름다우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보로비요프 M.V., 1965, 25쪽).

위에서 열거한 문헌자료들을 통해 여진인들의 음식이 꽤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경 식품과 함께 전체적으로 고기류가 많았다. 따라서 여진의 경제에서는 농사와 함께 가축사육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가축은 교역, 조공, 선물, 제물에 사용되었다. 소, 말, 양, 돼지, 개를 사육하였는데 소는 경작에 뿐만 아니라 수레에도 사용하였다. 문헌자료에는 여진인들이 고기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히 가축사육의 발전을 도왔다. 소에게서는 우유와 고기를 얻었고, 드물게는 양고기와 개고기도 먹었다. 식단에는 소, 낙타, 말의 젖을 널리 사용하였다. 젖은 자연 상태 그대로, 혹은 버터, 마유주, 치즈, 응유, 젓개떡 등을 만들어 먹었다. 알과 고기를 얻기 위해 닭, 거위, 오리를 키웠다(보로비요프 M.V., 1983, 98쪽).

동물사육, 특히 말 사육은 국가의 감독 하에 있었다. 소와 말의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들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경작에서의 곤란함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병대를 보유하려는 희망과 관련된 것이었다(보로비요프 M.V., 1975, 225쪽).

만약에 처음에 여진인들이 말이 부족하여 해로를 통해 요동에서 말을 수입하였다면, 매우 빠른 기간에 큰 말 수출업자가 되었다. 매년 개별 여진 부족들이 거란에 조공으로 수십 필에서 수십만 필의 말을 보내었다. 말 판매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보로비요프 M.V., 1965, 8쪽). 여진인들의 삶에서 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말은 기병대에 사용되었고, 기승용으로 이용되었지만, 축력으로도 이용되었다. 성터들에서 복대 물림쇠, 굴레 물림쇠, 마구 물림쇠, 재갈, 철제 및 청동제 마구 띠 조절기, 등자, 철제 머리 씌우개와 같은 마갑 물품, 편자 등 기승용 말의 장비들과 관련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샤브르노프 E.V., 1990, 11~121쪽)(도면 14; 13: 3). 말은 낙인을 통해 표시를 하였다(도면 13: 1). 이 낙인 물품은 샤이가 성과 마이 성에서 출토되었다.

당시에는 경제가 경작 농사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말 사육을 위시한 목축이 여진에게서 가축사육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소는 짐을 싣거나,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끄는

등의 다양한 농사일에 축력으로 이용되었다. 심지어는 소를 화물선에 채우거나 의전용 마차에 채우기도 하였다. 소는 군대에서도 널리 이용되었는데 군대 내에 13만 두까지의 황소가 집계되었다. 특히 황소를 중하게 여겼다(보로비요프 M.V., 1975, 59쪽, 199쪽, 288쪽).

문헌자료에는 소를 경제활동에 이용한 기록이 꽤 많이 있다. 소의 고기와 우유는 음식으로 사용하였고, 소의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었으며, 가죽으로 복대의 띠, 굴레, 안장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동시에 소(물소, 황소, 젖소)는 기본적인 축력으로 이용되었다. 짐을 옮기는 데에는 바퀴가 2개인 수레가 사용되었다. 모든 여진 유적들에서 주철제 수레의 차관과 바퀴를 수레축에 고정시키는 비너못이 출토되었다.

동물들 중에는 황소, 양, 돼지도 널리 사육하였다. 샤이가 성에서 출토된 동물 뼈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이 유적에서의 가축의 구성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첫 번째의 자리는 소가 차지하였다. 샤이가 성에서 출토된 야생 동물과 집 동물의 뼈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고기 음식의 주된 원천은 개, 돼지, 소, 말, 양을 포함하는 가축이었음이 밝혀졌다(샤브꾸노프 E.V., 1990, 113쪽). 아나니예브카 성에서는 뼈 자료들에서 3종의 가축이 구분되었다. 이곳에서는 소와 말이 우세하였고, 돼지 뼈는 오직 1기의 주거지에서만 발견되었다(호레프 V.A., 2012). 소는 주로 성년이나 노년에, 말은 청년, 반성년, 성년 상태에서 각각 도살되었다(알렉세예바 E.V., 샤브꾸노프 E.V., 1983, 72~73쪽).

어금니, 복사뼈 등과 같은 뼈 자료를 통해 볼 때에 연해주와 여진인들은 돼지도 사육하였지만 돼지는 소와 말 사육 다음으로 세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였을 뿐이었다(알렉세예바 E.V., 샤브꾸노프 E.V., 1983, 71쪽).

샤이가 성에서는 개의 뼈가 발견되었다. 개 뼈는 전체 가축의 뼈에서 1.9%를 차지한다. 개는 주로 청년 상태에서 도살하였다(알렉세예바 E.V., 샤브꾸노프 E.V., 1983, 72쪽, 75쪽).

작은 빨 짐승의 뼈는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진의 경제에 양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의 털로 실을 만들 때에 사용한 무거운 방추차의 존재(루블렌코 N.G., 1983, 100~105쪽) 및 용수철 가위의 존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동물 뼈 자료 중에는 새의 뼈 - 야생 닭과 집닭의 뼈 -도 있다(알렉세예바 E.V., 부르차끄-아브라모비치 N.I., 네차예프 V.A., 1984, 57~58쪽). 문헌자료를 통해 볼 때에 여진인들은 오리와 거위도 사육하였다(보로비요프 M.V., 1975, 199쪽).

여진인들의 동물사육에 대해서는 사료의 준비와 가공을 위한 도구들, 수레 부속품들, 굴레, 그리고 다른 유물들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다. 동물들은 성들에서 가까운 부속지들에서 방목 상태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형태의 방목은 매일같이 가축을 다양한 경제적 필요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밤에는 가축을 특별 우리에 가두었을 것이다. 수많은 성터들에서 거주구역에서 떨어진 곳에 흙벽으로 둘러진 구역이 확인되는데 우리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고학 자료 중에는 동물의 사료를 준비하는데 사용한 도구들도 있다. 바로 짚을 쓰는 작두와 절단기이다(도면 12; 7: 2, 3). 작두는 종 방향으로 홈 구멍이 나있는 육중한 각목-받침대 모양을 하고 있다. 홈 구멍의 가장자리들에는 좁은 철판이 씌워져 있는데 받침대가 휘손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철제 압착 낫들로서 받침대의 양쪽 위 가장자리를 고정시켰다. 받침대의 홈 구멍에는 철제 날이 들어갔는데 이 날은 철제 축을 이용하여 받침대에 고정시켰다. 축이 들어가는 구멍의 가장자리는 납작한 철제 자릿쇠로서 휘손을 방지하였다(마끼엠프스키 S.V., 2008). 작두의 칼은 날의 끝에 구멍이 뚫린 넓은 혀 모양을 하였고, 손잡이는 대롱 모양이었다. 그것들은 형태, 크기, 끝 부분의 구성, 손잡이-대롱의 제작(고정) 방법 등과 같은 세부 요소들에 의해서만 차이가 났다. 날의 길이는 45~50cm, 너비는 14~15cm, 손잡이 길이는 15~17cm, 손잡이 대롱의 직경은 3cm이다.

아나니예브카 성에서는 날카로운 날과 대롱 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타원형의 판 모양을 한 철제 절단기가 출토되었다(도면 7: 2). 이 절단기는 길이가 17cm, 너비가 12cm, 대롱의 직경이 3cm이다.

고고학 자료들은 여진인들에게 목장, 가축몰이, 외양간이 특징적인 정착 동물사육 시스템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축몰이적 형태는 말 사육과 관련되었다. 목장 및 외양간적 형태는 소에 적용되었는데 소는 집 근처에 외양간을 필요로 하였다(볼딘 V.I., 1986, 15쪽; 볼딘 V.I., 호레프 V.A., 1993, 6쪽).

12~13세기 여진 공동체의 경제에서 농사와 동물사육의 역할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분의 농촌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경작 농사의 발전은 축력으로서의 가축의 존재가 불가피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가축에게는 사료가 필요하고, 농사는 부분적으로 사료를 제공한다. 가축은 경작 도구와 수확물을 운송하

는데 필요한 동물이다. 경작 농사가 가축사육의 발전을 촉진하였지만, 군사적 정복활동도 큰 역할을 하였는데, 바로 말의 사육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가축사육의 생산품들은 의복과 신발의 제작에 사용하였고 그리고 식량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고고학 자료는 여진인들의 경제적 기구에 대한 표상을 넓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에서 농사와 동물사육이 주된 역할을 하였음을 확고하게 보여준다. 동하국의 도시들이 군사적 기능을 크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은 군사-농사 취락으로 부를 수가 있다.

참고문헌

- Алексеева Э.В., Шавкунов Э.В., 1983. Дикие и домашние животные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атериалы по древней и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меж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ладивосток: ДВНЦ АН СССР. С. 3-11. (알렉세예바 E.V., 샤브꾸노프 E.V., 1983. 샤이가 성의 야생과 집 동물들 // 극동 남부지역과 주변 지역의 고대와 중세 고고학 자료들: 소련과학원 극동학술센터. 3~11쪽).
- Алексеева Э.В., Бурчак-Абрамович Н.И., Нечаев В.А., 1984. К фауне неворобьиных птиц голоцена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Фаунистика и биология птиц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Владивосток. С. 53-59. (알렉세예바 E.V., 부르차그-아브라모비치 N.I., 네차예프 V.A., 1984. 극동 남부지역의 홀로센의 비참새류 동물상에 대해 // 극동 남부지역의 새 동물상학과 생물학. 학술논문집. 블라디보스톡. 53~59쪽).
- Болдин В.И., 1976.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орудий с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Новейши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ладивосток. С. 129-135. (볼딘 V.I., 1976. 샤이가 성 출토 농사 도구의 성격에 대해 // 극동지역의 최신 고고학 조사들. 블라디보스톡. 129~135쪽).
- Болдин В.И., 1986. Земледелие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у бохайцев и чжурчжэней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ист. наук АН СССР СО НИФФ. Новосибирск. 17 с. (볼딘 V.I., 1986. 연해주 발해와 여진의 농사와 동물사육(고고학 자료 자료를 통해): 역사학박사학위논문 요약집. 소련과학원 시베리아지부. 노보시비르스크. 17쪽.)
- Болдин В.И., Шавкунов Э.В., 1979. О характере и роле в хозяйстве населения Шайг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СЭ. № 6. С.122-130. (볼딘 V.I., 샤브꾸노프 E.V., 1979. 샤이가 성 주민들의 경제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 소비에트 민족지학. № 6. 122~130쪽.)
- Болдин В.И., Хорев В.А., 1993.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Анань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вестник.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С. 87–91. (볼딘 V.I., 호레프 V.A., 1993. 아나니예브카 성 주민들의 농촌 경제활동의 성격에 대해 // 지역학 베스뜨니끄. 1호. 블라디보스톡. 87~91쪽.)

Васильев В.П., 1858. История древности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Средней Азии от X до XIII вв. с приложением китайских известий о киданях, джурджитах и монголо–тагар // Труды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Русск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 СПб. Ч. IV. Вып. 1. – 235 с. (바실리에프 V.P., 1858. 10-13세기 중앙아시아 동부의 고대 역사. 부록 - 거란, 주르쥬트, 몽골-타타르에 관한 중국사료 // 러시아 고고학회 동방지부 업적들. 상 께제르부르그. 제1부. 제1호. 235쪽.)

Васильева Т.А., 2008. Занятие земледелием населения Екатерин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Интеграц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овосибирск. С. 205-209. (바실리에바 T.A., 2008. 예까제리노브카 성 (연해주) 주민들의 농사 활동 // 고고학과 민족지학 조사 통합. 노보시비르스크. 205~209 쪽.)

Васильева Т.А., 2011. Реконструкц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жителей Екатерин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Труды III (XIX) Всесоюзн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съезда. Т. II. СПб – М. -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С. 11. (바실리에바 T.A., 2011. 예까제리노브카 성(연해주) 주민들의 경제활동 복원 // 제3차(19차) 전국고고학대회 논문집. 권2. 상께제르부르그-모스크바-벨리끼 노브고로드. 11쪽.)

Васильева Т.А., 2012. Хозяйство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хутор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Вып. 1. С. 49-60. (바실리에바 T.A., 2012. 고르노후토르 성 주민들의 경제 // 연해주의 중세 유물들: 달나우까. 1호. 49~60쪽.)

Васильева Т.А., 2012 а. Горнохуторское городище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Вып. 2. С. 41-55. (바실리에바 T.A., 2012. 고르노후토르 성 // 연해주의 중세 유물들: 달나우까. 2호. 41~55쪽.)

Воробьев М.В., 1965. Хозяйство и быт чжурчжэней до образования династии Цзинь // Доклады по этнографии. – Л.: Изд-во ГО СССР. Вып. 1/4. – С. 3–27. (보로비요프 M.V., 196. 금왕조 형성 이전의 여진의 경제와 생활 // 민족지학 발표문들. - 레닌그라드;

소비에트 지질학협회 출판사. 제1/4호. 3~27쪽.)

Воробьев М.В., 1975. Чжурчжэни и государство Цзинь. (X век– 1234 г.).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 М.: Наука. – 448 с. (보로비요프 M.V., 1975. 여진과 금나라 (10세기~1234년). 역사개관. - 모스크바: нау까. 448쪽.)

Воробьев М.В., 1983. Культура чжурчжэней и государства Цзинь (X век– 1234 г.). – М.: Наука. – 368 с. (보로비요프 M.V., 1983. 여진 문화와 금나라(10세기~1234년). - 모스크바: нау까. 368쪽.)

Кычанов Е.И., 1966. Чжурчжэни в XI в. (Материалы для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Древняя Сибирь.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Вып. 2. – С. 269-281. (코이차노프 Ye.I., 1966. 11세기의 여진 - 민족지학 조사를 위한 자료들 - // 시베리아 민족지학 논집. 고대의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нау까. 제2호. 269~281쪽.)

Леньков В.Д., Артемьева Н.Г., 2003 Лаз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83 с. (렌코프 V.D., 아르제미예바 N.G., 2003. 라조 성. 블라디보스톡: 달нау까. 283쪽.)

Макиевский С.В., 2008. Чжурчжэньские соломорезки. (마끼엠프끼 S.V., 2008. 여진의 작두.)

Сергушева Е.А., 1991 Изучение семян культурных растений с Анань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олодых обществове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пр. –Владивосток. С. 88–91. (세르구셰바 E.A., 1991. 아나니예브까 성 출토 농작물 씨앗 연구 // 극동 청년 공동체학의 학술연구의 현황과 발전 전망. 예비 출판본. 블라디보스톡. 88~91쪽.)

Стариков В.С., 1967.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китайцев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й КНР. – М.: Наука. – 254 с. (스마리코프 V.S., 1967.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성들 중국인들의 물질문화. -모스크바: нау까. 254쪽.)

Хорев В.А., 2012. Ананьевское городище.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340 с. (호레프 V.A., 2012. 아나니예브까 성. 블라디보스톡: 달нау까. 340쪽.)

Шавкунов Э.В., 1990. Культура чжурчжэней–удиге XII–XIII вв. и проблем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унгусских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М.: Наука. – 284 с. (샤
브꾸노프 E.V., 1990. 12-13세기 여진-우디계의 문화와 극동 퉁구스어족의 기원문제. -모
스크바: нау까. 284쪽.)

유목국가 · 이민족왕조의 통치체제 정비 · 운영과 定住 · 農耕民의 역할

최진열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유목국가 · 이민족왕조의 정주문물
수용 반발 |
| II. 북아시아 유목국가와 漢人 · ‘西域
人’의 역할 | V. 맺음말 |
| III. 中國內 이민족왕조와 漢人 · 西域
人 · 色目人 | |

I. 머리말

유라시아 대륙의 유목국가는 처음에는 유목민 집단에서 시작되었지만,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편입되었다. 흑해연안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세운 스키타이는 王侯(왕족)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농경 스키타이, 농민 스키타이로 구성되었다. 즉 스키타이의 지배층은 유목민이었지만, 농경과 통상을 했던 도시거주민, 상업품의 농업경영인, 농민, 초원의 유목민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형 · 광역의 정치연합체였다.¹⁾ 일반적으로 유목국가의 ‘부족연합체’는 대개 군주씨족과 그 姻戚씨

1) 杉山正明 著, 이진복 역, 『유목민이 본 세계사』, 학민사, 1999, 92~98쪽.

족으로 구성되는 ‘核心集團’, 지배집단으로 편입되어 문화적·혈연적으로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 ‘聯盟集團’, 일체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유목국가의 일원에 포함된 ‘從屬集團’, 정주 지역의 농경민과 수공업자 등 ‘附庸集團’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설명된다.²⁾ 여기에서 ‘附庸集團’에 농경민과 수공업자 등 定住民이 포함되는 점이 주목된다. 즉 유목국가가 팽창하여 제국으로 발전하면 목축경제뿐만 아니라 농경과 수공업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農民과 수공업자는 유목민들이 定住農耕지역에서 사로잡아 데려와 使役시켰을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의 定住農耕 지역을 지배하거나 협박하여 공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북아시아 초원의 유목국가는 주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며 원하는 물자를 획득하였다.³⁾ 또 드물기도 하지만 中行說⁴⁾처럼 和親公主(和蕃公主)⁵⁾를 따라 유목국가에 간 漢人⁶⁾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목국가의 경제에 종사하거나 勞役을 제공하여 유목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준 예는 적었다. 그러나 중국의 史書와 각종 연구성과를 참조하면 유목국가에서 활약한 定住農耕民을 살펴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북아시아 유목국가와 중국내 이민족왕조, 즉, 五胡諸國·北朝, 征服王朝에서 활동한 漢人·소그드인·色目人 등 定住·農耕民이 유목국가나 이민족왕조에서 통치체제를 정비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예를 각각 1~2章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3章에서는 유목

2) Omeljan Pritsak, “Stammesnamen und Titulaturen der altaischen Völker”, Ural-Altäische Jahrbücher 24-1 · 2, 1952, 52~53쪽; 金浩東,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中國史』II, 知識產業社, 1989, 270~272쪽.

3)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53~58쪽.

4) 『史記』卷110 「匈奴列傳」, 2898쪽, “老上稽粥單于初立, 孝文皇帝復遣宗室女公主爲單于閼氏, 使宦者燕人中行說傅公主. 說不欲行, 漢彊使之. 說曰: ‘必我行也, 爲漢患者.’ 中行說既至, 因降單于, 單于甚親幸之.”; 『漢書』卷94上 「匈奴傳」, 3759쪽. 이하 중국 正史와 『資治通鑑』은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하여 서지사항은 생략한다.

5) 和親公主(和蕃公主)는 중국이 주변 유목국가와 화친하기 위해 遊牧君主와 通婚하기 위해 선발된 公主이다. 원칙적으로 皇帝의 친딸이 보내져야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없는 宗室의 여성이나 宮女 등이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 和親公主(和蕃公主) 문제는 王雙懷·周佳榮, 「論唐代的和親公主」, 林文玉 主編, 『唐史論叢』8, 西安: 三秦出版社, 2006; 周佳榮, 「唐代和親公主의 出身問題」, 『西安聯合大學學報』2001-1(總10期), 2010; 周佳榮, 「唐代和親公主의 出身問題」, 『西安聯合大學學報』2001-1(總10期), 2010 등 참조.

6) 본고에서는 현재 漢族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漢人 혹은 중국인이라 표기한다.

국가와 北朝에서 定住農耕의 제도와 문화에 반발했던 예를 살펴보면 定住·農耕民과 제도·문화 수용에 대한 明暗을 살펴볼 것이다.

Ⅱ. 북아시아 유목국가와 漢人·‘西域人’의 역할

1. 유목국가에서 활동한 漢人

本節에서는 유목국가의 관리가 되거나 유목국가의 운영체제에 영향을 준 漢人들을 살펴본다. 먼저 匈奴에서 활동한 中行說이다. 中行說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匈奴로 보내지자 마음을 바꿔 匈奴單于를 위해 충성하였다.⁷⁾ 『史記』 「匈奴列傳」에는 中行說이 匈奴의 정치와 제도에 영향을 준 일화가 설명되었다.

“처음에 匈奴가 漢의 繒과 絮, 食物을 좋아했다. 中行說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匈奴의 인구는 漢의 한 개의 郡만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강한 까닭은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달라 漢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우께서 풍속을 바꾸어 한나라 물자를 좋아하게 되면 漢의 물자가 10분의 2를 넘지 않아도 匈奴는 漢에 모두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漢의 繒과 絮를 가지고 선우께서 그것을 입고 나가 풀과 가지덤불 속을 헤집고 다니며 말을 달려 나아가 옷과 바지가 모조리 찢어져 못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繒과 絮가 흉노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의복만큼 훌륭하여 좋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漢의 植物을 얻은 다음 그것을 모두 버려 그것이 醢酪의 맛보다 못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행열은 선우를 보좌하는 [관리들]에게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 백성과 가축의 [숫자를] 세서 과세하도록 했다.”⁸⁾

7) 『史記』卷110「匈奴列傳」, 2898쪽; 『漢書』卷94上「匈奴傳」, 3759쪽.

8) 『史記』卷110「匈奴列傳」, 2899쪽, “初, 匈奴好漢繒絮食物, 中行說曰: ‘匈奴人衆不能當漢之一郡, 然所

위의 인용문에서 마지막 줄 밑줄친 부분은 『漢書』에는 ‘課’가 ‘識’으로 기록되었다.⁹⁾ 이 경우 밑줄 친 부분은 “백성과 가축의 수를 세서 알도록 하였다.”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인용문의 해석이 자연스럽다. 中行說은 匈奴가 前漢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물자 때문에 匈奴人의 尙武 정신과 전투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중국의 물자를 멀리하여 유목적 습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漢人이 匈奴人에게 定住農耕文化를 장려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목문화를 유지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中行說은 文字가 없는 匈奴人들에게 산수와 징세 기록 등 간단한 文書行政을 가르쳐 주었다. 정교한 文書行政과 官僚制를 가진 중국과 달리 文字를 사용하지 않아 文書行政의 전통이 없었던 匈奴는 中行說 덕분에 文書行政을 도입하여 국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뿐만 아니라 中行說은 외교문서의 형식을 前漢과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였다.

“漢에서 單于에게 편지를 보낼 때 牘을 1尺 1寸의 규격을 사용하면서 문서의 구절은 ‘皇帝는 삼가 匈奴大單于가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라고 적었다. 이어서 보내준 물자와 용건은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었다. 中行說은 單于가 漢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1尺 2寸짜리 나무쪽을 쓰고 封印까지 모두 漢의 것보다 넓고 크고 길게 하도록 했고, 글투도 오만하게 ‘하늘과 땅이 낳고 해와 달이 둔 匈奴大單于가 삼가 漢의 皇帝에게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라고 인사하고, 보내

以彊者, 以衣食異, 無仰於漢也. 今單于變俗好漢物, 漢物不過什二, 則匈奴盡歸於漢矣. 其得漢繒絮, 以馳草棘中, 衣袴皆裂敝, 以示不如旃裘之完善也. 得漢食物皆去之, 以示不如湏酪之便美也.’於是說教單于左右疏記, 以計課其人衆畜物.”

9) 『漢書』卷94上「匈奴傳」, 3759쪽, “……於是說教單于左右疏記, 以計識其人衆畜牧.”

10) 文書行政과 상거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목국가와 유목민들은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 비록 突厥이 처음으로 문자를 만든 이후 여러 유목국가에서 문자를 만들었지만, 文書行政 등 실용적 목적보다 주로 비문 건립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유목국가와 공생하는 중앙아시아 정주농경민들, 즉 西域人들의 문자가 行政文書를 기록하는 문자 혹은 언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金浩東, 「內陸아시아 諸民族의 文字製作. 使用과 그 歷史的 背景」,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太學社, 1997 참조).

는 물자와 용건을 이야기하였다.¹¹⁾

위의 인용문을 보면 中行說은 匈奴가 前漢에 보내는 외교문서의 규격을 前漢의 문서보다 크게 만들도록 하여 匈奴가 前漢보다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도록 하였다. 또 “하늘과 땅이 낳고 해와 달이 둔(天地所生日月所置)”이라는 文句를 넣어 匈奴의 單于가 하늘의 권위를 이어받았고 前漢의 皇帝는 단순한 군주임을 표명하였다. 匈奴는 이러한 외교문서를 보내 漢보다 우위에 있음을 과시할 수 있었다.

中行說 이외에 韓王 信(楚王 韓信과 동명이인),¹²⁾ 盧綰, 李陵 등 漢인들이 반란과 항복 등의 이유로 匈奴에 투항하여 특히 前漢과의 전쟁에서 작전 참모로 활동하였다.¹³⁾ 반면 이 들처럼 匈奴에 중국의 文物이나 제도를 전파하거나 참모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匈奴의 영토 안에서 농경과 수공업에 종사했던 漢人(중국인)이 있었다. 특히 匈奴의 영토 안에 趙信城, 頽當城, 范夫人城, 姑臧城 등은 匈奴인이 아닌 定住農耕民, 특히 漢인들이 건축하였고, 漢人들은 이 성곽을 중심으로 농경과 수공업에 종사하였다.¹⁴⁾

明代 북방에 있었던 몽골도 漢人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元末 南京에서 건국한 明은 몽골인을 중국본토 밖으로 내쫓고 몽골인이 세운 元이 망했다고 선언하고 급히 『元史』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塞外의 몽골을 ‘北元’이라 불러 별도의 국가로 규정하여 중국본토를 지배했던 元이 망한 것 기록하였다. 반면 1392년 무렵 우수테르가 대카한이 되었고 ‘대원카한’, 즉 다얀카한을 칭했다. 중국 본토를 지배했던 세계제국인 몽골제국과 달랐지만 몽

11) 『史記』卷110「匈奴列傳」, 2899쪽, “漢遺單于書, 牘以尺一寸, 辭曰「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 所遺物及言語云云. 中行說令單于遺漢書以尺二寸牘, 及印封皆令廣大長, 倨傲其辭曰「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敬問漢皇帝無恙」, 所以遺物言語亦云云.”; 『漢書』卷94上「匈奴傳」, 3760쪽.

12) 楚王 韓信은 關中을 점령하고 趙·齊을 정복했으며 項羽와의 최후 전쟁인 垓下의 전투를 총지휘한 漢高祖 劉邦의 名將이었다. 그러나 劉邦의 시기를 받아 王位를 빼앗겼다가 淮陰侯로 격하되었고 후에 반란을 모의하다 살해되었다. 韓王 信은 戰國時代 韓王室의 후예로 秦漢교체기에 韓王에 봉해졌다. 후에 漢高祖에 의해 太原으로 徙封되었다가 漢高祖의 의심을 받고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하여 匈奴에 항복하였다.

13) 사와대 이사오 지음, 김숙경 옮김, 『흉노-지금은 사라진 고대 유목국가 이야기-』, 아이필드, 2007, 67~71쪽.

14) 朴漢濟, 「遊牧國家와 城郭」, 『歷史學報』200, 2008, 421~429쪽.

골초원의 몽골인들은 여전히 몽골제국을 계승했다고 인식하였다.¹⁵⁾ 그러나 明代 중국인들은 이들을 達韃으로 표기하여 ‘蒙古’와 별도의 존재로 인식하였다. 明은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長城을 쌓고 북변에 9邊鎮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몽골로 도망가는 邊防의 軍卒과 백성들이 증가하였다. 『明實錄』嘉靖二年(1542)十二月甲子條의 기록에는

“근년에 변경의 奸民들 중 虜(몽골)에 도망가서 몽골측의 간첩이 된 자들이 많다. …… (중략) …… 그 이유는 근년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군수물자의 징발도 가혹한데다가 무능한 관리들이 착취를 일삼아 오히려 이쪽을 떠나 저쪽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죄는 말할 것도 없이 처벌해야 하지만 그 사정은 가엾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¹⁶⁾

라고 하였다. 백성들의 경우 가혹한 군수물자 징발과 관리들의 苛斂誅求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몽골로 도망갔다. 『明史』卷427「韃靼傳」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時富 등은 敵에 있었고 亡命을 招集하여 豐州에 居하였다. 城을 쌓고 自衛하였으며 宮殿을 만들고, 水田을 개간하였으니 板升이라 불렀다. 板升은 華言으로 屋을 뜻한다.”¹⁷⁾

이 기록은 嘉靖 33년(1573)條에 있다. 위의 인용문처럼 가정(嘉靖) 년간 전후 변방의 군인이나 농민, 죄인, 백련교도 등이 장성 북쪽의 몽골로 달아났다. 몽골의 알탄 칸은 이들을 정착시켜 농경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판승(板升)이라 불렀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로 도망간 漢人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거주하며 농경에 종사하였다. 1570년에 판승에 거주하는 주민이 5만 명에 달하였다. 알탄 칸의 거주 지역에는

15) 스기야마 마사아키 지음,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1999(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上·下, 東京: 講談社, 1996), 362쪽.

16) 『明世宗實錄』卷1 嘉靖二年十二月甲子條; 기시모토 미오·마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기다』, 역사비평사, 2003, 141~142쪽에서 재인용.

17) 『明史』卷427「外國8·韃靼傳」, 8482쪽, “時富等在敵, 招集亡命, 居豐州, 築城自衛, 構宮殿, 墾水田, 號曰板升. 板升, 華言屋也.”

대판승(大板升)을 건설하였다. 이곳은 훗날의 歸化城이 되었고 현재 內蒙古自治區의 呼和浩特市(Kökekhota)市이다.¹⁸⁾

板升集團은 몽골에 定住農耕문화와 중국 제도를 전파하였다. 『明史』 「王崇古傳」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다.

“俺答(알탄칸)은 또 叛人 趙全 등을 받아들여 옛 豐州 땅에 머무르게 하고 亡命 數萬을 招納하였다. 이들은 屋에 居하고 佃作하였으니 板升이라 불렀다. [趙全 등은 俺答(알탄칸)을 帝로 높이고 城郭과 宮殿을 建設하였다. 또 스스로 저택을 만들었고 制度는 王과 같도록 하였으며 그 門에 關청을 두어 開化府라 불렀다. 또 밤낮으로 俺答(알탄칸)에게 軍사를 일으키도록 사주하였다.”¹⁹⁾

위의 기록을 보면 趙全을 우두머리로 한 板升집단은 俺答(알탄칸)을 皇帝로 추대하고 중국의 城郭과 宮殿을 만들었다. 趙全은 자기의 저택을 만들고 開化府라는 관청을 세웠다. 이 인용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開化府라는 관청을 만든 趙全은 자신처럼 몽골로 망명한 漢人들을 통치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板升集團은 내몽골 지역에 농경지를 만들어 몽골인에게 필요한 곡식과 수공업제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板升집단은 내몽골 일부 지역의 농경화와 중국 제도의 도입에 기여했으나 몽골의 통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18) 기시모토 미오 · 마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 · 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기다』, 142 쪽.

19) 『明史』 卷222 「王崇古傳」, 5839쪽, “俺答又納叛人趙全等, 據古豐州地, 招亡命數萬, 屋居佃作, 號曰板升. 全等尊俺答爲帝, 爲治城郭宮殿; 亦自治第, 制度如王者, 署其門曰開化府. 又日夜教俺答爲兵.”

2. 柔然·突厥·위구르와 ‘西域人’

1) 西域 관리·외교사절의 활동

本節에서 살펴보려는 ‘西域人’은 주로 중앙아시아 출신의 소그드인을 지칭한다. 그러나 소그드인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은 일부 사람들은 소그드인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주민일 가능성도 있고, 安息人(파르티아인)도 있기 때문에 소그드인이라는 단정을 피하였다.

각종 ‘西域人’들은 유목국가의 관리나 외교사절로 활동하거나 商人이 되어 동서교역에 종사하였다. 먼저 관리로 활동했던 ‘西域人’들을 살펴보자.

「虞弘墓誌」에 따르면 魚國 출신인 虞弘의 父 君隋는 茹茹 즉 柔然의 莫賀去汾을 역임하였고 虞弘도 莫賀弗과 莫緣 등 柔然의 벼슬을 역임하였다.²⁰⁾ 虞弘 부자는 2代에 걸쳐 柔然의 관리로 근무하였지만, 구체적인 활동은 「虞弘墓誌」에 기록이 없다.

突厥에서도 외국인들을 관리로 등용하였다. 突厥(東突厥, 突厥第一帝國이라고도 함)의 힐리 카간은 諸胡를 관리로 임명하고 정사를 위임하였다.²¹⁾ 여기서 諸胡는 소그드인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정주민으로 추정된다.²²⁾ 突厥(東突厥)과는 달리 西突厥에서는 소그드인들이 可汗과 휘하 여러 유목세력의 使節로 활동했다. 당시 西突厥은 可汗에 臣屬하는 중앙아시아 오아시스諸國과 遊牧部落에 人畜·寢食의 제공을 부과하고 지배영역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西突厥 可汗과 여러 관리들이 보내는 使節은 麴

20) 「虞弘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羅新·葉煒, 中華書局, 2005), 419쪽. 본고에서 같은 사료의 원문을 2회 이상 인용할 경우 처음 혹은 중요한 부분에만 원문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쪽수만 표기하겠다.

21) 『舊唐書』卷194上「突厥上·頡利可汗條, 5159쪽, “頡利每委任諸胡, 疏遠族類, 胡人貪冒, 性多翻覆, 以故法令滋彰, 兵革歲動, 國人患之, 諸部攜貳.”

22) 羽田亨은 “頡利每委任諸胡” 기사를 힐리가한이 突厥에 와 있던 소그드인들에게 정치를 위임했다고 해석하였다(羽田亨, 『漠北の地と康國人』, 『羽田博士史學論文集·歴史篇』,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57, 397~398쪽).

氏高昌國에서 宿食을 제공받았다.²³⁾ 「供糧食帳」에 보이는 西突厥 使節을 분석하면, 大可汗을 필두로 그 妻인 可敦(公主)과 小可汗, 提慙·大官·希瑾·移浮孤·拙 등이 使節을 西域 오아시스諸國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바꿔말하면 可汗과 그 親族·屬官이외에 영지·領民을 지배하고 사드(šad)·야브구(yabgu)·이르킨(irkin) 등 西突厥의 官號를 받은 首長들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使節을 자주 파견하고 麴氏高昌國이 이들을 받아들였다.²⁴⁾ 그런데 西突厥 可汗 使節뿐만 아니라 「遊牧使節表」에 보이는 提慙(tegin)의 使節 衛畔陁(-βntk)(同表No. 21), 移浮孤yabgu의 사절 烏庚延(-y'n)(同表No. 23), 俟斤의 사절 槃陁(βntk)(同表No. 34), 大官(tarqan)의 사절 炎畔陁(y'mβntk)(同表No. 30)과 脾娑(pysk)(同表No. 31)은 소그드인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遊牧諸集團에서 보낸 使節에 소그드인이 등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西突厥의 속국인 麴氏高昌國의 체신기관을 이용한 소그드인들은 외교사절 이라기보다 西突厥 카간의 명령을 받고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역의 여러 屬國에 파견된 카간의 전령 혹은 使者의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突厥과 위구르에서 관리로 임명된 西域人을 살펴보았다. 관리이외에 외국사절로 활동했던 西域人들을 살펴보자. 먼저 安息(파르티아) 출신 安吐根이다. 北齊에 벼슬했던 安吐根은 본래 安息(파르티아) 출신이었다. 그는 北魏의 사신으로 柔然(원문의 蠕蠕은 멸칭)으로 파견되었다가 억류되어 柔然에서 활동하였다. 天平初에 柔然의 사신으로 東魏에 파견되었던 安吐根은 당시 東魏의 실력자 高歡(神武)에게 柔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安吐根은 후에도 자주 東魏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²⁶⁾

다음은 柔然에서 활동한 虞弘이다.

23) 荒川正晴, 「トルコ系遊牧國家の成立と交通システム」, 『ユ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20~32쪽.

24) 荒川正晴, 「オアシス國家・遊牧國家とソグド人」, 74~86쪽.

25) 荒川正晴, 「オアシス國家・遊牧國家とソグド人」, 97쪽.

26) 『北史』 卷92 「恩幸·安吐根傳」, 3047쪽, “安吐根, 安息胡人, 曾祖入魏, 家於酒泉. 吐根魏末充使蠕蠕, 因留塞北. 天平初, 蠕蠕主使至晉陽, 吐根密啓本蕃情狀, 神武得爲之備. 蠕蠕果遣兵入掠, 無獲而反. 神武以其忠款, 厚加賞賚. 其後與蠕蠕和親, 結成婚媾, 皆吐根爲行人也. 吐根性和善, 頗有計策, 頻使入朝, 爲神武親待. 在其本蕃, 爲人所譖, 奔投神武.”

“祖□奴栖는 魚國領民酋長이었다. 父 君隋는 茹茹國(柔然을 지칭함) 莫賀去汾이 되었고 벼슬이 현달하여 魏北魏에 사신으로 가서 …… (누락) …… 朔州刺史가 되었다. …… (중략) …… 나이 13세에 莫賀弗에 임명되었고 명령을 받아 波斯와 吐谷渾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어 莫緣에 임명되었고 齊國北齊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²⁷⁾

虞弘의 본적은 魚國 尉紇麟城이었다.²⁸⁾ 『隋書』 「虞慶則傳」에 따르면 虞慶則의 本姓은 ‘魚’라고 기록하였다.²⁹⁾ ‘魚’와 ‘虞’가 현대 중국어로 [yu]로 발음되기 때문에 ‘魚’를 ‘虞’로 바꿔 표기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虞弘의 祖 □□奴栖는 魚國領民酋長이었고, 父 君隋는 茹茹 즉 柔然의 莫賀去汾을 역임하였다. 이는 祖 □□奴栖는 魚國의 군주 혹은 유력한 지배자였으나, 父 君隋 세대에 魚國이 柔然에 복속되거나 정복되어 君隋가 柔然에서 벼슬했음을 보여준다. 虞弘도 莫賀弗과 莫緣같은 柔然의 벼슬을 역임하였다.³⁰⁾ 즉 虞弘은 北齊에 귀의하기 전에 2대에 걸쳐 柔然의 관리로 근무하였다. 이보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虞弘은 波斯, 즉 페르시아와 吐谷渾(현재의 青海에 있던 鮮卑系 유목국가), 北齊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음이 주목된다. 즉 虞弘은 柔然에서 주로 외교사절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柔然 다음으로 몽골고원을 지배한 突厥의 서부 지역을 통치한 이스테미는 소그드상인 마니악(Maniakh)을 사산조 페르시아에 보내 통상교섭을 하였다. 그러나 비단 교역 독점을 유지하려는 사산조페르시아가 이를 거부하자 이스테미는 마니악을 비잔티움 제국에 보내 직접 교섭을 시도하였다. 이후 두 나라는 외교관계를 맺고 비슷한 시기에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격하였다.³¹⁾ 이 일화에서 소그드인이 突厥의 통상·외교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27) 『虞弘墓誌』, 419쪽, “祖□奴栖, 魚國領民酋長. 父君隋, 茹茹國莫賀去汾, 達官, 使魏□□□朔州刺史. …… 年十三, 任莫賀弗, 銜命波斯·吐谷渾. 轉莫緣, 仍使齊國.”

28) 『虞弘墓誌』, 419쪽, “公諱弘, 字莫潘, 魚國尉紇麟城人也.”

29) 『隋書』 卷40 「虞慶則傳」, 1174쪽, “虞慶則, 京兆櫟陽人也. 本姓魚.”

30) 柔然 官制는 羅新, 「虞弘墓誌所見的柔然官制」, 『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原載 『北大史學』 12, 2007) 및 同氏, 「柔然官制續考」, 『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原載 『中華文史論叢』 2007-1, 2007) 참조.

31) 羽田明, 「ソグド人の東方活動」, 『岩波講座世界歴史』 6, 東京: 岩波書店, 1971, 426쪽; Denis Sinor,

또 소그드인들은 突厥과 北周·北齊의 교섭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³²⁾ 또 麴氏高昌國시대의 吐魯番文書에서도 西突厥 카간이 소그드인들을 외교사절로 외국에 파견한 예가 확인된다.³³⁾

2) 西域 상인과 수공업자의 활동

유목국가에서 상인이 활동한 가장 이른 시기는 6세기이다. 吐谷渾³⁴⁾의 商胡이다. 『周書』 卷50「異域下·吐谷渾傳」에는

“魏廢帝二年(553)에 太祖宇文泰가 大兵을 보내 姑臧에 이르렀다. 夸呂는 놀라고 두려워 하여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이해 夸呂는 또 齊氏[北齊]에 사신을 보내 통교하였다. 涼州刺史 史寧은 吐谷渾 사신단이 돌아온다는 정보를 확보한 후 輕騎를 이끌고 涼州의 서쪽 赤泉에서 습격하여 吐谷渾의 僕射 乞伏觸扳와 將軍 翟潘密, 商胡 240人을 사로잡았다. 노획물은 駝·驃가 600頭였고, 雜綵·絲·絹을 萬을 헤아렸다.”³⁵⁾

“The establishment and dissolution of the Türk empire”, Denis Sinor, ed.,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Asia: From earliest times to the rise of the Mong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01~305쪽; 르네 그루세,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René Grousset, L'Empire des Steppes: Attila. Gengis-khan. Tamerlan, 1952; 英譯 Naomi Walford,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70), 139~146쪽.

32) 後藤勝, 「東魏·北齊朝의 西域人·西域歸化人研究 その4」, 『聖德學園岐阜教育大學紀要』 19, 1990, 52쪽.

33) 荒川正晴, 「オアシス國家·遊牧國家とソグド人」, 104쪽.

34) 吐谷渾은 吐渾, 退渾이라고도 한다. 遼東鮮卑 徒何部 慕容氏에서 갈라져 나와 4세기초 首領 吐谷渾이 部衆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青海省과 甘肅省 일대에 머물렀다. 손자 葉延시기에 처음으로 吐谷渾을 姓氏와 族名, 혹은 國號로 삼았다. 정치적 중심지는 伏俟城(지금의 칭하이호(QinghaiHu) 서쪽)이다. 목축업에 종사했으며 수렵과 농업에도 종사했고 ‘青海驄’이란 良馬의 산지였다. 唐代에 이르러 부족이 分散되어 더 이상 상세한 기록은 없다.

35) 『周書』 卷50「異域下·吐谷渾傳」, 913쪽, “魏廢帝二年, 太祖勒大兵至姑臧, 夸呂震懼, 遣使貢方物. 是歲, 夸呂又通使於齊氏. 涼州刺史史寧規知其還, 率輕騎襲之於州西赤泉, 獲其僕射乞伏觸扳·將軍翟潘密·商胡二百四十人, 駝驃六百頭, 雜綵絲絹以萬計.”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吐谷渾이 北齊로 보낸 사신단에 商胡가 포함되었다. 西魏의 涼州刺史 史寧이 노획한 雜綵·絲·絹을 보면 사신단은 北齊로부터 綵·絲·絹을 구매하여 吐谷渾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商胡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商人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雜綵·絲·絹의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柔然을 멸망시킨 突厥(東突厥)은 北齊와 北周의 대립을 이용하여 두 나라를 협박해 물자를 획득하였다. 突厥의 말과 北齊·北周의 絹을 교환하였다. 목간 카간 치세(553~572)에는 北周가 突厥에 해마다 絹 10만필을 주었다. 突厥은 北齊·北周에서 획득한 비단을 서쪽의 페르시아·비잔티움과 교역하였다.³⁶⁾

소그드인 등 西域人들은 관리뿐만 아니라 유목국가의 商人으로 활동하였다.³⁷⁾ 西突厥에서도 소그드인들이 교역에 종사했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高昌內藏奏得稱價錢帳」에 보이는 소그드인 供勤大官은 ‘市場’에서 교역에 종사했던 가능성이 높다.³⁸⁾ 또 西突厥의 可汗宮廷에서 金銀器를 제작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카간이 파견한 鐵師와 金師는 자국의 產品 혹은 중계교역품을 판매·전매하고 오아시스 국가로부터 구한 사치품을 교역을 통해 획득했다. 이러한 예에서 突厥方面(西突厥)可汗이 이보다 이전부터 사절을 파견하여 교역을 전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소그드인의 교역활동은 『舊唐書』 「西戎·康國傳」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다.

“康國人들은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꿀을 먹이고 아교를 손 안에 쥐어준다. 그것은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입으로는 항상 甘言을 하며 아교가 물건에 붙듯이 손에 돈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염원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나 장사를 잘하며 지극히 적은 이윤이라도 다룬다. 남자

36)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위태로운 변경』, 280~281쪽 및 304~305쪽.

37) 羽田亨, 「漠北の地と康國人」, 『羽田博士史學論文集』 上卷(歴史篇), 東洋史研究會, 1957(原載 「支那學」 3~5, 1923); E. G. Pulleyblank, “A Sogdian Colony in Inner Mongolian”, 『T'oung Pao』 41, 1952; 護雅夫, 「突厥의 國家와 社會」,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 山川出版社, 1967, 62~69쪽; Colin Mackerras, “The Uighurs”, Denis Sinor, ed.,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Asia: From earliest times to the rise of the Mong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24~325쪽.

38) 荒川正晴, 「オアシス國家·遊牧國家とソグド人」, 100쪽.

39) 荒川正晴, 「オアシス國家·遊牧國家とソグド人」, 100~101쪽.

는 20세가 되면 다른 나라에 보내며 중국에도 온다. [장사를 좋아하는 강국인들의 이익이 있는 곳이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⁴⁰⁾

康國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이며, 소그드인들의 주요 거주지 가운데 하나였다. 소그드인은 突厥·위구르와 유착하여 유라시아 동서 교역에 종사하였고 唐의 수도 長安에서 활동하였다. 唐代 중국인들은 소그드인의 상술이 뛰어났음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기록을 남긴 것이다.

이처럼 소그드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비잔티움(동로마), 사산조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잇는 교역에 종사하였다.⁴¹⁾ 소그드인들이 동서교역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지배한 돌궐·위구르 등 유목민들의 보호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단길과 초원길 등 동서교역로의 안전을 보호하고 통과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취한 비단을 서아시아, 인도, 비잔티움에 파는 비단 중계무역에 종사하였고 이익을 돌궐·위구르와 나누었다.⁴²⁾ 또 소그드인들은 원격지 교역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를 근거리로 왕복하는 국지적인 교역권을 형성하였다.⁴³⁾

자료가 드물기는 하지만 유목국가의 수공업자로 定住民이 활동했던 예가 보인다. 吐魯番文書에는 阿博珂寒(Apa qaran) 사절로 鐵師 居織의 이름이 있다. 居織은 소그드어 '

40) 『舊唐書』卷198「西戎·康國傳」, 5310쪽, “生子必以石蜜納口中, 明膠置掌內, 欲其成長口常甘言, 掌持錢如膠之黏物. 俗習胡書, 善商賈, 爭分銖之利. 男子年二十, 卽遠之旁國, 來適中夏, 利之所在, 無所不到.”

41) Colin Mackerras, “The Uighurs”, 175~176쪽 및 301~303쪽; 榮新江, 『中古文明與外來文明』, 北京: 三聯書店, 2001; É. de la Vaissière, Sogdian Traders: A History, J. Ward(tr.), Leiden: Brill, 2005; 荒川正晴, 『ユー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42) 羽田明, 「ソグド人の東方活動」, 『岩波講座世界歴史』6, 東京: 岩波書店, 1971, 425쪽; Colin Mackerras, “The Uighurs”, 331쪽;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60~62쪽.

43) 荒川正晴, 「ソグド人の移住聚落と東方交易活動」, 『商人と市場』(岩波講座世界歴史 15), 岩波書店, 1999, 96~97쪽.

kwcyk의 음借이다.⁴⁴⁾ 鐵師는 鍛造鐵騎를 제작했던 工匠으로 해석된다.⁴⁵⁾ 또 탐한가한의 사신인 金師 莫畔隨는 소그드어로 ‘달의 신의 奴僕’을 의미하는 m'xβntk의 음借이다.⁴⁶⁾ 金師도 金銀器를 제작하는 工匠을 지칭한다고 한다.⁴⁷⁾ 소그드인 鐵師와 金師의 존재에서 西突厥이 파견한 사절 가운데 工匠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 보이는 鐵師와 金師의 역할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⁴⁸⁾ 이들이 高昌國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西突厥의 카간 궁정에서는 각종 금속제품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했을 것이다.

이밖에 ‘마지막 유목제국’이라 불리는 준가르에서도 투르크 무슬림 출신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준가르 제국의 교역을 담당하였다.⁴⁹⁾ 이러한 예를 종합하면 유목국가에서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교역에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44) N. Sims-Williams, *Sogdian and Other Iranian Inscriptions of the Upper Indus 2(Corpus Inscriptionum Iranicarum, Part II Vol. III-II)*, London: SOAS, 1992, 40~41쪽; 1996, 54쪽.

45) 吳玉貴, 「高昌供食文書中的突厥」, 『西北民族研究』 1991-1, 1991, 57쪽; 大澤孝, 「新疆イリ河流域のソグド語銘文石人について-突厥初世の王權に關する一資料-」,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紀要報告 別冊』 20, 1999, 359쪽.

46) 姜伯勤, 「高昌麴朝與東西突厥-吐魯番所出客館文書研究-」, 北京大學中國中古史研究中心 編, 『燉煌吐魯番文獻研究論集』 5, 北京大學出版社, 1990, 37쪽; 吳玉貴, 「高昌供食文書中的突厥」, 49쪽.

47) 吳玉貴, 「高昌供食文書中的突厥」, 57쪽; 大澤, 1999, 359쪽.

48) 吳玉貴는 이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들의 존재로부터 투르크유목민이 사용한 金銀제품은 스스로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위해 투르크유목민은 무역 또는 약탈로 얻은 대량의 금과 은을 화폐유통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상당 부분을 金銀器로 제작하였다(吳玉貴, 「高昌供食文書中的突厥」, 58쪽). 大澤孝는 西突厥可汗의 宮廷에 있는 可汗 직속의 工匠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高昌國을 시작으로 남방과 서방의 오아시스諸國으로 향하여 금속의 판매와 교역에 종사했던 상인으로 보았다. 또 그는 그들의 교역활동에 의해 남방과 서방 오아시스諸國에서 본래 현상품과 수출품으로 제작된 호화로운 金銀제품이 각종 絹織物·錦織物 등과 함께 북방 유목국가에 유입되었다고 지적하였다(大澤孝, 「新疆イリ河流域のソグド語銘文石人について-突厥初世の王權に關する一資料-」, 359~360쪽).

49) 피터 C. 퍼듀 지음, 공원국 옮김, 『중국의 서진-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길, 2012, 334쪽.

Ⅲ. 中國內 이민족왕조와 漢人 · 西域人 · 色目人

1. 五胡諸國: 漢化된 胡族君主와 漢人참모의 이미지

4세기 초 匈奴(漢)의 군대가 西晉의 수도 洛陽과 피난수도 長安을 함락하여 懷帝와 愍帝를 사로잡아 西晉을 멸망시켰다. 이후 匈奴뿐만 아니라 鮮卑·羯·羌·氐·丁零 등 유목민 혹은 이민족이 華北지역으로 이주하여 국가를 세웠다. 소위 五胡十六國時代이다. 이후 北魏가 華北을 통일하였지만 東魏北齊와 西魏北周로 분열되었다가 北周가 華北을 재통일한 후 隋에 망할 때까지 화북지역은 장기간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가 통치하였다.⁵⁰⁾

이 시대의 기록은 주로 『晉書』載記와 『魏書』, 남조계 史書 등 漢人들이 남긴 기록이다. 따라서 漢人들의 이민족觀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서술되었고 유목민 혹은 이민족들의 견해와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史書를 분석하면 ‘漢化된 胡族君主’ 이미지와 말 위에서 통치할 수 없는 胡族君主를 계몽시키고 행정의 실무를 처리한 漢人참모라는 이미지가 도출된다.

淸代의 저명한 역사학자 趙翼은 『廿二史劄記』卷8 「僭偽諸君有文學」에서 五胡諸國의 胡族君主가 학문에 능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晉書』載記의 사료를 망라하여 漢(前趙)의 劉淵·劉和·劉宣·劉聰·劉曜, 前燕의 慕容皝과 慕容儁, 後燕의 慕容寶, 前秦의 苻堅과 苻登, 後秦의 姚興과 姚泓, 成漢의 李流와 李庠, 北涼의 沮渠蒙遜과 赫連勃勃은 개인차가 있긴 했지만, 漢人儒學者들에게 각종 儒家經典과 史書를 배우고 정통하는 등 학문을 겸비하였음을 논증하였다.⁵¹⁾ 陳寅恪은 趙翼의 주장을 계승하면서 後趙의 石勒과 石弘, 前秦의 苻

50) 史書에 따르면 隋를 세운 楊堅은 弘農郡, 唐을 세운 李淵은 隴西郡 출신의 漢人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조는 순수 漢人이 아니라 武川鎮에서 鮮卑人(胡人)과 섞여 살며 鮮卑系 혈통이 섞인 혼혈이며 문화적으로도 鮮卑人(胡人)에 가까웠다(胡化된 漢人). 일부 학자들은 楊堅과 李淵이 胡人이었지만 漢人으로 가계를 위조했다고 보기도 한다(陳寅恪, 『統治階級之氏族及其升降』, 『唐代政治史述論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1~13쪽). 본고에서는 史書의 기록에 따라 楊堅과 李淵을 漢人으로 간주하고 隋와 唐을 이민족왕조가 아닌 漢族王朝로 간주하겠다.

51) 趙翼, 『廿二史劄記』(王樹民 校證, 『廿二史劄記校證』, 中華書局, 1984)) 卷8 「僭偽諸君有文學」.

融, 後秦의 姚襄 등 趙翼이 망라하지 못한 예를 열거하며 이들이 儒家경전 등에 심취하는 등 문화적으로 漢化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²⁾

『晉書』載記에는 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한 ‘漢化된 胡族君主’는 漢人官僚를 등용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晉書』載記는 五胡諸國의 歷史를 기록한 것이다. 『晉書』는 長江 이남으로 후퇴한 東晉을 통일국가로 인식하였고, 華北의 五胡諸國을 諸侯國 정도로 기술하여 諸侯國의 기록인 世家를 변형한 載記를 두어 五胡諸國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晉書』載記의 후반부에는 漢人들의 列傳이 附傳되었다. 立傳된 漢人 대부분은 胡族君主의 참모로 활동하거나 제도 입안에 기여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예컨대 後趙를 세운 石勒은 趙郡 中丘縣 출신인 漢人 張賓을 謀主로,⁵³⁾ 刁膺·張敬·冀安·孔萇을 股肱과 爪牙로 삼아 참모로 활용하였다.⁵⁴⁾ 특히 張賓은 인사문제를 총괄하였고⁵⁵⁾ 石勒에게 이름이 아닌 ‘右侯’로 불릴 정도로 존중을 받았으며⁵⁶⁾ 石勒이 前趙를 멸하고 華北을 지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⁵⁷⁾ 石勒은 太興 2년에 趙王을 칭하고 社稷·宗廟·宮殿·天子禮樂·官制 등을 건설하거나 제정하였다.⁵⁸⁾ 『晉書』「石勒載記」에는 구체적인

164~165쪽.

52) 陳寅恪, 「胡族的漢化及胡漢分治」, 萬繩楠 정리,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黃山書社, 1987, 99~107쪽.

53) 『晉書』卷105「石勒載記」下 附張賓傳, 2756쪽, “張賓字孟孫, 趙郡中丘人也.”

54) 『晉書』卷104「石勒載記」上, 2711쪽, “陷冀州郡縣堡壁百餘, 衆至十餘萬, 其衣冠人物集爲君子營. 乃引張賓爲謀主, 始署軍功曹, 以刁膺·張敬爲股肱, 冀安·孔萇爲爪牙, 支雄·呼延莫·王陽·桃豹·逯明·吳豫等爲將率.”

55) 『晉書』卷105「石勒載記」下, 2737쪽, “勒清定五品, 以張賓領選. 復續定九品.”

56) 前近代 중국인들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꺼렸으며, 따라서 상대방을 존경하면 이름대신 字·號·官名·爵名 등으로 불렀다.

57) 『晉書』卷105「石勒載記」下 附張賓傳, 2756쪽, “後漸進規謀, 乃異之, 引爲謀主. 機不虛發, 算無遺策, 成勒之基業, 皆賓之勳也. 及爲右長史·大執法, 封濮陽侯, 任遇優顯, 寵冠當時, 而謙虛敬慎, 開襟下士, 士無賢愚, 造之者莫不得盡其情焉. 肅清百僚, 屏絕私昵, 入則格言, 出則歸美. 勒甚重之, 每朝, 常爲之正容貌, 簡辭令, 呼曰‘右侯’而不名之, 勒朝莫與爲比也.”

58) 『晉書』卷105「石勒載記」下, 2735~2736쪽, “太興二年, 勒僞稱趙王, 赦殊死已下, 均百姓田租之半, 賜孝悌力田死義之孤帛各有差, 孤老鰥寡穀人三石, 大酺七日. 依春秋列國·漢初侯王每世稱元, 改稱趙王元年. 始建社稷, 立宗廟, 營東西宮. 署從事中郎裴憲·參軍傅暢·杜徽並領經學祭酒, 參軍續咸·庾景爲律學祭酒, 任播·崔濬爲史學祭酒. 中壘支雄·遊擊王陽並領門臣祭酒, 專明胡人辭訟, 以張離·張良·劉羣·劉謨等爲門生主書, 司典胡人出內, 重其禁法, 不得侮易衣冠華族. 號胡爲國人. 遣

인 언급은 없었지만 張賓을 비롯한 漢人官僚들이 이러한 중국식 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했을 것이다.

鮮卑慕容部の 발전과정에서도 漢人들의 도움이 컸다. 아직慕容部가 塞外에 있었던慕容廆 시기에 幽州와 冀州의 漢人들이慕容部로 귀부하였다.慕容廆는 漢人들을 통치하기 위해 州郡을 설치하였다. 즉 冀州人은 冀陽郡, 豫州人은 成周郡, 靑州人은 營丘郡, 并州人은 唐國郡을 세워 통치하였다. 그리고 河東 裴嶷 등 漢人을 참모로 삼고 儒學에 뛰어난 平原 劉讚에게 世子慕容皝 등 지배층(國胄)을 가르치게 하였다.⁵⁹⁾ 이밖에 河東郡 출신 裴嶷⁶⁰⁾과 右北平郡 출신 陽鶩⁶¹⁾가慕容廆의 참모로 활동하였다.慕容皝 시기에는 右北平郡 출신 陽裕⁶²⁾가 高句麗 격파와 宇文部 정복, 龍城(和龍城)의 궁전과 宮廟 건축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⁶³⁾慕容儁 재위 시기慕容部(前燕)는 河北의 冉魏를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에 진입하였다. 이때 陽鶩는慕容恪 다음으로 河北 정복에 크게 기여하였다.⁶⁴⁾ 灌津縣 출신인 韓

使循行州郡, 勸課農桑. 加張賓大執法, 專總朝政, 位冠僚首. 署石季龍爲單于元輔·都督禁衛諸軍事, 署前將軍李寒領司兵勳, 教國子擊刺戰射之法. 命記室佐明楷·程機撰上黨國記, 中大夫傅彪·賈蒲·江軌撰大將軍起居注, 參軍石泰·石同·石謙·孔隆撰大單于志. 自是朝會常以天子禮樂饗其羣下, 威儀冠冕從容可觀矣.”

59) 『晉書』卷108「慕容廆載記」, 2806쪽, “時二京傾覆, 幽冀淪陷, 廆刑政修明, 虛懷引納, 流亡士庶多襁負歸之. 廆乃立郡以統流人, 冀州人爲冀陽郡, 豫州人爲成周郡, 靑州人爲營丘郡, 并州人爲唐國郡. 於是推舉賢才, 委以庶政, 以河東裴嶷·代郡魯昌·北平陽耽爲謀主, 北海逢羨·廣平游邃·北平西方虔·渤海封抽·西河宋爽·河東裴開爲股肱, 渤海封弈·平原宋該·安定皇甫岌·蘭陵繆愷以文章才儻任居樞要, 會稽朱左車·太山胡毋翼·魯國孔纂以舊德清重引爲賓友, 平原劉讚儒學該通, 引爲東庠祭酒, 其世子皝率國胄束脩受業焉. 廆覽政之暇, 親臨聽之, 於是路有頌聲, 禮讓興矣.”

60) 『晉書』卷108「慕容廆載記」附裴嶷傳, 2811쪽, “裴嶷字文冀, 河東聞喜人也. 父昶, 司隸校尉. 嶷清方有幹略, 累遷至中書侍郎, 轉給事黃門郎·滎陽太守. 屬天下亂, 嶷兄武先爲玄菟太守, 嶷遂求爲昌黎太守. 至郡, 久之, 武卒, 嶷被徵, 乃將武子開送喪俱南. 旣達遼西, 道路梗塞, 乃與開投廆. 時諸流寓之士見廆草創, 並懷去就. 嶷首定名分, 爲羣士啓行. 廆甚悅, 以嶷爲長史, 委以軍國之謀.”

61) 『晉書』卷111「慕容皝載記」附陽鶩傳, 2860쪽, “陽鶩字士秋, 右北平無終人也. 父耽, 仕廆, 官至東夷校尉. 鶩少清素好學, 器識沈遠. 起家爲平州別駕, 屢獻安時強國之術, 事多納用, 廆甚奇之.”

62) 『晉書』卷109「慕容皝載記」附陽裕傳, 2828쪽, “陽裕字士倫, 右北平無終人也.”

63) 『晉書』卷109「慕容皝載記」, 2821쪽, “使陽裕·唐柱等築龍城, 構宮廟, 改柳城爲龍城縣.”; 『晉書』卷109「慕容皝載記」附陽裕傳, 2829쪽, “段遼之請迎於季龍也, 裕以左丞領征東麻秋司馬. 秋敗, 裕爲軍人所執, 將詣皝. 皝素聞裕名, 卽命釋其囚, 拜郎中令, 遷大將軍左司馬. 東破高句麗, 北滅宇文歸, 皆豫其謀, 皝甚器重之. 及遷都和龍, 裕雅有巧思, 皝所制城池宮閣, 皆裕之規模.”

64) 『晉書』卷111「慕容皝載記」附陽鶩傳, 2860쪽, “皝卽王位, 遷左長史. 東西征伐, 參謀帷幄. 皝臨終謂

恒⁶⁵⁾은 王朝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五行次 제정에 기여하였다.⁶⁶⁾ 慕容氏가 세운 前燕과 後燕은 변경시대부터 관계를 유지했던 幽州와 冀州 인사 등의 제후를 바탕으로 關東 지역⁶⁷⁾을 지배하였다. 이밖에 慕容氏 정권에 참여한 漢人官僚들은 前燕과 後燕이 중국 제도를 도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⁶⁸⁾

氏인이 주축이 되어 세운 前秦도 苻生 시기에 京兆郡 출신 王墮⁶⁹⁾가, 苻堅 시기에는 北海郡 출신 王猛⁷⁰⁾이 중용된 漢人官僚였다. 특히 王猛은 苻堅의 총애를 받았고⁷¹⁾ 前燕 정벌군 총사령관이 되어⁷²⁾ 前燕을 멸망시키는데 공헌하였고, 冀州牧이 되어 鄴에 남아 舊前燕 통치에 기여하였다.⁷³⁾ 이때 王猛은 便宜從事의 권한을 획득하였고 關東의 太守와 縣令을 皇帝의 허락없이 임명할 권리를 얻을 정도로⁷⁴⁾ 苻堅의 신임을 얻었다. 조정으로 돌아간

僞曰：‘陽土秋忠幹貞固，可託付大事，汝善待之。’僞之將圖中原也，驚制勝之功亞于慕容恪。”

65) 『晉書』卷110「慕容僞載記」附韓恒傳，2842쪽，“韓恒字景山，灌津人也。”

66) 『晉書』卷110「慕容僞載記」附韓恒傳，2843쪽，“僞僭位，將定五行次，衆論紛紜。恒時疾在龍城，僞召恒以決之。恒未至而羣臣議以燕宜承晉爲水德。既而恒至，言於僞曰：‘趙有中原，非唯人事，天所命也。天實與之，而人奪之，臣竊謂不可。且大燕王迹始自於震，於易，震爲青龍。受命之初，有龍見於都邑城，龍爲木德，幽契之符也。’僞初雖難改，後終從恒議。”

67) 關東은 函谷關 동쪽의 땅이란 뜻으로 山東과 같은 뜻이다. 黃河 중하류 지역을 지칭한다.

68) 小林聰, 「慕容政權의 支配構造의 特質-政治過程의 檢討と支配層의 分析을 通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16, 1988, 68-71쪽.

69) 『晉書』卷112「苻生載記」附王墮傳，2880쪽，“王墮字安生，京兆霸城人也。博學有雄才，明天文圖緯。苻洪征梁犢，以墮爲司馬，謂洪曰：‘讖言苻氏應王，公其人也。’洪深然之。及爲宰相，著匪躬之稱。健常歎曰：‘天下羣官皆如王令君者，陰陽曷不和乎！’甚敬重之。”

70) 『晉書』卷114「苻堅載記」下附苻堅傳，2929쪽，“王猛字景略，北海劇人也，家於魏郡。”

71) 『晉書』卷114「苻堅載記」下附苻堅傳，2931쪽，“遷尙書左丞·咸陽內史·京兆尹。未幾，除吏部尙書·太子詹事，又遷尙書左僕射·輔國將軍·司隸校尉，加騎都尉，居中宿衛。時猛年三十六，歲中五遷，權傾內外，宗戚舊臣皆害其寵。尙書仇騰·丞相長史席寶數譖毀之，堅大怒，黜騰爲甘松護軍，寶白衣領長史，爾後上下咸服，莫有敢言。頃之，遷尙書令·太子太傅，加散騎常侍。猛頻表累讓，堅竟不許。”

72) 『晉書』卷113「苻堅載記」上，2891쪽，“太和五年，又遣猛率楊安·張蚝·鄧羌等十將率步騎六萬伐暉。”

73) 『晉書』卷113「苻堅載記」上，2893쪽，“堅遂攻鄴，陷之。慕容暉出奔高陽，堅將郭慶執而送之。堅入鄴宮，閱其名籍，凡郡百五十七，縣一千五百七十九，戶二百四十五萬八千九百六十九，口九百九十八萬七千九百三十五。諸州郡牧守及六夷渠帥盡降於堅。郭慶窮追餘燼，慕容評奔於高句麗，慶追至遼海，句麗縛評送之。堅散暉宮人珍寶以賜將士，論功封賞各有差。以王猛爲使持節·都督關東六州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冀州牧，鎮鄴，以郭慶爲持節·都督幽州諸軍事·揚武將軍·幽州刺史，鎮薊。”

74) 『晉書』卷114「苻堅載記」下附苻堅傳，2931쪽，“時既留鎮冀州，堅遣猛於六州之內聽以便宜從事，簡

王猛은 丞相이 되었고 苻堅의 신임을 얻어 軍國·內外의 萬機를 모두 처리하였다.⁷⁵⁾ 『晉書』 卷114 「苻堅載記」下 附苻堅傳에서는

“王猛의 宰政은 公平하였고 녹만 축내는 관리들을 내쫓고 幽滯된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賢才를 현창하였다. 밖으로 무기를 정비하고 안으로는 儒學을 숭상하였다. 農桑을 勸課하였고, 廉恥를 가르쳤으며,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고 재능이 없으면 임명하지 않았으니 庶績이 모두 빛났고 百揆가 이때 차례대로 행해졌다. 이때 兵이 강하고 國이 부유했으며 升平에 미치게 된 것은 王猛의 능력 덕분이었다.”⁷⁶⁾

라고 하여 王猛이 前秦의 정치·행정·외교·군사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富國強兵을 실현하였음을 기술하였다. 苻堅과 王猛은 ‘漢化’된 胡族君主와 漢人 名臣이라는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羌人 姚氏가 세운 後秦에서는 天水郡 尹緯⁷⁷⁾가 姚萇이 前秦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참모로 활약하였고 많은 漢人이 정권에 참여하였다.⁷⁸⁾ 尹緯는 姚興과 함께 前秦의 잔여 세력인

召英雋，以補關東守宰，授訖，言臺除正。”

75) 『晉書』 卷114 「苻堅載記」下 附苻堅傳, 2932쪽, “俄入爲丞相·中書監·尚書令·太子太傅·司隸校尉, 持節·常侍·將軍·侯如故. …… 軍國內外萬機之務, 事無巨細, 莫不歸之.”

76) 『晉書』 卷114 「苻堅載記」下 附苻堅傳, 2932쪽, “猛宰政公平, 流放尸素, 拔幽滯, 顯賢才, 外修兵革, 內崇儒學, 勸課農桑, 教以廉恥, 無罪而不刑, 無才而不任, 庶績咸熙, 百揆時敘. 於是兵強國富, 垂及升平, 猛之力也.”

77) 『晉書』 卷118 「姚興載記」下, 3004쪽, “尹緯字景亮, 天水人也.”

78) 『晉書』 卷 116 「姚萇載記」, 2965-2966, “西州豪族尹詳·趙曜·王欽盧·牛雙·狄廣·張乾等率五萬餘家, 咸推萇爲盟主. 萇將距之, 天水尹緯說萇曰: ‘今百六之數旣臻, 秦亡之兆已見, 以將軍威靈命世, 必能匡濟時艱, 故豪傑驅馳, 咸同推仰. 明公宜降心從議, 以副羣望, 不可坐觀沈溺而不拯救之.’ 萇乃從謀諫, 以太元九年自稱大將軍·大單于·萬年秦王, 大赦境內, 年號白雀, 稱制行事. 以天水尹詳·南安龐演爲左右長史, 南安姚晃·尹緯爲左右司馬, 天水狄伯支·焦度·梁希·龐魏·任謙爲從事中郎, 姜訓·閻遵爲掾屬, 王據·焦世·蔣秀·尹延年·牛雙·張乾爲參軍, 王欽盧·姚方成·王破虜·楊難·尹嵩·裴騎·趙曜·狄廣·党刪等爲帥.”; 『晉書』 卷118 「姚興載記」下, 3004쪽, “及姚萇奔馬牧, 緯與尹詳·龐演等扇動羣豪, 推萇爲盟主, 遂爲佐命元功. 萇旣敗苻堅, 遣緯說堅, 求禪代之事. 堅問緯曰: ‘卿於朕何官?’ 緯曰: ‘尚書令史.’ 堅歎曰: ‘宰相之才也, 王景略之儔. 而朕不知卿, 亡也不亦宜乎!’”

苻登을 멸하고 後秦의 姚興이 關中 지역을 지배하는 공을 세웠다.⁷⁹⁾ 따라서 尹緯는 公侯에 봉해지고⁸⁰⁾ 姚萇의 廟에 배향되는 영광을 누렸다.⁸¹⁾ 尹緯이외에도 尙書郎 李嵩은 禮制를 상소하여 관철시켰다.⁸²⁾ 兵部郎 金城郡 사람 邊熙는 지나치게 엄격한 軍法을 완화하도록 주청하였다. 姚興은 이를 계기로 律學을 세우고 郡縣의 散吏를 불러 가르치도록 하였다.⁸³⁾ 李嵩과 邊熙는 각각 禮制와 법률 제정에 공헌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後趙의 石勒과 張賓(『晉書』卷105「石勒載記」下), 慕容廆와 裴嶷(『晉書』卷108「慕容廆載記」), 慕容皝과 陽裕(『晉書』卷109「慕容皝載記」), 慕容儁과 韓恒(『晉書』卷110「慕容儁載記」), 慕容暉와 陽鶩, 皇甫眞(『晉書』卷111「慕容暉載記」), 苻生과 王墮(『晉書』卷112「苻生載記」), 苻堅과 王猛(『晉書』卷114「苻堅載記」下), 姚興과 尹緯(『晉書』卷118「姚興載記」下)처럼 胡族君主와 漢人謀士의 조합이 載記와 附傳에 배열된 것은 五胡諸國에 漢人官僚들이 중용되었고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圖式으로 기록하고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2. 北朝의 漢人官僚와 西域人의 역할

五胡諸國의 하나였던 北魏는 夏·北涼·北燕·仇池 등을 정복하고 華北을 통일한 北魏

79) 『晉書』卷118「姚興載記」下, 3005쪽, “萇死, 緯與姚興滅苻登, 成興之業, 皆緯之力也.”

80) 『晉書』卷117「姚興載記」上, 2976쪽, “封征虜緒爲晉王, 征西碩德爲隴西王, 征南靖等及功臣 尹緯·齊難·楊佛嵩等並爲公侯, 其餘封爵各有差.”

81) 『晉書』卷118「姚興載記」下, 2997쪽, “興立昭儀齊氏爲皇后. 又下書以其故丞相姚緒·太宰姚碩德·太傅姚旻·大司馬姚崇·司徒尹緯等二十四人配饗於萇廟.”

82) 『晉書』卷117「姚興載記」上, 2977~2978쪽, “興母蛇氏死, 興哀毀過禮, 不親庶政. 羣臣議請依漢魏故事, 旣葬卽吉. 興尙書郎李嵩上疏曰:「三王異制, 五帝殊禮. 孝治天下, 先王之高事也, 宜遵聖性, 以光道訓. 旣葬之後, 應素服臨朝, 率先天下, 仁孝之舉也.」尹緯駁曰:「帝王喪制, 漢魏爲準. 嵩矯常越禮, 愆于軌度, 請付有司, 以專擅論. 旣葬卽吉, 乞依前議.」興曰:「嵩忠臣孝子, 有何咎乎? 尹僕射棄先王之典, 而欲遵漢魏之權制, 豈所望於朝賢哉! 其一依嵩議.」

83) 『晉書』卷117「姚興載記」上, 2980, “兵部郎金城邊熙上陳軍令煩苛, 宜遵簡約. 興覽而善之, 乃依孫吳誓衆之法以損益之. 興立律學于長安, 召郡縣散吏以授之. 其通明者還之郡縣, 論決刑獄. 若州郡縣所不能決者, 讞之廷尉. 興常臨諮議堂聽斷疑獄, 于時號無冤滯.”

와 東魏·北齊, 西魏·北周를 北朝라고 칭하여 宋·齊·梁·陳를 지칭하는 南朝와 구별한다. 본節에서는 北朝시대 漢人官僚와 西域人의 역할을 살펴본다.

北魏의 漢人官僚들이 胡族君主를 보필하여 ‘中原王朝’로 변모했다고 설명된다. 道武帝는 後燕의 中山城을 점령한 후 舊後燕의 漢人관료들을 등용하였고, 崔宏과 鄧淵·董謐·王德·晁崇 등은 官制·爵品·律呂·音樂·郊廟·社稷·朝覲·饗宴·律令·科禁·天象·渾儀 등 중국식 제도와 儀禮 등을 도입하였다.⁸⁴⁾ 그러나 이러한 중국식 제도 도입은 鮮卑귀족(胡族支配層)의 반발로 좌절되었다.⁸⁵⁾ 이후 北魏에서 중국식 제도가 본격적이고 근본적으로 도입되어 개혁된 시기는 孝文帝 시기였다. 孝文帝 시기의 개혁은 개혁주체에 따라 馮太后 섭정기와 孝文帝 친정기로 나뉜다. 馮太后는 文成帝 사후 獻文帝와 孝文帝 재위 시기 臨朝稱制를 하며 특히 孝文帝的 개혁 가운데 奉祿制·均田制·三長制 등 주요한 체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⁸⁶⁾ 孝文帝的 漢化政策 추진에 정신적·문화적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⁸⁷⁾ 그리고 이러한 체제개혁에는 李安世와 李沖 등 漢人官僚의 활약이 컸다.⁸⁸⁾ 또 孝文帝는 馮太后 사후 親政하면서 洛陽遷都를 비롯하여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때 南朝 南

84) 『魏書』卷2「太祖紀」天興元年十一月辛亥條, 33쪽, “十有一月辛亥, 詔尙書吏部郎中鄧淵典官制, 立爵品, 定律呂, 協音樂; 儀書郎中董謐撰郊廟·社稷·朝覲·饗宴之儀; 三公郎中王德定律令, 申科禁; 太史令晁崇造渾儀, 考天象; 吏部尙書崔玄伯總而裁.”

85) 何德章, 「北魏初年的漢化制度與天賜二年的倒退」, 『中國史研究』, 2001-2, 2001(K22, 2001-6), 17~26쪽.

86) 陳漢玉, 「也談北魏孝文帝的改革」, 『中國史研究』1982-4, 1982; 薛登, 「北魏改革」再探討, 『中國史研究』1984-2, 1984.

87) 何茲全, 「北魏文明太后」, 『北京師範大學學報』1961-4, 1961; 大澤陽典, 「馮后とその時代」, 『立命館文學』192, 1981; 劉精誠, 「馮太后臨朝稱制」, 『魏孝文帝傳』,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3; 覃主元, 「論北魏馮太后」, 『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4-2, 1994; 楊麗珍·武變珍, 「略論馮太后平城時期的政治經濟改革」,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21-1, 1994; 趙士田, 「馮太后·孝文帝改革芻議」, 『絲路學刊』1996-3, 1996; 檀新林, 「馮太后對北魏封建化的歷史作用」, 『歷史教學』1997-7, 1997; 李則芬, 「北魏的文明太后」, 『中國歷史論文集(上)』(從先秦到南北朝), 黎明出版, 1998; 管芙蓉, 「北魏政治女傑馮太后」, 『山西歷史文化叢書』(山西古籍出版社) 1, 1999; 黃英, 「試論北魏馮太后」, 四川大學碩士學位論文, 2005.3; 宋其蕤, 「中華第一女皇: 文明皇后馮氏」, 『北魏女主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88) 孝文帝 시기 李沖의 역할은 施光明, 「略論北魏政治改革家李沖的歷史地位」, 『內蒙古師大學報』3, 1985; 陳明, 「北魏後期的漢化與李沖等漢族士人」, 『儒學的歷史文化功能-士族: 特殊形態的知識分子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1997 참조.

齊에서 망명한 王肅이 官制 개혁에 기여하였고⁸⁹⁾ 劉芳과 함께 南朝의 禮制를 도입했다.⁹⁰⁾

다음으로 東魏北齊에 대해 살펴보자. 六鎮의 난 이후 河陰의 變과 尙朱氏의 권력장악과 尙朱榮의 피살, 孝莊帝의 피살 등 政局의 혼란 가운데 정권을 잡은 高歡은 關中의 宇文泰와 함께 北魏를 양분하였다. 高歡의 아들 高洋이 東魏의 孝靜帝로부터 皇帝의 자리를 이어 받아 北齊를 세웠다.⁹¹⁾

東魏시대 漢人官僚들은 관리의 감찰과 肅正에 종사하였다. 高歡의 아들 高澄은 군사력을 장악한 鮮卑勳貴들을 견제하기 위해 崔暹과 崔季舒 등 漢人官僚들을 중용하여 鮮卑勳貴들의 비리를 監察·糾劾·肅正하도록 하였다. 특히 高澄의 발탁으로 御史中尉가 된 崔暹과 尙書左丞이 된 宋遊道는 太師 咸陽王 元坦, 太保 孫騰, 司徒 高隆之, 司空 侯景, 錄尙書 元弼, 尙書令 司馬子如 등 권세있는 고관뿐만 아니라 尙書省의 豪吏 王儒의 무리를 탄핵하였다.⁹²⁾ 東魏·北齊 교체기에 漢人官僚들은 高澄과 高洋에게 篡位와 禪讓을 부추겼다. 특히 高德政·徐之才·宋景業 등 高洋 주변에 있던 漢人 寵臣들이 550년 四月 篡位를 종용하고 楊愔·魏收·邢邵 등 漢人文官들이 찬성하였다. 漢人官僚들은 北齊 건국 이후 官職과 권력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에 찬성하였다.⁹³⁾

감찰과 禪讓 이외에도 漢人官僚들은 각종 제도 제정에 참여하였다. 『隋書』 「禮儀志」와

89) 『南齊書』 卷57『魏虜傳』, 998쪽, “是年, 王肅爲虜制官品百司, 皆如中國. 凡九品, 品各有二. 肅初奔虜, 自說其家被誅事狀, 宏爲之垂涕. 以第六妹僞彭城公主妻之.”

90) 李書吉은 王肅과 劉芳이 北魏 禮制에 끼친 영향이 컸음을 인정했지만 이는 宣武帝 시기 혹은 宣武帝 이후의 일이라고 보았다. 즉 孝文帝 시기 王肅과 劉芳은 禮制 개혁에 참여했으나 南朝의 禮를 北魏에 이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李書吉, 『北朝禮制法系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2, 43쪽).

91) 東魏와 北齊는 별개의 王朝名을 지니지만, 高歡과 후손들이 통치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나라로 인식하는 학자들이 많다. 西魏와 北周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本稿에서는 東魏와 北齊를 ‘東魏北齊’로, 西魏와 北周는 ‘西魏北周’의 하나의 왕조로 보아 일률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92) 『北齊書』 卷47『酷吏·宋遊道傳』, 653쪽, “文襄執請, 乃以吏部郎中崔暹爲御史中尉, 以遊道爲尙書左丞. 文襄謂暹·遊道曰: ‘卿一人處南臺, 一人處北省, 當使天下肅然.’ 遊道入省, 劾太師咸陽王元坦·太保孫騰·司徒高隆之, 司空侯景·錄尙書元弼·尙書令司馬子如官資金銀, 催徵酬價, 雖非指事贓賄, 終是不避權豪. 又奏駁尙書違失數百條, 省中豪吏王儒之徒並鞭斥之. 始依故事, 於尙書省立門名, 以記出入早晚, 令僕已下皆側.”

93) 許福謙, 『東魏北齊胡漢之爭新說』, 『文史哲』 1993-3, 1993, 27원쪽 및 28원쪽;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1998, 184~185쪽.

「百官志」에 따르면 北齊는 건국직후에는 北魏부터 東魏까지 이어지는 제도의 대부분을 계승하였다.⁹⁴⁾ 그러나 『北齊書』와 『北史』를 자세히 살펴보면 東魏北齊시대에도 의례와 律令을 여러 차례 제정 혹은 개정하였고 대부분 漢人官僚들이 참여하였다.

먼저 東魏시대의 儀禮 제정에 대해 살펴보면, 侍中 西河王, 祕書監 常景이 儒學 10인을 뽑아 五禮를 緝撰하였다. 이때 李繪와 王義가 軍禮를 緝撰하였다.⁹⁵⁾ 이어서 高歡의 아들 高洋이 東魏 孝靜帝의 禪讓을 받아 즉위한 후 李渾과 陽休之가 禪讓의 儀注와 禮儀 제정에 참여하였다.⁹⁶⁾ 文宣帝 天保元년에 裴襄之는 儀注 제정에 참여하였다.⁹⁷⁾ 崔昂은 天保元年 太子少師 邢邵와 함께 儀禮를 議定하였으며, 尙書右僕射 薛琚 등 43인과 함께 領軍府에서 律令과 禮樂 議定을 주도하였다.⁹⁸⁾ 또 邢邵와 魏收는 文宣帝가 붕어한 후 吉凶禮儀를 정하는 일에 참여하였다.⁹⁹⁾ 孝昭帝 사후에는 儀曹郎 裴讞之는 歷代 故事와 儀注에 정통하여 喪禮를 裁正하였다.¹⁰⁰⁾ 武成帝 시기에도 崔瞻과 崔劼은 斛律氏를 太子妃로 맞아들일 때 婚禮儀注를 撰定하였다.¹⁰¹⁾ 이밖에 袁聿脩는 趙郡王 高叡 등과 함께 天統년간에 五禮를 議定하였다.¹⁰²⁾

다음으로 漢人官僚들은 법률의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東魏시대 麟趾格을 제정할 때 封

94) 『隋書』卷12「禮儀志」7, 280쪽, “齊文宣受禪之後, 警衛多循後魏之儀. 及河清中定令, 宮衛之制, 左右各有羽林郎十二隊.”; 『隋書』卷27「百官志」中, 751쪽, “後齊制官, 多循後魏, ……”

95) 『北齊書』卷29「李渾傳附繪傳」, 395쪽, “時勅侍中西河王·祕書監常景選儒學十人緝撰五禮, 繪與太原王義同掌軍禮.”

96) 『北齊書』卷29「李渾傳」, 394쪽, “以參禪代儀注, 賜爵涇陽縣男.”; 『北齊書』卷42「陽休之傳」, 562쪽, “尋以禪讓之際, 參定禮儀, 別封始平縣開國男, 以本官兼領軍司馬, 以本官兼領軍司馬.”

97) 『北齊書』卷35「裴襄之傳」, 466쪽, “齊受禪, 靜帝遜居別宮, 與諸臣別, 讓之流涕歔歔. 以參掌儀注, 封寧都縣男.”

98) 『北齊書』卷30「崔昂傳」, 411쪽, “其年, 與太子少師邢邵議定國初禮, 仍封華陽男. 又詔刪定律令, 損益禮樂, 令尙書右僕射薛琚等四十三人在領軍府議定.”

99) 『北齊書』卷36「邢邵傳」, 478쪽, “及文宣皇帝崩, 凶禮多見訊訪, 勅撰哀策. …… 博覽墳籍, 無不通曉, 晚年尤以五經章句爲意, 窮其指要. 吉凶禮儀, 公私諮稟, 質疑去惑, 爲世指南.”; 『北史』卷56「魏收傳」, 2033쪽, “及帝崩於晉陽, 驛召收及中山太守陽休之參議吉凶之禮, 并掌詔語.”

100) 『北齊書』卷35「裴讞之傳附讞之傳」, 467쪽, “昭帝梓宮將還鄴, 轉儀曹郎, 尤悉歷代故事·儀注, 喪禮皆能裁正.”

101) 『北齊書』卷23「崔劼傳附瞻傳」, 336쪽, “太子納妃斛律氏, 勅瞻與鴻臚崔劼撰定婚禮儀注. 仍面受別旨曰:「雖有舊事, 恐未盡善, 可好定此儀, 以爲後式.»”

102) 『北齊書』卷42「袁聿脩傳」, 565쪽, “天統中, 詔與趙郡王叡等議定五禮.”

隆之·李渾·崔暹·封述이 참여하였다.¹⁰³⁾ 崔昂은 北齊가 건국한 天保元年 尙書右僕射 薛琚 등 43인과 함께 律令을 刪定하였다.¹⁰⁴⁾ 魏收는 天保 8년에 律令 參修에 참여하였다.¹⁰⁵⁾ 刁柔도 文宣帝시기에 律令을 參議하였다.¹⁰⁶⁾ 그리고 河清 3년 錄尙書 趙彥深, 僕射 魏收, 尙書 陽休之, 國子祭酒 馬敬德, 封述 등이 律令을 議定하였다.”¹⁰⁷⁾

孝昭帝 즉위 이후 王晞는 孝昭帝의 명을 받들어 尙書 陽休之, 鴻臚卿 崔劼 등 3인과 함께 禮樂·職官·朝饗·輿服·田·市·舟車·徵稅·通塞·婚葬儀軌·貴賤齊衰 등 다방면에 걸친 개혁정책을 상주하였다.¹⁰⁸⁾ 王晞는 孝昭帝의 아들 高百年을 太子로 책봉하는데 깊이 관여하였다.¹⁰⁹⁾ 이밖에 楊愔¹¹⁰⁾과 魏收,¹¹¹⁾ 崔悛¹¹²⁾이 詔誥 등을 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漢人官僚 이외에도 西域人들이 北齊에서 出仕하였다. 이들은 각종 制度의 제정에 참여

103) 『北齊書』卷21「封隆之傳」, 302쪽, “詔隆之參議麟趾閣, 以定新制.”; 『北齊書』卷29「李渾傳」, 394쪽, “刪定麟趾格.”; 『北齊書』卷30「崔暹傳」, 403쪽, “後遷左丞·吏部郎, 主議麟趾格.”; 『北齊書』卷43「封述傳」, 573쪽, “天平中, 增損舊事爲麟趾新格, 其名法科條, 皆述刪定.”

104) 『北齊書』卷30「崔昂傳」, 411쪽, “其年, 與太子少師邢邵議定國初禮, 仍封華陽男. 又詔刪定律令, 損益禮樂, 令尙書右僕射薛琚等四十三人在領軍府議定.”

105) 『北史』卷56「魏收傳」, 2030쪽, “[天保]八年夏, 除太子少傅, 監國史. 復參修律令.”

106) 『北齊書』卷44「儒林·刁柔傳」, 586쪽, “又參議律令.”

107) 『北齊書』卷43「封述傳」, 573쪽, “河清三年, 勅與錄尙書趙彥深·僕射魏收·尙書陽休之·國子祭酒馬敬德等議定律令.”

108) 『北齊書』卷31「王昕傳附晞傳」, 420~421쪽, “乾明元年八月, 昭帝踐祚, 詔晞曰: ‘何爲自同外客, 略不可見. 自今假非局司, 但有所懷, 隨宜作一牒, 候少隙即徑進也.’ 因勅尙書陽休之·鴻臚卿崔劼等三人, 每日本職務罷, 並入東廊, 共舉錄歷代廢禮墜樂·職司廢置·朝饗異同·輿服增損. 或道德高雋, 久在沉淪; 或巧言眩俗, 妖邪害政; 爰及田市舟車·徵稅通塞·婚葬儀軌·貴賤齊衰, 有不便於時而古今行用不已者, 或自古利用而當今毀棄者: 悉令詳思, 以漸條奏, 未待頓備, 遇憶續聞. 朝哺給與御食, 畢景聽還.”

109) 呂春盛, 『北齊政治史研究-北齊衰亡原因之考察』,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委員會, 1987, 222쪽;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1998, 187~188쪽.

110) 『北齊書』卷34「楊愔傳」, 455쪽, “于時霸圖草創, 軍國務廣, 文檄教令, 皆自愔及崔悛出.” 左同, 462쪽, “濟南嗣業, 任遇益隆, 朝章國命, 一人而已, 推誠體道, 時無異議.”

111) 『北史』卷56「魏收傳」, 2030쪽, “時齊將受禪, 楊愔奏收置之別館, 令撰禪代詔冊諸文, 遣徐之才守門, 不聽出.”; 『北史』卷56「魏收傳」, 2033쪽, “及帝崩於晉陽, 驛召收及中山太守陽休之參議吉凶之禮, 并掌詔誥.”

112) 『北齊書』卷23「崔悛傳」, 335쪽, “悛歷覽羣書, 兼有詞藻, 自中興立後, 迄於武帝, 詔誥表檄多悛所爲.”

하는 것보다 北齊 皇帝에 영합하였다. 西域人들은 北齊皇帝들의 弄臣·近倖으로 활동하였으며, 西域의 음악과 舞蹈·雜技百戲로 北齊皇帝들을 사로잡았다.¹¹³⁾ 이들은 예능의 재능으로 출세하여 ‘恩倖’이라 불린다. 北齊時代 西域과 관련된 恩倖은 和士開와 河洪珍처럼 西域商胡·胡人樂工·龜茲雜伎 등 西域출신 소수민족과 陸令萱·穆提婆·高阿那肱·韓鳳 등 西胡化한 宦官·官奴·蒼頭·歌舞人·見鬼人의 두 유형이다.¹¹⁴⁾ 韓鳳과 高阿那肱은 北齊政權 성립기에 공헌한 가문출신이므로 北族系 恩倖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¹⁵⁾ 이 가운데 和士開는 琵琶와 握槊으로 武成帝에게 중용되었고,¹¹⁶⁾ 後主 시기에 당시 최고의 鮮卑실력자인 高淹과 斛律光 두 사람을 주살하는 공작을 주도하였다.¹¹⁷⁾ 이밖에 西域人들은 北齊軍에 편입되어 名弓手로 활약하거나,¹¹⁸⁾ 商胡로서 외교사절에 동행하여 비단과 진주 무역에 종사하였고,¹¹⁹⁾ 官과 결탁하여 淮南의 州縣에서 고리대를 자행하기도 하였다.¹²⁰⁾

이어서 西魏·北周 치하 漢人官僚의 예를 살펴보자. 京兆郡 출신 蘇綽은 西魏의 실력자 宇文泰를 도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기여하였다. 蘇綽은 처음으로 文案程式과 計帳·戶籍之法을 만들었으며, 官員을 줄이고 二長을 두었으며 屯田을 설치하였다. 또 六條詔書

113) 許福謙, 「東魏北齊胡漢之爭新說」, 『文史哲』 1993-3, 1993, 27오른쪽. 北齊時代 西域人의 활동은 陳寅恪, 「北齊의 鮮卑化及西胡化」,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北京: 黃山書社, 1987;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1998 참조.

114)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201쪽.

115) 岩本篤志, 「齊俗」と‘恩倖’-北齊社會の分析-, 『史滴』 18, 1996, 54쪽.

116) 『北齊書』 卷50 「恩倖·和士開傳」, 686쪽, “和士開, 字彥通, 清都臨漳人也. 其先西域商胡, 本姓素和氏. …… 天保初, 世祖封長廣王, 辟士開府行參軍. 世祖性好握槊, 士開善於此戲, 由是遂有斯舉. 加以傾巧便僻, 又能彈胡琵琶, 因此親狎. 嘗謂王曰: ‘殿下非天人也, 是天帝也.’ 王曰: ‘卿非世人也, 是世神也.’ 其深相愛如此.”; 『北史』 卷92 「恩幸·和士開傳」, 3043쪽, “天保初, 武成封長廣王, 辟士開開府行參軍. 武成好握槊, 士開善此戲, 由是遂有斯舉. 加以傾巧便僻, 又能彈胡琵琶, 因致親寵.”

117)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1998, 191~192쪽.

118) 『陳書』 卷31 「蕭摩訶傳」, 409~410쪽, “時齊遣大將尉破胡等率衆十萬來援, 其前隊有‘蒼頭’·‘犀角’·‘大力’之號, 皆身長八尺, 膂力絕倫, 其鋒甚銳. 又有西域胡, 妙於弓矢, 弦無虛發, 衆軍尤憚之.”

119) 『北齊書』 卷9 「後主穆后傳」, 128쪽, “屬周武遭太后喪, 詔侍中薛孤·康買等爲弔使, 又遣商胡齋錦綵三萬疋與弔使同往, 欲市真珠爲皇后造七寶車, 周人不與交易, 然而竟造焉.”

120) 『北齊書』 卷42 「盧潛傳」, 556쪽, “諸商胡負官責息者, 宦者陳德信縱其妄注淮南富家, 令州縣徵責.”

를 만들어 상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¹²¹⁾ 뿐만 아니라 蘇綽은 大統 15년에 宇文泰가 올린 二十四條와 十二條 新制를 손질하여 五卷의 中興永式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인재를 郡守와 縣令으로 임용하고 新制에 따라 파견하도록 하니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생각하였다.¹²²⁾ 蘇綽이 제안한 六條 가운데 “擢賢良”, “卹獄訟”, “均賦役”은 지방관의 소질을 향상시켰고 행정효율과 수준을 높였으며, 百姓의 賦役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공헌하였다.¹²³⁾ 蘇綽은 西魏의 國用이 부족하자 征稅之法을 만들었다. 이에 財政收入이 증액되어 재정곤란 문제는 해결되었다.¹²⁴⁾

또 蘇綽은 范陽郡 출신 盧辯과 함께 『周禮』에 기반한 官制를 입안하였다.¹²⁵⁾ 또 蘇綽과 盧辯이 참여한 체제 개혁은 宇文泰의 府兵制,¹²⁶⁾ 胡姓再行,¹²⁷⁾ 關隴本位政策¹²⁸⁾과 함께 西

121) 『周書』卷23「蘇綽傳」, 382쪽 및 391쪽, “始制文案程式, 朱出墨入, 及計帳·戶籍之法. …… 太祖方欲革易時政, 務弘疆國富民之道, 故綽得盡其智能, 贊成其事. 減官員, 置二長, 并置屯田以資軍國. 又爲六條詔書, 奏施行之. …… 太祖甚重之, 常置諸座右. 又令百司習誦之. 其牧守令長, 非通六條及計帳者, 不得居官.”

122) 『周書』卷2「文帝紀」下 大統九年秋七月條, 28쪽, “秋七月, 魏帝以太祖前後所上二十四條及十二條新制, 方爲中興永式, 乃命尙書蘇綽更損益之, 總爲五卷, 班於天下. 於是搜簡賢才, 以爲牧守令長, 皆依新制而遣焉. 數年之間, 百姓便之.”

123) 張文華·蘇小華, 「西魏北周的財政與政治」, 『求索』2006-11, 2006, 206원쪽-206오른쪽.

124) 『隋書』卷41「蘇威傳」, 1185쪽, “初, 威父在西魏, 以國用不足, 爲征稅之法, 頗稱爲重.”

125) 『周書』卷2「文帝紀」下 恭帝三年春正月丁丑條, 36쪽, “三年春正月丁丑, 初行周禮, 建六官. 以太祖爲太師·大冢宰, 柱國李弼爲太傅, 大司 徒趙貴爲太保, 大宗伯獨孤信爲大司馬, 于謹爲大司寇, 侯莫陳崇爲大司空. 初, 太祖以漢魏官繁, 思革前弊. 大統中, 乃命蘇綽·盧辯依周制改創其事, 尋亦置六卿官, 然爲撰次未成, 衆務猶歸臺閣. 至是始畢, 乃命行.”

126) 陳寅恪, 『隋唐制度淵源略論稿』, 三聯書店, 1954;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朴漢濟, 「西魏北周的賜姓與鄉兵的府兵化」, 『歷史研究』1993-4, 1993.

127) Albert E Dien, “The Restowal of Sumame under the Western Wei-Northern Chou”, *Toung Pao*, vol LVIII 2-3, 1976; 濱口重國, 「西魏に於ける虜姓再行の事情」, 『秦漢隋唐史の研究』下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0; 宇和川哲也, 「西魏·北周の胡姓賜與」, 『人文論究』34-3, 關西學院大學人文學會, 1984; 朴漢濟, 「西魏北周時代胡姓의 重行與胡漢體制-向“三十六國九十九姓”姓氏體制回歸의 目的和邏輯-」, 『北朝研究』1993-2(總第11期), 1993; 朴漢濟, 「西魏·北周時代 胡漢體制의 展開-胡姓再行의 經過와 그 意味-」, 『魏晉隋唐史研究』1, 1994; 山下將司, 「西魏·恭帝元年“賜姓”政策의 再檢討」, 『早稻田大學教育學部學術研究-地理學·歷史學·社會科學篇-』45(第四分冊), 2000; 李文才, 「試論西魏北周時期的賜·復胡姓」, 『民族研究』2001-3, 2001; Albert E Dien, “The Restowal of Sumame under the Western Wei-Northern Chou”, *Toung Pao*, vol LVIII 2-3, 1976; 佐川英治, 「孝武西遷と國姓賜與-六世紀華北の民族と政治」, 『岡山大學文學部紀要』38, 2002.

128) 陳寅恪, 「宇文氏之府兵及關隴集團(附鄉兵)」,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北京: 黃

魏北周가 병력과 경제력을 열세를 딛고 東魏北周에 승리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3. 征服王朝의 漢人官僚·色目人の 역할

征服王朝는 遼·金·元·淸을 지칭한다.¹²⁹⁾ 그런데 본고에서 다룰 契丹(遼)와 몽골(元)이 중국본토를 지배하기 이전에 漢人官僚나 色目人이 활동하였다. 현재 契丹과 몽골은 征服王朝로 분류하기 때문에 本節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먼저 契丹이다. 契丹의 건국과 팽창 과정에서도 漢人官僚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契丹의 耶律阿保機는 遙輦氏의 마지막 카간 痕德堇 시기에 夷離堇(irkin)이 되어 軍事權을 장악하고 奚·室韋·于厥 등 주변의 유목부족과 女真人·漢人 등 정주민을 공격하여 많은 수의 포로를 松漠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契丹 영내로 도망친 漢人들을 받아들였다. 이 漢人들은 ‘漢城’이라 불리는 성곽을 만들고 수공업과 농경에 종사하였고 소금을 생산하였다. 耶律阿保機는 漢人과 漢城이 만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八部大人을 살해한 후 916년 遼를 세워 天皇帝라 자칭하였다.¹³⁰⁾

契丹은 목축에 종사했으나 나라를 세운 이후 안으로 宗廟와 朝廷, 밖으로 郡縣牧守를 설치하고 制度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경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定住農耕民들이 다수 거주하는 五京과 長春·遼西·平州에 鹽鐵·轉運·度支·錢帛 등 경제와 관련된 관청을 세웠고 農穀·租賦·鹽鐵·貿易·坑冶·泉幣·羣牧 등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¹³¹⁾ 이러한

山書社, 1987; 山下將司, 「西魏·北周における本貫の關隴化について」, 『早稻田大學教育學部學術研究-地理學·歷史學·社會科學篇-』 49, 2000.

129) 征服王朝의 개념은 Wittfogel & Feng Chia-D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1949 참조.

130) 金浩東,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中國史』 Ⅲ, 지식산업사, 1989, 246~247쪽.

131) 『遼史』 卷59 「食貨志」上, 923쪽, “契丹舊俗, 其富以馬, 其強以兵. 縱馬於野, 弛兵於民. 有事而戰, 曠騎介夫, 卯命辰集. 馬逐水草, 人仰漣酪, 挽強射生, 以給日用, 糗糧芻茭, 道在是矣. 以是制勝, 所向無前. 及其有國, 內建宗廟朝廷, 外置郡縣牧守, 制度日增, 經費日廣, 上下相師, 服御浸盛, 而食貨之用斯爲急矣. 於是五京及長春·遼西·平州置鹽鐵·轉運·度支·錢帛諸司, 以掌出納. 其制數差等

경제 문제 가운데 賦稅의 제도는 耶律阿保機의 심복이었던 韓延徽가 만들었다.¹³²⁾ 幽州 安次縣 출신인 韓延徽¹³³⁾는 耶律阿保機에 등용되어 政事令 崇文館大學士에 임명되어 中외의 사무에 參決하였다.¹³⁴⁾ 韓延徽는 財政과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冊禮를 제정하였고¹³⁵⁾ 契丹(遼)의 여러 제도, 특히 都邑과 宮殿의 건설, 君臣관계의 정립, 名分의 설정, 법제 제정 등 통치체제를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佐命功臣이 되었다.¹³⁶⁾ 韓延徽와 함께 佐命功臣이 되었던 薊州 玉田縣 사람인 韓知古¹³⁷⁾는 아들 韓匡嗣 덕분에 신임을 얻어 耶律阿保機의 측근이 되었고 漢兒司의 사무를 총괄하였고, 諸國 禮儀를 주관하였다. 또 韓知古는 典故과 國俗(契丹의 풍속)을 참조하여 漢儀와 섞어 儀法을 제정하였다.¹³⁸⁾ 요컨대 韓延徽와 韓知古가 耶律阿保機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契丹의 경제와 의례 등 국가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기틀을 갖추는데 공헌하였다.

다음으로 몽골제국에 대해 살펴보자. 몽골인에 영향을 준 사람은 위구르인이었다.¹³⁹⁾ 위

雖不可悉，而大要散見舊史。若農穀·租賦·鹽鐵·貿易·坑冶·泉幣·羣牧，逐類採摭，緝而爲篇，以存一代食貨之略。”

132) 『遼史』卷59「食貨志」上, 926쪽, “夫賦稅之制, 自太祖任韓延徽, 始制國用。”

133) 『遼史』卷74「韓延徽傳, 1231쪽, “韓延徽, 字藏明, 幽州安次人。”

134) 『遼史』卷74「韓延徽傳, 1231쪽, “居久之, 慨然懷其鄉里, 賦詩見意, 遂亡歸唐。已而與他將王緘有隙, 懼及難, 乃省親幽州, 匿故人王德明舍。德明問所適, 延徽曰: ‘吾將復走契丹。’德明不以爲然。延徽笑曰: ‘彼失我, 如失左右手, 其見我必喜。’既至, 太祖問故。延徽曰: ‘忘親非孝, 棄君非忠。臣雖挺身逃, 臣心在陛下。臣是以復來。’上大悅, 賜名曰匡列。‘匡列’, 遼言復來也。即命爲守政事令·崇文館大學士, 中外事悉令參決。”

135) 『遼史』卷74「韓延徽傳, 1231~1232쪽, “天祿五年六月, 河東使請行冊禮, 帝詔延徽定其制, 延徽奏一遵太宗冊晉帝禮, 從之。”

136) 『遼史』卷74「韓延徽傳, 1232쪽, “太祖初元, 庶事草創, 凡營都邑, 建宮殿, 正君臣, 定名分, 法度井井, 延徽力也。爲佐命功臣之一。”

137) 『遼史』卷74「韓知古傳, 1233쪽, “韓知古, 薊州玉田人。……天顯中卒, 爲佐命功臣之一。”

138) 『遼史』卷74「韓知古傳, 1233쪽, “其子匡嗣得親近太祖, 因間言。太祖召見與語, 賢之, 命參謀議。神冊初, 遙授彰武軍節度使。久之, 信任益篤, 總知漢兒司事, 兼主諸國禮儀。時儀法疏闊, 知古援據典故, 參酌國俗, 與漢儀雜就之, 使國人易知而行。”

139) 위구르는 840년 키르키즈의 공격을 받고 수도 카라발가순이 함락되고 카간이 살해되어 타격을 받고 붕괴하였다. 위구르는 지배집단의 내부 결속력이 약해지고 탄저병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몽골 초원에 퍼져 목축경제가 붕괴하였기 때문에 몽골고원을 버리고 카를룩·吐蕃·安西·漢南·契丹 등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320~353쪽). 이때 서쪽으로 이주한 위구르 집단은 방 테긴의 지휘 아래 베쉬발릭(北庭)을 점령하고 울두스 초원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이

구르인들은 몽골의 지배층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위구르인 타타통가는 칭기스칸의 아들들에게 위구르어와 문자를 가르쳤다. 그리고 위구르문자를 사용한 위구르인들은 몽골 정부에 관리로 등용되었고, 위구르 문자와 문화를 몽골인들에게 전파시켰다. 일부 위구르인들은 몽골인과 통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몽골인과 위구르인의 집단적인 공생관계는 양쪽에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¹⁴⁰⁾

주로 위구르를 지칭한 色目人은 몽골인과 중국인 이외의 사람들을 통칭한다. 종래에 色目人은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본래는 諸色目人의 준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티벳·위구르·킵차·칸글리·알란·무슬림(이란과 아랍계통)·유럽인이 여기에 속했다. 기존에는 색목인이 몽골·색목인·漢人·南人의 4등급 민족차별의 두 번째 등급의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사법적 처리의 기준으로 구분된 개념이었다.¹⁴¹⁾ 몽골제국은 단일한 種族과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풍습과 다양한 문화를 보장하면서 제국의 통치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인구가 많은 중국인들에게 경계심을 가졌기 때문에 色目人을 관료로 중용하였다. 中書省(행정총괄)과 樞密院(군사기밀 담당), 御史臺(감찰) 등의 최고위직은 몽골인과 함께 色目人이 차지하였다. 色目人 가운데 킵차·알란·칸글리 사람들은 군사에서, 위구르인들은 재정과 문서행정에서, 티벳인들은 불교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정치·경제·문화 다방면에서 활약하였고 이슬람권의 선진 의학·천문학·지리학 지식을 전달해 주었다.¹⁴²⁾

시기별로 살펴보면 칭기스칸과 우구데이 치세에 위구르인을 비롯한 定住農耕民 혹은 定住農耕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행정업무에 종사하였다. 몽골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에는

를 거점으로 투르판 분지와 輪臺·하미·엔치를 정복하여 天山위구르왕국(高昌위구르왕국이라고도 함)을 세웠다. 天山위구르 왕국의 왕족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생활을 하였지만, 오아시스 도시와 농촌에 관개 시설을 만들고 농경과 수공업을 장려하였다. 위구르인 일부는 지주나 농민, 상인이 되어 몽골 고원을 지배하던 위구르제국과 달리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하였다. 이 天山위구르는 카라키타이(西遼)에 종속되었다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에 칭기스칸이 몽골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몽골에 복속하였다. 그리고 위구르의 군주는 칭기스칸 일족의 駙馬가 되었다(고마즈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156~164쪽).

140) 고마즈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156~164쪽.

141) 船田善之, 「元朝治下の色目人について」, 『史學雜誌』 108-9, 1999, 43~68쪽.

142)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159~162쪽.

우구데이의 부하 이르게이 노얀이 지휘하는 서기국이 있었다. 서기국에는 위구르인인 친카이(鎭海)를 수반으로 제국 서방의 財政과 行政을 주로 담당하는 호레즘 출신의 마흐무드 알라바치, 동방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契丹人 耶律楚材와 女真人 粘合重山이 근무하였다. 이들은 페르시아어 사료에는 ‘바지르’, 한문기록에는 ‘宰相’으로 기록되어 영향력있는 高官으로 기록되었으나 몽골인들은 그들을 쓰는 사람, 즉 書記를 뜻하는 비칙치라고 불렀다.¹⁴³⁾

『集史』에서는 자주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漢文史料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 耶律楚材이다. 耶律楚材는 契丹人이었지만¹⁴⁴⁾ 여러 책들을 두루 섭렵하여 天文·地理·律曆·術數·釋·老·醫·卜 등에 정통하였다.¹⁴⁵⁾ 그리고 漢人과 漢文化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에 漢文 史書에서는 ‘漢化된 契丹人’으로 묘사되었고 몽골제국의 漢地 관련 일을 맡았다. 耶律楚材는 우구데이 원년(1229) 河北 漢民에 대한 賦調 징수를 주관하였고,¹⁴⁶⁾ 儒學 진흥¹⁴⁷⁾과 五戶絲 分封,¹⁴⁸⁾ 科擧制度 실시와 儒士 등용,¹⁴⁹⁾ 羊羔兒利라 불리는

143) 스키야마 마사아키 지음,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 『몽골 세계제국』, 65~66쪽. 몽골시대 비칙치는 坂本勉, 「モンゴル帝國における必闡赤=bitikçi-憲宗メングの時代を中心として-」, 『史學』 42-4, 1970 참조.

144)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3455쪽, “耶律楚材字晉卿, 遼東丹王突欲八世孫.”

145)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3455쪽, “楚材生三歲而孤, 母楊氏教之學. 及長, 博極羣書, 旁通天文·地理·律曆·術數及釋老·醫卜之說, 下筆爲文, 若宿構者.”

146) 『元史』 卷2 「太宗紀」, 元年秋八月己未條, 29~30쪽, “命河北漢民以戶計, 出賦調, 耶律楚材主之; 西域人以丁計, 出賦調, 麻合沒的滑刺西迷主之.”

147)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3459쪽, “楚材又請遣人入城, 求孔子後, 得五十一代孫元措, 奏襲封衍聖公, 付以林廟地. 命收太常禮樂生, 及召名儒梁陟·王萬慶·趙著等, 使直釋九經, 進講東宮. 又率大臣子孫, 執經解義, 俾知聖人之道. 置編修所於燕京·經籍所於平陽, 由是文治興焉.”

148)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3460~3461쪽, “秋七月, 忽都虎以民籍至, 帝議裂州縣賜親王功臣. 楚材曰: ‘裂土分民, 易生嫌隙. 不如多以金帛與之.’ 帝曰: ‘已許奈何?’ 楚材曰: ‘若朝廷置吏, 收其貢賦, 歲終頒之, 使毋擅科徵, 可也.’ 帝然其計, 遂定天下賦稅, 每二戶出絲一斤, 以給國用; 五戶出絲一斤, 以給諸王功臣湯沐之資. 地稅, 中田每畝二升又半, 上田三升, 下田二升, 水田每畝五升; 商稅, 三十分而一; 鹽價, 銀一兩四十斤. 既定常賦, 朝議以爲太輕, 楚材曰: ‘作法於涼, 其弊猶貪, 後將有利利進者, 則今已重矣.’”

149)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3461쪽, “丁酉, 楚材奏曰: ‘制器者必用良工, 守成者必用儒臣. 儒臣之事業, 非積數十年, 殆未易成也.’ 帝曰: ‘果爾, 可官其人.’ 楚材曰: ‘請校試之.’ 乃命宣德州宣課使劉中隨郡考試, 以經義·詞賦·論分爲三科, 儒人被俘爲奴者, 亦令就試, 其主匿弗遣者死. 得士凡四千三十

고리대 금지, 도량형 통일, 符印 지급, 鈔法·均輸·遞傳·驛券 제도 정비¹⁵⁰⁾ 등 각종 제도 정비에 기여하였다. 또 女真人 粘合重山¹⁵¹⁾과 함께 官制와 法制的 입안, 인재의 등용, 행정 구역 정비, 課賦·漕運·國用(財政) 정비 등을 관장하였다.¹⁵²⁾ 또 耶律楚材는 賞罰의 주관과 名分 正定, 俸祿 지급, 功臣에게 관직 제수, 바른 인사고과, 균등한 科差, 工匠의 선발, 農桑 장려, 土貢 제정, 漕運 정비 등 時務十策을 주창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¹⁵³⁾ 뿐만 아니라 耶律楚材의 가장 큰 공적은 華北 지역의 牧地 전환을 막은 것이다. 『元史』「耶律楚材傳」에는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近臣 別迭 등이 ‘漢人是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있으니 漢人들을 비워 그 땅을 牧地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耶律楚材는 ‘陛下께서 장차 南伐하려고 하십니다. 軍需는 마땅히 비용이 갖춰져야 합니다. 진실로 中原의 地稅·商稅·鹽·酒·鐵冶·山澤의 이익을 均定하면 해마다 가히 銀 50萬兩과 帛 8萬匹, 粟 40餘萬石을 얻어 풍족히 供給할 수 있으니 어찌 도움이 안된다고 하십니까?’라고 반박하였다. 帝(우구데이)는 ‘卿이 朕을 위해 시행해보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상주하여 燕京等十路徵收課稅使를 설치하고 모든 관청의 장관과 차관은 모두 土人을 등용하였다. 예컨대 陳時可와 趙昉 등은 모두 寬厚한 長者였다. 天下의 인재를 잘 뽑았고 參佐는 모두 省部의 舊人을 등용하였다. 辛卯年(1231) 秋, 帝가 雲中에 이르렀을 때, 十路는 모두 廩籍과 金帛을 바쳐 廷中에 늘어놓았다. 帝는 웃으며 耶律楚材에게 ‘너는 朕의 左右를 떠나

人, 免爲奴者四之一.”; 『元史』卷81「選舉志」1, 2015쪽, “元初, 太宗始得中原, 輒用耶律楚材言, 以科舉選士. 世祖既定天下, 王鶚獻計, 許衡立法, 事未果行. 至仁宗延祐間, 始斟酌舊制而行之, 取士以德行為本, 試藝以經術爲先, 士襃然舉首應上所求者, 皆彬彬輩出矣.”; 『元史』卷81「選舉志」1 科目條, 2017쪽, “太宗始取中原, 中書令耶律楚材請用儒術選士, 從之.”

150) 『元史』卷146「耶律楚材傳」, 3461쪽, “先是, 州郡長吏, 多借賈人銀以償官, 息累數倍, 曰羊羔兒利, 至奴其妻子, 猶不足償. 楚材奏令本利相侔而止, 永爲定制, 民間所負者, 官爲代償之. 至一衡量, 給符印, 立鈔法, 定均輸, 布遞傳, 明驛券, 庶政略備, 民稍蘇息焉.”

151) 『元史』卷146「粘合重山傳」, 3465쪽, “粘合重山, 金源貴族也. 國初爲質子, 知金將亡, 遂委質焉.”

152) 『元史』卷146「粘合重山傳」, 3466쪽, “立中書省, 以重山有積勳, 授左丞相. 時耶律楚材爲右丞相, 凡建官立法, 任賢使能, 與夫分郡邑, 定課賦, 通漕運, 足國用, 多出楚材, 而重山佐成之.”

153) 『元史』卷146「耶律楚材傳」, 3462쪽, “楚材因陳時務十策, 曰: 信賞罰, 正名分, 給俸祿, 官功臣, 考殿最, 均科差, 選工匠, 務農桑, 定土貢, 制漕運, 皆切於時務, 悉施行之.”

지 않고도 능히 國用을 充足하게 하였다. 南國(金)의 신하들 가운데 卿과 같은 자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耶律楚材는 ‘南國의 신하들은 모두 臣보다 현명합니다. 臣은 재주가 없기 때문에 燕에 머물러 陛下에게 등용된 것입니다.’ 帝는 耶律楚材의 겸손함을 가상히 여겨 술을 하사하였다. 그날 中書令에 拜하고 사안의 大小와 상관없이 모두 먼저 아뢰도록 하였다.”¹⁵⁴⁾

위의 인용문은 유목민이 정주농경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우구테이의 近臣들이 농경지대인 黃河 유역의 경제적 가치를 간과하고 黃河 유역에서 漢人들을 내쫓은 후 농경지를 가축들을 기르는 牧地로 만들자고 건의하였다. 耶律楚材는 농경지역이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역설하고 地稅와 商稅를 징수하고 鹽·酒·鐵冶·山澤의 專賣 이익을 거두면 銀 50萬兩과 帛 8萬匹, 粟 40餘萬石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0路에서 바친 회계장부와 물자가 우구테이가 방문했던 雲中에 도착하자 耶律楚材의 말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耶律楚材의 능력을 인정받아 수석재상인 中書令에 임명되었다.¹⁵⁵⁾ 그러나 『元史』 「粘合重山傳」에는 耶律楚材가 右丞相으로 임명되었다고 기록하였다.¹⁵⁶⁾ 같은 사료에서 耶律楚材의 官名이 中書令과 右丞相으로 달리 기록된 것이 이상하다.

漢文사료에 재상으로 기록된 耶律楚材는 칭기스칸 시대에 占師의 한 사람에 불과하였고 우구테이 시기에 河北·山西·山東 지역의 文教와 稅收 분야를 담당하였다. 耶律楚材는 中書令을 자칭하고 粘合重山과 함께 ‘中書相公’이라 호칭하였으나 『集史』를 비롯한 페르시아

154)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3458쪽, “近臣別迭等言: ‘漢人無補於國, 可悉空其人以爲牧地.’ 楚材曰: ‘陛下將南伐, 軍需宜有所資, 誠均定中原地稅·商稅·鹽·酒·鐵冶·山澤之利, 歲可得銀五十萬兩·帛八萬匹·粟四十餘萬石, 足以供給, 何謂無補哉?’ 帝曰: ‘卿試爲朕行之.’ 乃奏立燕京等十路徵收課稅使, 凡長貳悉用土人, 如陳時可·趙昉等皆寬厚長者, 極天下之選, 參佐皆用省部舊人. 辛卯秋, 帝至雲中, 十路咸進廩籍及金帛陳于廷中, 帝笑謂楚材曰: ‘汝不去朕左右, 而能使國用充足, 南國之臣, 復有如卿者乎?’ 對曰: ‘在彼者皆賢於臣, 臣不才, 故留燕, 爲陛下用.’ 帝嘉其謙, 賜之酒. 即日拜中書令, 事無鉅細, 皆先白.”

155) 『元史』 卷2 「太宗紀」, 三年秋八月條, 31쪽, “以耶律楚材爲中書令, 粘合重山爲左丞相, 鎮海爲右丞相.”

156) 『元史』 卷146 「粘合重山傳」, 3466쪽, “立中書省, 以重山有積勳, 授左丞相. 時耶律楚材爲右丞相, 凡建官立法, 任賢使能, 與夫分郡邑, 定課賦, 通漕運, 足國用, 多出楚材, 而重山佐成之.”

어 역사책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서기국에서 漢文 문서는 耶律楚材와 粘合重山이 작성했지만 수반인 친카이가 문서의 말미에 위구르문자로 ‘簽書’하지 않으면 무효였다. 서기국의 실제 권력자는 친카이였고, 耶律楚材는 친카이에 비하면 별볼일 없는 존재였다.¹⁵⁷⁾ 실제 『元史』 「耶律楚材傳」에 따르면 庚寅年에 정한 課稅格은 甲午年에 河南을 평정한 이후 戊戌年에는 課銀이 110萬兩으로 증가하였다. 이때 譯史 安天습이 친카이(鎮海)에 아부하여 세금을 늘리도록 사주하였다. 이때 耶律楚材는 반대했으나 위구르데이는 耶律楚材의 말을 듣지 않았다. 耶律楚材는 “백성들의 곤궁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한탄하였다.¹⁵⁸⁾ 이 기록은 친카이(鎮海)가 耶律楚材보다 정치적 발언권이 컸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元史』의 기록과는 달리 ‘漢化된’ 耶律楚材보다 위구르인 등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이 더 컸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몽케 카안은 漢地와 중앙아시아에 측근을 파견하여 각지의 軍政大權을 접수하여 관리하였다. 그리고 알라바치(Mahmūd Yalavach) 등을 수뇌로 삼아 燕京等處行尙書省·別失八里(Beshbaliq)等處行尙書省·阿母河(Amu darya)等處行尙書省을 세워 漢地와 중앙아시아의 통치를 강화하였다.¹⁵⁹⁾

‘元’이라는 중국식 국호를 채택했던 쿠빌라이는 南宋을 정복하고 許衡·姚樞·劉秉忠 등 漢人官僚를 등용하였다. 쿠빌라이가 카안(중국식으로는 皇帝)가 되기 전부터 섬겼던 姚樞는 中統 4년(1263) 몽골제국의 영토인 河北에서 半독립 상태였던 漢人世侯를 없애고 지방관을 설치할 것을 주청하였다.¹⁶⁰⁾ 또 姚樞는 至元 10년(1273) 禮儀를 정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右丞相 安童과 知樞密院事 伯顏이 南宋 정복을 반대할 때 姚樞는 至元 11년(1274) 南宋 정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南宋 정복후 南宋의 鞭背·黥面·諸濫刑을 없

157) 스키야마 마사아키 지음,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1999, 66~67쪽.

158) 『元史』 卷146 「耶律楚材傳」, 3463쪽, “自庚寅定課稅格, 至甲午平河南, 歲有增羨, 至戊戌課銀增至一百一十萬兩. 譯史安天습者, 諂事鎮海, 首引奧都刺合蠻撲買課稅, 又增至二百二十萬兩. 楚材極力辨諫, 至聲色俱厲, 言與涕俱. 帝曰: 「爾欲搏鬪耶?」 又曰: 「爾欲爲百姓哭耶? 姑令試行之.」 楚材力不能止, 乃歎息曰: 「民之困窮, 將自此始矣!」

159) 周良霄, 『忽必烈』,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86.

160) 『元史』 卷158 「姚樞傳」, 3714쪽, “[中統]四年, 拜中書左丞, 奏罷世侯, 置牧守.”

앨 것을 주청하였다.¹⁶¹⁾ 姚樞처럼 즉위 전부터 쿠빌라이를 섬겼던 許衡은 至元 6년(1269) 太常卿 徐世隆과 함께 朝儀 제정에 참여하였다. 또 太保 劉秉忠, 左丞 張文謙과 함께 官制를 제정하고 필요없는 관직을 줄였다.¹⁶²⁾ 이밖에 許衡은 몽골(元)의 공식 달력인 授時曆을 만드는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⁶³⁾ 원래 불교승려였던¹⁶⁴⁾ 劉秉忠은 쿠빌라이를 섬겨 上都(開平)와 수도 大都의 宗廟·宮室의 건축, 국호 大元, 章服·朝儀·俸祿·官制를 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⁶⁵⁾ 『元史』는 許衡·姚樞·劉秉忠 등 漢人官僚들이 특히 ‘元’¹⁶⁶⁾의 제도를 만드는데 공헌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漢人뿐만 아니라 다

161) 『元史』卷158「姚樞傳」, 3715~3716쪽, “[至元]十年, 拜昭文館大學士, 詳定禮儀事. 其年, 襄陽下, 遂議取宋. 樞奏如求大將, 非右丞相安童·知樞密院伯顏不可. 十一年, 樞言: ‘陛下降不殺人之詔. 伯顏濟江, 兵不踰時, 西起蜀川, 東薄海隅, 降城三十, 戶踰百萬, 自古平南, 未有如此之神捷者. 今自夏徂秋, 一城不降, 皆由軍官不思國之大計, 不體陛下之深仁, 利財剽殺所致. 揚州·焦山·淮安, 人殊死戰, 我雖克勝, 所傷亦多. 宋之不能爲國審矣, 而臨安未肯輕下, 好生惡死, 人之常情, 蓋不敢也, 惟懼吾招徠止殺之信不堅耳. 宜申止殺之詔, 使賞罰必立, 恩信必行, 聖慮不勞, 軍力不費矣.’ 又請禁宋鞭背·黥面及諸濫刑.”

162) 『元史』卷158「許衡傳」, 3726쪽, “[至元]六年, 命與太常卿徐世隆定朝儀, 儀成, 帝臨觀, 甚悅. 又詔與太保劉秉忠·左丞張文謙定官制, 衡歷考古今併統屬之序, 去其權攝增置冗長側置者, 凡省部·院臺·郡縣與夫后妃·儲藩·百司所聯屬統制, 定爲圖.”

163) 『元史』卷158「許衡傳」, 3728~3729쪽, “國家自得中原, 用金大明曆, 自大定是正後六七十年, 氣朔加時漸差. 帝以海宇混一, 宜協時正日. [至元]十三年, 詔王恂定新曆. 恂以爲曆家知曆數而不知曆理, 宜得衡領之, 乃以集賢大學士兼國子祭酒, 教領太史院事, 召至京. 衡以爲冬至者曆之本, 而求曆本者在驗氣. 今所用宋舊儀, 自汴還至京師已自乖舛, 加之歲久, 規環不叶. 乃與太史令郭守敬等新製儀象圭表, 自丙子之冬日測晷景, 得丁丑·戊寅·己卯三年冬至加時, 減大明曆十九刻二十分, 又增損古歲餘歲差法, 上考春秋以來冬至, 無不盡合. 以月食衝及金木二星距驗冬至日躔, 校舊曆退七十六分. 以日轉遲疾中平行度驗月離宿度, 加舊曆三十刻. 以線代管闕測赤道宿度. 以四正定氣立損益限, 以定日之盈縮. 分二十八限爲三百三十六, 以定月之遲疾. 以赤道變九道定月行. 以遲疾轉定度分定朔, 而不用平行度. 以日月實合時刻定晦, 而不用虛進法. 以躔離朏定交食. 其法視古皆密, 而又悉去諸曆積年月日法之傳會者, 一本天道自然之數, 可以施之永久而無弊. 自餘正訛完闕, 蓋非一事. [至元]十七年, 曆成, 奏上之, 賜名曰授時曆, 頒之天下.”

164) 『元史』卷157「劉秉忠傳」, 3687쪽, “劉秉忠字仲晦, 初名侃, 因從釋氏, 又名子聰, 拜官後始更今名.”

165) 『元史』卷157「劉秉忠傳」, 3693~3694쪽, “初, 帝命秉忠相地於桓州東灤水北, 建城郭于龍岡, 三年而畢, 名曰開平. 繼升爲上都, 而以燕爲中都. 四年, 又命秉忠築中都城, 始建宗廟宮室. 八年, 奏建國號曰大元, 而以中都爲大都. 他如頒章服, 舉朝儀, 給俸祿, 定官制, 皆自秉忠發之, 爲一代成憲.”

166) 쿠빌라이가 ‘元’이라는 국호를 정한 이후 쿠빌라이가 지배하는 몽골고원과 중국본토, 티벳, 운남, 만주, 중앙아시아 지역을 元의 영토라 하여 金帳汗國(킵차크한국), 일한국, 차가다이올루스(차가다이한국)과 별도의 나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金浩東 교수에 따르면 ‘元’은 몽골제국의 중

양한 관료들을 등용하였다. 元의 최고 행정기관인 中書省은 다양한 種族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다.¹⁶⁷⁾ 이처럼 中書省을 비롯한 중앙관청에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었고 이 때문에 통역과 번역관이 상주하였다. 이는 漢人官僚뿐만 아니라 위구르인과 몽골인 등 다양한 種族이 행정업무에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쿠빌라이는 무슬림인 아흐마드를 중용하였다. 쿠빌라이는 南宋 정벌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당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儒士들은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정사무에 능한 아흐마드가 중용되었다. 아흐마드의 재정정책의 골자는 交鈔발행량의 증가, 官府 지출의 엄격한 조사와 회계, 增稅 등 세가지였다.¹⁶⁸⁾ 그러나 다른 연구에 따르면 鐵의 제조를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和糴을 실시하여 곡물비축량을 증가시키고 소금 전매 등의 방법으로 정부수입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도 한다.¹⁶⁹⁾ 1275년 長江에 도달해 南宋 멸망을 앞둔 시점 南宋정복 사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서 아흐마드는 中統交鈔를 1:50의 비율로 舊南宋지역에 통용시킬 것을 주장하고 鹽·鐵·약초의 專賣 실시, 轉運司의 설치 등의 재정정책을 취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姚樞 등 漢人官僚들이 반발하였다. 아흐마드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漢人也 다수 등용하였다. 아흐마드와 가까웠던 동료 張易, 아흐마드의 천거로 1273년 中書左丞이 된 張惠는 漢人관료였다. 또 아흐마드는 많은 漢人관료를 등용·승진시켰고, 이들은 尙書省에서 다수를 점하였다. 아흐마드와 상가의 뒤를 이어 재무관료가 된 盧世榮도 商人출신의 중국인이었다.¹⁷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몽골제국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관리에 임명되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였다. 몽골인들은 정복과 국가형성 단계에서 정주사회의 정치적 산물뿐만 아니라 문

국식 왕조 명칭이었고, 金帳汗國(킵차크한국), 일한국, 차가다이올루스도 대칸의 지배를 받음과 동시에 半독립적인 느슨한 연방을 유지했다고 한다. 즉 元과 汗國이 별도의 국가가 아니라 양자가 몽골 제국이라는 것이다(金浩東,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2006).

167) 崔珍烈, 『쿠빌라이 시기 皇太子制度와 그 성격』,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27집, 2003, 10~12쪽.

168) 周良霄, 『忽必烈』,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86, 171~174쪽.

169) H. Franke, “Ahmad”, Edited by Igor de Rachewiltz, etc, *In The Service Of The Khan: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üan Period(1200~1300)*, Göttingen, Harrassowitz Verlag · Wiesbaden, 1993, 540~541쪽.

170) H. Franke, “Ahmad”, 544~546쪽 및 555~556쪽.

화적 자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외래 문물에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부단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기술·지식·학문을 소유한 전문가들을 끌어 모아 일족끼리 공유·분배·교환하였다.¹⁷¹⁾ 이 가운데 쿠빌라이는 통상지향적인 국가를 추구하였고 카이두와의 전쟁을 비롯하여 잦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위구르와 무슬림 출신의 유능한 財政관료를 중용하였다.

IV. 유목국가 · 이민족왕조의 정주문물 수용 반발

1. 유목국가 지배층의 정주문물 반발

1章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목민들은 주변 定住農耕民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풍속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계하였다. 아래에서 이러한 예를 살펴보자.

北魏의 전신인 代는 현재의 山西 북부 지역을 지배했지만 몽골고원과 漠南을 지배했던 유목국가였다. 大鮮卑山에서 유래한 拓跋部는¹⁷²⁾ 推寅 시기에 大澤으로 이주하였고¹⁷³⁾ 詰汾 시기에는 匈奴의 故地로 이동하였다.¹⁷⁴⁾ 祿官 시기에 拓跋部는 西晉과 통교하였고 騎兵 40餘萬을 거느린 강국이 되었다. 猗盧는 并州 북부인 雲中·五原·朔方을 지배하고 匈奴와 烏桓諸部를 공격하여 영토와 領民을 넓혔다.¹⁷⁵⁾ 이처럼 拓跋部(代國)이 발전하면서 원시유

171)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196~202쪽.

172) 『魏書』卷1「序紀」, 1쪽, “昔黃帝有子二十五人, 或內列諸華, 或外分荒服, 昌意少子, 受封北土, 國有大鮮卑山, 因以爲號.”

173) 『魏書』卷1「序紀」宣皇帝條, 2쪽, “宣皇帝諱推寅立. 南遷大澤, 方千餘里, 厥土昏冥沮洳. 謀更南徙, 未行而崩.”

174) 『魏書』卷1「序紀」聖武皇帝條, 2쪽, “聖武皇帝諱詰汾. 獻帝命南移, 山谷高深, 九難八阻, 於是欲止. 有神獸, 其形似馬, 其聲類牛, 先行導引, 歷年乃出. 始居匈奴之故地.”

175) 『魏書』卷1「序紀」昭皇帝條, 5~6쪽, “昭皇帝諱祿官立, 始祖之子也. 分國爲三部: 帝自以一部居東, 在上谷北, 濡源之西, 東接宇文部; 以文帝之長子桓皇帝諱猗包統一部, 居代郡之參合陂北; 以桓帝之弟穆皇帝諱猗盧統一部, 居定襄之盛樂故城. 自始祖以來, 與晉和好, 百姓乂安, 財畜富實, 控弦騎士四十餘萬. 是歲, 穆帝始出并州, 遷雜胡徙雲中·五原·朔方. 又西渡河擊匈奴·烏桓諸部. 自杏

목 공동체사회에서 부족연합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拓跋部는 중국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중국의 三國時代 魏에 인질로 끌려갔던 神元皇帝 力微의 아들 沙漠汗은¹⁷⁶⁾ 귀국 후에 諸部大人 앞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西晉에서 들여온 彈丸을 발사하여 떨어뜨렸다. 이를 본 諸部大人들은 西晉의 선진문물에 익숙한 沙漠汗을 두려워하여 암살하였다.¹⁷⁷⁾ 이 일화는 諸部大人을 비롯한 유목민 세력이 西晉의 정주문물의 수용에 경계심을 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猗廬시기에는 烏丸과 晉人(중국인)이 拓跋部에 포함되면서 猗廬에 의해 등용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다. 猗廬가 정변으로 사망한 후 烏丸과 晉인이 집단으로 남쪽으로 달아났다. 이는 선진문물을 지닌 晉인과 烏丸을 받아들여 국가발전을 꾀했던 군주 猗廬와 이를 반대한 拓跋部の 구세력의 新舊 대결로 해석된다. 즉 拓跋部の 지배층 다수는 중국 문물의 수용에 저항하였고 수용의 매개자인 烏丸과 晉人(중국인)에 대항하였다.¹⁷⁸⁾

拓跋部(代國)와는 달리 突厥과 위구르의 지배층들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定住農耕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향유하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突厥(정확히는 突厥第二帝國)¹⁷⁹⁾의 빌게 카간은 727년에 唐으로부터 絹 10만필을 받는 등 부를 축적하자 초원에 도시 건설을 계획하였다. 이때의 대화가 『新唐書』 『突厥傳』 下에 있다.

城以北八十里，迄長城原，夾道立碣，與晉分界。”

176) 『魏書』 卷1 「序紀」 文皇帝條, 4쪽, “文皇帝諱沙漠汗, 以國太子留洛陽, 爲魏賓之冠. 聘問交市, 往來不絕, 魏人奉遺金帛綰絮, 歲以萬計. 始祖與隣國交接, 篤信推誠, 不爲倚伏以要一時之利, 寬恕任真, 而遐邇歸仰. 魏晉禪代, 和好仍密. 始祖春秋已邁, 帝以父老求歸, 晉武帝具禮護送.”

177) 『魏書』 卷1 「序紀」 文皇帝條, 4~5쪽, “五十八年, 方遣帝. 始祖聞帝歸, 大悅, 使諸部大人詣陰館迎之. 酒酣, 帝仰視飛鳥, 謂諸大人曰: ‘我爲汝曹取之.’ 援彈飛丸, 應弦而落. 時國俗無彈, 衆咸大驚, 乃相謂曰: ‘太子風采被服, 同於南夏, 兼奇術絕世, 若繼國統, 變易舊俗, 吾等必不得志, 不若在國諸子, 習本淳樸.’ 咸以爲然. 且離間素行, 乃謀危害, 並先馳還. 始祖問曰: ‘我子旣歷他國, 進德何如?’ 皆對曰: ‘太子才藝非常, 引空弓而落飛鳥, 是似得晉人異法怪術, 亂國害民之兆, 惟願察之.’ 自帝在晉之後, 諸子愛寵日進, 始祖年踰期頤, 頗有所惑, 聞諸大人之語, 意乃有疑. 因曰: ‘不可容者, 便當除之.’ 於是諸大人乃馳詣塞南, 矯害帝.”

178) 唐長孺, 「拓跋國家的建立及其封建化」, 『魏晉南北朝史論叢』, 三聯書店, 1955, 194~201쪽.

179) 土門이 세운 突厥帝國은 頡利可汗 재위시 唐에 망하였다. 이후 默啜이 唐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突厥帝國을 재건하였다. 이를 突厥第二帝國이라 한다.

“默棘連 빌게 카간이 또한 城郭을 세워 도읍을 삼고, 佛寺와 道觀을 세우고자 하자 噉欲谷(톤유쿠키)이 ‘突厥의 무리는 唐의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지만, 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물과 풀을 따라 사냥을 하고 사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며 싸우는 일을 익혀 강하면 나아가서 뺏고 약하면 달아나 숨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唐兵이 비록 많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약 城郭에 살게 되어 싸워서 한 번이라도 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은 사람을 어질고 약하게 만드니 힘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¹⁸⁰⁾

톤유쿠크는 唐文化의 영향을 받아 성곽도시를 세우면 도망가서 적을 교란시키는 전략을 세울 수 없고 한 번의 패배로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전략적 약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佛寺와 道觀을 세우면 突厥인들이 나약해져 전투력이 약해진다고 주장하였다.¹⁸¹⁾ 톤유쿠크로 대표되는 일부 突厥 지배층은 정주적 문화의 도입이 초원의 유목문화를 변질시키고 突厥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위구르인들이 唐과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은 이미 2節에서 살펴보았다. 교역뿐만 아니라 唐의 문화도 위구르에 유입되었다. 예컨대 758년 唐 肅宗의 친딸 寧國公主와 결혼한 위구르의 카를룩 카간은 公主를 따라온 소그드인과 중국인을 위해 바이발릭(富貴城)을 세웠다. 이는 위구르에서 활동한 소그드인과 중국인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거주지를 건설한 것이다. 소그드 상인들이 위구르에서 활동하면서 정주농경문화가 도입되었다. 이는 위구르가 카라발가순(오르두 발릭)이라 불린 성곽도시를 만들고 마니교를 유입한 배경이 되었다.¹⁸²⁾ 『資治通鑑』 卷226 「唐紀」 42 德宗建中元年(780)六月條에는 이때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80) 『新唐書』 卷215下 「突厥傳」 下, 6052쪽, “默棘連又欲城所都, 起佛·老廟, 噉欲谷曰: 「突厥衆不敵唐百分一, 所能與抗者, 隨水草射獵, 居處無常, 習於武事, 彊則進取, 弱則遁伏, 唐兵雖多, 無所用也. 若城而居, 戰一敗, 必爲彼禽. 且佛·老教人仁弱, 非武彊術. 」”

181) 톤유쿠크의 말이 정주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주적 요소는 돌궐 내부의 체제를 정비한 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丁載勳, 突厥第二帝國시대(682~745) 톤유쿠크의 역할과 그 위상-“톤유쿠크 비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47, 1994, 52~53쪽).

182) 丁載勳,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178쪽 및 198~227쪽.

“처음에 回紇(위구르)의 풍속이 질박했고 君臣 사이의 차이가 심하거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무리들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으니 勁健하고 당할 수 없었다. ① 唐에 功을 세워 唐이 물자를 후하게 하사하자 登里可汗(텡그리카간)은 비로소 스스로를 尊大하고 宮殿을 세워 婦人을 거주하게 하였고 화장을 하고 文繡로 치장하였다. 中國(唐)은 回紇(위구르) 때문에 재정을 허비하였고 虜俗(위구르의 풍속)도 역시 무너졌다.”(강조는 필자)¹⁸³⁾

원문의 ① 唐에 功을 세워(“及有功於唐”) 부분은 위구르 카간이 唐 肅宗의 請兵을 받아들여 위구르 군대를 보내 安史의 난 때 長安과 洛陽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지칭한다. 이후 唐과의 교역 물자 혹은 唐朝廷의 下賜品이 위구르에 들어와서 文繡(무늬있는 비단)로 치장하고 宮殿을 세우는 등 唐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위구르의 유목적 習俗이 무너졌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登里可汗(텡그리카간), 즉 당시의 靺鞨 카간이 宮殿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위구르는 都城에 해당하는 카라발가순(오르두 발릭)과 富貴城(바이발릭) 등 성곽도시를 축조하였다.¹⁸⁴⁾ 여기에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宮殿을 축조한 사실을 보면 이동식 천막에서 거주했던 위구르인들이 定住 農耕民의 주거인 성곽과 宮殿을 건축한 것은 唐의 중국인이나 소그드인 등 定住社會에서 온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구르의 성곽도시 건설이 반드시 정주화 혹은 ‘漢化’(중국어화)는 아니었다.¹⁸⁵⁾ 그러나 『資治通鑑』의 기록처럼 위구르가 唐이라는 定住農耕文化를 받아들여 순수

183) 『資治通鑑』 卷226 「唐紀」42 德宗建中元年六月條, 7282쪽, “初, 回紇風俗朴厚, 君臣之等不甚異, 故衆志專一, 勁健無敵. 及有功於唐, 唐賜遺甚厚, 登里可汗始自尊大, 築宮殿以居婦人, 有粉黛文繡之飾; 中國爲之虛耗, 而虜俗亦壞.”

184) 丁載勳,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178쪽.

185) 바필드에 따르면, 위구르의 都城 카라발가순의 모델은 唐, 즉 중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소그디아나의 도시였다. 중국은 농경문화에 바탕을 두었지만,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준 페르시아(이란) 세계에서는 유목민과 농경민이 공존하였다. 즉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농경민이 사는 마을·도시와 교역을 하거나 지배하면서 성곽도시에 익숙하였다. 위구르인들이 정주 성곽도시를 만든 것은 교역품을 보관하고 상인들을 불러들여 임시 숙소나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며 조정의 회의를 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성곽도시의 역할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성곽도시의 축조는 정주농경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목민들의 교역과 창고 등 필요 때문에 만든 것이다(토마스 바필드 지음,

한 유목문화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하다. 유목국가의 지배층에게 중국과 중앙아시아과 교역이 경제력 확충에 도움이 되었고 선진적인 定住農耕문화가 문화적 수준을 높인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정주농경문화가 지나쳐서 유목사회를 변질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했고,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 갈등을 겪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몽골제국에 대해 살펴보자. 쿠빌라이가 아우 아릭부케와 싸워 이겨 몽골제국의 카안이 된 후 중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大都를 건설하였다.¹⁸⁶⁾ 이러한 쿠빌라이의 정책에 대해 西北諸王은 사신을 보내 쿠빌라이의 정책에 반발하였다. 『元史』卷125 「高智耀傳」에는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이때 西北諸王이 사신을 보내 入朝하여 ‘本朝의 舊俗은 漢法과 다릅니다. 지금 漢地에 머물러 都邑과 城郭을 세우고, 儀文制度를 만들며 漢法을 遵用하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¹⁸⁷⁾

위의 인용문에서 西北諸王은 바투 울루스(金帳汗國)와 우구데이 울루스, 차가다이 울루스 등 쿠빌라이의 ‘대칸의 울루스’에 복속되지 않고 독립한 칭기스칸의 후손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쿠빌라이가 大都를 세우고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자 몽골의 풍속이 中國과 다를 을 지적하면서 쿠빌라이가 정주화(大都의 건설)와 중국 제도의 수용을 비난하였다. 특히 초원 유목민의 습속을 유지했던 차가다이 울루스와 바투 울루스(金帳汗國)에 속한 몽골인들은 정주사회의 풍습이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습과 제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쿠빌라이에 이질감 혹은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윤영인 옮김, 『위태로운 변경』, 329~334쪽; 朴漢濟, 「遊牧國家와 城郭」, 429~430쪽.

186) 『元史』卷6 「世祖紀」 3 至元四年春正月戊午條, 114쪽, “城大都.”

187) 『元史』卷125 「高智耀傳」, 3073쪽, “會西北諸王遣使入朝, 謂: 「本朝舊俗與漢法異, 今留漢地 建都邑 城郭, 儀文制度, 遵用漢法, 其故何如。」”

2. 중국제도 도입의 한계: 胡漢分治와 胡俗 유지

2章 1節과 2節에서 五胡諸國과 北朝時代에 胡族君主의 참모로 활약하거나 제도 개혁에 참여한 漢人官僚의 예를 살펴보았다. 漢人官僚들은 胡族君主들에게 중국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거나 제도의 입안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五胡諸國과 北朝時代에는 이민족들이 華北지방을 지배했다고 해도 중국의 제도만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유목민이 주축이 된 이민족과 定住農耕民인 漢人들을 하나의 제도로 통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西晉을 멸망시킨 漢(前趙)의 劉聰은 국가를 유지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

(가) “左·右司隸를 설치하여 각각 20여만 戶를 관할하게 하고, 1만 戶마다 內史 1인을 두어 대략 內史 43개를 설치하였다. 單于左右輔가 각각 六夷 10만 부락을 주관하고, 일만 부락마다 도위(都尉) 1인을 설치하였다.”¹⁸⁸⁾

(나) “單于臺를 渭城에 설치하여 大單于를 받들게 하고, 左右賢王 이하를 설치하되 모두 胡·羯·鮮卑·氐·羌의 豪傑로써 우두머리에 임명하였다.”¹⁸⁹⁾

인용문 (가) 『晉書』 「劉聰載記」와 (나) 「劉曜載記」의 기록을 정리하여 漢(前趙)의 통치방식을 살펴보자. 첫째, 單于臺에서 胡人을 관할하였다. 單于臺 아래에는 左·右單于輔가 있고, 單于輔는 六夷 部落을 통제하였다. 둘째, 皇帝 아래에 左·右司隸가 설치되었고 하부에 郡이 두어지고 內史가 임명되어 漢人 編戶를 관장하였다. 양자를 종합하면 漢(前趙)은 胡族 부락계통은 전쟁을 담당하고 漢族 編戶 계통은 생산활동(농경과 길쌈)을 맡는 二重統治體制로 통치하였다. 이를 胡漢分治라고 한다.¹⁹⁰⁾ 後趙도 漢(前趙)과 유사한 胡漢分治체제를

188) 『晉書』 卷102 「劉聰載記」, 2665쪽, “置左右司隸, 各領戶二十餘萬, 萬戶置一內史, 凡內史四十三. 單于左右輔, 各主六夷十萬落, 萬落置一都尉.”

189) 『晉書』 卷103, 「劉曜載記」, 2698쪽, “置單于臺于渭城, 拜大單于, 置左右賢王已下, 皆以胡·羯·鮮卑·氐·羌豪傑爲之.”

190) 五胡諸國의 胡漢分治는 陳寅恪, 「胡族的漢化及胡漢分治」,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

취하였다. 즉 內史(封內)와 郡縣(24郡), 單于部落制(羯人 이외의 소수민족)로 나누어 漢人과 胡人을 통치하였다.¹⁹¹⁾

胡漢分治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목민 등 이민족들이 사는 지역은 漢人들을 통치하는 州郡縣이라는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통제했다. 이를 軍鎮제도라고 한다. 軍鎮制度는 軍鎮을 설립하여 居民을 통치하는 제도로 군사조직과 행정통치방식이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며 군사통치가 지방행정계통을 대체하는 제도였다.¹⁹²⁾

五胡前期의 軍鎮은 州郡과 동등한 지방행정조직으로 인정되었고, 軍鎮은 兵戶를 주로 통할하였지만 일반 民戶는 거느리지 않았다. 그런데 軍鎮 설치는 임시적이며 고정적이지는 않았다. 즉 군사적 필요에 따라 설치하였다. 그러나 五胡後期, 즉 華北을 통일한 前秦이 붕괴한 이후에 등장한 五胡諸國의 軍鎮은 나라마다 달랐다. 後秦의 軍鎮은 十六國前期와 달랐다. 정식으로 “軍鎮”이란 용어가 등장하였고, 軍鎮의 설립 지역은 長安 등 도읍지나 요지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軍鎮의 장관은 兵뿐만 아니라 民도 통할하였다.¹⁹³⁾ 또 軍鎮에 속하는 鎮戶가 존재하였다.¹⁹⁴⁾ 夏(赫連夏)는 통치구역 안에 郡縣을 세우지 않고 軍鎮이 戶를統領하였다.¹⁹⁵⁾ 河西回廊에 위치한 後涼·南涼·北涼에는 苑圍가 있었다. 이 가운데 東苑은 平民과 兵戶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국가는 東苑을 軍이 民이 거느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東苑은 軍鎮의 성질을 지녔다고 보기도 한다.¹⁹⁶⁾

軍鎮과 함께 五胡十六國·北朝時代에 나타난 胡人 통치조직이 護軍이었다. 護軍은 이미

錄, 北京: 黃山書社, 1987; 閔旭梅, 「十六國胡漢分治門題試析」, 首都師範大學碩士卒業論文, 2003. 5; 郭曉華, 「試論十六國時期胡漢分治的幾個問題」, 四川大學碩士學位論文, 2006.4; 陳勇, 「漢趙國胡與屠各異同考-兼說漢趙國的胡漢分治-」, 『漢趙史論稿』, 北京: 商務印書館, 2009 참조.

191) 高敏, 「十六國時期的軍鎮制度」,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1999, 257쪽.

192) 周一良, 「北朝的民族問題旅民族政策」, 『周一良集』第一卷(魏晉南北朝史論), 瀋陽: 遼陽教育出版社, 1998; 高敏, 「十六國時期的軍鎮制度」, 255쪽.

193) 高敏, 「十六國時期的軍鎮制度」, 259~262쪽.

194) 唐長孺, 「晉代北境各族『變亂』的性質及五胡政權在中國的統治」, 『魏晉南北朝史論叢』, 三聯書店, 1955, 166쪽.

195) 唐長孺, 「晉代北境各族『變亂』的性質及五胡政權在中國的統治」, 167쪽; 高敏, 「十六國時期的軍鎮制度」, 263~264쪽.

196) 高敏, 「十六國時期的軍鎮制度」, 264~266쪽.

曹魏時代에 보이며, 前涼·前秦·後秦·西涼·北涼·後涼·南涼·西秦·夏·仇池에서도 존재하였다. 護軍은 郡級 행정단위와 縣級 행정단위로 나뉘며, 軍職 명칭일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이었다. 그리고 護軍은 일정한 지역을 실제 통할하는 軍政·軍民合一의 통치기구였다.¹⁹⁷⁾

이 가운데 前秦·後秦 護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護軍은 軍職 명칭이지만 지방장관의 명칭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洪亮吉의 『十六國疆域志』에 따르면 前秦의 北地郡은 “領縣三, 護軍一(三原護軍)”이라 하여 護軍이 縣級 행정구역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前秦의 護軍은 郡級·縣級 두 가지가 있었다. ② 護軍은 郡縣처럼 실제의 관할 지역을 가졌다. ③ 護軍은 軍政·軍民 합일의 조직 기구와 통치방식이었다. ④ 護軍은 대개 漢人이 아닌 이민족 관할을 관할하였기 때문에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조직이었다.¹⁹⁸⁾ 그런데 軍鎮과 護軍, 특히 후자는 關隴과 河西回廊 지역에 밀집하였다.¹⁹⁹⁾

北魏에서도 이민족을 통제하는 鎮과 護軍이 지방행정조직으로 남아 있었다. 平城 서·북 지역, 漢人 지역, 鮮卑와 기타 피정복 소수민족 지역에 鎮을 두어 통치하였다. 각 鎮의 통할 범위가 넓고 수 州 兼督하기도 하여 鎮將의 권한은 자사보다 높았다. 護軍은 郡이나 縣級 행정구역으로 역시 피정복 이민족을 통제하는 기구였다.²⁰⁰⁾ 護軍은 太安 3년(457)에 郡으로 편제되었다.²⁰¹⁾

五胡諸國·北朝時代에는 胡人을 대상으로 한 지방행정조직뿐만 아니라 胡人을 별도의 戶籍으로 등록하였다. 五胡諸國과 北朝의 이민족들은 대개 兵戶로 편제되었다. 兵戶는 軍戶·鎮戶·府戶·鎮民·城民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民戶와 별도의 兵籍에 속한 軍人집단이였다. 이들은 君主氏族에게 分封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배층의 일원으로 胡族君主의

197) 高敏, 「十六國時期的軍鎮制度」, 267~272쪽.

198) 高敏, 「十六國時期前秦·後秦的“護軍”制」, 『魏晉南北朝兵制研究』, 221~224쪽.

199) 朴漢濟, 「五胡赫連夏國의 도시 統萬城의 選址와 그 구조—豪族國家의 都城經營方式—」, 『東洋史學研究』 69, 2000; 高敏, 「北魏의 兵戶制及其演變」; 同氏, 「十六國時期的軍鎮制度」; 同氏, 「十六國時期前秦後秦的“護軍”制」; 牟發松, 「十六國時期地方行政機構의 軍鎮化」, 太原: 『晉陽學刊』 1985-6(K22 1985-12), 1985.

200)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中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3, 794쪽.

201) 『魏書』 卷113, 「官氏志」, 2975, “太安三年五月, 以諸部護軍各爲太守.”

禁衛軍이나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 신분이었다.²⁰²⁾ 그러나 北魏末에는 六鎮 등의 鎮民이나 城民은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여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²⁰³⁾

五胡諸國과 北朝時代에 軍鎮·護軍·兵戶를 두어 定住農耕民과 별도로 관리한 것은 우수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漢人으로서의 동화를 막고 胡漢갈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胡族君主의 시각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아래는 東魏의 실제적인 지배자 高歡이 鮮卑人과 華人(漢人)에게 한 말이다.

“高歡은 軍士들에게 號令할 때마다 늘 丞相屬 張華原에게 명령을 전달하게 하였다. 高歡은 鮮卑人에게 ‘漢民은 너희들의 종이다. 夫는 너희들을 위해 밭을 갈고, 婦는 너희들을 위해 길쌈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粟帛을 납부하여 너희들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들을 능멸하는냐?’라고 말하였다. 그는 夏人(漢人)에게 ‘鮮卑人은 너희들의 객이다. 一斛의 粟과 一匹의 絹을 얻어 너희를 위하여 적을 격퇴시켜 주어 너희들을 편안하게 지켜준다. 너희들을 왜 그들을 질시하는냐?’라고 말하였다.²⁰⁴⁾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高歡으로 대표되는 胡族君主는 군인의 추족인 胡人和 생

202) 谷川道雄, 「慕容國家における君權と部族制」; 同氏, 「北魏末の内亂と城民」(이상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1971에 수록); 陳寅恪, 「六鎮問題(附魏齊之兵)」,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北京: 黃山書社, 1987; 辛聖坤, 「北朝 兵戶制의 變遷과 丁兵制의 性格」, 『慶尙史學』 11, 1995; 朱大渭, 「北魏末軍戶制的衰落」, 『六朝史論』, 北京: 中華書局, 1997; 高敏, 「試論十六國時期的兵戶制及其特徵」; 同氏, 「北魏的兵戶制及其演變」(이상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1999에 수록).

203) 楊耀坤, 「北魏末年北鎮暴動分析」, 『歷史研究』 1978-11, 1978; 陳寅恪, 「六鎮問題(附魏齊之兵)」,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北京: 黃山書社, 1987; 李則芬, 「北魏의 六鎮」, 『中國歷史論文集(上)』(從先秦到南北朝), 黎明出版, 1998; 姚波, 「六鎮問題與北魏的滅亡」, 『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0-11, 2010; 唐長孺, 「試論魏末北鎮鎮民暴動的性質」, 『山居存稿』, 北京: 中華書局, 2011; 薛海波, 「北魏末年鎮民暴動新探-以六鎮豪強酋帥爲中心-」, 『文史哲』 2011-2(總第323期), 2011; 孔毅, 「地域社會視野下的北魏“六鎮反亂”」,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編,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第十屆年會暨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12.

204) 『資治通鑑』卷157 梁紀 武帝大同三年九月條, 4882쪽, “歡每號令軍士, 常令丞相屬代那張華原宣旨, 其語鮮卑則曰: 「漢民是汝奴, 夫爲汝耕, 婦爲汝織, 輸汝粟帛, 令汝溫飽, 汝何爲陵之?」其語夏人則曰: 「鮮卑是汝作客. 得汝一斛粟·一匹絹, 爲汝擊賊, 令汝安寧, 汝何爲疾之?」

신활동에 종사하는 漢人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분리통치하였다. 그래서 胡人과 漢人이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것이 胡漢分治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이러한 胡漢分治 정책을 유지하는 한 漢人官僚들이 제안하거나 입안한 중국식 제도의 도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北魏의 역사를 기록한 『魏書』를 通覽하면 北魏의 胡族君主가 ‘漢化된 중국의 皇帝’로 묘사되었고, 北魏는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세기말에 새로 발견되거나 발굴된 石刻史料 덕분에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米文平이 1980년 內蒙古自治區 呼倫貝爾盟 鄂倫春自治旗에서 발견한 北魏 太武帝시대의 憂仙洞石刻文에서²⁰⁵⁾ 北魏에서 可寒·可敦의 칭호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²⁰⁶⁾ 『魏書』卷108之1 「禮志」는 同刻文을 수록하였지만, 이 칭호를 포함한 末尾의 문장을 삭제하였다. 이는 魏收가 鮮卑의 習俗을 野卑하다는 이유로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²⁰⁷⁾ 또 南朝系 史書와 「文成帝南巡碑」에 보이는 ‘直勤’은 투르크계 유목국가의 君主氏族 남성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다.²⁰⁸⁾ 可汗·可敦·直勤의 칭호를 보면 北魏前期에 유목국가의 정치적 전통이 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⁹⁾

1995년에 공간된 「文成帝南巡碑」에는 위에서 서술한 直勤 이외에도 內阿干·內行令·內三郎·折紇眞·賀渾吐略渥·斛洛眞·羽眞²¹⁰⁾ 등 胡族系(鮮卑系) 관명이 기록되었다.²¹¹⁾ 또

205) 米文平, 『鮮卑史研究』, 開封: 中州古籍出版社, 1994.

206) 朴漢濟,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서울: 一潮閣, 1988, 170~182쪽; 崔珍烈, 「北魏前期 胡語 사용 현상과 그 배경」, 『동아시아문화연구』(『韓國學論集』改題) 46, 2009, 214쪽.

207) 紀游, 「一個千古求索的重要史迹—記大興安嶺北段的拓跋鮮卑石室」, 『文史知識』 1982-7, 1982.

208) Boodberg, Peter A., “The Language of the T'o-Pa Wei”,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 No. 2, 1936; 羅新, 「北魏直勤考」, 『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原載 『歷史研究』 2004-5, 2004).

209) 崔珍烈, 「北魏前期 胡語 사용 현상과 그 배경」, 214쪽.

210) 이상 山西省考古研究所·靈丘縣文物局, 「山西靈丘北魏文成帝《南巡碑》」, 72右~78左쪽 참조.

211) 張慶捷, 「北魏文成帝《南巡碑》碑文考證」, 『考古』 1998-4, 1998, 83右-86左쪽; 張慶捷·郭春梅, 「北魏文成帝《南巡碑》所見拓跋職官初探」, 『中國史研究』 1999-2(K 22 1999-5), 29~41쪽; 張金龍, 「北魏文成帝《南巡碑》所見禁衛武官制度」, 『魏晉南北朝禁衛武官制度研究』, 中華書局, 2004, 713~745쪽; 川本芳昭, 「北魏文成帝南巡碑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8, 2000, 25~49쪽; 松下憲一, 「北魏石刻史料に見える内朝官「北魏文成帝南巡碑」の分析を中心に」, 『北魏胡族體制論』, 札幌: 北海道大學

羊眞·比德眞처럼 『南齊書』 『魏虜傳』에 보이는 “○○眞”은 몽골의 다루가치 등 “○○赤”과 동일한 것임이 지적되었다.²¹²⁾ 필자는 「文成帝南巡碑」와 『南齊書』 『魏虜傳』의 기록을 토대로 契丹(遼)와 몽골의 케식처럼 北魏前期 皇帝의 친위부대인 近侍官이 정치와 군사의 핵심 집단임을 논증하였다. 이 또한 유목국가의 정치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²¹³⁾ 이밖에도 『魏書』에 표기된 중국식 1字 이름과는 달리 「文成帝南巡碑」와 「弔比干墓文」에는 2字 이상의 胡語 이름이 산견된다. 이는 적어도 孝文帝의 胡語금지 이전에 胡語와 胡語 이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²¹⁴⁾

川本芳昭는 「文成帝南巡碑」의 胡語사용과 胡族的 官制에 대해 異民族支配를 연상시키는 기술을 배제할 목적으로 魏收가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²¹⁵⁾ 松下憲一은 각종 石刻·文書史料를 수집하여 東魏·西魏초까지도 ‘大代’라는 국호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魏書』에는 국호 ‘代’의 용례가 없음을 밝혀 魏收가 고의로 배제했다고 보았다.²¹⁶⁾ 佐川英治는 『魏書』 均田制가 北齊정권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음을 지적하였고,²¹⁷⁾ 『魏書』가 胡俗의 흔적을 없애고 孝文帝의 漢化政策을 부각시킨 것은 魏齊革命 당시 北齊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¹⁸⁾

요컨대 五胡諸國과 北朝에서 漢人官僚들이 체제정비와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北魏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식 제도는 胡漢分治와 유목국가의 정치적 전통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도 기억해야 한다.

出版會, 2007, 57~74쪽.

212) Boodberg, Peter A., “The Language of the T'o-Pa Wei”,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 No. 2, 1936.

213) 崔珍烈, 「北魏前期 近侍官의 性格-「文成帝南巡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8, 2007, 45~53쪽.

214) 崔珍烈,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89~395쪽.

215) 川本芳昭, 「魏晉南北朝時代における民族問題研究についての展望」, 『中國の歴史世界-統合のシステムと多元的發展-』, 東京: 東京道立大學出版會, 2002.

216) 松下憲一, 「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 『史學雜誌』 113-6, 2004 『北魏胡族體制論』, 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 2007에 수록).

217) 佐川英治, 「三長·均田兩制の成立過程-『魏書』の批判的檢討をつうじて-」, 『東方學』 97, 1999; 佐川英治, 「『魏書』의 均田制敍述をめぐり一考察」, 『大阪市立大學東洋史論叢』 11, 2000.

218) 佐川英治, 「東魏北齊革命と『魏書』の編纂」, 『東洋史研究』 64-1, 2005.

3. 元恂과 穆泰의 난: 孝文帝의 ‘漢化政策’에 대한 반발

北魏 孝文帝는 洛陽遷都와 ‘漢化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皇太子 元恂과 반란을 일으킨 穆泰·陸麗는 孝文帝의 漢化政策에 반대하였고 난을 일으켰다. 원로대신 元丕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 이 세 사람이 孝文帝의 漢化政策에 반발한 양상을 살펴보자.

孝文帝의 장남 元恂은 字가 元道이다. 태어나서 生母가 죽어 馮太后가 양육하였다.²¹⁹⁾ 孝文帝는 太和 17년(493) 六月 皇子 元恂을 皇太子로 삼았다.²²⁰⁾ 孝文帝는 巡幸과 親征으로 洛陽을 비울 때 元恂에게 洛陽의 留守와 각종 廟祀의 주재를 맡겼다.²²¹⁾ 그러나 皇太子 元恂은 아버지 孝文帝가 洛陽에 없는 사이에 平城으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資治通鑑』卷140 明帝建武三年(496)八月條에서는

“(一) 魏의 太子 恂이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몸이 본래 비대하였고 河南의 地熱을 [견디지 못하여] 늘 북쪽의 [平城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였다. (二) 魏主[孝文帝]는 太子 恂에게 衣冠을 하사하였지만, 恂은 늘 개인적으로 胡服을 착용하였다. (三) 中庶子인 遼東 출신 高道悅은 자주 간절히 간언하였지만 元恂은 그를 싫어하였다. 八月 戊戌日에 孝文帝는 嵩高에 행차하였는데, 元恂과 左右의 측근들이 몰래 모의하여 牧馬를 불러 輕騎로 平城으로 달아나려고 하였고 몸소 高道悅을 禁中에서 찢러 죽였다. 中領軍 元儼은 門을 닫아 [元恂의 탈출을] 막으니 사람들은 밤에야 안정되었다. 아침 일찍 尙書 陸琇는 말을 달려 孝文帝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고 孝文帝는 크게 놀라며 그 일을 비밀에 붙이고 汴口에 이르러 돌아왔다. [孝文帝는] 甲寅日에 入宮하여 元恂을 만나보고 그 죄를 캐물었으며 친히 咸陽王 元禧와 교대로 元恂을 杖으로 백여 대를 때린 후에 밖으로 끌어내어 城의 서쪽에 가두니 [元恂은] 한 달여 후에야 능히 일어날 수 있었다.”²²²⁾

219) 『北史』卷19「孝文六王·廢太子恂傳」, 713쪽, “廢太子庶人恂, 字元道. 生而母死, 文明太后撫視之, 常置左右.”

220) 『魏書』卷7下「高祖紀」太和十七年(493)六月條, 172쪽.

221) 『北史』卷19「孝文六王·廢太子恂傳」, 713쪽, “後帝每歲征幸, 恂常留守, 主執廟祀.”

222) 『資治通鑑』卷140「齊紀」明帝建武三年(496)八月條, 4400쪽, “魏太子恂不好學; 體素肥大, 苦河南地

라고 하였다. 위의 인용문 (ㄱ)과 (ㄷ)은 『魏書』「廢太子恂傳」²²³⁾과 거의 비슷하며, (ㄴ) 부분은 『南齊書』「魏虜傳」의 기록²²⁴⁾과 유사하다. 司馬光의 『資治通鑑』이 역대 正史를 편년체로 재구성한 역사책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료비판을 통해 기사를 취사선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²⁵⁾ 따라서 위의 『資治通鑑』 인용문은 司馬光과 그의 조수들이 『魏書』「廢太子恂傳」과 『南齊書』「魏虜傳」에서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한 기록들을 절충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중국학자는 『資治通鑑』과 『南齊書』「魏虜傳」의 기록을 바탕으로 孝文幽皇后 馮氏와 太子 元恂이 정치적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북방 유목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辮髮과 胡服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元恂은 漢化政策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다고 주장하였다.²²⁶⁾ 이에 대해 孝文幽皇后 馮氏와 太子 元恂의 정치적 대립은 『魏書』에서 검증할 수 없다는 비판이

熱，當思北歸。魏主賜之衣冠，恂常私著胡服。中庶子遼東高道悅數切諫，[元恂惡之。八月，戊戌，帝如嵩高，[元恂與左右密謀，召牧馬，輕騎奔平城，手刃道悅於禁中。中領軍元儼勒門防遏，人夜乃定。詰旦，尚書陸琇馳以啓帝，帝大駭，祕其事，仍至汴口而還。甲寅，入宮，引見[元恂，數其罪，親與咸陽王禧更代杖之百餘下，扶曳出外，囚於城西，月餘乃能起。”

223) 『魏書』卷22「廢太子恂傳」: 588~589쪽, “[元恂不好書學，體貌肥大，深忌河洛暑熱，意每追樂北方。中庶子高道悅數苦言致諫，[元恂甚銜之。高祖幸崧岳，[元恂留守金墉，於西掖門內與左右謀，欲召牧馬輕騎奔代，手刃[高道悅於禁中。領軍元儼勒門防遏，夜得寧靜。厥明，尚書陸琇馳啓高祖於南，高祖聞之駭惋，外寢其事，仍至汴口而還。引[元恂數罪，與咸陽王[元禧等親杖[元恂，又令[元禧等更代，百餘下，扶曳出外，不起者月餘。拘於城西別館。引見羣臣於清徽堂，議廢之。司空·太子太傅穆亮，尚書僕射·少保李冲，並免冠稽首而謝。高祖曰：‘卿所謝者私也，我所議者國也。古人有言，大義滅親。今[元恂欲違父背尊，跨據恒朔。天下未有無父國，何其包藏，心與身俱。此小兒今日不滅，乃是國家之大禍，脫待我無後，恐有永嘉之亂。’乃廢爲庶人，置之河陽，以兵守之，服食所供，粗免飢寒而已。[元恂在困躓，頗知咎悔，恒讀佛經，禮拜歸心於善。…高祖幸代，遂如長安。中尉李彪承間密表，告[元恂復與左右謀逆。高祖在長安，使中書侍郎邢巒與咸陽王禧，奉詔齎椒酒詣河陽，賜[元恂死，時年十五。殮以粗棺常服，瘞於河陽城。”

224) 『南齊書』卷57「魏虜傳」, 996쪽, “宏初徙都，詢意不樂，思歸桑乾。宏制衣冠與之，詢竊毀裂，解髮爲編服左衽。大馮有寵，日夜讒元詢。[元宏出鄴城馬射，[元詢因是欲叛北歸，密選宮中御馬三千疋置河陰渚。皇后聞之，召執[元詢，馳使告[元宏，[元宏徙[元詢無鼻城，在河橋北二里，尋殺之，以庶人禮葬。”

225) 高國抗 지음, 오상훈·이개석·조병한 옮김, 『중국사학사』(下), 풀빛, 1998, 75~79쪽.

226) 高敏, 『南齊書·魏虜傳』書後, 『魏晉南北朝史發微』, 北京: 中華書局, 2005, 286~288쪽; 孫同勛, 『孝文帝的遷都與漢化』, 『拓跋氏的漢化及其他-北魏史論文集-』, 臺北: 稻鄉出版社, 2005, 130쪽.

제기된다.²²⁷⁾ 그러나 孝文帝는 元恂이 平城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은 漢化政策의 계승자가 되어야 할 皇太子 元恂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孝文帝는 咸陽王 元禧와 함께 교대로 아들 元恂에게 손수 매질을 했다.

다음으로 穆泰와 陸叡이다. 穆泰는 北魏皇室의 부마를 십여 인 배출한 穆崇의 후손이었다. 그 역시 章武長公主와 결혼하였다.²²⁸⁾ 이후 평탄한 벼슬길을 밟았던 穆泰는 尙書右僕射로 재직할 당시 馮太后가 孝文帝를 廢하고 咸陽王 元禧를 세우려고 하자 太尉 東陽王 元丕, 尙書 李冲과 함께 반대하여 孝文帝를 지켜냈다.²²⁹⁾ 陸叡는 文成帝를 옹립했던 陸麗²³⁰⁾의 아들이었다. 陸叡는 10여세에 아버지의 작위인 撫軍大將軍 平原王을 세습하였다.²³¹⁾ 이처럼 穆泰와 陸叡는 勳臣八姓에 속하는 胡人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벼슬길도 순탄하였다. 그런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魏書』「穆泰傳」에서는 “穆泰는 遷都를 원하지 않았다.”²³²⁾라고 하여 洛陽遷都에 대한 반발이 난의 원인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南齊書』「魏虜傳」에서는

“伏鹿狐賀鹿渾陸叡은 宏이 中國人을 임용하는 것을 비난하며 定州刺史 馮翊公 目隣穆泰, 安樂公 托跋阿幹兒(元隆)와 함께 安壽를 옹립하고 河北에 응거할 것을 모의하였다.”²³³⁾라고 하

227) 丁福林, 『《南齊書》卷五十七《索虜傳》校議』, 『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7-3, 2007, 122쪽.

228) 『魏書』卷27「穆崇傳附泰傳」, 663쪽, “眞子泰, 本名石洛, 高祖賜名焉。以功臣子孫, 尙章武長公主, 拜駙馬都尉, 典羽獵四曹事, 賜爵馮翊侯。”

229) 『資治通鑑』卷137「齊紀3 武帝永明八年條」, 4302쪽, “初, 太后忌帝英敏, 恐不利於己, 欲廢之, 盛寒, 閉於空室, 絕其食三日; 召咸陽王禧, 將立之。太尉東陽王丕·尙書右僕射穆泰·尙書李冲固諫, 及止, 帝初無憾意, 唯深德丕等。泰, 崇之玄孫也。”

230) 『魏書』卷40「陸侯傳附麗傳」, 907쪽, “太武崩, 南安王余立, 既而爲中常侍宗愛等所殺。百僚憂惶, 莫知所立。麗以高宗世嫡之重, 民望所係, 乃首建大義, 與殿中尙書長孫渴侯·尙書源賀·羽林郎劉尼奉迎高宗於苑中, 立之。社稷獲安, 麗之謀矣。由是受心膺之任, 在朝者無出其右”

231) 『魏書』卷40「陸侯傳附叡傳」, 911쪽, “叡, 字思弼。其母張氏, 字黃龍, 本恭宗宮人, 以賜麗, 生叡。麗之亡也, 叡始十餘歲, 襲爵撫軍大將軍·平原王。”

232) 『魏書』卷27「穆崇傳附泰傳」, 663쪽, “泰不願遷都, 叡未及發而泰已至, 遂潛相扇誘, 圖爲叛。乃與叡及安樂侯元隆, 撫冥鎮將·魯郡侯元業, 驍騎將軍元超, 陽平侯賀頭, 射聲校尉元樂平, 前彭城鎮將元拔, 代郡太守元珍, 鎮北將軍·樂陵王思譽等謀推朔州刺史陽平王頤爲主。”

233) 『南齊書』卷57「魏虜傳」, 996쪽, “僞征北將軍恒州刺史鉅鹿公伏鹿狐賀鹿渾守桑乾, 宏從叔平陽王安

였다. 즉 『南齊書』 「魏虜傳」에서는 반대 이유를 中國人, 즉 漢人의 임용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資治通鑑』에서는 “孝文帝가 洛陽으로 遷都하고 친히 임명한 者들은 대개 中州의 儒士였기 때문에, 宗室과 代人이 왕왕 좋아하지 않았다.”²³⁴⁾

라고 하여 孝文帝가 洛陽遷都 이후 中州 儒士를 임용하여 宗室과 代人이 불만을 가졌다고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穆泰와 陸叡 등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가진 것이다. 『資治通鑑』이 『南齊書』 「魏虜傳」의 자료와 다른 점은 陸叡의 건의로 반란을 늦추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체로 『資治通鑑』은 穆泰의 난 원인에 한정하면, 『南齊書』 「魏虜傳」의 견해를 따랐다.

앞에서 穆泰와 陸叡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검토하였다. 『魏書』에서는 洛陽遷都, 『南齊書』와 『資治通鑑』은 漢人官僚의 등용을 반란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후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모든 胡人들(宗室과 代人)이 불만을 가졌고 孝文帝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穆泰와 陸叡 등으로부터 우두머리로 추대된 元頤(元安壽)는 오히려 이 사실을 孝文帝에게 알려져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는데 기여하였다.²³⁵⁾ 반면 南安王 元楨은 穆泰의 난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아 사후에 封國과 爵位를 빼앗겼다.²³⁶⁾ 위의 『北史』 「元丕傳」에서 살펴본 것처럼 元丕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아들들만 가담하였다.²³⁷⁾ 孝文帝의 입장에서 보면 北魏 皇室(宗室)과 穆氏·陸氏 등 유력한 胡人 가문이 가담한 穆泰의 난은 洛陽遷都和 漢化政策뿐만 아니라 자신도 몰락할 수 있는 위기였다. 穆泰의 난에 참가

壽戍懷柵, 在桑乾西北. 渾非宏任用中國人, 與僞定州刺史馮翊公目鄰·安樂托跋阿幹兒謀立安壽, 分據河北.”

234) 『資治通鑑』卷140 「齊紀」6 明帝三年條, 4402쪽, “初, 魏文明太后欲廢魏主, 穆泰切諫而止, 由是有寵. 及帝南遷洛陽, 所親任者多中州儒士, 宗室及代人往往不樂. 泰自尙書右僕射出爲定州刺史, 自陳久病, 土溫則甚, 乞爲恆州; 帝爲之徙恆州刺史陸叡爲定州, 以泰代之. 泰至, 叡未發, 遂相與謀作亂, 陰結鎮北大將軍樂陸王思譽·安樂侯隆·撫冥鎮將魯郡侯業·驍騎將軍超等, 共推朔州刺史陽平王頤爲主. 思譽, 天賜之子; 業, 丕之弟; 隆·超, 皆丕之子也. 叡以爲洛陽沐明, 勸泰緩之, 泰由是未發.”

235) 『北史』卷17 「景穆十二王上·陽平王新成傳附安壽傳」, 630쪽, “及恒州刺史穆泰謀反, 遣使推頤爲主, 頤密以狀聞, 泰等伏誅, 帝甚嘉之.”

236) 『魏書』卷19下 「景穆十二王·南安王楨傳」, 495쪽, “及恒州刺史穆泰謀反, 楨知而不告, 雖薨, 猶追奪爵封, 國除.”; 『北史』卷18 「景穆十二王下·南安王楨傳」, 668쪽, “及恒州刺史穆泰謀反, 楨知而不告, 雖薨, 猶追奪爵封, 國除.”

237) 『北史』卷15 「魏諸宗室·武衛將軍謂傳附丕傳」, 556쪽.

한 사람은 「元澄傳」에 따르면 백여 인이었고, 「于烈傳」에 따르면 代都舊族 同惡者는 많았다고 한다. 대다수의 胡人支配層이 반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穆泰의 난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았다면 孝文帝의 洛陽遷都和 漢化는 중지되었으며 국가의 분열과 멸망이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²³⁸⁾

皇太子 元恂, 穆泰·陸叡와 달리 元丕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孝文帝의 ‘漢化政策’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 당시 洛陽遷都에 찬성한 사람은 李冲, 李韶, 任城王 元澄, 常山王 元遵, 南安王 元楨 등이었다. 廣陵王 元羽와 于烈的 열전을 보면²³⁹⁾ 당시 遷都에 반대한 舊人은 절반이었다.²⁴⁰⁾ 반대한 사람들 가운데 穆泰의 난에 가담하지 않은 온건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元丕였다. 元丕는 烈帝 第四子인 武衛將軍 元謂의 후손이었다. 孝文帝가 洛陽遷都를 위해 협박용으로 南伐을 추진할 때 廣陵王 元羽와 함께 平城의 留守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²⁴¹⁾ 穆羆·元羽·元靑龍·呂受恩와 함께 元丕도 孝文帝의 洛陽遷都 계획에 반대하였지만,²⁴²⁾ 孝文帝는 임시로 平城으로 와서 六鎮 일대를 北巡할 때 元丕에게 平城을

238) 孫同勛, 「孝文帝的遷都與漢化」, 130쪽.

239) 「魏書」卷21上 「獻文六王·廣陵王羽傳」, 546쪽, “遷都議定, 詔羽兼太尉, 告于廟社. 遷京之後, 北蕃人夷多有未悟. 羽鎮撫代京, 內外肅然, 高祖嘉之.”; 「魏書」卷31 「于栗磾傳附烈傳」, 738쪽, “及遷洛陽, 人情戀本, 多有異議, 高祖問烈曰: ‘卿意云何?’ 烈曰: ‘陛下聖略淵遠, 非愚管所測. 若隱心而言, 樂遷之與戀舊, 唯中半耳.’ 高祖曰: ‘卿既不唱異, 即是同, 深感不言之益. 宜且還舊都, 以鎮代邑.’ 敕留臺庶政, 一相參委.”

240) 孫同勛, 「孝文帝的遷都與漢化」, 102~103쪽.

241) 「北史」卷15 「魏諸宗室·武衛將軍謂傳附丕傳」, 554쪽, “及車駕南伐, 丕與廣陵王羽留守京師, 並加使持節. 詔丕·羽曰: ‘留守非賢莫可. 太尉年尊德重, 位總阿衡. 羽, 朕之懿弟, 溫柔明斷. 故使二人留守京邑, 授以二節, 賞罰在手. 其祇允成憲, 以稱朕心.’ 丕對曰: ‘謹以死奉詔.’ 羽對曰: ‘太尉宜專節度, 臣但可副貳而已.’ 帝曰: ‘老者之智, 少者之決, 汝何得辭也?’

242) 「北史」卷15 「魏諸宗室·武衛將軍謂傳附丕傳」, 554~555쪽, “及帝還代, 丕請作歌, 詔許之. 歌訖, 帝曰: ‘公傾朕還車, 故親歌述志. 今經構已有次第, 故暫還舊京, 願後時亦同茲適.’ 乃詔丕等以移都之事, 使各陳志. 燕州刺史穆羆進曰: ‘今四方未平, 謂可不移. 臣聞黃帝都涿鹿, 古昔聖王不必悉居中原.’ 帝曰: ‘黃帝以天下未定, 故居于涿鹿. 既定, 亦遷于河南.’ 廣陵王羽曰: ‘臣思奉神規, 光崇丕業, 請決之卜筮.’ 帝曰: ‘昔軒轅請卜兆, 龜焦, 乃問天老, 謂爲善, 遂從其言, 終致昌吉. 然則至人之量未然, 審於龜矣.’ 帝又詔羣臣曰: ‘昔平文皇帝棄背, 昭成營居盛樂. 道武神武應天, 遷居平城. 朕幸屬勝殘之運, 故移宅中原. 北人比及十年, 使其徐移. 朕自多積倉儲, 不令窘乏.’ 前懷州刺史靑龍·前秦州刺史呂受恩等仍守愚固, 帝皆撫而答之, 辭屈, 退.”

留守하도록 하였다.²⁴³⁾ 그만큼 孝文帝는 원로대신인 元조를 신임하였지만, 元조는 洛陽遷都를 비롯한 계속된 漢化政策에 반대하였다. 『北史』 「元조傳」의 기록을 살펴보자.

“元조는 本風을 좋아하였지만 新式에 통달하지 못하였다. 變俗과 遷洛에 이르러 官制를 바꾸고 복식을 制定하였으며 舊言을 禁絶한 정책은 모두 元조가 원하지 않았다. 孝文帝는 또 元조에게 강요하지 못하고 大理로써 誘示하였고 그에게 同異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衣冕이 이미 실행되어 신하들이 朱服을 입고 늘어져 서있을 때 元조는 여전히 常服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늦게야 弁帶를 덧붙였지만 容儀를 修飾할 수 없었다. 孝文帝는 元조가 나이가 들고 體重하여 또한 강제로 질책하지 않았다.”²⁴⁴⁾

위의 인용문을 보면 元조는 官制 개정과 胡服 금지, 복식의 제정, 胡語의 금지 등 孝文帝의 정책, 특히 漢化政策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胡服의 금지와 중국식 복식을 착용하도록 명령한 다음에도 常服을 입고 조회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常服이 무엇이길래 孝文帝가 질책하려고 했을까? 아래에서 『資治通鑑』 卷141 「齊紀」7 明帝建武四年(497)二月條 기사를 살펴보자.

“예전에 魏主[孝文帝]는 [洛陽으로] 遷都한 후 舊俗을 變易하였다. 그러나 并州刺史 新興公 元조는 모두 좋아하지 않았다. 帝는 그가 宗室의 耆舊였기 때문에 또한 강제하지 못하였고 다만 大理로 誘示하였으며, 그에게 同異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다. 朝臣이 모두 衣冠을 바꾸어 朱衣를 입고 앉았지만 [新興公] 元조만이 홀로 胡服을 입고 그 사이에 있었다. 늦게 점차 冠帶를 추가로 착용했지만, 容儀를 脩飾하려고 하지 않았다. 帝 또한 강요하지 못하였다.”²⁴⁵⁾

243) 『北史』 卷15 「魏諸宗室·武衛將軍謂傳附丕傳」, 555쪽, “帝又將北巡, 丕遷太傅·錄尚書事, 頻表固讓, 詔斷表啓, 就家拜授. 及車駕發代, 丕留守, 詔在代之事, 一委太傅, 賜上所乘車馬, 往來府省.”

244) 『北史』 卷15 「魏諸宗室·武衛將軍謂傳附丕傳」, 555쪽, “丕雅愛本風, 不達新式, 至於變俗遷洛, 改官制服, 禁絶舊言, 皆所不願. 帝亦不逼之, 但誘示大理, 令其不生同異. 至於衣冕已行, 朱服列位, 而不猶常服, 列在坐隅. 晚乃稍加弁帶, 而不能修飾容儀. 帝以丕年衰體重, 亦不强責.”

245) 『資治通鑑』 卷141 「齊紀」7 明帝建武四年(497)二月條, 4408쪽, “初, 魏主遷都, 變易舊俗, 并州刺史新興公丕皆所不樂; 帝以其宗室耆舊, 亦不之逼, 但誘示大理, 令其不生同異而已. 及朝臣皆變衣冠, 朱

위의 인용문을 『北史』 「元丕傳」의 인용문과 비교하면 常服은 胡服에 대응되므로 胡服을 가리키는 단어였음을 알 수 있다. 『北史』 「元丕傳」과 『資治通鑑』의 기록을 종합하면 元丕는 孝文帝의 漢化政策을 반대하였고 朝會에서 胡服을 착용하여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胡語 금지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漢語 대신 胡語를 사용했을 것이다.²⁴⁶⁾ 이처럼 元丕는 胡語와 胡服 금지에 반대하였지만 이미 死刑을 면제받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孝文帝는 처벌할 수 없었다. 孝文帝의 입장에서 원로대신인 元丕가 아마도 胡語를 사용하며 노골적으로 胡服을 입는 것은 자신의 漢化政策을 반대함을 공공연하게 천명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이 컸을 것이다. 두 인용문의 후반부를 보면 元丕는 이를 의식하여 아마도 漢式인 冠帶를 착용하여 孝文帝의 체면을 살려주었지만 胡飾의 容儀를 여전히 유지하였다. 元丕는 아들 元隆·元超 형제가 穆泰·陸叡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하여 살해되자 연좌되어 사형되어야 했으나 원로대신이라는 이유로 庶民으로 강등되었고 太原에서 노후를 보냈다.²⁴⁷⁾

皇太子 元恂과 穆泰·陸叡, 元丕는 공통적으로 漢化政策에 반대하였다.²⁴⁸⁾ 洛陽을 떠난 皇太子 元恂과 반란을 일으킨 수백 명의 胡人支配層은 사형에 처해지고, 노골적으로 漢化政策을 반대한 元丕는 정계에서 쫓겨났다. 이 점만 보면 孝文帝는 漢化政策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孝文帝였지만 여전히 많은 胡인들이 자신의 정책을 반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胡人들 중 일부에게 겨울에 남쪽의 洛陽에서 체류하고 여름에 북쪽에 있는 자신의 部落에 돌아가서 사는 두 집 살림을 허용

衣滿坐, 而丕獨胡服於其間, 晚乃稍加冠帶, 而不能脩飾容儀, 帝亦不强也.”; 『魏書』卷14 「神元平文諸帝子孫·東陽王丕傳」, 360쪽.

246) 崔珍烈, 「北魏後期 胡語사용 현상과 그 배경」, 『中國古中世史研究』23, 2010, 205~206쪽

247) 『北史』卷15 「魏諸宗室·武衛將軍謂傳附丕傳」, 556쪽, “元丕父子大意不樂遷洛. 帝之發平城, 太子元恂留於舊京. 及將還洛, 元隆與穆泰等密謀留恂, 因舉兵據陞北. 元丕時以老居并州, 雖不預始計, 而元隆·元超咸以告元丕. 元丕外慮不成, 口乃致難, 心頗然之. 及帝幸平城, 推穆泰等首謀, 元隆兄弟並是黨. 元丕亦隨駕至平城, 每於測問, 令元丕坐觀. 與元業等兄弟並以謀逆, 有司奏處拏戮. 詔以丕應連坐, 但以先許不死之詔, 躬非染逆之身, 聽免死, 仍爲太原百姓, 其後妻二子聽隨. 元隆·元超母弟及餘庶兄弟皆徙敦煌.”

248) 孫同勛, 「孝文帝的遷都與漢化」, 130쪽.

하였다.²⁴⁹⁾ 이러한 胡人을 雁臣이라 한다.²⁵⁰⁾ 이는 궁여지책의 타협책이었다.

V. 맺음말

본문에서는 유목국가와 중국내 이민족 왕조의 통치체제의 정비와 운영에 정주농경민이 활동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유목국가와 五胡諸國·北朝, 契丹, 몽골에서 활동한 定住·農耕민의 활동 분야는 나라마다 달랐다.

표 1 유목국가·五胡諸國·北朝·征服王朝의 定住·農耕민 역할 비교

	지배지역	통치체제	등용된 定住·農耕민	역할(활동분야)
유목국가	유라시아 초원지대	부족연합체	소그드인 등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정주민	외교·통상·교역·재정
			漢人	외교·문서행정·농경
五胡諸國·北魏 ·西魏北周	華北과 내몽골 일부 지역	胡漢分治 (兵戶·軍鎮·護軍)	漢人	중국식 제도 · 의례 도입 및 제정
北齊	華北과 내몽골 일부 지역	胡漢分治?	漢人	중국식 제도 · 의례 도입 및 제정
			西域人	皇帝의 寵臣. 皇帝에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줌.
契丹(遼)	내몽골과 華北의 일부 지역	二重體制(北面·南面)	漢人	중국식 제도 · 의례 도입 및 제정
몽골제국(元)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정주지역	千戶制·정주지역 제도 병용	色目人 (위구르인·무슬림)	재정, 문서행정
			漢人, 漢化된 契丹人·女真人	중국식 제도(官制·의례), 大都 건설

249) 『魏書』卷15「常山王遵傳附暉傳」, 378~379쪽, “初, 高祖遷洛, 而在位舊貴皆難於移徙, 時欲和合衆情, 遂許冬則居南, 夏便居北.”

250) 『洛陽伽藍記』(范祥雍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9) 卷3「城南」龍華寺條, 160쪽, “北夷酋長遣子入侍者, 常秋來春去, 避中國之熱, 時人謂之雁臣.”

匈奴·突厥·위구르·몽골(明清時代) 등 유목국가는 漢人보다도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定住農耕民, 그 가운데 소그드인들을 중용하였다. 유목국가는 이들을 통해 정주적 요소를 받아들였지만 국가의 제도나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대신 특히 소그드인들은 중국과 유목국가(突厥·위구르), 서아시아, 비잔티움을 잇는 동서교역에 유목국가 대신 종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고 유목국가의 지배층과 나누었다. 그리고 유목민들에게 종교(마니교)와 문자(소그드문자) 등을 전파하였다.

五胡諸國·北朝에 出仕한 漢人官僚들은 胡族君主를 섬기며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五胡諸國과 北朝는 이민족과 漢人을 戶籍이나 지방행정조직에서 분리하여 통치하는 胡漢分治정책을 취했다. 그리고 北魏처럼 유목국가에서 유래하는 官制나 의례를 여전히 유지하였다. 五胡諸國과 北朝는 유목국가와 비교하면 漢人官僚의 정치적·제도적 영향력이 컸고 소그드인 등 중앙아시아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征服王朝인 契丹(遼)은 韓延徽·韓知古 등 漢人官僚의 도움을 받아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五胡諸國·北朝의 胡漢分治처럼 유목민과 漢人을 나누어 통치하는 北面·南面이라는 二重體制를 유지하였다.²⁵¹⁾ 이는 契丹의 지배층이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인데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몽골제국에서는 위구르인과 무슬림 등 소위 色目人이 관리, 특히 재무관료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몽골제국에는 漢화된 契丹人인 耶律楚材와 女真人 粘舍重山, 姚樞·許衡·劉秉忠 등 漢人관료들이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힘썼지만,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五胡諸國과 北朝, 征服王朝(遼·金·元·淸)가 漢人官僚를 등용하고 중국의 제도를 일부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학자들은 塞外의 유목국가나 중국에 들어온 이민족 왕조, 즉 五胡諸國·北朝, 征服王朝, 소그드인들이 漢化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²⁵²⁾ 이는 소수민족을 漢族으로 동화시키려는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을 반영한다.

突厥·위구르·몽골제국의 지배층은 정주적 요소를 받아들하려고 하거나 받아들인 카간

251) 文克成, 「遼朝的“胡漢分治”及其歷史意義」, 『中央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9-5, 1999.

252) 崔珍烈, 「前近代 中國의 ‘민족’과 ‘민족’문제」, 『역사와교육』 15, 2012, 87~101쪽.

(카안)에 반발하며 유목적 요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관철되었다. 반면 北魏 孝文帝의 漢化政策에 반발한 皇太子 元恂과 穆泰·陸叡는 반란을 계획했으나 실패하고 살해되었다. 이는 유목국가나 이민족왕조의 지배층 가운데 일부는 정주적 요소를 긍정하면서도 지나친 쓸림을 경계했음을 보여준다.

토론문

「유목국가·이민족왕조의 통치체제 정비·운영과 定住·農耕民의 역할」 토론문

권은주(경북대)

최진열선생님은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북조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며, 당대 고구려표기 기피현상과 고구려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셨습니다. 본 발표문은 선생님께서 유목국가에서의 정주 또는 농경민의 역할에 관한 발표를 맡으시고 준비기간에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을 정리하셔서, 북아시아 유목국가에서 한인과 서역인의 역할, 중국내 이민족왕조에서의 한인, 서역인, 색목인의 역할 및 유목국가와 이민족왕조에서의 정주문물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반발 등을 망라하셨습니다. 저는 발해를 공부하고 있어서 적당한 토론자는 아닌데요, 북방유목민족관계사를 공부하다보니 최진열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관심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 배운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발표문은 전체적으로 개설적인 정리라서 선생님만의 주장이나 논리가 적극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생님만의 시각에 대한 질문은 따로 드릴게 없는데요,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독자적인 견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유목국가에서 활동하는 한인의 활동과 중국내 이민족국가에서 활동하는 한인의 활동

을 보면 둘 다 문서행정제도 등 중국식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든 申行說(발표문 2쪽)의 경우 한 문물을 경계하며 유목적 습속을 지키도록 單于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내 이민족왕조에서 활동한 한인은 호족군주를 계몽시켜 한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양시기 한인의 활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유목적계와 중국이 분립되었을 때와 통합되었을 때의 차이인지, 그에 따라 이민족군주가 한인을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군주 자체의 한화가 필요해서인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II장-1절 한화된 호족군주와 한인참모의 이미지에 중국 남조계 사서 등 한인이 남긴 기록에서 ‘한화된 호족군주’ 이미지와 그를 계몽시키고 행정의 실무를 처리한 한인참모의 이미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읽는 느낌은 이것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신 듯한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만 하시고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정북왕조 단계로 가면 한인의 역할과 상응 또는 한인관료를 압도할 정도로 서역인, 한화된 이민족 관료들의 활동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특히 원대는 색목인을 몽골 다음의 서열에 두어 한인보다 우대하였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가 적은 몽골인이 수가 많은 중국인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사실 이민족왕조든 정북왕조든 다른 왕조들도 주체민족이 소수였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수인 중국인을 경계하기 위한 이러한 설명에는 좀 더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주변민족들이 오랜 세월동안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중국문물제도에 익숙해지면서 중국인이 아니어도 중앙집권적 운영에 이민족의 참여가 가능해지게 된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II-3. 정북왕조의 한인관료 · 색목인의 역할’을 살펴보시면서, 遼와 元의 사례는 언급하셨는데, 金과 淸은 빼셨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여진 · 만주족이 유목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인지요?

5. 4번과 연결되는 문제로, 유목사회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목사회라면 목축을 주경제로 하고 정주생활을 하지 않는 사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넓게는 비정주(반정주 포함)를 중심으로 목축, 수렵, 어로 중심경제를 포함하기도 하고 농경이 일부 포함된 복합사회까지 아울러 보기도 합니다. 동양사(중국사)에서는 최근 유목사회, 유목국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요?
6. 한때 정복왕조 등이 유목사회와 정주사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 호한이중체제론이 등장하여 통설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새로운 견해나 연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다종족국가인 고구려와 발해의 지방지배방식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